




PART 02

COMPANY

Passion & Concentration

P a s s i o n & C 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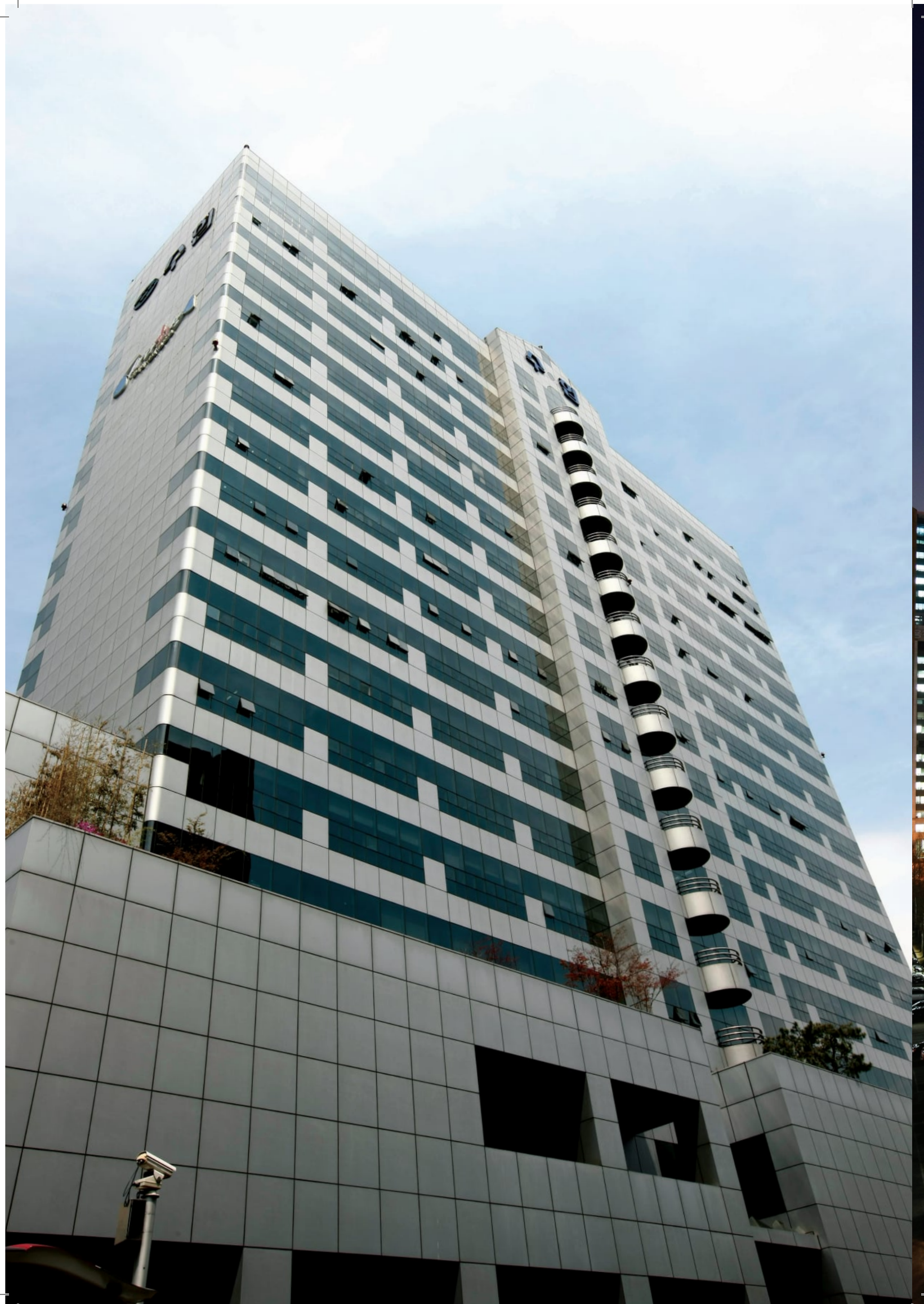


제1부 • 사업(Business)

제2부 • 회원조합사(The Member Cooperatives)

제3부 • 사회공헌활동(Contribution)

n c e n t r a t i o n







P a s s i o n



& S p i r i t

P a s s i o n



& S p i r i t





P a s s i o n



& S p i r i t

P a s s i o n



& S p i r i t





D e v o t i o n & C o



n c e n t r a t i o n

D e v o t i o n & C o



n c e n t r a t i o n





D e v o t i o n & C o



n c e n t r a t i o n

D e v o t i o n & C o



n c e n t r a t i o n



D e v o t i o n & C o



n c e n t r a t i o n





D e v o t i o n & C o



중앙회
수원

n c e n t r a t i o n

C h a l l e n g e &



l n n o v a t i o n





C h a l l e n g e &



l n n o v a t i o n

C h a l l e n g e &



l n n o v a t i o n





C h a l l e n g e &



l n n o v a t i o n



S h a r i n g



nyup Bank



& C u l t u r e

S h a r i n g



& C u l t u r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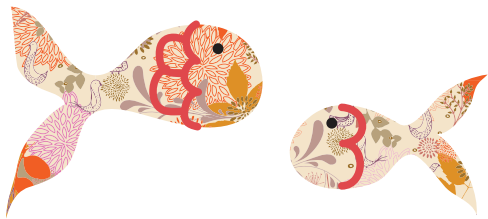


제1부 사업

Business

수협은 깨끗하고 풍성한 바다, 여류롭고 활기찬 어촌을 만들기 위해 어업인들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24시간 안전조업을 지도하는 지도사업과 수산물 공동 판매와 가격지지사업을 통해 어가경제에 기여하는 경제사업, 그리고 수산자금 조달 및 공급과 더불어 해양수산 전문은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신용사업을 전개하며 고객에게 더 큰 만족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Busi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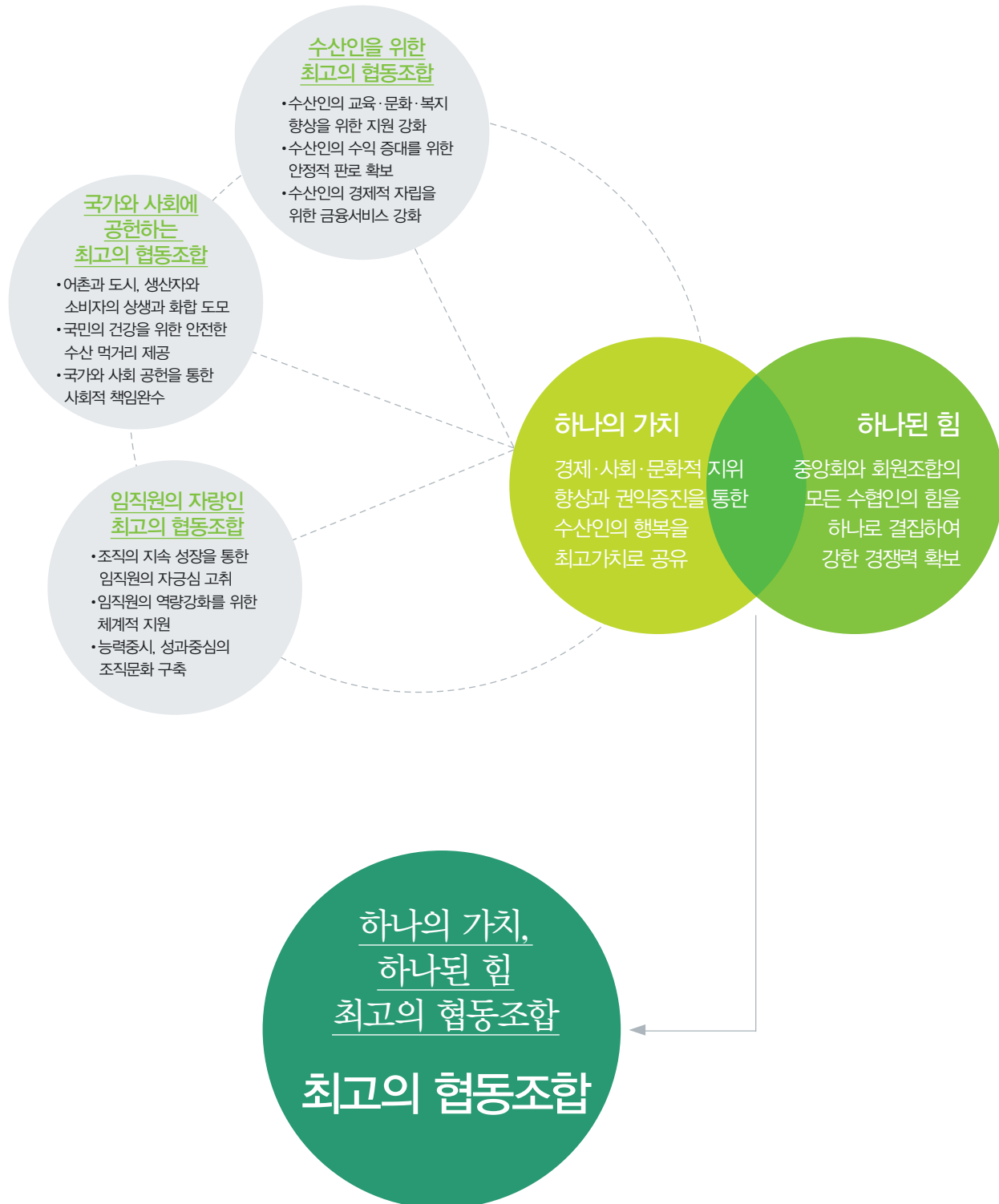


소중한 우리 바다를 지켜온
아름다운 여정의 첫걸음...

- I • 지도경제사업
- II • 신용사업
- III • 노동조합
- IV • 자회사
- V • 동우회



VISION 2021



VISION 2021 체계

Mission

수산인에게 풍요로움, 고객에게 신뢰감,
임직원에게 자긍심을 주는 수산업 중심체로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협동조합이 된다

Vision



"조합원, 고객, 임직원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

공유가치







I. 지도경제사업

이사회 기능 활성화를 통한 조직역량 극대화

이사회사무국

Vision

이사회 기능 활성화로 조직역량 극대화

업무

행정팀은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이사회 의사록 작성·보관·관리 등에 관한 사항,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한 업무집행, 이사회 부의안건 심사 및 안건 관련 정보제공, 인사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임원 및 조합감사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교육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이사회 내 위원회(또는 협의회) 운영과 조정에 관한 사항, 대표자회의 및 경영협의회 등 회장 주재 회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이사회 구성원 중요 경영정보 제공,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과 대외활동, 기타 이사회 및 이사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또한 비서실은 회장(비상임이사 포함) 의전 및 보좌, 회장 결재문서 사전검토 및 등록, 회장의 어정활동 보좌에 관한 사항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설립 첫해인 2011년 8차례의 이사회를 개최해 모두 20건에 달하는 의안을 상정, 처리하였고 현장을 찾아가는 이사회상(像)을 정립해 나가기 위해 정기 이사회와 별도로 자회사인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현대화 사업 진행을 확인하는 등 2차례 비정기적 이사회간담회를 개최했다. 또한 조합장 비상임이사 선출 후 바로 이사회구성원의 화합을 도모하고 이사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이사회구성원 전체가 참가하는 임원워크숍을 2011.4.7~4.8 이틀 동안 경남 창원 소재 경남지역사업본부에서 개최했다.

목표

이사회 기능 활성화를 통한 조직역량 극대화를 위해 수협의 대표인 이사들이 투명하고 옳은 방향으로 수협을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사회구성원 간의 화합을 통해 더 나은 수협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비서실장 · 장기태
사무국장 직무대행 · 김재완
과 장 · 민성홍, 박 웅, 이강식
사 원 · 박은영, 백금주, 송종규



I. 지도경제사업

하나의 가치, 하나된 힘, 최고의 협동조합

기획부

Vision

새로운 미래를 위한 변화와 혁신으로
협동조합 정체성 회복 및 수익사업 성장 지원

업무

기획부는 수협의 기획예산, 법무회계 등 중앙회 조직 운영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협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총괄 기획·조정 기능을 맡고 있다. 기획예산에 있어 수협 운영에 필요한 기본방침을 정하고 있으며, 사업계획과 예산의 편성 및 조정을 관할하고 있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들어오는 다양한 건의사항들을 종합관리하고 업무개선을 통하여 조직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협법, 중앙회 정관 등 제규정 관리를 통해 중앙회와 회원조합, 그리고 우리 어업인들의 경제적·사회적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수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 새로운 어장개발 사업과 같은 어업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자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다. 더불어 중앙회와 회원조합의 국세, 지방세 등 조세 업무를 담당하여 어업인의 조세 형평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회 및 정당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원활한 어정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목표

수협 50주년을 맞아 새로이 수립된 '하나의 가치, 하나된 힘, 최고의 협동조합'이란 비전을 중심으로 모든 수협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최고의 협동조합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변화와 전사적인 혁신운동을 추구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미래흐름 속에서도 중앙회와 회원조합이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며, 동시에 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정체성을 지키고 계승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부 장 · 공노성
팀 장 · 김기성, 김재섭, 오준영, 전재완
과 장 · 공윤식, 김재균, 박정순, 박지용, 배철우
백주현, 엄기선, 이상길, 정종춘, 정지영
사 원 · 강기현, 김남영, 김민정, 김영경, 류종열
문남수, 배윤국, 손영찬, 양건우, 우성범, 우현석
유정신, 이해숙, 이현정, 이흥연, 정성희, 정혜란, 조은이



Vision

새로운 50년을 이끌어갈 인재 육성 효율적 고정자산 관리를 통한 자산가치 향상

업무

총무부는 임직원을 위한 상설 휴양소, 기념일 축하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마련하여 활력소를 제공함은 물론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유지 관리와 더불어 을지연습, 직장예비군, 직장민방위 등을 구성하여 국가안보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공정하고 합당한 인사를 시행함으로써 직원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인사팀의 인사과는 직원의 승진과 전보, 휴직과 복직, 인사상담 등을, 인사제도교육과는 인사시스템 관리, 인사관리제도 개선, 지도경제사업부문의 중앙회 직원 및 회원조합 직원 교육 등을, 후생노무과는 급여와 퇴직급여, 단체보험과 퇴직보험, 임직원 건강검진과 복리후생, 사내근로복지기금, 노사협의, 4대 보험, 구내식당 운영 등 수협중앙회 임직원 복리후생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총무시설팀의 서무과는 총회, 창립기념일, 문서통제, 국정감사 및 대내외 감사장 마련, 중앙회와 회원조합 여직원 근무복 조달, 수협중앙회 법인등기 업무, 문서실과 교환실 운영을, 관재과는 시설물의 신축 및 유지관리 보수,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 계약업무 지도, 수협중앙회 고정자산·(주)수협개발과 임직원 합숙소 관리 등의 업무를, 시설과는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감독·기계설비·전기·소방, 건축물의 유지·관리, 에너지 절약, 지방청사 시설물 유지, 집기비품 및 사무용품 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안전관리실은 비상대비계획, 보안, 소방관리, 을지연습, 금융방법, 향토예비군 운영, 민방위대 운영, 본부청사 출입통제, 무기 및 장비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목표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인사관리를 통해 수협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교육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해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직원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복리후생을 강화하고, 노사협의회 운영을 통해 불필요한 노사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임직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최소화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부 장 · 김종수
팀 장 · 김용식, 우동근, 이윤화
과 장 · 강현철, 김상진, 김영생, 남정현, 박순철, 배의동, 신영식, 윤경식
임성호, 정주영, 최용배
사 원 · 강성규, 강성호, 권성수, 기동혁, 김민석, 김병수, 김영옥, 김용인, 김은하, 김재운, 김준석, 김하정, 김현민, 문영수, 박복달, 박정훈, 박현구, 봉영식, 서정오, 서지광, 성낙주, 성백능, 송민호, 송민호, 신혜조, 심효정, 엄익수, 오대영, 유재형, 윤경희, 이노담, 이예진, 이지혜, 이현웅, 이혜경, 이흥원, 전시섭, 정성기, 정익재, 조수동, 조희진, 최미경, 최선영, 최예반, 최정하, 최주일, 한세희, 한창화
연구위원 · 이규상
교 육 · 김병욱, 박중순, 박현호, 이승열, 최병호
파 견 · 이청우
휴 직 · 강병연, 김남경, 김미희, 김영주, 김은숙, 김정화, 김희정, 도재은, 백명춘, 신경란, 오향옥, 왕지희, 윤자영, 이문희, 이유정, 이윤교, 이지민, 이해원, 장현옥, 전영선, 전준희, 조한생, 주성숙, 지현주, 채윤경, 최영심, 최윤선, 최현순



I. 지도경제사업

2012년도 지도경제사업부문 신입사원

수협의 새로운 얼굴

2012년 3월,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에 지도경제사업부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30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하였다. 많은 응시자들이 지원한 가운데 필기시험과 2차리에 걸친 심층면접을 통해 30명의 재원이 선발되었다. 신입사원은 수협연수원에서 12일에 걸쳐 수협의 정체성과 수협인의 자세, 그리고 실무 등에 대해 집중적인 교육을 받았다. 수협인으로서 필수적으로 익혀야 할 협동조합론과 수협법을 비롯하여 지도사업, 경제사업, 상호금융, 공제사업 등 지도경제사업부문의 각 사업별 기초이론과 실무에 대한 수업을 들으며 수협 업무지식을 다졌다. 신입직원에게 다소 생소한 분야였지만, 각 부서의 현업 담당자가 직접 강의하며 업무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회사 선배로서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선후배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좋은 기회의 장을 마련하였다. 또한 실무이론 수업에 그치지 않고 어업정보통신국, 회원조합 및 위판장 등 수산업과 수협의 역동성을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현장교육과 함께 동료들간에 긴장을 해소하는 화합의 시간도 가졌다. 연수원 교육을 마친 신입사원들은 4월 2일, 본부에서 사령장을 수여받고 각 부서에 배치됨에 따라 자랑스러운 수협인으로서 새롭게 출발하였다. 신선한 활력과 합한 패기로 향후 50년을 이끌어갈 지도경제사업부문 새내기들의 눈부신 활약상을 기대해 본다.

2012년도 지도경제사업부문 신입사원

곽희재, 김달호, 김대식, 김승찬, 김영은, 김지선, 김지웅, 김희열, 도동희, 박경남, 박선영, 송윤영, 오유진, 유철호, 윤종철, 이재현, 이재엽, 이진환, 이창곤, 이채린, 전우정, 정인식, 정재필, 정준호, 정진아, 지영훈, 천소민, 최 설, 최승현, 홍혜리





Vision

어업인과 회원조합의 공생발전 도모

업무

회원경영지원부는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업인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회원조합 임직원의 업무 역량 확대와 회원조합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지원을 통해 협동조합의 본질적 가치실현을 위한 핵심 부서로서의 역할을 책임지고 있다. 회원지원팀은 어업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어장환경 개선사업과 수산자원 조성사업 및 어업질서 확립대책을 수립하고, 수산업 발전을 위한 차세대 수산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및 어업인 사기진작 활동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사업을 수행하며, 회원조합 임직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원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기금관리팀은 회원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조합경영개선자금 등 정부예산 추진 관련 업무,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조달·운영 및 부실조합 구조조정(합병, 계약이전 등), 경영 관리역 파견, 조합청산인 및 파산관재인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경영관리팀은 회원조합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업무지도, 경영평가 및 경영정상화 업무 추진, 부실조합 및 적기 시정조치 결정 관련 업무, 회원조합 부실 예방을 위한 경영위험평가, 관리대상 조합 경영분석, 경영이 부진한 조합 등에 대한 경영분석과 경영컨설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어촌지원단은 어업 외 소득증대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촌자매결연 사업 및 어촌체험관광 사업을 추진하고, 어촌사회 활력 창출을 위한 여성어업인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업인들의 협동의식 제고를 위한 협동운동 교육 강화와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 위탁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목표

어업인과 회원조합의 공생발전을 도모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통한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회원조합의 업무역량 강화 및 자립경영 지원을 통한 협동조합의 위상제고와 본질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 장 · 한명섭

팀 장 · 강치선, 김성훈, 양운직, 오승택, 최수용, 최종갑

과 장 · 강정용, 강진만, 권재환, 김 웅, 김길성, 김남귀

김도희, 김혜숙, 남 권, 박용규, 박종욱, 송호진, 신성진

이석재, 전대지, 최재진, 홍윤정

사 원 · 구 석, 김준범, 송상민, 송이영, 안성미, 양선미

유승완, 윤치선, 이돈엽, 이미영, 이세경, 이종인, 장익준

최종태, 황동조



I. 지도경제사업

PERFECT FINISH 1510

상호금융부

Vision

선진 상호금융 도약 발판 마련

업무

상호금융이란 경제적으로 미약한 어업인이 조합을 조직하고 조합원 스스로가 여유자금을 조합에 예치하여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어업인 간에 자금을 상호 융통하는 호혜적인 금융을 말한다. 상호금융은 예금을 수입하고 대출을 하는 등의 업무 내용이 은행금융과 유사하지만, 자주금융, 민주금융, 계통금융이라는 특성과 상호금융자금의 조달 및 운용금리가 은행금융의 금리보다 높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00년대 들어와 회원조합의 꾸준한 예탁금 증가로 인해 풍부한 여유자금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대출금 외에는 적절한 자금 운용처가 없고, 그마저 시중은행들과의 치열한 경쟁에 따라 예대마진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상호금융부는 2006년에는 'NEW I.D.E.A(새로운 사고)', 2007년에는 'FRESHVIEW(새로운 시각, 신선한 사고를 통한 혁신운동 전개)'라는 슬로건을 통해 조직혁신 및 수익배가를 위한 혁신운동을 전개해 왔으며, 2008년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구조 개혁을 촉진할 금융 빅뱅이 예상됨에 따라 수협 상호금융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34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했다. 그 결과 2008년 말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도 불구하고 2011년 말 현재 예금은 2005년 7조 9,796억 원에서 14조 3,339억 원으로 80% 증가하였으며, 대출금은 5조 1,876억 원에서 9조 5,196억 원으로 84% 증가하는 등 상호금융사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

목표

2012년 'PERFECT FINISH 1510'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2012년 예금 15조 원과 대출금 10조 원을 달성을 최선의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지자체 금고 유치 및 외환업무 확산, 펀드업무 도입 등 업무 영역 확대, 외환 취급 조합의 확대, 회원조합 펀드 판매 인가 시 본격적인 업무 추진 등 회원조합 상호금융 성장동력 사업 확보에 중점을 두고 노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회원조합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도입하여 회원조합 직원의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대한 이해도 및 실무능력 향상, 교육 및 안정화 지원으로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회계실무처리 부담 완화를 실현함은 물론 상호금융 시스템 선진화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다.



부 장 · 양동욱

팀 장 · 김부곤, 문진호, 오세연, 장순익, 정성구

과 장 · 강찬오, 권민수, 박수환, 이옥진, 임승환, 조경연, 조두영
조사익, 주홍보, 최수정, 최영동, 허수열, 황은미, 황해도사 원 · 김지술, 김진경, 맹승미, 오상우, 오태훈, 이국일, 이형우
임은진, 임혜진, 전봉석, 조재원, 차동한, 최민수, 최영은, 홍혜영



I. 지도경제사업

50년을 넘어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수협공제 보험!

공제보험부

Vision

수협공제 선진화, 정책보험 전문화, 양식보험 안정화

업무

수협 공제사업은 공제보험부에서 신상품 개발, 목표관리, 교육, 홍보 등 공제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며 조합 401개, 중앙회 105개 영업점에서 공제를 판매하고 있다. 공제는 “서로 구제하여 준다”는 뜻이며, ‘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1인을 위하여’라는 협동조합 정신의 구현을 위한 경제적 제도인 것이다. 어업 및 어가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어촌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수협공제는 장래의 예측할 수 없는 재해나 불행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줌으로써 경제적 파탄으로부터 공제 가입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공제자금의 운용은 조합자금부에서 하고 있으며 조합금융리스크관리실에서 공제 리스크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정책보험은 정부 주관으로 시행해 온 어선원보험 및 어선보험 사업을 2004년 1월부터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과거 40년간 선원공제와 어선공제 사업을 수행하면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어업인의 협동조직으로서의 봉사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재해보상보험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또한 태풍, 강풍, 해일, 풍랑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양식물과 양식시설물 피해를 보상대상으로 하는 양식보험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양식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어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목표

최우선적으로 지속적인 공제사업 수익성 제고를 위해 보장성·적립성 공제판매를 강화하는 한편, 안정적 자금운용은 물론 사업수익성이 뛰어난 연금공제 상품에 대한 전사적인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영업현장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 활동을 전개하고, 공제 전문인력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정책보험 활성화를 위해 소형 어선 전용 어선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양식보험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새로운 양식보험 품목 개발과 시범사업지역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수협공제 선진화, 정책보험 전문화 그리고 양식보험 안정화라는 비전 달성을 통해 최고의 협동조합 실현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



부 장 · 허영훈

팀 장 · 김경민, 김현수, 서봉춘, 송병철, 이재빈, 이준서, 최영택

과 장 · 고성용, 곽선영, 권대영, 김승철, 김용덕, 김종권, 김환중, 박승철,
박유신, 박종선, 변영철, 신기루, 안병철, 유정상, 유정호, 이상조, 이준희,
이행숙, 조용석, 최정목, 최정인, 최호준

사 원 · 강민주, 구지은, 국대근, 김동규, 김영복, 김창수, 김택오, 류성열,
박기완, 박상호, 박정희, 백은영, 서동균, 서성택, 소준서, 신성식, 신수철,
양석민, 양혁준, 오재숙, 윤효상, 이민승, 이민제, 이수경, 이우승, 이우진,
이주희, 이화용, 장정수, 정경진, 정윤정, 주형근, 최영근



I. 지도경제사업

수익의 극대화로 조직의 재무구조 안정성 확보

조합자금부

Vision

수익의 극대화로 조직의 재무구조 안정성 확보
회원조합 금융사업의 건전화 기여

업무

운용기획팀은 자금운용 계획 수립 및 조정, 규정종합관리, 미들오피스(Middle office) 및 백오피스(Back office) 관련 업무, 유가증권 통합관리시스템 개발·관리, 투자심의회 및 리스크관리협의회 부의에 관한 업무, 위탁자산운용사 평가 및 선정, 자금별·딜러별 성과평가 업무, 부실자산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식운용팀은 주식 운용계획·전략의 수립, 상호·공제사업 특별회계 자금의 직접주식(단기매매, 매도가능), 위탁(주식형, 혼합형) 운용, 파생결합증권(ELS, DLS) 및 단기자금(MMF, 정기예금 등) 운용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채권운용팀은 채권 운용계획·전략 수립, 상호·공제사업 특별회계 자금의 직접채권, 위탁(채권형) 운용업무를, 대체투자팀은 주식과 채권 등 정형화된 전통적 투자 상품에 대비되는 개념의 대체투자상품(Alternative Investments; AI)에 대한 운용계획 및 전략수립, 대체투자 상품 운용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 보완적 시스템 운용을 통해 2011년에는 운용규모가 상호금융 3조 8,454억 원, 공제보험 1조 6,571억 원으로 총 5조 5,025억 원에 달해 2007년 대비 2.5배 가까운 신장을 일궈냈다.

목표

지금까지의 발전에 만족하지 않고,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2012년에도 수익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탄력적 포트폴리오 조정, 위탁자산의 시스템적 관리 및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증권(ELS, DLS)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2013년부터 시행될 IFRS(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대비한 자금운용 이슈사항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 수립과 최선의 수익확보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또한 자금운용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금운용인력에 대한 자격증 취득지원과 함께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부 장 · 박영석
팀 장 · 계현철, 민봉식, 이영준, 이창우
과 장 · 김동섭, 김영삼, 김인교, 김태연, 박지현, 배동현, 양태승
이현중, 조건일
사 원 · 박효진, 유지성, 정경식, 최경희



‘수산의 가치증대를 위한 연구’를 위해,
‘세계 속의 한국 수협’을 향해

수산경제연구원

Vision

수산의 가치증대를 위한 연구

업무

수산경제연구원은 조사연구, 조사통계, 해외협력,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사연구 업무는 어업인 및 어업경영 지원을 위한 연구, 국내외 해양·수산 관련 정보수집, WTO/FTA 등 대외환경변화 대응 연구, 수산업·어업인 지원정책 및 협동조합 발전 연구, 수산관련 식품·유통 및 정책자금·금융에 관한 연구, 수산물가공·홍보·위생안전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조사통계 주요 업무로는 수산정책 수립 및 어업경영 합리화를 위한 어업경영조사, 수산자금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위한 영어자금소요액조사, 국내외 수산업 동향과 정보수집 분석 및 보급 등이 있다. 해외협력 업무는 ICA 수산위원회 활동, 인접국 수산단체와의 교류 협력, 근해오징어채취기 러시아수역 입어 지원 등을 통해 우리나라 어업인의 권익신장과 소득증대 및 국격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에서는 어업인과 어촌지역을 대상으로 교육·문화·복지 분야에 걸쳐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비영리부문(제3섹터)을 통한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어촌지역 발전에 힘쓰고 있다.

목표

‘수산의 가치증대를 위한 연구’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연구로 어업인과 수협의 실익을 제고하고, 수협 및 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수산업 환경 변화에 앞서가는 방향으로 연구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또한 차별화된 조사·통계자료 생산과 양식생산관리지원 (Fish Care) 사업 및 수산지식나눔시리즈 발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산업 발전의 실질적인 토대 구축에 힘쓸 것이다. 아울러 ICA 수산위원회 및 인접국 수산단체와의 교류·협력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한국 수협의 전문성과 경험을 전세계와 공유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어업인의 권익보호와 수협의 대외적 위상 및 국격제고에 노력할 것이다.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은 국내 유일의 어업인 복지전담기구로서 어업인과 어촌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사회 전반에 걸친 어업인을 위한 나눔 문화 조성에 앞장서며 선도적인 복지재단으로 발돋움해 나갈 것이다.



원 장 · 정만화
실 장 · 김현용, 주선평
과 장 · 김갑곤, 박광범, 서수영, 이춘덕, 정권태
사 원 · 김기훈, 김동희, 김수진, 이수영, 제갈훈, 최용완
연구원 · 김우경, 박준모, 박진규, 이미용, 조용준



I. 지도경제사업

모든 위험으로부터 어업인을 보호하는 임무

어업정보통신본부

Vision

어업인의 안전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협동조합 가치 제고

업무

어업정보통신국은 국내 유일의 어업용 해안국으로 안전조업상황실을 비롯한 전국 16개 통신국에서 출어선 안전지도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월선조업 예방과 한·일, 한·중 EEZ 업무 및 통합방위지침에 따른 어선 긴급보고와 전시 총무계획을 시행하는 등 국가 중요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수산업발전특별법을 근거로 수산데이터베이스(어선조업정보시스템)를 구축하여 연근해 어선의 조업 실적을 전산화하고 있다. 이러한 전산화 자료를 통해 국내외 해양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어업경쟁력 강화, 정부 정책 수립·집행의 내실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생물자원에 대한 적절한 보존·관리 조치를 이행하고, 우리나라 주변 수역의 주요 해양 생물 자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장기 조업선을 대상으로 한 어업정보 방송을 개설하여 기상, 해어황, 어가(魚價), 수산뉴스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육상의 어업인에게는 전화정보서비스(ARS) 및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로 조업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과 수산시설을 보호하는 방재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목표

현행 어업통신은 음성통신방식(아날로그)으로, 위치 및 어획실적 보고를 어선 보고에 의존함으로써 자료의 신뢰성 저하와 오류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첨단기능을 통한 위치자동발신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 2011년부터 VHF통신기의 DSC(Digital Selective Calling; 디지털 선택 호출) 기능을 활용한 위치자동발신시스템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14년까지 전 통신국에 시설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수년 내에 우리나라 연근해 출어선의 모든 위치를 실시간으로 자동 수집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사고여부를 분석하고 인근어선과 구조 기관에 정확한 최종 위치를 통보함으로써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확한 조업 동향 파악으로 주변국과의 어업협상능력 제고,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색출 용이, 면세유류 부정 유출 차단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 장·김원길

팀 장·김명철, 임동기

과 장·김정년, 김해용, 양재원, 오상철, 이성동, 조강훈, 황병천

사 원·강철규, 고윤규, 김도훈, 김민구, 김영민, 김용균, 김주환

김태현, 김태홍, 김형준, 박수목, 박원일, 서영수, 윤도수, 이규원

이동준, 이동화, 이병호, 이상식, 이해성, 임병진, 임자영, 장문구

정현우, 진희선, 허 군



I. 지도경제사업

수산물 수요 공급의 안정화를 이루는 수산업의 매개체

유통기획부

Vision

경제사업, 새로운 도약의 원년

업무

유통기획팀은 경제사업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사업계획, 예산 수립 및 결산,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업무 등을 맡고 있다. 공판팀은 공판사업의 종합계획을 수립·조정·통제하며 공판장과 회원조합의 지도·관리, 그리고 자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공판사업은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을 소비자로 집결시켜 대량유통시킴으로써 어업인 판로를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안정적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수협은 4곳의 도매시장 공판장(가락동공판장, 구리공판장, 전주공판장, 광주공판장)과 자체 개설 3곳(강서공판장, 대구공판장, 인천공판장) 등 총 7개소의 공판장을 운영하고 있다. 수매팀은 경제사업에 필요한 연안 및 원양 어종에 대한 수매를 총괄하고 있으며 정부비축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수매사업은 사업별로 분산되어 있는 수산물 수매업무를 통합하여 구매력을 강화하고, 산지 위판장 직수매를 통한 소비자 저가 공급으로 소비자 가격 안정 기능을 수행하는 데 사업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정부비축사업은 주생산 시기에 수산물을 수매·비축하여 비생산·성수기에 방출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여 국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 1979년 정부의 가격안정시책에 따라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4~5개의 주요 어종품목을 비축하고 있다.

목표

무역자유화에 따른 수산물 수입 증가와 날로 확대되는 대형 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 등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있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통한 공판사업의 활성화를 이루어 생산자에게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고, 대형 유통업체를 견제하며, 소비자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하는 수산물 유통의 중심점으로서 그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부 장 · 이종찬

팀 장 · 신황용, 어영일, 이근웅, 이승룡, 이응섭, 홍종표

과 장 · 강창용, 강혁중, 김용백, 김정우, 김정은, 김진욱, 김준곤

노희석, 문남수, 박기홍, 박정호, 방평기, 송호근, 양재명, 윤경원

이동근, 이연호, 임근성, 장상현, 조윤형, 주경수, 현기현, 황인성

사 원 · 강현숙, 광성수, 권현미, 김경훈, 김라기, 김원석, 김재만

김태훈, 나진욱, 박동욱, 박세광, 박웅균, 박지선, 박홍식, 배용성

안주용, 여병조, 오성범, 오정화, 윤은주, 이동윤, 이수명, 이재일

이평후, 임광호, 장숙정, 정기여, 조원제, 최성안, 홍재철, 황상하



I. 지도경제사업

단체·군납·이용가공사업 등 대량 소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식품사업부

Vision

수산물 급식시장 선두주자로서 최고의 식품안전과 품질 유지

업무

식품기획팀은 단체급식·군납·이용가공사업의 종합계획을 수립·통제하며, 동 사업시설의 운영지도를 담당한다. 단체급식사업은 학교 등 단체급식 확대를 통해 수산물 수요를 창출하고, 식단의 수산물 비중을 제고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동시에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군납사업단은 군납 단가계약 체결, 납품관리, 군납 메뉴 운영 및 조정 등을 담당하고 있다. 수산물 군납사업은 원칙상 수협중앙회 책임 하에 구매·반가공·보관·납품 등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서지역 및 해안지역 소재 군부대는 7개 회원조합(경인북부·웅진·강릉시·목포·포항·진해·부산시)에서 수협중앙회를 대신하여 납품하고 있다. 가공지원팀은 수산물의 품질, 원산지 표시 및 위생관리를 종합지도·조정하며, 가공사업장 시설점검 및 운영지도를 맡고 있다. 식품사업부의 또 다른 주요한 지원 업무로는 식품안전검사실·식품안전상담실 운영과 브랜드관리 업무가 있다. 식품안전검사실은 원재료인 수산물을 비롯해 가공제품, 납품 수산물에 대한 미생물·중금속 검사를 진행하며, 식품안전상담실은 수산식품 안전 홍보와 고객 요구사항 접수 및 개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와 관리를 통해 체계적인 개선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철저한 사후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으며, 제품 하자 결함으로 인한 식품안전문제로 고객의 신체 재산상 손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취하고 있다. 또한 브랜드관리 업무는 ‘바다사랑’을 비롯한 브랜드의 광고·홍보와 디자인 업무를 지원하고 상품의 지속적인 포장디자인 개선과 대외 홍보를 통해 대표적인 국산수산물 브랜드로서 인지도 및 브랜드 파워를 높이고 있다.

목표

갈수록 다양해지고 높아지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하고 상당한 수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무한히 변화가는 해양환경 변화에 대비해 더욱 철저한 안전성 검사를 통해 국민들이 항상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생산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부 장·박승묵

팀 장·김삼식, 이종환

과 장·권태철, 김대희, 김상동, 김철영, 박재완, 박형중, 이승균, 한규원

사 원·강명길, 김상진, 김수경, 김연희, 김용균, 여정식, 유영선, 조맹근, 최종덕, 최희경, 하재성, 한의배



자재사업부

Vision

구매사업 활성화를 통한 협동조합 정신 구현

업무

자재지원팀은 자재사업부 전체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수립·조정하고, 기자재와 선수물자의 계통구매를 통하여 자재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어업용 기자재 사업은 선박용 주기관(선외기 포함)과 보조기관, 어선의 장비·설비 등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경제적 약자인 어업인의 영어 활동에 필요한 기자재를 회원조합과 연계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통구매사업이다. 선수물자사업은 선수품, 생활필수품 및 양어용 사료의 계통구매를 통해 어업인들에게 최대의 유리한 조건에서 양질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사와 직접 구매계약하여 공급하는 구매사업이다. 유류관리팀은 면세유류(연료유) 공급계획을 수립·조정·통제하고, 회원조합의 유류공급 사업을 지도·교육함은 물론 조성된 유류사업지원자금을 운용하면서 '여수저유소'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어업용 유류공급 사업은 영세 어업인들의 과중한 유류구입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1964년 12월 5일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1965년 5월 1일부터 당시 상공부로부터 소요량을 배정받아 어업용 유류공급 업무를 개시하면서 시작됐다. 낙도 및 벽지 유류공급 지원을 위해 수협중앙회 및 조합 수수료의 일부를 재원으로 유류사업지원자금을 1985년부터 조성하여 매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저렴한 면세유 공급을 위해 정유사별 자유경쟁 입찰 방식을 채택하고, 면세제도 유지를 위해 부정유출 등을 방지하고자 구매사업정보시스템 구축 및 상시감시시스템을 추가적용 운영하고 있다. 3개의 자재사업소(동해, 서해, 남해)는 관할구역의 회원조합에 공급되는 면세유류 및 급유시설을 관리·감독하며 회원조합에서 발생하는 부정유통 관리 및 업무지도를 담당하고 있다

목표

어업용 면세유의 최저가 경쟁입찰의 도입과 면세유 공급대상의 확대 및 여수저유소 운영을 통해 적기에 안정적인 면세유 공급을 도모하고 있다. 향후 어업인이 어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면세유 관리시스템을 더욱 정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부정유통 예방에 힘쓸 것이다. 또한 노후 급유시설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자재·선수물자의 공급 활성화로 어업인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부 장 · 서종달
팀 장 · 김현우, 박종근
과 장 · 백진기, 오종필, 임채영, 조대식, 최광성
사 원 · 강종완, 곽노연, 김나라, 김미영, 김춘선, 임행택, 한영수



I. 지도경제사업

국제적 수산물
관광명소를 꿈꾸며

노량진시장현대화사업본부

Vision

도심속의 현대화된 친환경 수산시장 2012년 착공

업무

노량진시장현대화사업본부의 핵심 업무는 개장 41년이 경과한 노량진수산물시장의 낡고 열악한 시설의 전면 현대화를 통한 시설 개선에 있다. 현재의 노량진수산물시장은 대한민국 최대의 수산 유통 시설이지만 낡은 시설로 인해 물류 유통 효율성이 떨어지고, 대규모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 유통업체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이다. 이에 수협은 생산자인 어업인과 고객인 국민을 위해 수산물 유통질서를 새롭게 재편코자 시장현대화 사업 추진을 결정하였다. 시장현대화 사업은 지난 2005년 6월 정부의 '수도권발전 종합대책' 중 서울시 세계도시화 프로젝트 추진사업으로 '노량진수산물시장 현대화' 지원 계획을 반영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순조롭게 흘러가던 사업은 이후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시계획과의 입찰차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그러나 2011년 10월, 동작구에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재입안신청서를 제출하여 2012년 1월에 동작구에서 서울시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2012년 2월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청취를 거쳐, 3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됨으로써 노량진시장현대화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10월까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건축심의 등 각 분야별 인허가를 마무리하고 11월부터 공사를 시작, 201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표

시장현대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2015년에는 현대화된 노량진수산물시장을 통해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를 제공하고 도 시민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도 즐겨 찾는 도심 속의 관광 명소화를 이루고 저비용·고효율 유통 구조를 달성할 것이다. 이와 함께 어업인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시장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본부장·문경화
팀 장·김동욱
과 장·김두영, 김태호, 문희준, 이태근
사 원·박진우, 어원정, 정병일



Vision

도약의 50년, 새로운 도전 100년을 향한 재산보호와 업무의 적법성 확보

업무

정관 제62조(감사위원회의 직무 및 권한)에 근거한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역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감사위원회의 역할은 본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세부적으로는 감사계획 수립 및 집행, 결과 평가, 사후 조치, 개선 방안 제시,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감사 보좌기구 부서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 외부감사인 선임 및 해임에 대한 승인,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법령·정관·감독기관의 규정이 정하는 사항, 기타 감독기관 지시 및 이사회가 요청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등을 하고 있다. 감사실은 각 사업 부문에 대한 업무의 규모, 사업위험도 등을 사전에 예측하고 집중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수협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신용사업에 대해서는 상시 감시를 강화하여 자금의 운용 등 사고 개연성이 높은 분야를 분석·파악하여 점검하고, 자금의 조달 및 운용, 기업여신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실태, 외환 및 리스크관리 등의 고위험성 항목들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정보처리시스템의 정지와 오작동으로 인한 신뢰성 리스크, 부정확한 접근으로 인한 안정성 리스크 등 부적절한 정보투자가 가져오는 경영상의 리스크 회피를 위해 효율성과 유효성에 대한 규정을 확인하고 내부 통제가 존재하는지, 그것이 유효하게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비용 대비 효과는 어떠한지 등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있다.

목표

앞으로도 내·외부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감사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외부 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수협 발전에 공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실 장 · 백선기

팀 장 · 강석두, 김병학, 배현두, 송현규, 최학기
과 장 · 권희정, 김정훈, 김종환, 김지훈, 김진룡,
마지룡, 박광일, 박수범, 송재원, 우동수, 이쌍용,
이영주, 이정민, 조운수, 주규현, 최수광, 하정선,
홍성욱, 황호구

사 원 · 강수민, 강응신, 김용태, 오 원, 이마원,
이승관



I. 지도경제사업

일선 수협을 업무로 지도·감사하여
수협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다

조합감사실

Vision

기본과 원칙 충실, 공정·창의적 감사, 조합가치증대 기여

업무

조합감사실의 감사기획팀은 조합감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회원조합 감사 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감사결과처분요구서 심사, 조합감사위원회에서 제정하는 제 규정 관리, 외부 감독기관의 회원조합 감사에 관한 사항, 회원조합 감사 결과 사후관리, 회원조합 감사 실시 및 처리, 회원조합 사고보고·예방지도·내부감사지도, 회원조합 민원 접수·처리, 대내외 사고예방 관련 업무, 복무(공직) 기강 확립 및 사고예방 업무 등을 처리한다. 상시감사팀은 회원조합 전산 상시감사, 회원조합 감사 실시 및 처리,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종합감사정보시스템 운용 및 관리, 자금세탁방지시스템 운용 및 관리, 전화금융사기 예방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감사1팀과 감사2팀은 회원조합 감사 실시 및 처리, 상각 감사, 이의신청 처리, 회원조합 경영실태종합평가 실시,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검사체크리스트 작성 및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목표

내부 제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양정기준 마련, 내부자 제보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지도 및 교육 강화, 종합 감사정보 전산망의 내부제도 시스템 운용 등 내부 제보자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며, 비상임감사 및 조합 감사위원 연수원 교육 연 1회 고정 편성과 외부 감사전문가들에 의한 Case-by-Case식 교육프로그램 편성 등 감사업무 교육을 강화하여 조합 자체 내부통제 기능을 제고하고자 한다. 아울러 회원조합 연수원 직무교육 시 필수 과목 지정, 영상매체 교육 및 분임토의 등을 통한 회원조합 임직원들의 자연스러운 의식 전환 유도 등 사고예방 및 부패방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임직원 부정에 대한 대책으로는 내부 제보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조합 임직원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사고 및 부패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며, 사고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징계 및 고발조치 등 임직원들에 대한 엄중문책 방안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수협 임직원의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교육 및 전파를 통해 임직원의 의식을 전환하는 데도 더욱 노력할 것이다. 나아가 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탈피하여 리스크 원인을 찾아내 개선시키는 리스크 중심의 감사로 전환하고, 임점감사 시 경영실태종합평가를 실시하여 경영컨설팅 감사 수행 능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또한 감사역량 강화를 통해 감사품질 향상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감사 결과 처분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점 감사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이다.



실 장·남상중
팀 장·이영길, 이종흠, 임정배, 전다윗
과 장·김경주, 김익태, 김중문, 김풍근, 김해겸,
노시철, 양진식, 오수근, 윤성호, 이성수, 이의훈, 정성기,
정은숙, 조영길, 주수빈, 최청우, 최해규, 하혜성, 한상권
사 원·김선영, 박소희, 이경미, 이미애, 이화열, 최중혁



I. 지도경제사업

어업인과 임직원 교육의 요람이자
미래 수산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의 산실

연수원

Vision

수산의 푸른미래 창조를 선도할 인재육성
정체성 구현을 실천할 협동형 인재육성

업무

유관순 열사의 총절이 꽃피어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봉향로 135에 위치한 수협 연수원은 어촌사회와 수협의 미래를 이끌어 가는 수협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공간이다. 연수원 교육은 어업인 교육과 임직원 교육으로 크게 나뉜다. 양질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어업인을 육성하여 풍요로운 어촌사회의 토대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감한 자기혁신을 이루어 생산성을 높이고, 부문 간 갈등을 원만히 조정하여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며, 도덕적 해이 극복을 통한 사고 예방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실무 위주 교육을 통해 업무 능력을 제고하고, 영업점 이익 극대화 교육을 통해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실력을 배양시키고 있다. 이밖에도 연수원 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조합 경영자 교육 및 선진지 참관을 유도하고, 자매결연 조합 간 친교와 정보의 장으로 활용하며, 어업인 자녀 등의 정보화 교육과 원어민 영어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목표

교육의 목표를 '수산의 푸른 미래' 창조의 밑바탕이 되는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에 두고 교육의 질적 향상에 힘쓰고 있다. 어업인들과 전 직원 간의 활발한 정보교류를 통해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어업인의 자질과 능력 함양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또한 창조적 사고와 전문지식을 갖춘 역량 있는 직원을 육성하는 데에도 힘써 높은 생산성과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갖춘 정예인력의 양성에 힘써 나갈 것이다.



원 장 · 차한규
과 장 · 김동익, 김문경, 김현기
사 원 · 김금복, 김도진, 김홍수, 맹정호, 문병철, 박명숙, 신정연
안유선, 한순덕, 홍창기
교 수 · 김윤동, 신기준, 이형근



I. 지도경제사업

수협 가치 알리는 수협의 전령사

홍보실

Vision

창립 50주년 전략적 홍보 및 수협의 가치
재조명을 통한 수협 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 제고

업무

기획·홍보과는 일간지 및 수산전문지 발간, 다양한 광고 및 수산관련 행사 추진 등을 통해 수협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다. 문화홍보과와 보도과는 보도자료와 홍보매체(소식지, 사외보 및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협의 긍정적 여론을 조성하는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역할과 방향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방송과에서는 수협방송을 통해 임직원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및 대국민 홍보방송을 송출하고 있으며, 어항방송을 통해 어업인들에게 필요한 해황정보 및 어항정보, 기상정보, 수산정책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어업인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홍보실은 주요사업의 홍보를 통해 수협중앙회의 비전 및 경영전략을 널리 알리는 데 주력하며, 사업부문별 주요사업과 정책을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하여 각 사업부문별 보도자료를 언론기관 등에 배포하고 있다. 또한 방송 및 지면, 축구장, 야구장, 철도, 지하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광고를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일반대중에게 수협의 긍정적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수협방송(FBS)은 매일 수협뉴스를 제작·방영함으로써 임직원에게 대내외 소식을 신속히 전달하고 있다. 또한 직무교육과 다양한 기획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수협중앙회 및 지사무소에 방영함으로써 임직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조직문화 공유에 이바지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 2010년 개국한 '어항방송'을 통해 어업생산에 필요한 정보를 전국 40개 주요 위판장에 제공하고 있다. 수협소식지 <어업인 수산>과 <우리바다>를 통해 어업인과 어촌의 삶을 진솔하게 소개하고, 다양한 수산정보와 수산관련 행사 및 토속문화 등을 취재·게재하여 일반인들에게 수산업과 바다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 활용을 통한 수협 홍보와 수산물 소비촉진 등에도 힘쓰고 있다.

목표

수협 50주년을 맞아 새로이 정립된 '하나의 가치, 하나된 힘, 최고의 협동조합'이란 비전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전파하며, 많은 어업인들에게 어항방송을 통해 다양하고 수준 높은 정보를 제공하여 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



실 장·허 은
팀 장·이성희
과 장·강병규, 김창우, 서재권, 최은도
사 원·김병곤, 김상수, 김태형, 류진희, 박성환, 서정동, 이명수, 이상목
이익인, 이춘근, 홍동기



조합금융리스크관리실

Vision

조합금융의 종합적 리스크관리

업무

조합금융리스크관리실은 수협중앙회의 조합금융(상호금융 및 공제사업특별회계) 운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를 측정·통제·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조합금융 리스크 관리 업무에 대한 종합기획 수립을 기초로 각종 리스크 관리 지표를 산출하여 허용한도를 설정, 조정, 통제하고 있으며 여기서 산출된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상호금융 및 공제특별회계 자금운용 한도설정 및 조정, 상호금융 및 공제특별회계에 대한 적용금리를 결정·조정하고 있다. 더불어 회원조합 조합금융 리스크와 관련된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하고 있다. 수협중앙회 리스크 관리의 조합금융 업무의 제반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심의·의결(리스크 관리 정책·전략 수립 및 리스크 허용한도 설정 등)하기 위한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회 부의안건에 대한 사전심의 및 리스크 세부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리스크관리협의회의 등의 의사결정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리스크관리실무협의회의 및 대체투자실무협의회의는 리스크관리위원회·협의회의 부의안건에 대한 실무자 간 사전협의의 통하여 최종적으로 리스크 관리 정책·전략을 확정하는 기구이다. 회원조합 리스크 관리는 회원조합에 대한 리스크 관리 업무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현장지도 업무를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실무자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회원조합 리스크 관리 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목표

조합금융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한 고도화 기반을 마련하고, 회원조합 리스크 관리를 위한 리스크 관리체제 평가, 리스크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임직원 리스크 마인드 확산 및 회원조합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실 장 · 이종호
과 장 · 김남연, 김용관, 이재춘, 정재현
사 원 · 강성훈, 박정민, 이혜정



I. 지도경제사업

지도경제사업 업무 전산화를 위한 정보화 전담조직

경영정보실

Vision

IT 신기술 효율적 도입으로 조직 성장 기반 제공
창의적인 정보화 사업 추진으로 대외 경쟁력 향상
회원조합과 어업인 중심의 정보화 사업 확대 추진

업무

경영정보실은 지도경제사업부문, 회원조합 및 자회사 IT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프로그램 및 시스템관리, 보안관리 등의 업무자원을 통해 조직 경쟁력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업무용 PC에 대해서는 통합 PC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위변조 방지 솔루션을 적용하여 상시 감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DB서버의 불법적 접근을 감시하고 차단하는 DB방화벽, 네트워크를 통한 어플리케이션 공격 등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통합보안장비(XTM) 도입, 국정원 승인 보안USB 활용, 매체제어시스템 적용, 외부 저장매체제어, 개인정보 검색 및 삭제 프로그램 적용, DRM(문서암호화) 등을 적용하여 내부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회원조합 본소를 포함하여 경제사업을 수행하는 지사무소에 대해 네트워크 및 전산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수원, 바다마트, 공판장 등에도 경영정보실 네트워크 및 전산 인프라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속적인 코드 표준화, 플랫폼 표준화, 데이터 품질관리 등을 통해 매출이익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목표

급속하게 변화하는 정보화 사회 속에서 조합 및 자회사가 보다 편리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최근 그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보안문제에 관해서도 다른 어떤 기관보다 빠르게 대응하여 조합원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실 장·성낙근
과 장·김원식, 백종현, 윤진철,
이창현, 임부정, 홍석중
사 원·공민수, 구진현, 김경희, 김 진, 박수민, 이 현, 전호상,
천경완, 허중호



전 세계인의 식탁에 안전하고 우수한 수산물 공급

직판사업단

Vision

우수상품과 거래처 확대로 판매사업 활성화

업무

직판사업단은 수협중앙회 부서 중에서 유일하게 수산물 도·소매 영업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대량 계통수매를 통해 어가를 지지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며 수산물을 위생적으로 보관·가공·포장하여 대형마트 및 백화점 판매, 인터넷쇼핑 판매, 기업급식사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가 우수한 수산물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영업팀은 대형 유통업체와 도매시장, 해외바이어 등과 직접 교류하여 중간유통 단계를 축소하고 양질의 수산물을 공급하며, 소비자에게 보다 우수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온라인사업팀은 온라인쇼핑몰(www.shshopping.co.kr)을 통해 고품질의 수산물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며, 온라인 도매시장을 개설하여 다단계의 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있다. 또한 영업지원팀은 건강한 먹거리 공급을 통한 국민건강 및 안전성 제고를 도모하는 기업급식사업과 우수한 국산 수산물을 기반으로 한 수협 대표상품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목표

‘바다爰찬’ 상품 등 신규품목 개발을 통한 납품 확대로 매출을 지속적으로 신장시켜 나가는 동시에 중국·필리핀·베트남 등 아시아권 국가에 가공식재료 원료를 수출하고, 한국수산물무역협회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원을 통한 신규 수출 시장 개척 및 수출 거래선 다변화를 추진함으로써 수산물 수출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신세계물 등 타 유명 쇼핑몰과 업무 제휴를 통해 ‘바다爰찬’ 및 회원조합 상품, 산지 제철 수산물 상품 발굴과 조합 참여 확대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수협을 대표할 수 있는 고품질의 상품을 개발하여 수협과 신선한 수산물의 이미지를 제고함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단 장 · 최현만

팀 장 · 김선태, 김현욱, 이기홍

과 장 · 박병석, 박형준, 배병철, 임구수, 임미옥, 차용규, 황 석
 사 원 · 권태형, 김민철, 김윤기, 김은태, 김종철, 김준철, 김태용
 김현중, 남길정, 노용하, 박영하, 배정훈, 변성민, 변성현, 서민창
 양성모, 유대형, 이가을, 이경희, 이문건, 이민영, 이승원, 이현수
 전상규, 전상정, 전해원, 정경숙, 조창용, 최정운



Ⅱ. 신용사업

차별화된 가치, 신뢰받는 수협은행
건설에 앞장서는 협동조합의 역군

금융기획부

Vision

차별화된 가치, 신뢰받는 수협은행

업무

금융기획부는 수협은행 전반에 대한 총괄전략 수립, 경영계획, 성과·재무·회계기준 관리, 국정감사 업무 등 대내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전략기획팀, 경영관리팀, 성과관리팀, IFRS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탄탄한 영업기반 확립과 수익구조개선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고객만족 극대화, 효율성 극대화, 협동은행 가치실현, 사회공헌이라는 수협은행의 경영이념을 실천하며, '차별화된 가치, 신뢰받는 수협은행'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금융기획부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목표

향후 수협은행이 당면하고 있는 대형 시중은행들과의 경쟁, 감독당국의 강화된 규제정책, 급변하는 고객 니즈의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특히 2013년부터 도입되는 바젤Ⅲ 자본규제는 수협은행이 향후 계속기업으로 지속성장·발전해 나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장애물이자 당면 해결과제이다. 이에 금융기획부는 '자산건전성 제고를 바탕으로 한 수익성 개선'을 수협은행의 주 전략과제로 설정하고 비이자 이익 및 충성고객 기반증대, 조달구조개선, 틈새시장 발굴 등의 세부과제를 수행할 것이다. 또한, 나눔금융 강화, 어촌지원 및 어촌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선진해양특수은행으로서의 기반 또한 굳건히 다져나갈 것이다.



부 장·장극조

팀 장·김성모, 박경민, 조동호, 최계정

과 장·강병하, 김명준, 김우연, 김해정, 박경철, 박준우, 배석환

심재홍, 양승철, 윤재섭, 이기동, 이준재, 장금주, 정용문, 황성우

사 원·고민수, 김대근, 김미정, 김민아, 김태은, 박수진, 임지현



II. 신용사업

경영의 건전성과 수익의 안정화를 도모하다

리스크관리부

Vision

리스크관리와 수익이 조화된 균형 성장

업무

수협 신용사업 부문의 위험요소관리는 각종 리스크별 기본정책을 수립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제반 위험요소의 세부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리스크관리협의회'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 위험관리협의체를 보좌하고 종합적인 위험요소의 파악·측정·통제·보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리스크관리부가 있다. 리스크관리부는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협의회 보좌기능, BIS비율 관리, 금리 및 유동성리스크,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업무를 리스크관리팀에서 통합 관리하다가, '바젤II'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5년 1월 신BIS 협약팀을 신설하고, 신용리스크팩터 전반과 규제자본산출시스템을 재정비하여 2008년 '바젤II제도'를 안정적으로 도입했다. 이후 신BIS 협약팀은 신용리스크팀으로 전환하여 신용리스크 및 자산건전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9년 7월 부실여신에 대한 조기대응을 위해 론리뷰팀을 여신관리부에서 리스크관리부로 이전하였으며, 2012년 1월 업종 '쏠림현상' 방지 및 최적 자산포트폴리오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산업분석팀을 신설·운영하고 있다.

목표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를 계기로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서는 2009년 12월 은행산업의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자본 및 유동성 규제방안 초안을 발표하고, 2010년 9월 규제 수준 및 이행 일정을 확정했으며, 2010년 11월 이를 서울에서 개최된 G20 회의에 보고하였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규제 방안에는 보통주 중심의 자본규제 강화, 완충자본 제도 도입, 레버리지비율 도입, 유동성비율 도입 등 은행산업의 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담겨 있으며, 자본 관련 규제는 2013년부터 유동성 규제는 2015년부터 각각 도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제도 도입 시 협동조합의 특수성으로 인해 자본 확충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수협은 신용사업 부문 지배구조 개편 등을 포함한 보통주 중심의 자본구조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강화된 유동성 규제 이행을 위해 고유동성 자산 확대 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새로운 규제인 '바젤III'를 극복함으로써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부 장 · 이길동
 팀 장 · 문기성, 이종권, 이충래, 한상훈
 과 장 · 김동진, 김보경, 김수동, 김지호, 박성한, 박일태, 박찬인
 백형락, 서문숙, 유 목, 이규정, 이동우, 이정우, 이진형, 이필호, 임준택
 전철수, 정경문
 사 원 · 곽유민, 박계영

Ⅱ. 신용사업

수협 신용사업의 핵심 지원군

자금부

Vision

핵심역량 강화를 통한 유동성관리 및 운용수익 극대화

업무

자금관리팀의 역할은 원화수산금융채권 및 CD 발행 등 안정적인 원화 자금조달 업무와 대영업점 국고수납·지로·어음교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자금운용팀은 주식·채권·수익증권·파생상품 등 다양한 유가증권 운용 업무를 수행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운용지원팀은 유가증권의 회계처리 및 달러의 성과평가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로 금융사고 예방과 운용성과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금융팀은 외화수산금융채권 발행 등 외화자금조달과, 외환, 파생상품운용, 영업점 외환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자금부에서는 현장형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전문 자격증 취득과 고급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CFA(국제재무분석사), FRM(국제금융위험전문가), CFP(국제자산관리사) AICPA(미국공인회계사) 등 대외 공신력 있는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역량을 보유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한국금융연수원, 운용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 중이며,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속적인 인적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다.

목표

2008년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금융기관 간에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또한 금융산업이 장치산업에서 인력산업으로 개편되어 소수의 인원이 해당기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속적인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안정적인 자금조달 및 운용수익 제고를 통하여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 경영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부 장 · 김철환

팀 장 · 박대식, 이영학, 정기호, 한재권

과 장 · 김길영, 노광식, 배용순, 송대호, 유형근, 이원중, 이형주, 임봉주, 임상혁, 정용근, 정진철, 한규봉

사 원 · 권대상, 권영오, 권지혜, 김성철, 문건화, 박경화, 박숙영, 배영기, 윤현경, 이재성, 이준, 이창세, 이환일, 최성균, 하남운



Ⅱ. 신용사업

차별화된 가치 제고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고객지원부

Vision

가치제고를 통한 미래성장 동력 확보

업무

고객지원부는 고객의 요구에 좀 더 빠르게 대처하고자 여·수신 및 상품개발로 나뉘어 있던 부서를 통합해 신설한 부서이다. 2004년 여신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해 여신종합관리시스템을 개발·시행하여 중장기적인 여신의 안정성을 강화시켰다. 2006년에는 규격화된 금융에서 벗어나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특화상품의 지속적인 개발 판매를 통해 금융시장 내에서 영업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성장기반을 확충해나갔다. 또한 2008년부터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금융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대출모집법인과 업무제휴를 통해 건전여신 증대, 변동성이 큰 시장성 조달자금의 축소, 예금 위주의 기반예금 확대 전략 등을 전개하였다. 또한 2011년에는 여신 제도 개선을 통해 여신 비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였고 전략 상품의 리뉴얼을 통해 상품경쟁력 강화함과 동시에 타행대비 경쟁력 있는 상품 위주의 여·수신 프로모션을 실시하여 4조 2,000억 수준에 머물렀던 예수금 12조 2,000억 원, 대출금 15조 2,000억 원을 달성하였다.

목표

향후 은행사업의 근간인 여·수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기반 확대를 통한 예수금 증대, 수익성과 건전성을 감안한 여신운용, 틈새시장 발굴을 통한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전자금융 활성화 등을 통해 수협은행이 지속 성장 발전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부 장 · 신학기

팀 장 · 김재현, 박양수, 장문호, 장현규, 전성택, 한동진

과 장 · 강대우, 구창주, 김문형, 김민수, 김민철, 김수미

김완석, 김현애, 류수중, 선강영, 송명환, 송병길, 안명성

이경렬, 이경준, 이호진, 정태순, 한규성

사 원 · 김선심, 김연희, 김재우, 김태현, 김효분

박덕경, 박정민, 송지선, 신현주, 이병복, 이혜란, 정미경,

정해수, 정현주

Ⅱ. 신용사업

성장하는 수산금융, 함께하는 수산금융,
선진 수산금융 기반 마련

수산금융부

Vision

수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선진 수산금융 구현

업무

수산금융기획팀의 주요 업무로는 정책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대정부 업무 및 예산 확보, WTO·DDA·FTA 등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 수산정책자금 적기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수산금융지원팀은 수산정책자금 원활한 공급을 통한 어업인 지원, 수산정책자금의 효율적 관리 및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정책자금지원봉사단은 회원조합의 건전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봉사단체로 일반봉사반과 특별봉사반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일반봉사반은 정책자금 대출채권 실사 및 사후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특별봉사반은 여신심사기법, 채권관리, 마케팅 기법, CS교육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수산금융부는 정부의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법령 등에 의하여 수산부문에 자금유입을 증대시켜 수산업의 육성과 어업인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영어자금 등 각종 수산정책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영어자금, 수산발전기금, 부채경감대책자금, 사료구매자금 등 기존 정책자금의 지속적 지원과 더불어 자연재해 피해, 연평도 포격 피해, 유류오염피해 어업인에 대한 특별영어자금 등 3조 1,651억 원을 지원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책자금 공급이 부족한 어업인에 대한 수산해양일반자금대출 신설·지원, 신용 및 담보력이 영세한 어업인의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대손보전기금 정상화 도모, 정책자금지원봉사단을 통한 정책자금 건전화를 이룸으로써 회원조합 경영정상화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또한 FTA 대책으로 양식시설 현대화자금을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3,840억 원을 지원하게 됨에 따라 어업인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 어업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목표

‘수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선진 수산금융 구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금지원 중심의 수산금융을 지도금융으로 확대하고 어업인 및 수산인에 대한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수산관련 틈새시장 발굴로 신규 수익원 창출 등 선진화된 수산금융 체계 구축을 목표로 수산금융부 직원 모두 힘을 합쳐 어업인 및 회원조합 그리고 수협중앙회가 서로 신뢰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부 장 · 최정수
팀 장 · 김수용, 윤석우, 이선희
과 장 · 김병렬, 김태균, 박상봉, 신원호, 이용호, 이흥구
사 원 · 김기호, 김주홍, 도광식, 박세훈, 임영호, 정은아, 정현주
조경일, 최해지

한마음봉사단
단 장 · 김기호, 임영호
단 원 · 김주홍, 도광식, 조경일



Ⅱ. 신용사업

일류 해양수산 전문은행의 중심

해양투자금융부

Vision

투자금융 균형적 성장기반 조성

업무

해양투자금융부는 해양수산부문에 대한 사업 다각화를 위해 2005년 신설된 부서로 선박금융 및 항만 SOC 사업 등 신규 투자영역을 개척하였다. 기업금융의 니즈변화로 상업은행의 투자금융업무 확대 추세에 따른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구조화금융 분야의 신규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개척하고 있다. 선박금융에서는 신규 선박건조 및 중고선 매입 등 선박의 건조·매매에 수반되는 자금을 투자하고 있으며 기존의 간접투자(여신지원)에서 더 나아가 해운·조선 업체에 대한 직접투자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일반여신에 비해 수익성이 높은 부동산 PF대출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로 기존 사업의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한 사후관리 업무에 집중하였고, 사업성이 양호하고 우량 시공사가 참여하는 프로젝트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 참여와 더불어 공적기관 보증서 담보대출 확대와 리츠 등 대안금융을 적극 발굴하여 투자 안정성을 강화하였다.

목표

선박금융을 비롯한 해양금융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해양수산 분야의 투자자산 시장점유율 10% 달성을 목표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까지 시장점유율을 7%로 확대하고, 2015년 이후 시장점유율을 10%로 끌어올림으로써 해양수산 전문은행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다. 더불어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자산유동화, 장외파생상품영업 및 주식관련 사채투자 등 IB(Investment Banking) 사업 분야에 대한 영업역량을 확대하는 등 투자금융사업 활성화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모든 금융업무에 대한 원스톱 बैं킹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부 장 · 박석주
 팀 장 · 박해영, 임규창, 최영건
 과 장 · 김민석, 김중배, 김주학, 신장현, 윤민석, 윤형호, 이민주
 이정남, 이준석, 이지은, 임효언, 전경국
 사 원 · 유성원, 이선정



II. 신용사업

자산건전성제고 통한 CLEANBANK 구현

여신관리부

Vision

부실채권비율 개선 통한 자산건전성 회복

업무

여신관리팀은 불건전채권 관리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 여신관리 규정 제정과 개·폐, 불건전채권 외부 추심 위임, 사후관리, 연체비율 관리 등 총괄적인 연체관리 업무, 담보물 가격조사 및 외부 감정평가서 심사 업무, 부동산 등 자산관리 상담 및 영업점 지도, 담보관리시스템 관리 및 개선(담보물 가격조사에 한함), 부도 확정 및 해제와 부도 회수이력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특수관리팀은 신용회복 지원, 회생 및 파산 등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회생 관련 업무와 신용사업 업무 관련 소송·고소·고발 업무, 부실 관련자 관련 재산조사·추심·소송 업무, 부실채권에 대한 부채감사와 대손상각 등 결손처리 업무 및 특수채권 총괄관리, 부실채권 매각업무 총괄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기업구조개선지원팀은 기업구조 개선 추진에 대한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대기업·중소기업·자체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제외), 중소기업 Fast-Track 업무, 대주단 협약 업무, 기타 기업구조 개선에 관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등 기업구조 개선 업무를 맡고 있다. 투자금융관리팀은 요주의 이하 부동산 관련 투자금융 및 고정이하 SOC와 인수금융 사후관리 업무 총괄, 관리대상 투자금융여신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 및 채권재조정 관련 업무, 투자금융여신 부채감사·대손상각·매각·특수채권 관리, 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한 요주의 이하 PF 대출 관리를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

목표

‘자산건전성 제고를 통한 Clean Bank 구현’에 목표를 두고, 이를 위해 고정이하여신비율 목표 달성, 부실채권 정리계획 수립 등 부실채권 조기감축에 노력하며 동시에 연체 및 부실채권 감축반 상시운영 등 부실채권 억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요주의 이하 부동산 PF 관리 강화, 기업구조 개선 작업 효율성 강화,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활성화 등 특정여신 집중관리에 주력하며, 손실 발생 최소화 방안 강구, 특수채권 사후관리 강화 등 여신 사후관리 기능 강화에도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부 장 · 김영갑
 팀 장 · 사공대창, 송영석, 임덕순, 주성윤
 과 장 · 권태경, 김중현, 류제형, 박광준, 유승진, 이근재
 이지형, 이진환, 임연중, 임영목, 임평수, 장기엽, 전대현
 조계학, 최동국, 최중을
 사 원 · 김대욱, 반병욱, 백한별, 손승철, 전정준



Vision

고객과 수협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최적의 IT 파트너

업무

전산정보부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수협은행이 최적화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 개발 및 지원과 함께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 2011년 9월 구축한 Nextro시스템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과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스템을 통해 365일 24시간 중단 없는 안정적인 시스템 구현뿐만 아니라 고객별 맞춤 정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금융서비스 제공, 여신 신청부터 심사·실행 등 라이프 사이클 관리로 효율적 업무 수행,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고객정보 보호체계 강화, 모바일 기반(스마트폰 뱅킹)의 다양한 금융서비스 지원이 가능해졌다. 더불어 외부 금융환경 변화(자금시장통합법, 국제회계기준 등)에 대한 보다 유연한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목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Nextro시스템 기술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더욱 확대하여 수협이 제공할 수 있는 최대의 서비스를 고객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항상 고객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타 은행에 결코 뒤지지 않도록 시스템 보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부 장 · 김형중

팀 장 · 강민수, 고병규, 김성호, 박종훈, 박종훈, 송재문, 신원선, 신종철, 이충렬, 진범섭, 최창주

과 장 · 고찬식, 권동혁, 권순일, 김규범, 김대현, 김도현, 김명주, 김세원, 김수경, 김영미, 김용환, 김원식, 김은주, 김정인, 김종성, 김종현, 김진일, 김태환, 김학현, 김해영, 김해곤, 김호경, 김호익, 남백연, 남호준, 문기동, 문성환, 박강국, 박래은, 박상환, 박재영, 박태권, 배진희, 변재희, 서창교, 신상문, 신재식, 신호식, 안승철, 안지원, 연재운, 오기권, 유길영, 윤상봉, 윤석현, 윤영진, 이강인, 이광우, 이명수, 이미경, 이미선, 이병호, 이사행, 이상진, 이상현, 이상주, 이우석, 이은성, 이응호, 이일희, 이정교, 이정아, 이창덕, 이현실, 임형묵, 장상진, 장윤기, 장주현, 전영락, 정경석, 정규관, 정규승, 정수택, 정예진, 조석민, 조신형, 지근성, 지준호, 진정수, 차성준, 채수상, 채종로, 최상원, 최재성, 최지현, 최찬수, 한상명, 한상우, 허진, 황영주, 황원준, 사원 · 강대규, 강병서, 구재원, 권일식, 김경수, 김광태, 김대영, 김미경, 김미연, 김상현, 김성환, 김숙경, 김승길, 김정남, 김찬수, 김창식, 김학운, 김현명, 김현미, 김혜원, 김혜정, 김환, 김희선, 노석준, 민경민, 박남진, 박민규, 박상우, 박성식, 박순옥, 박아란, 박영옥, 박은경, 박진옥, 박진희, 박해수, 송경미, 송민섭, 송원철, 송인철, 신승미, 신용우, 신호섭, 심보라, 심정윤, 안병윤, 양강호, 양수진, 오경찬, 오년관, 오승열, 원선미, 유수철, 유용욱, 유재일, 윤민영, 윤성환, 윤지상, 윤혜현, 이경훈, 이대호, 이명덕, 이상민, 이상용, 이성미, 이성혜, 이수정, 이연주, 이영진, 이은숙, 이은호, 이재욱, 이준호, 이정희, 이종근, 이지애, 이찬수, 이충현, 이태영, 이한나, 이현주, 이효정, 이희경, 임상민, 임정선, 임주미, 임현선, 장보윤, 장사권, 장선미, 정미옥, 정아름, 정용수, 정윤중, 정인준, 조광현, 조성희, 조용만, 조정아, 조형석, 진문삼, 진수정, 차지선, 최명미, 최성우, 최원, 최유미, 최은영, 최현정, 최혜미, 추유정, 하동준, 하진영, 한광혁, 황선준, 황윤호





II. 신용사업

건전성에 기반한 안정성장 지원

심사부

Vision

건전성 및 수익성에 기반한 안정성장 지원

업무

심사부는 영업점에서 접외된 일정금액 이상의 신청 여신에 대하여 지원(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여신심사는 여신금액에 따라 심사협의체 구성원이 결정되는데 심사역 1인과 영업점장 1인으로 구성된 간이심사, 심사역 3인으로 구성된 심사역심의회, 심사팀장 3인 및 수석심사역들로 구성된 수석심사역심의회, 심사부장 및 심사팀장들로 구성된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담당임원 및 부서장들로 구성된 확대여신심사위원회, 임원들만으로 구성된 특별심사위원회로 운영된다. 여신심사 금액에 비례해 협의체 구성원도 각각 상위 직급으로 구성하여 여신 지원 여부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기업심사팀 내에 '업종별 심사반'을 신설하여 업종 전문 심사역을 양성해 시장변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심제도 신설, 신임 및 보직변경 심사역 심사 배정원칙 마련, 영업점장 심사부 방문 제한 등 심사업무 개선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부실여신 최소화를 위해 여신 책임자 및 실무자 100명을 대상으로 금융연수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등 영업점 여신심사 역량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07년 심사부 신설년도에는 총 1,739건 11조 6,000억 원의 여신을 검토 심사(승인 또는 부결) 하였으며, 심사 건수는 매년 증가하여 2011년도에 2,809건, 14조 6,000억 원의 여신을 심사하였다. 현재 수협은행 여신 잔액 중 50% 내외가 심사부에서 승인한 여신으로 심사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목표

심사부 신설 후 2011년 7월까지 고객군별 심사팀(반)을 운영하였고, 2011년 8월에 기업심사팀을 업종별 심사반으로 분류하여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심사부 전체를 업종별 심사팀(반)으로 전환 심사 전문성을 더욱 확대·강화할 계획에 있다. 최적의 심사를 위하여 별도 심사역 교육 프로그램 마련, 심사업무 개선, 투명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건전성에 기반한 안정성장 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부 장 · 이명숙

팀 장 · 김성완, 김종규, 전재현, 최민성

과 장 · 강연향, 경강수, 박민호, 권혁주, 김남엽, 김대영, 김용우, 김찬수, 김창석, 김향숙, 남승현, 박윤서, 박재곤, 신정훈, 안종흠, 유석중, 윤대선, 윤영수, 이재후, 이철규, 이한근, 임현성, 장성호, 정명섭, 정현수, 진봉근, 최병영, 한성은

사 원 · 박인애, 임영일, 채무궁화



II. 신용사업

사업부서 및 영업점 마케팅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경영지원실

Vision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최상의 업무 지원

업무

인력개발팀은 신용사업부문 인사제도와 운영평가 및 복지 교육훈련 등 인력관리에 대한 전반을 담당하고 있으며, 점포개발팀은 영업점 신설·이전·폐쇄 관련 업무, 중요 증서 및 장표관리 업무, 무인점포 및 점외 CD/ATM기 개설·폐쇄·이전·조정 계획 수립, 영업점 레이아웃 (Lay-Out) 관련 업무, 집기비품 및 사무용품 관련 계약 체결 및 공급, 자동화기기 업무제휴 추진, 수협은행 자본예산 집행 및 사후관리 업무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MPR팀은 신용사업부문 홍보계획 및 광고전략 수립·시행,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업무, CI·캐릭터·브랜드 전략 수립·시행, 대내외 고객행사 관련 업무, 스폰서십(후원은행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어도상생을 목적으로 지난 2002년부터 시작한 '사랑海 썸머페스티벌'은 현재 여름철 수협의 대표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행사를 통해 여름철 도시민이 우리 바다와 어촌을 찾아 휴가를 보냄으로써 도시와 어촌 간의 교류확대를 통하여 관심을 제고하고, 어업인의 신규 소득원인 어촌 관광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어촌체험 및 주변 관광지 체험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일반 피서객도 함께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을 통해 수협의 브랜드 친숙도를 제고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2005년 11월 4일 대한체육회와 공식후원은행 협약을 체결하여 대한체육회의 주관 경기 및 행사 참여뿐만 아니라 국제 경기에 로고를 노출시킴으로써 장기적 브랜드 자산 가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 외에도 어가 일손 부족에 도움을 주고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사랑海 대학생 어촌봉사단'을 창단하여 활동 중에 있으며, 사이버 홍보 강화를 위해 2010년부터 유니블루(대학생 홍보대사)를 운영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목표

전 부서원이 의기투합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더 많은 노력을 기할 것이며, 수협만의 독자적인 대국민 행사 등을 통해 어촌에는 복지증진을, 국민에게는 다양한 어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국민과 함께해 온 수협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광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실 장 · 위종환

팀 장 · 박수식, 엄용수, 임동훈

반 장 · 이상금

과 장 · 강길원, 김기원, 김명수, 박덕진, 신민수, 안병찬, 임승택, 장 욱, 최창용, 최용훈

사 원 · 권혁배, 김민성, 김성원, 민병승, 박민서, 박소현, 박지은, 방지은, 서시원, 성영광,

신소영, 신장훈, 이미현, 정동우, 최재호, 최희승, 표경상, 하나영

연구위원 · 강나리, 김선용, 김을목, 김종관, 김 철, 김태기, 김희철, 노정훈, 박상우, 박수원

성기철, 송재용, 안성임, 안영철, 양은희, 오대주, 유지희, 이문식, 이윤규, 임영철, 전병철

정광천, 정수철, 조태환, 채종익, 최병호, 최정권

교 육 · 강순길, 서봉교

파 견 · 권홍업, 배용진

휴 직 · 강복순, 강서운, 고윤미, 구수연, 김경영, 김남이, 김미정, 김보라, 김연진, 김예원

김은영, 김은정, 김지순, 김진향, 김진희, 김태훈, 김현희, 김효정, 노화정, 류선영, 문아정

박미은, 박미희, 박민정, 박상미, 박선미, 박수연, 박수정, 박은미, 박은희, 박현숙, 서경미

서지영, 손유리, 손진상, 송해득, 신미경, 신상별, 신현주, 심달명, 안동진, 안민선, 양혜선

여미선, 염이경, 오동영, 오진영, 옥연선, 유혜미, 유화진, 윤미정, 윤범희, 윤복희, 윤지혜

이경선, 이선미, 이수열, 이수영, 이숙희, 이연숙, 이은진, 이은진, 이재경, 이진애, 이태선

이해정, 이현주, 이현진, 이형순, 임유리, 임채리, 전영락, 정문기, 정미영, 정신현, 정은진

조애라, 조창경, 조해진, 조희정, 차현진, 최길연, 최길화, 최소영, 최승희, 최외옥, 최은영

최중숙, 최지혜, 한진희, 허승남, 홍수연, 홍지희, 황선녀, 황선영, 황혜선



II. 신용사업

고객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효율적 신탁업무

신탁사업실

Vision

Homo Hundreds, 퇴직연금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업무

신탁사업실이 취급하는 업무에는 퇴직연금신탁, 금전신탁, 재산신탁과 SPC수탁 업무가 있다. 먼저 퇴직연금제도란 퇴직금을 사외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호하고, 퇴직금 지급 방식도 일시금과 연금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퇴직급여제도이다. 확정급여형제(DB)·확정기여형제도(DC)·개인퇴직계좌(IRA)가 있다. 금전신탁은 신탁 인수 시에 신탁재산을 금전으로 수탁하여 신탁 종료 시 금전으로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으로서, 금전의 운용 지시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및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한다.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 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이며, 불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 방법을 지정하지 않는 금전신탁으로서 연금신탁과 개인연금신탁 등이 있다. 재산신탁은 신탁 인수 시에 신탁재산을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수탁하여 신탁 종료 시 신탁재산을 현상 그대로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으로서 부동산신탁, 금전채권신탁, 유가증권신탁이 있다. 부동산신탁은 신탁 인수 시 신탁재산으로 토지와 그 정착물을 수탁하고, 신탁 종료 시에는 운용하는 재산의 현상 그대로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을 말하며, 금전채권신탁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또는 신탁계약에 의해 금전채권을 신탁하고, 신탁 종료 시 신탁재산을 금전 또는 운용 현상 그대로 교부하는 신탁을 의미한다. 또한 유가증권신탁은 신탁계약에 의해 유가증권을 신탁재산으로 수탁하여 이를 관리·운용하여 신탁 종료 시 신탁재산을 금전 또는 운용 현상 그대로 교부하는 신탁이다. SPC수탁업무는 자산유동화를 위해 설립된 Paper Company인 SPC의 사무를 위임받아 회사 설립부터 청산까지 회계 관련 업무, 자산유동화 관련 사무 대행 등 상법 및 회사정관상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을 제외한 회사 전반의 일을 대행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업무이다.

목표

향후 근로자의 노후생활보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퇴직연금사업을 신탁사업의 주력으로 육성하고, 금전신탁은 특정금전신탁을 위주로 법인대상 맞춤형상품으로 특화하여 기업고객의 수요에 부응할 예정이다. 또한 적정 수익성 확보를 위해 재산신탁 및 자산유동화 업무 등의 영업에 더욱 주력하고, 아울러 신상품 개발을 통해 수익성을 제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실 장·강인범
과 장·서훈교, 이철수, 조진성, 차범석
사 원·구동현, 김찬식, 서영미, 조소현



II. 신용사업

금융사고 Zero, 청렴 100%, 나눔 ∞

준법감시실

Vision

건전 경영 체제 확립으로 고객 신뢰도 극대화

업무

준법감시인제도는 지난 IMF 구제금융 이후 고객 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회사의 임직원 모두가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사전 또는 상시적으로 통제·감독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금융업의 경우 은행업 관련 법령 등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준법감시인의 보좌기구인 준법감시실은 2003년 7월 리스크관리본부 내 준법감시팀으로 편제되어 업무를 개시하여 2005년 10월 독립부서로 개편되었고, 실장 직속으로 운용되는 준법감시 업무와 금융감독기관의 소비자보호 업무 강화에 따라 2012년 1월부터는 금융감독기관의 소비자보호 업무 강화를 위해 소비자보호팀을 신설·운영 중이며 실장소관의 준법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준법감시인은 은행법에서 정한 제도로써 은행 임직원들의 법규 및 내부통제 위반 여부를 점검·조사하여 감사위원회 및 소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수협은행 내부통제를 총괄하고 있으며, 지난 2005년 10월 18일자로 초대 준법감시인이 선임되었다. 수협 준법감시시스템의 직위별 역할을 보면, 먼저 소이사회는 내부 통제체제 구축 및 운영의 기본 방침을 정하고, 대표이사는 적절한 내부 통제체제를 수립한다.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내부통제 체제를 총괄하고, 부·점장은 소관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업무를 통할하고 있다. 임직원은 금융 관련 법규는 물론 윤리강령 및 내부 통제기준 등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며 각자의 직위에서 내부통제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준법감시 업무로는 은행 내 사고예방 등 내부통제시스템 총괄, 법규준수프로그램 운용 등 준법감시업무 총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은행법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을 통한 자금세탁 방지, 윤리강령과 사회공헌활동 등이 있다.

목표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국내 은행 간의 경쟁이 보다 과열되고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보다 철저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사고를 예방하고, 내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사전적 민원 예방을 통한 민원 감축, 찾아가는 나눔문화 활동을 전개하며 청정바다처럼 깨끗하고 푸른 수협은행을 만드는 데 앞장 서 나갈 것이다.



실 장·양창호
 팀 장·강병로
 과 장·김대욱, 김선기, 김수권, 나건주, 남태우, 이상미, 임병만
 사 원·이은희
 내부통제역·김광찬, 김명중, 김충권, 김홍원, 노형찬, 박충원
 윤상교, 아우재, 정용화, 조경원, 조택수, 허영만



Ⅱ. 신용사업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외환사업팀

Vision

지속성장을 위한 견고한 토대구축

업무

외환사업팀은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전체 외환사업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기획파트**, 대내외 법령·규정 및 환경변화를 내부 외환 업무에 적절히 반영하고 관리하는 **제도파트**, 영업점의 외환마케팅을 다방면에서 지원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는 **마케팅 파트**, 마지막으로 영업점에서 1차적으로 일어난 업무를 분야별로 지원하고 사후관리하여 각각의 외환업무가 원활히 순환되도록 하는 **영업파트**가 그것이다. 복잡하고 다양한 수출입업무 및 외국환거래 분야에서 고유의 전문성을 통해 고객을 만족시키고, 예대 마진이 축소되는 현대 금융시장에서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대표 비이자사업팀으로서 비이자성 수익 창출에 일조하고 있다. 국제무역거래의 안전한 대금결제수단인 신용장(Letter of Credit) 업무에서부터 국제 신용거래 확대에 따른 무신용장 방식 수출입 업무, 무역금융 및 내국신용장을 통한 수출업체 지원 및 외국환 관계법령에 따른 환전·송금 등 외국환거래 전 분야에 걸쳐 해당 분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 그 외 지속적인 현장지원교육 및 외환기업체 마케팅 등을 통한 외환사업 기반 확대와 국내 외화 실시간 자금이체 시스템, 외환서식 2D 바코드 시스템 등 외환 업무 인프라 구축, 외교통상부와의 해외 긴급 경비 신속송금제도 협약 등을 통한 신규 수익원 창출에도 힘쓰고 있다.

목표

글로벌 금융위기, 외환위기 속에서도 수협은행의 든든한 외환업무 지원과 외환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탄탄한 외환사업 시스템을 구축해나갈 것이다.



팀 장 · 강정식

과 장 · 김강태, 김영인, 성기환, 여경화, 이성수, 최구송
사 원 · 노연아, 성지영, 송준용, 신민주, 윤정락, 이은정,
주용한



Ⅱ. 신용사업

수협카드 사용은 수협사랑 첫걸음

카드사업팀

Vision

회원 100만 매출 1조 원 달성

업무

카드사업팀은 기업고객부, 전략사업부 등 사업부서의 팀으로 구성되어 오던 중 2011년부터 비이자사업 역량강화와 신속한 추진력 증강을 위해 현재 독립사업팀으로 마케팅본부 소속으로 편제되어 운용 중에 있다. 은행 업무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겸업은행으로서 카드사업팀은 수협 신용카드 업무를 총괄하며, 신용카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대내외 보고를 담당하는 기획 업무, 각종 대내외 제도와 규정을 관리하는 제도 업무, 신용카드 회원과 가맹점의 운영 업무, 가맹점과의 제휴 및 상품개발, 실적증대를 위한 마케팅 업무, 신용카드 발급 및 배송, 장표류의 공급과 대금정산, 거래 업무를 담당하는 후선지원 업무, 연체 및 리스크 관리와 사고보상 등의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목표

신용카드 사업은 규모의 경제를 대표하는 장치산업으로서 안정적 사업영위를 위한 적정회원 확보와 규모가 이루어져야 하나, 수협카드는 타행(타 카드사)대비 회원수 등 사업규모가 규모의 경제에 미달하여 다양한 제휴서비스 부족 등 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경기회복 둔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가맹점수수료율 인하 압력 및 외형규제와 같은 정부정책 등 대내외 환경 극복을 위한 외형확대 등 무리한 타행과의 경쟁을 지양하고 여·수신 등 기존거래처에 대한 교차판매, 틈새시장 개척 등 수익성 위주의 내실경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의 구체적 실천을 위하여 수협카드를 차세대 핵심 동력사업으로 육성하고자 기업회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기업카드 유치 증진을 위한 마케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기업구매카드 마케팅을 중점 추진하여 수익증대 기반을 견고히 할 계획에 있다. 개인회원 부문에 경쟁력 강화로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리볼빙서비스, 사전한도 부여방식의 카드로 등 현금성 매출상품 출시를 통한 수익원 확보와 할부거래 운용을 다양화하고 제휴 가맹점 망을 확대하여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영업점의 마케팅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하여 손쉬운 판매와 동기부여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내부 캠페인 전개와 영업점 현장지원을 통한 역량 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수신고객 기반으로 체크카드 유치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에 있다.



팀 장·윤병삼
과 장·김미옥, 양제열, 이은경, 이주일, 조한백
사 원·김종섭, 장경원, 정상복, 정성국, 최운선, 허주희



Ⅱ. 신용사업

각종 프로모션 및 영업점 지원 서비스를 통한
비이자사업 수익 확충

방카슈랑스팀

Vision

공제이익 세자리 수 안정적 정착

업무

방카슈랑스팀은 신용영업점의 공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직원 독려 프로모션 및 마케팅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4년부터 매년 직원 및 영업점을 대상으로 연중 프로모션을 실시하고 있고, 공제보험부와 공동으로 3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캠페인을, 9월부터 11월까지 하반기 캠페인을 고객사은행사와 병행하여 실시하며, 매년 한 해 동안 공제 우수 실적자를 시상하는 연도대상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2006년에는 민영보험사의 '3W운동(1주 3건 가입)'을 수협은행 실정에 맞게 적용한 '1W운동(1주 1건 가입)'을 실시하여 연간 52주 연속 달성에 45명의 직원이 성공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이를 더욱 발전시켜 'WiW', 'DO it 5W', 'All in 3W' 프로모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9년에는 한 달간 실적우수 영업점 및 개인에 대한 프로모션인 'TOP Branch'와 '이 달의 보험왕(2011년 올림피아드)'을 추진하여 단기간 성과에 대한 보상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본사 전문역이 동행하여 마케팅을 지원하는 '긴급출동 SOS' 서비스를 운용하여 영업점의 현장마케팅 지원 요청에 대한 본부 상시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2011년에는 공제 판매 붐을 조성하고 신규 실적 증대를 도모하고자 '수협 방카 DAY'를 실시했다. 대상 영업점이 직접 추진 기간 및 목표를 선정하여 진행하는 단기간 공제 집중 판매 프로모션으로, 2011년 9월 11개 영업점을 대상으로 제1회 '수협 방카 DAY'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우수한 실적을 거두며 영업점 비이자이익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아울러 방카슈랑스팀에서는 '공사모' 활동을 여러 방면으로 지원하고 독려하고 있다. 공사모는 수협은행 최초 학습조직으로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매년 2회 이상 회원들의 단합과 정보공유를 위해 공동 연수를 개최한다.

목표

지금까지 추진했던 프로모션 및 영업점 지원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켜 수협은행 비이자사업 수익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팀 장 · 조정호
과 장 · 곽유리, 구동우, 김중학, 박상민, 한대식
사 원 · 조애나



Ⅱ. 신용사업

안정적 수익원 확보를 통한 펀드사업 재도약

펀드사업팀

Vision

선택과 집중을 통한 펀드사업 재도약

업무

급변하는 증시 환경에서 국내 증시는 리레이팅(Re-rating)을 거쳐 밸류에이션(Valuation) 상의 저평가 영역을 완전히 탈피하였다. 주식시장이 선진화됨에 따라 기업이익과 주가와의 상관관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정착에 따라 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기업들의 프리미엄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펀드사업팀은 이러한 시장 속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의 기업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기업에 투자하는 가치형 펀드, 기업 경쟁력과 이익 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고성장 기업에 투자하는 업종 대표주 펀드를 론칭하여 고객자산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특히 뛰어난 정보수집 및 전문적인 분석 능력을 통해 우수한 펀드를 선정하여 고객의 성향과 상황을 고려하는 맞춤형 상품을 제안하고 있으며, 꼼꼼한 관리로 고객 수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쟁력 있는 판매역량 확보를 위한 펀드투자상담사 자격증 취득 추진과 전 부서원이 혼연일체로 교육에 매진한 결과 금융감독원에서 주관하는 펀드미스터리쇼핑 평가에서 2011년 '우수판매사' 타이틀을 획득하는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목표

펀드사업 추진 방향의 목표를 '안정적 수익원 확보를 통한 펀드사업 재도약'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파생상품 펀드 판매 증대, 적립식 펀드 집중 추진, 다양한 연금상품 확대, 펀드 자격증 취득률 제고, 철저한 불안전 판매 예방교육, 고객 선호형 전략상품 출시, 고객펀드 서비스 강화 등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향후 펀드고객 기반 확대를 위해 어린이 펀드, 전환형 연금펀드 가입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적립식 계좌 10만 계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최근 트렌드로 떠오른 베이비부머 세대 맞춤형 상품 판매 강화를 위해 월지급식 펀드 서비스를 도입하여 연금시장을 개척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투자자 선호도가 높은 맞춤형 상품인 사모 펀드, 압축 포트폴리오 펀드 등을 출시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일 것이며, 각종 이벤트 행사 및 SMS와 e-mail을 활용한 고객알림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다.



팀 장 · 최형록
과 장 · 민원대, 오제현, 윤효심, 원관희
사 원 · 고영하

Ⅲ. 노동조합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

노동조합

Vision

조합원의 행복, 하나된 강력한 노동조합, 살맛나는 조직

업무

노동조합은 수협중앙회에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나아가 국내에 있는 여러 조합과 교류하며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주로 직원들의 복지 문제 해결이 가장 큰 활동 중 하나인데 직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물론 불합리한 모든 일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할 말은 할 수 있는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노동자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초창기 활동은 임금투쟁과 복지제도 개선을 위해 주력하는 것이었는데 1988년 5월 12일 은행연합회 회관에서 농수축협 대표가 임금인상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임금 16%의 인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1990년도 초반에는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부당함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였고 정시 출·퇴근 운동과 여직원 제도를 폐지하고 남녀단일호봉제를 도입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로는 국내 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직원들의 일자리 사수를 위하여 1998년 12월 연말정기상여금 반납, 상여금 및 보건 단련비 등을 반납하며 스스로 회사에 보탬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2000년 들어서는 전국협동조합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선진화 된 근무환경을 쟁취하기 위해 2002년 5월 주 5일제에 합의했다. 또한 각종 휴가 제도를 확대하고 상여금을 장려하도록 노력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직원들의 직장 만족도를 조사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사원을 넘어 그 사원의 가족까지 배려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목표

대내외 악조건 속에서도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여 왔으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결과가 때론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항상 변함없이 정진하겠다.



위원장 · 안배영
부위원장 · 김영미, 정익용, 조성현
국장 · 이상준, 장혜영



IV. 자회사

수협 및 관련 자회사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한 관리와 기능 유지

(주)수협개발

Vision

정도경영, 사랑받는 기업

업무

(주)수협개발은 수협 및 관련 자회사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한 관리와 기능 유지를 위한 각종 사업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95년 4월 자본금 1억 원의 '주식회사 수협용역'으로 설립되어 1999년 1월 강서공판장의 각종 시설물 관리 및 주차 업무를 담당했고, 2002년 4월 노량진수산시장 청소 관리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2003년 8월 '주식회사 수협개발'로 명칭을 변경하고, 2009년 7월 현 장소로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요 사업은 시설물 관리·유지(기계, 전기, 엘리베이터, 방재, 영선 등), 환경관리(미화, 조경), 주차관리, 경비, 근로자 파견사업 등이다. 본사 외에 잠실, 노량진, 강서, 천안, 대전, 전주, 광주, 대구, 창원 등 9개 지소를 두고 있으며, 현재 인원은 시설 46명, 미화 103명, 주차 29명, 경비 18명, 기타 16명 등 총 212명이다. 임원은 대표이사 1명, 비상임이사 3명, 비상임감사 1명 등이다.

목표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 억제, 주요 시설물 관리 및 유지, 그리고 깨끗한 환경관리를 통해 전 임직원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대표이사 · 권혁상
상 무 · 김형일
팀 장 · 한명옥
과 장 · 서상훈
사 원 · 강병국, 박원빈, 박자선



IV. 자회사

어민에게 보람을 고객에게 만족을 우리는 기쁨을

노량진수산(주)

Vision

브랜드 가치를 활용한 고객만족 경영

업무

노량진수산(주)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개설자는 서울특별시이다. 정식 명칭은 '서울특별시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2002년 1월 이전에는 한국냉장(주) 자회사로 운영되다가 2002년 2월부터 수협에서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 노량진수산(주)은 전국 각지로부터 대량, 다종의 수산물을 수집하여 분산하고, 상장경매에 의한 공정 어가(魚價) 형성을 통해 전국 산지·소비지 지표가격을 제공하며,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시장 관리와 운영은 도매시장법인인 노량진수산(주)이 직접 담당하고 있다.

목표

전국 최대 수산물 전문도매시장으로서 풍부한 유통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산물 유통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 시장 현대화를 추진(2015년 완공 예정), 종합유통센터로 탈바꿈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아시아 최고의 수산물 '허브마켓'으로서 재탄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표이사·양성일

상임감사·정용균

총무이사·정상원

사업이사·김상진

부 장·김효동, 이현주, 임병득, 조동익, 최상훈, 표희종

실 장·윤수상

과 장·강석원, 강성일, 고동규, 구자와, 김기환, 김민철, 김병태, 김영재, 김용성, 김진호, 김천석, 김철호, 김형진, 남내철, 류근욱, 맹건재, 민병렬, 박교재, 박기흥, 박순구, 백승욱, 성낙봉, 성시일, 성용섭, 성태모, 안종갑, 양주현, 오건상, 우종근, 이덕장, 이연우, 이재현, 이주연, 이창원, 장진오, 전진철, 정익호, 정효은, 조규철, 조성홍, 진용수, 최진현, 표홍기, 한성희, 홍창기

사 원·가경현, 강석병, 강성욱, 강장규, 고경호, 권병성, 김경진, 김대희, 김덕호, 김백수, 김병돈, 김상길, 김태준, 김해원, 김현수, 노석훈, 박영도, 박한웅, 백영준, 서재중, 송용호, 신대일, 신용문, 엄현웅, 이동규, 이상래, 이상화, 임혜경, 정경문, 정용준, 정진명, 정창수, 정충기, 차경진, 차명선, 최성철, 최수명, 한주오, 황오환





IV. 자회사

어민에게 희망을 고객에게 믿음을

(주)수협유통

Vision

어업인과 고객에게 필요한 '바다마트'로의 자립기반 마련
수산물 유통을 선도하는 일류 유통기업

업무

(주)수협유통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 “농·수협은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화를 위하여 유통자회사(상법상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를 두고 1992년 8월 21일 수협중앙회가 100% 출자하여 설립되었다. (주)수협유통은 수산물 유통·판매 사업 참여 확대 및 수급 조절을 통해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수산물의 가공 상품화 및 마트사업을 통한 수산물 소비촉진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주요사업으로는 산지공판장을 통하여 수매한 수산물을 도소매업체와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직판사업, 수산물을 가공한 상품을 판매하는 특판사업, 수산물 가공 전문인력을 관리하는 도급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1년 1월 수협중앙회의 바다마트(회상) 사업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등 계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목표

앞으로도 '어민에게 희망을 고객에게 믿음을' 이란 사훈을 걸고 수산물의 가공 상품화 및 유통사업을 통한 수산물 소비촉진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더욱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대표이사·백순기, 서경원

부 장·이근웅, 이해용

팀 장·이연호, 임근성, 조창수, 주경수, 한경욱

과 장·박세광, 오정화, 이수명, 이평후, 정동휘, 최상호

사 원·김바다, 김백진, 김지수, 김창근, 나진욱, 문성은

박순자, 백성현, 서경실, 서지연, 송향임, 심정수, 안혁준

오춘보, 이정일, 이충교, 임종영, 하현일, 황광수



IV. 자회사

품질·기술 경쟁력을 갖춘 양어사료 선도기업

(주)수협사료

Vision

품질과 기술 경쟁력을 갖춘 양어사료 선도기업

업무

(주)수협사료는 정부의 '기르는 어업 육성' 정책에 따라 양질의 양어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사료가격 안정을 통한 양식어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1997년 1월 수협중앙회와 양식 수협(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 제주어류양식수협, 양만수협)이 공동출자하여 설립된 (주)수협사료는 1998년 5월부터 해산어용과 뱀장어용 사료를 출시하기 시작했다. 이후 2005년 3월에는 EP사료 생산설비 준공식을 갖고 전 어종에 걸친 EP가공사료를 출시했다. 2010년에는 사료업계 판매순위 2위(해산어부문 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공장 규모는 부지 1만 3,041㎡(3,945평)에 건물 5,263㎡(1,592평)이며, 생산능력은 1만 2,000M/T/년(50M/T/일, 8시간 기준)이다. 생산 품목은 분말사료 2종 10 품목, EP사료 22종 135품목, 총 145품목, 분말사료(Mash) 2종류(해산어, 뱀장어) 9품목, 해산어 EP사료 15종류(넙치, 송어, 전어, 우럭, 돌돔, 돔, 새우 등) 107품목, 담수어 EP사료 7종류(뱀장어, 송어 등) 28품목이다. (주)수협사료는 이 같은 양어용 배합사료를 제조·판매하고, 국내 어류사료의 가격상승 억제에는 물론 국립수산물연구원 양식사료연구센터 및 양어사료 전문대학과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양식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반복적인 현장 적용 실험을 통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수협사료로 거듭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목표

공격적 마케팅을 통한 시장점유율 업계 1위를 달성하여 시장의 품질을 선도하고 가격을 안정화시킴으로써 양식어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국가 식량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대표이사·권오국
 상임이사·박홍식
 상 무·김중호, 최찬환
 팀 장·구지완, 박상모, 서종원, 허인철
 과 장·김영규, 송용선, 이홍용, 이희찬, 장현석
 사 원·김연숙, 김경규, 김명규, 김연철, 김영석,
 김우열, 김정근, 박동화, 박미림, 오성숙, 유찬욱,
 윤형석, 이석규, 이영재, 이외욱, 이용환, 이정균,
 이혜민, 전효정, 정근호, 조현준



수협동우회

업무

수협동우회는 1979년 9월 수협중앙회를 퇴직한 직원들이 가진 친목모임에서 시작되었다. 그 자리에 모인 수협인들은 퇴직 후에도 서로의 안부를 묻고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기 위한 일환으로 동우회를 결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회원을 모집하기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1981년 1월 9일 수협인들의 쉼터인 동우회가 창립총회를 갖기에 이른다. 또한 이듬해인 1982년 3월 26일 서울 중구 오장동에 사무실을 개소하고 이후 중구 신당동 소재 현재의 사무실로 이전하여 왕성한 활동으로 30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수협동우회는 매년 신년 교례회를 비롯 3월 정기총회, 11월 임시총회와 5월과 10월 봄·가을 단합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경조사 지원 및 통보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한편 동우회 내에는 지역·취미·입회기별로 다양한 친목소모임이 운영되고 있으며 동우회는 그런 모임들이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모임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회원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의 근황을 살필 수 있도록 매월 수협동우회보와 매년 편람을 발간하고 있다. 동우회는 왕성한 활동을 바탕으로 전·현직 수협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단체가 되었으며 현재는 연간 2,000명의 회원이 동우회 사무실을 방문하고 있다.

목표

앞으로도 열린 자세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직의 결속력이 더욱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언제나 수협인들이 편히 기대 쉴 수 있는 그루터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회 장·권영두
부 회 장·공창석, 권용락, 김삼곤, 김철기, 신영복
염기영, 이예훈, 이완규, 정대진, 최동영, 최병국
감 사·박영표, 최명근
사무국장·박재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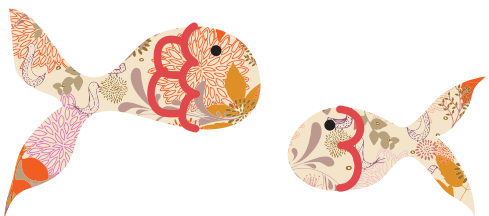
제2부 회원조합사

The Member Cooperatives

상부상조의 조합원 공동체이자 인적 결합체인 조합은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끊임없이 조합원과 소통하고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온 힘을 다하며, 지역사회 공헌을 통해 협동조합의 이념을 전파하는 전령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오늘도 전국의 92개 조합은 조합원을 섬기며 조합원의 행복한 삶과 풍요로운 여촌 건설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The Member Cooperativ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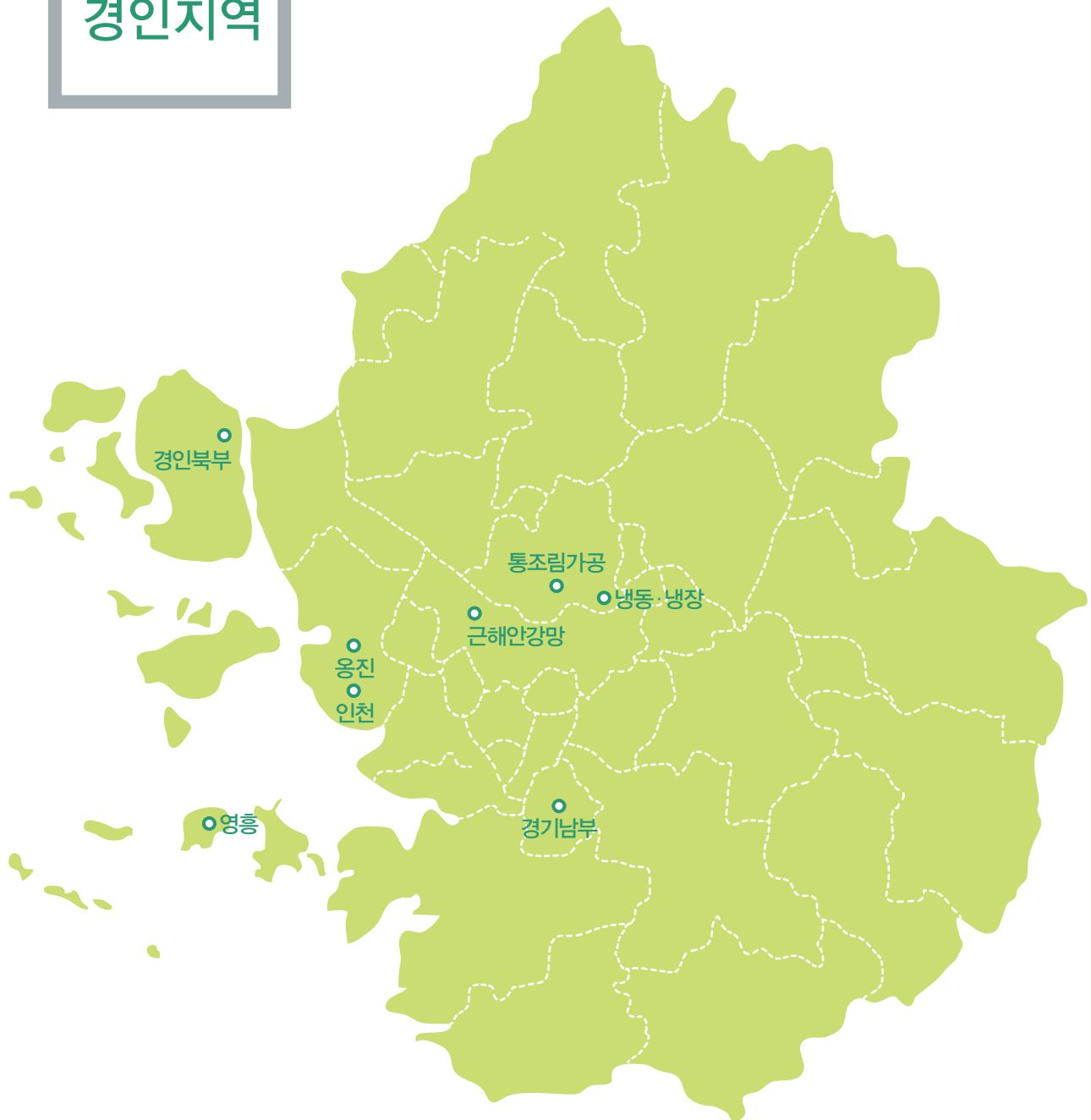
조합원의 행복한 삶과
풍요로운 어촌 건설을 꿈꾸다...





회원조합 네트워크

경인지역



- LET'S GO JUMP TOGETHER-경인북부수협
- 신 해양 시대의 주역-옹진수협
- NEW GROWTH GOOD BALANCE-경기남부수협
- 전국제일의 선도수협, 복지수협-인천수협

- 바다와 함께하는 영흥수협-영흥수협
- 희망·화합·단결-근해안강망수협
- 신명나는 일터, 따뜻한 임직원-통조림가공수협
- 냉동냉장창고업자 권익보호와 함께하는-냉동냉장수협

LET'S GO JUMP TOGETHER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31.05.03 서도면어업협동조합 설립
- 1962.04.01 강화어업협동조합 설립
- 1977.04.23 강화군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1979.12.28 본점 신축 및 신용사업 개시
- 1999.12.29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조합원(명)	어촌계(개)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1,213	20	10/119	14



조합장 | 이경식

역대조합장

1대	2~4대	5대	6~8대	9~10대	11~14대	15~17대
고영귀	유봉단	박용석	유봉단	홍정화	박용렬	이경식



경인북부수협 새우젓 위판

경인북부수협은 1931년 서도면어업협동조합으로 설립된 이래 조합원의 성원에 힘입어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왔다. 이 지역은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역으로 염도가 낮아서 그 맛이 다른 지역보다 짜지 않기로 유명한 새우의 산지이다. 우리나라 새우젓의 70%가 이 지역에서 생산된다. 이러한 천혜의 자연 환경에 힘입어 경인북부수협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어업인의 수산물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활동으로 지역의 초·중·고 단체급식 납품 및 군납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 생산을 위한 최신식 식품의약품안전청 HACCP 시설장을 보유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수산물 보급 창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연간 2,000톤 이상 생산되는 새우의 보관과 유통을 위한 새우젓 저장시설(새우젓 4,000D/M 저장 기능)을 갖춘

으로써 진정한 새우젓 생산지 수협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밖에도 수산물 가공시설 확충 및 각종 국제박람회 참여 등 유통산업 발전과 판로 확보를 위한 국제시장 개척, 어업인 복지증진 정책 등을 활발하게 펼치는 조합으로 2011년에는 이경식 조합장이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우리수협 POINT

- ◎ 매년 10월, 전국 유일의 새우젓 축제 개최
 - 국내 최고 김장용 새우젓 보급 수협으로 성장
- ◎ 강화도 어장에서 생산되는 밴댕이와 각종 잡어
 - 전국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먹거리로 각광

웅진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62.04 연평·덕적·부천·용유 어업협동조합 설립
- 1962.07 대청어업협동조합 설립
- 1965.04 백령어업협동조합 설립
- 1972.07 덕적·용유 어업협동조합이 부천군어업협동조합에 병합
연평·대청·백령 어업협동조합을 웅진군어업협동조합으로 통합
- 1977.04 부천군·웅진군 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1981.03 부천군수산업협동조합을 웅진군수산업협동조합에 통합
- 1992.12 웅진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조합장 | 박 정 재

조합원(명)	어촌계(개)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3,835	35	13/175	25

역대조합장

1대	2대	3대	4대	5~6대	7~10대	11~12대	13대	14대
최상유	전종준	조태영	정익화	김홍범	홍성웅	박정재	장천수	박정재



까나리액젓 제조 과정

웅진수협은 1960년대부터 서해 5도서를 포함한 웅진군 및 일부 경기도를 권역으로 한 지구별 수협이다. 백령면, 대청면, 연평면, 덕적면, 자월면, 북도면과 안산시 대부도, 시흥시 월곶, 오이도 및 부천, 군포, 과천, 의왕시를 업무구역으로 약 4,000여 명의 조합원이 있다. 백령지점을 포함한 15개의 상호금융 영업점은 선진화된 전산시스템 및 대고객 서비스로 전국 최고의 영업 실적을 자랑하고 있으며 인천 연안부두와 대부도, 백령도, 대청도를 기반으로 한 위판장에서 각종 수산물의 위판이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연평도와 덕적도 인근의 특정 해역에서 어획되는 서해안 꽃게는 웅진수협의 대표적인 위판 수산물로서 전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더불어 백령도 청정해역에서 어획되는 까나리를 첨가물 없이 소금으로 절여 가공한 백령도 까나리액젓에

대해서는 김장철뿐 아니라 사계절 고객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행정기관과의 유대로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신선한 수산물 및 특산품을 제공하고자 정기적으로 수산 관련 축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산물 판매 확대를 위해 백령도에 최신 액젓 가공공장을 준공했다. 지역 특성상 대북 위기감과 중국어선의 불법 어획 소식 등이 매해 보도되고 있지만 웅진수협의 조합원과 임직원은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 및 지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침으로써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 공급과 어업인 복지기반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수협 POINT

- 매년 11월 알이 꽉 찬 꽃게 어획 절정
- 11월의 꽃게, 최상의 품질을 인정받아 두 배가량 비싼 가격에 출하
- 상품성이 낮은 꽃게는 인천시꽃게사업단과 연계해 천연 조미료와 비료로 생산, 어업인들의 시름 경감

NEW GROWTH GOOD BALANCE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43.12.24 수원어업조합 설립
- 1977.04.01 화성군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인계동 주사무소 변경
- 1981.03.02 평택군수산업협동조합 흡수 합병
- 1997.05.16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2009.12.31 수신고 9,192억 원 달성

조합원(명)	어촌계(개)	임원/직원(명)	지사사무소(개)
3,024	37	17/219	25



조합장 | 조 성 원

역대조합장

1~3대	4대	5~6대	7~9대	10~12대	13대	14~16대	17~18대
김달수	이종국	이희석	한기수	손상운	이종국	박학순	조성원



회원조합 최초 공제수익 20억 달성

경기남부수협은 '5년 연속 전국 수협 상호금융 업적평가 우수 조합 선정'과 '전국 수협 최초 예탁금 9,000억 원 돌파'하며 전국 92개 회원조합 중 최고를 자랑하는 경기도 유일의 수산업협동조합이다. 평택항이 개발되면서 조업구역이 간척지 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되어 많은 어업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조합원 복지 향상을 위한 지도사업비를 확보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현재는 상호금융사업 비중이 크나, 2010년 평택항사업소(냉동·냉장 창고) 및 공평리위판장의 건립으로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유통을 위한 전진기지가 완성되어 수산업의 발전과 소비자의 안전한 먹

거리 공급에 기여하고 있다. 관내에 500여 척의 어선과 3,100ha의 어장이 있으면서도 낙후되고 열악한 수산시설이 수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설을 확충한 것이다. 한편, 상호금융사업은 시중은행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공제사업의 경우 2010년 전국 최고의 연도대상을 수상했다. 향후 경기남부수협은 경제사업 활성화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수협 POINT

- ◎ 2010년 회원조합 최초 공제수익 20억 달성
- ◎ '공갈클럽(공제를 갈망하는 클럽)' 전국 공제 실적 순위 200위 이내 우수직원 모임 활성화
- ◎ 전 영업점(21개 지점) 1억 달성 프로모션 실시
 - 현재 7개 지점 목표 달성(연무동·북수원·화서·권선·매탄·천천동·탑동지점)

전국 제일의 선도수협, 복지수협

인천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26.01.12 인천어업조합 설립
- 1962.04.01 인천어업협동조합으로 개칭 및 설립
- 1976.03.29 여·수산업부 개시
- 1990.03.21 인천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1999.10.18 본점 청사 연수동으로 신축 이전
- 2010.03.31 수신고 1조 원 달성

조합원(명)	어촌계(개)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2,273	18	11/286	32



조합장 | 조창남

역대조합장

1대	2대	3대	4대	5~6대	7~8대	9대	10대	11~12대	13~15대	16~19대	20대
김승락	고형호	문태준	김승재	임종진	김철완	김계홍	서봉준	여종기	장순복	차석교	조창남



꽃게 치어 방류행사

인천수협은 1926년 인천어업조합으로 발족하여 열악한 어업 환경 타개에 전력해 오다가 1961년 송도어업조합과 영종어업조합을 편입해 조직이 확대됐다. 이후 1962년 인천어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협동조합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1971년에는 수협중앙회로부터 화수위판장을 인수하여 위탁판매 업무를 개시했고, 상호금융 업무를 시작하여 조합원 상호간의 호혜 금융, 조합 금융을 통한 자주적인 어업자금 공급을 활발히 전개해 왔다. 1986년 활어 위판장 개장과 1986년 소래유통시설 신축 준공으로 경제사업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1989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영종, 용유지역 9개가 어촌계로 편입됨으로써 17개 어촌계로 조직이 확대됐다. 1990년 인천수산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1990년 중구 송월동에서 남구 주안동으로 본소

청사를 신축 이전하였다. 1991년에는 연안 항구 수산물 유통시설을 준공하여 명실상부한 전국 제일의 협동조직으로 발전하였음은 물론, 지금까지 총 33개의 상호금융 점포를 개점했다. 1997년 연안부두에 화백화점 개점을 통해 싱싱한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판매하기 시작했다. 1999년 본점 청사를 연수구 연수동으로 신축 이전했고 인원 감축 및 화백화점 폐점 등의 자구노력 끝에 2002년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9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는 한편, 26개 지점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2010년 전국 회원조합 가운데 최초로 '예탁금 1조 원 달성'이라는 금자탑을 이루었다.

우리수협 POINT

- 전국 꽃게 어획량의 40% 차지
- 맛이 일품인 인천 꽃게는 지역 수산물 브랜드 가치 평가 8위 등극
- 매해 꽃게 축제를 개최하여 인천 꽃게의 홍보와 어업인 간의 화합을 위해 노력

바다와 함께하는 영흥수협

영흥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35.** 영흥영어조합 설립
1977.05. 내리·영암·외리·업벌·용담·선재·자월 비법인 어촌계 합병
2002.08.29 수협중앙회 지구별 조합 회원가입
2004.04.08 수산물 직판장 A·B동 준공
2009.11.30 수산물 가공센터(김, 다시마 건조장) 준공



조합장 | 김기창

조합원(명)	어촌계(개)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924	6	9/20	4

역대조합장

1~3대
김기창



풍어제

축제'를 개최하는데 이는 기존의 풍어제를 축제로 업그레이드 하여 영흥의 특색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매년 축제 기간에는 지역주민과 어업인을 비롯해 타 지역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활기찬 축제마당에서는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넘쳐나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다.

영흥수협은 1977년 관내 6개 비법인 어촌계를 통합하여 영흥법인어촌계로 출범했고, 이후 2002년 영흥수협으로 승격됐다. 영흥수협은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있는 아름다운 고장으로 영흥 대교 개통과 함께 교통망이 확충됨에 따라 관광객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주5일제 근무에 따른 어촌관광 및 해양레저 인구가 증가하면서 어촌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국민들의 다양한 해양레저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수도권 제일의 관광명소로 발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어촌 체험마을·관광유람선·축제식 유어장(낚시터) 운영, 수산물직판장 운영사업 등 다양한 관광사업 활성화 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영흥수협은 매년 봄이 되면 '영흥풍어

우리수협 POINT

- ◎ 어업인의 주소득원인 영흥도 바지락
→ 영흥 앞바다에서 산란기(7월 초순~8월 중순)를 제외하고 향시 채취, 씨알이 굵고 영글며 피로회복 및 숙취제거 식품으로 애용
- ◎ 영흥도 칼국수
→ 영흥도 바지락을 넣어 시원한 국물이 일품인 지역 명물 칼국수

희망 · 화합 · 단결

근해안강망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65.08.19 창립총회
- 1965.10.15 한국대형안강망어업협동조합 설립
- 1997.04.30 근해안강망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1997.08.12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64-5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1105-4로 주사무소 이전



조합장 | 김재현

조합원(명)	임원/직원(명)	지사사무소(개)
95	8/123	11

역대조합장

1~2대	3~4대	5~6대	7~8대	9대	10대	11~12대	13~14대	15~16대	17~18대
김광춘	장시환	김관은	양태규	안경호	오규근	박계식	이성수	소수웅	김재현



근해안강망수협의 선박들

근해안강망수협은 서울, 경기, 인천, 군산, 목포, 여수, 부산 등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안강망 어업인이 조직한 업종별 수협이다. 1965년 한국대형안강망어업협동조합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으로서 46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상호금융부문에서 매년 전체 회원조합 중 최고의 수익을 창출해 오면서 복지조합으로 촉망받고 있다. 또한 조합의 건전 경영을 통해 발전과 도약을 거듭하며 튼튼한 조합으로 한층 더 자리매김하고 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조합원과 고락을 함께하며 조합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그리고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현재는 5년 연속 상호금융 100억 달성을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다. 이 새로운 목표는 어려울 때를 잊지 말고 항상 최선을 다하자는 뜻으로 설정한 것이다. 근해안강망수협은

‘부정부패 없이 조합원과 임직원, 더 나아가 국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이익을 분배하는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기 위해 오늘도 달리고 있다.

우리수협 POINT

- ◎ 3각 네트워크(Net-Work) 판매 방식 구축
 - 굴비와 병어 등 ‘고급선어세트’ 자체 제작
 - 대면판매,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 등 다양한 방법 적용
 - 적극적인 고객 서비스 실현

신명나는 일터, 따뜻한 임직원

통조림가공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30.06.21 조선계통조림수산조합 설립
- 1962.04.01 수산통조림제조업협동조합 설립
- 1977.04.30 통조림제조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1999.11.24 통조림가공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2011.10.20 서초역지점 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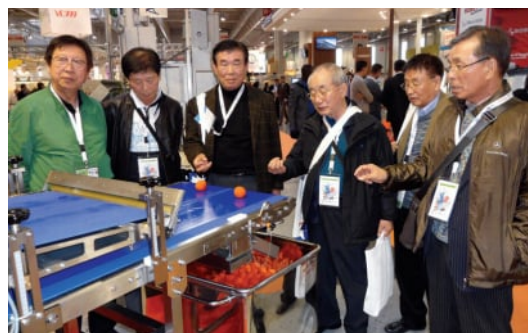


조합장 | 허영오

조합원(명)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27	8/49	5

역대조합장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9대	10~14대	15~16대	17대
송형구	이평기	이호우	송형구	이평기	이호우	홍등환	차석홍	김재운	허영오



2010년 파리국제식품박람회(SIAL2010) 조합원사 경제협력 추진관련 산업시찰

통조림가공수협은 전신인 '조선계통조림수산조합'으로 발족하여 1962년 수협법 제정·공포에 따라 수산통조림제조업협동조합으로 설립된 후 현재의 조합으로 발전해 온, 반세기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수산물 가공 수협이다. 통조림 수출 및 군납사업을 주사업으로 명맥을 이어오던 1991년 상호금융점포인 서초 지소(현 방배동지점) 개점을 시작으로 2011년 서초역지점까지 현재 5개의 상호 금융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상호 금융 업적평가에서 경영대상 4회, 경영우수상 1회를 수상한 명실상부한 1등급 조합이다. 또한, 전국의 수협 상호금융 영업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고객응대 서비스(CS) 평가에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최우수 조합으로 선정되는 등 대고객 서비스의 질이 특화된 견고한 조합으로 정평이 나 있다. 평소 창조적인 조직

문화를 바탕으로 불우이웃돕기, 어업인복지기금 출연 등 나눔행사에 적극 동참하면서 '푸른바다 가꾸기 행사'와 태안기름 유출 사고 방제 작업 등 사회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이로써 2008년 '제13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김재운 조합장이 동탑산업훈장을, 같은 해 수협 창립 46주년 기념식에서 방관혁 상임이사가 국무총리 표창을, 2011년 제16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허영오 조합장이 철탑산업훈장을 수훈하는 등 내실있고 탄탄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다.

우리수협 POINT

④ '뚝모아 힘모아 파이팅 CAN!!'

- 하나의 구호 아래 전 임직원이 일치단결
- 새로운 도전과 도약을 통해 '할 수 있다(CAN)'는 신념을 적극 실현

냉동냉장창고업자 권익보호와 함께하는

냉동냉장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65.03.10 수산물냉동물제조업협동조합 설립
- 1977.05.04 냉동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1988.06.28 부산지소 개설
- 1999.11.19 냉동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2008.04.08 냉동냉장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조합원(명)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157	9/70	7



조합장 | 박 병 언

역대조합장

1대	2대	3~6대	7~9대	10~12대	13대	14~16대
장병희	이재학	조운현	조강호	김영택	이종억	박병언



장사동어촌계와 자매결연

냉동냉장수협은 전국 소비지에 산재한 냉동·냉장업체를 대표하는 수산업 협동조합이다. 수산물가공(냉동·냉장)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의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가공품의 판로확대와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지도 사업(수산물발전기금) 지원, 냉동냉장창고 화재보험 신상품 개발과 보급, 지역별 수산물가공업 협의회 지원, 외국인근로자 도입 지원, 조합원사 권익보호를 위한 대정부 건의 및 각종 제도개선 업무추진, 수산물가공업계 전문소식지 <냉가(冷家)> 매월 발간과 지속적인 보급, 업계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와 책자 발간·보급, 선진 해외시찰 실시 및 시찰비용 지원, 각종 수산전문 정보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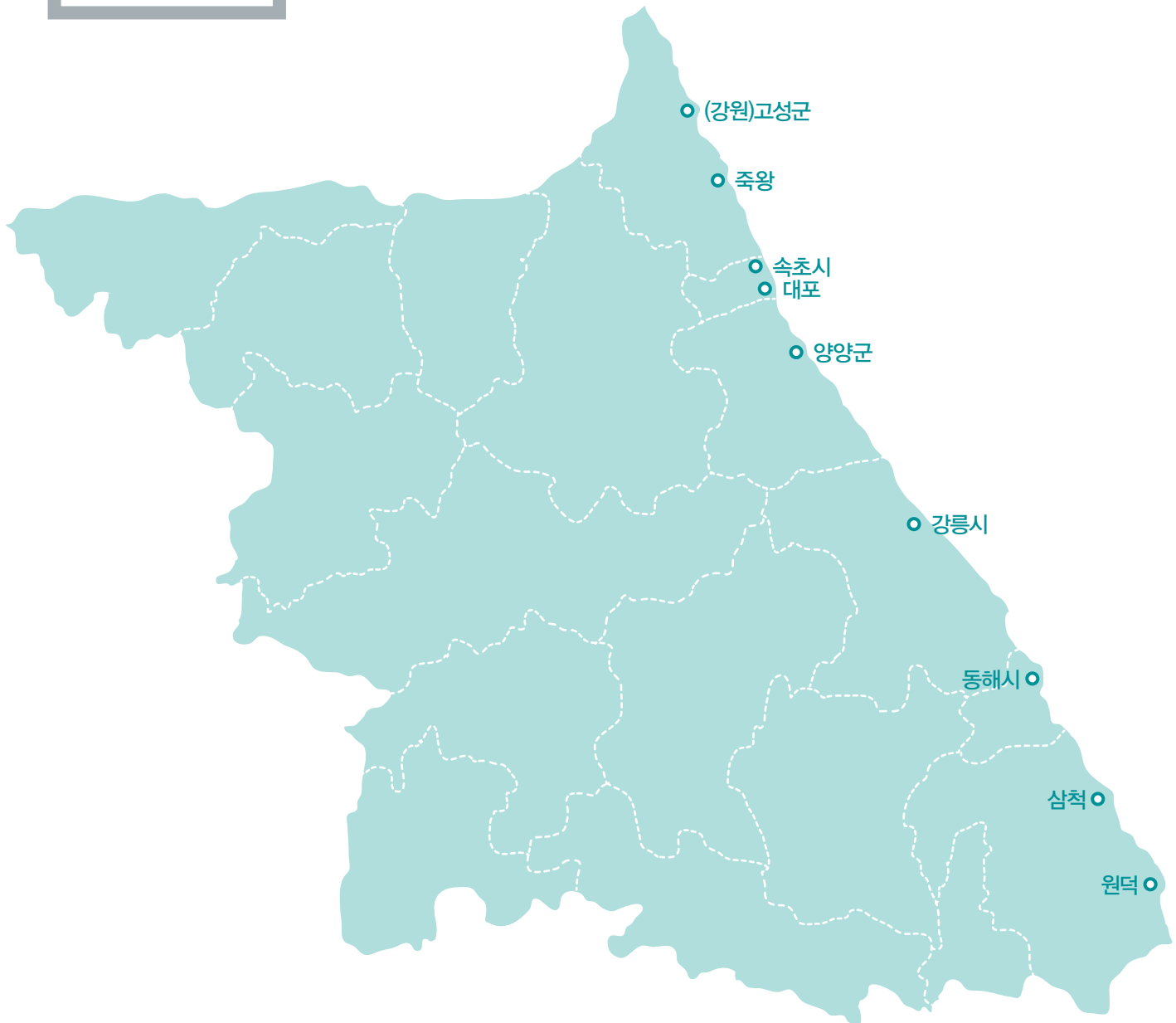
무상 보급, 기타 조합원 경영환경개선과 영업업무 지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수산물가공(냉동·냉장)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구의지점 외 서울지역에 5개의 상호금융점포(서강, 답십리, 수유시장, 송파, 길동사거리)와 부산지역 1개의 상호금융 점포(감천)를 건설했다. 또한, 지난 2004년부터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수협중앙회장으로부터 결산평가 우수상을 수상하고 있으며 수협중앙회에서 매분기 실시하는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 1등급을 차지하는 등 우수 회원조합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수협 POINT

- ① 월간소식지 <冷家>(2003년 1월 창간)
 - 냉동냉장업계의 유익한 최신정보 전달, 의견 수렴과 토론의 장 제공
 - 조합 홍보 및 신뢰 구축
 - 조합원을 비롯한 업계 관련자에게 무료 보급 (문의) 02-458-9191, 지도금융팀

회원조합 네트워크

강원지역



- 고객을 우선으로 하는 수협-(강원)고성군수협
- 실천하는 협동정신-동해시수협
- 기회를 새로운 도약으로-삼척수협
- 푸른 바다, 푸른 정신-원덕수협
- 꿈과 희망이 있는 미래-속초시수협

- 조합원이 주인인 조합-양양군수협
- 밝은 수산 밝은 미래 강릉시수협과 함께-강릉시수협
- 친절과 봉사로 최선을 다하는 대포수협-대포수협
- 풍요로운 바다 살기 좋은 어촌-죽왕수협

고객을 우선으로 하는 수협

(강원)고성군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1955.05.05 거진어업조합 설립

1972.07.27 거진·대진·아야진 3개 어협 합병
고성군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1974.07.20 상호금융업무 개시

2000.12.30 산지종합처리시설 준공 및 청사 이전

조합원(명)	어촌계(개)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1,440	10	9/36	11



조합장 | 최영희

역대조합장

1대	2~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10~11대	12대
김복수	서성복	최용욱	최창주	이영구	서성복	김상태	이대현	김용복	최영희



거진항 풍어제 한마당

고성군수협은 위도상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다. 50.5km에 달하는 비교적 단조로운 해안선은 맑고 푸른 바다를 자랑한다. 인근에는 아름다운 화진포 호수를 배경으로 이승만 전(前) 대통령의 별장과 김일성 별장이 있으며 금강산을 조망할 수 있는 통일전망대가 있다. 관내 어업인들은 대다수 어선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10개의 어촌계와 1,44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0년대 이전에는 명태 산지로 널리 알려졌다. 최근에는 도루묵, 문어, 오징어, 대게가 많이 잡히고 있다. 명태 어획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수익의 다변화를 꾀하여 작지만 강한 수협으로 거듭나고 있다. 전 임직원이 혼연 일체가 되어 복지어촌을 위한 힘찬 전진을 계속한 결과 경영 지표의 개선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수협 POINT

◎ 매년 10월, '고성 명태 축제' 개최

- 고성의 또 다른 이름, 명태는 여전히 고객들과 고성을 잇는 소통의 매개체
- 지역 어업인들의 희망인 명태가 다시 올 때를 기다리는 기원의 축제로 승화

실천하는 협동정신

동해시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1924.11.10 망상면어업조합 설립

1977.04.01 묵호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1980.04.01 동해시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조합장 | 김창진

조합원(명)	어촌계(개)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617	6	9/32	5

역대조합장

1대	2~4대	5대	6대	7대	8~10대	11~13대	14대	15~16대	17대
오정규	차동길	용덕식	서창석	김기태	김상학	김봉수	박종호	차석환	김창진



오징어 축제의 오징어 맨손잡기 체험

동해시수협은 1924년 망상면어업조합으로 출발하여 1980년 지금의 이름으로 개칭하고 오늘날까지 동해시의 어업인 경제와 지역 수산업 발전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고 있다. 항포구 정화사업,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수산종묘 방류 사업, 불가사리 구제사업, 기자재 구매사업, 해난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급 등 각종 수산지원 사업을 통해 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수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동해시수협의 묵호항은 오징어 자연산 활 어만을 취급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자연산 활어를 맛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소이며 매년 가을 오징어 축제를 개최해 방문객들에게 많은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현재 동해시수협은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주부대학을 개설할 예정이다. 주부대학은 노래, 댄스, 각종 교양강좌를 개설 하여 배움의 기회를 제공함과 더불어 관내 봉사활동을 선도하고 지역 특산물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우리수협 POINT

- ◎ 매년 풍어제 및 오징어 축제 개최
→ 어업인들과의 어울림 한마당 축제로 마련
- ◎ 착공 예정인 수산물 가공센터는 지역의 랜드마크로의 성장 기대

기회를 새로운 도약으로

삼척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14.02.25 삼척어업조합 설립
- 1974.07.22 상호금융업무 개설
- 2009.03.12 삼척대게센터 준공 및 업무 개시
- 2011.02.28 수산물저장시설, 냉동공장 준공 및 업무 개시



조합장 | 김 광 석

조합원(명)	어촌계(개)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693	14	11/28	8

역대조합장

1대	2대	3대	4대	5~6대	7~8대	9대	10대	11대	12대	13~14대	15~16대	17~18대
함종원	장종기	방종석	김이태	최창규	이문연	정명길	김윤화	최창규	심효섭	김동훈	박영복	김광석



삼척수협 냉동공장

삼척수협은 동해안 청정 바다가 어우러진 강원도 동해시 추암에서 삼척시 원덕읍 갈남리를 업무구역으로 하여 총 14개의 어촌계로 구성 되어 있다. 이곳의 특산물로는 청정 자연의 삼척대게와 곰치국, 오징어가 유명하며, 삼척수협에서는 어업인이 직접 잡은 삼척대게를 즉석에서 맛볼 수 있다. 이들 특산물들을 온라인 판매하여 어업인 소득증대를 꾀하고 있으며 브랜드화, 가공·상품화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이들이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삼척수협은 시대에 맞춰 온라인쇼핑몰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 특산물을 더욱 널리 홍보하고 판매할 계획이다. 또한 2010년 삼척항 냉동공장을 준공함에 따라 급냉동결 15톤, 냉장 2,400톤, 저빙(얼음 저장) 400톤에 하루 제빙(얼음 생산) 15톤 등의 능력을 확보, 이로써 수산물 보관과 유통경영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 냉동공장 신축 이전으로 2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에서 수작업으로 이뤄지던 수산물 입·출고 공정에 지게차 등을 이용한 자동화 시스템이 갖춰졌고 수산물을 신선하게 장기간 보관·유통할 수 있는 역량을 겸비했다.

우리수협 POINT

- ◎ 매년 초 일출행사 개최로 지역 알리기에 일조
- ◎ 용화어촌계 - 국내 최초 해양레일바이크 시설과 인접, 방문객 증가
- ◎ 장호어촌계 - 2011년 '한국의 아름다운 마을'로 선정될 정도로 경관이 우수
- ◎ 바다레프팅, 투명카누와 같은 해양레저를 개발하여 어업인 및 어촌소득 증대에 기여

푸른 바다, 푸른 정신

원덕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62.04.01** 원덕어업협동조합 설립
- 1977.04.01** 원덕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1981.02.26** 삼척수협에 흡수 합병
- 1990.11.21** 원덕수산업협동조합 재설립



조합장 | 임용승

조합원(명)	어촌계(개)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368	8	9/15	4

역대조합장

1대	2~3대	4대	5~7대
김영철	김형두	최부좌	임용승



원덕수협 냉동공장

강원도 남부의 중심도시로 오래전부터 그 명성을 떨쳐온 삼척시 원덕읍에 소재한 원덕수협은 강원도 최남단 수협으로 1962년 설립 이래 어업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원덕수협은 힘차게 뻗은 백두대간과 동해바다를 배경으로 신남어촌계의 해신당 공원과 어촌민속박물관을 비롯하여 여러 해수욕장 등 천혜의 관광자원과 풍부한 수산자원을 바탕으로 각종 사업을 펼치고 있다. 임원항에 위치한 활어회 센터와 삼척 대게직판장은 많은 관광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곳이다. 또한 매년 2월 말에서 5월 중순 사이에 생산되는 자연산 돌미역인 고포미역은 얇은 수심에서 햇볕을 흠뻑 받고 자라 품질이 우수하여 지역 어업인들에게 쓸쓸한 수입원이 되고 있다. 고포미역은 건조하면 색깔이 검푸르고 잎이 두꺼워지는 것이 특징이며, 고려시대부터 임금님 수라상에 올리는 진상품으로 궁중에서나 맛보던 별미로 전해지고 있다. 이밖에도 원덕수협은 열악한 환경에서 조업을 하는 지역 어업인들을 위해 양식기술 도입과 수산물 가공 등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우리수협 POINT

- ◎ 매해 개최되는 '삼척정월대보름제' 지원
 - 세시풍속을 계승·발전시키는 축제로 진행
 - 다양한 민속문화 체험을 통한 문화적 자긍심 고취와 소속감·동질감 회복
 - 전국출다리기 등 전통 민속문화를 이용해 전국적인 축제로 승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꿈과 희망이 있는 미래

속초시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20.09. 도천면어업조합 설립
- 1953.06. 속초어업조합으로 개칭
- 1962.04.01 속초어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1977.04.01 속초시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1993.01.28 동명지점 개설
- 2001.04.21 대포수협 설립으로 대포동 일원 분할 이양

조합원(명)	어촌계(개)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486	5	10/69	7



조합장 | 진영만

역대조합장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9대	10대	11대	12대	13~15대	16~17대
문진선	박준복	유성국	윤덕훈	손동욱	안국준	남규철	신영철	김영준	한기종	김영준	김용화	진영만



수산물 판촉 행사

속초시수협은 1920년 대포리에 있었던 도천면어업조합을 모태로 한다. 그 뒤 각각 1965년과 2001년 차례로 양양군수협과 대포수협이 업무 분할됨에 따라 지금의 업무구역과 형태에 이르렀다. 속초시수협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설악산을 병풍삼아 탁 트인 동해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동명활어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 유통센터 2층에서 직영하는 외식사업소는 외지 손님이 연중 20만 명 이상이 찾아오고 있어 속초지역에서도 손꼽히는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면서 지역 주민의 소득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속초시수협은 2010년 제1회 어업인 체육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금호동, 교동, 동명동, 장사동, 청호동의 어촌계원들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현재 속초시수협은 주요사업으로 연안바다 목장화 사업,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 수산물 위판장 시설, 수산물 집하·보관·유통시설의 신축 등을 진행하고 있다. 속초시수협은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애로사항 등을 현장에서 적극 수렴해 지속적으로 어업인들의 가계안정과 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우리수협 POINT

- ◎ 매해 11월 초에 10일간 양미리 축제 개최
 - 매년 10월 중순에서 12월 말까지 어획되는 지역 특산물 양미리 홍보
 - 무료시식 코너, 양미리 조업 무료승선 체험을 제공

조합원이 주인인 조합

양양군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30.02.01** 현남면어업조합 설립
1965.12.01 양양군어업조합 설립
1975.12.31 양양군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조합장 | 김영복

조합원(명)	어촌계(개)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484	13	9/25	8

역대조합장

1~3대	4~5대	6대	7대	8대	9~10대	11대	12대	13~14대	15대
김순봉	유화실	권혁주	이달용	장진묵	김동연	장진묵	장명호	김정태	김영복



위판장 도루묵 뜯기

양양군수협의 모태는 1930년에 설립된 현남면어업조합이다. 1945년 해방 후 속초어업조합에서 인구어업조합, 다시 주문진어업조합으로 합병 뒤 양양군어업조합을 거쳐 1975년 양양군수산업협동조합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관내 39.5km 해안에서는 참가자미, 문어 등 소형 어선 부문의 활어 조업을 비롯하여 정치망 부문의 계절별 다양한 고급 활선어 조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양양군수협은 어업 인구와 어선 수가 전국적으로 월등히 높아 어가 소득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일찍부터 관광지역의 이점을 살려 조합한 어패류를 직접 포구에서 활어회로 판매해 부가 소득에도 많은 부분 보탬이 되고 있다. 1975년 상호금융업무는 시작 이래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매년 1~2등급의 우수 점포의 명성을 이어오고 있어, 덕분에 공적자금 도움 없이 현재까지 운영 중

이다. 1980년대 초부터 전국에서 유례가 없던 자체 수산물 직매장을 개설, 관내 생산 건오징어 등 수산물을 판매해 왔으며 지금은 수산물 백화점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조합원 또한 주인의식으로 적극 참여하여 1인당 평균 출자액이 600여만 원으로 전국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동해안 어촌관광 시범지역으로 최초 선정됐고, 다양한 어촌체험 활동과 어촌 자매결연, 자율관리 어업 모범 사례 등 우수한 실적으로 각종 수상 경력도 화려하다. 또한 양양군의 수산향은 관광어항을 겸하여 요트마리나(yacht marina : 요트나 유람선을 계류시키거나 보관하는 소형 항구) 시설을 겸비한 선진항으로서 착실히 규모를 확충하고 있다.

우리수협 POINT

● 매년 10월 하순경 '양양 연어 축제' 개최

- 동해안 최대의 연어 회유지인 남대천(양양)에서 연어를 주제로 다양한 체험과 먹거리 제공
- 바다연어를 직거래 판매하므로 연중 딱 한번 동해로 회유한 바다 연어를 실비로 구입 가능

밝은 수산 밝은 미래 강릉시수협과 함께

강릉시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1915.03.30 주문진어업협동조합 설립
1974.09.30 상호금융업무 개시
1981.10.01 군납업무 개시
1991.09.30 강릉지점 개소
2004.09.22 활·선어위판장 옥개시설 준공
2009.06.25 수산물가공공장 준공
2010.05.27 식품의약품안전청 HACCP 지정

조합원(명)	어촌계(개)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967	13	11/75	8



조합장 | 박흥구

역대조합장

1대	2대	3대	4~5대	6대	7대	8대	9대	10대	11~12대	13~14대	15대	16대
홍돈하, 최효창, 김몽경	장낙진, 박문길	박영환	이규재	정태근	최원영	박운구	이재경	장세관	정창락	박흥구	윤영길	박흥구



주문진항 전경

국비 10억 원과 지방비 6억 원, 자부담 4억 원 등 20억 원을 확보해 주문진항 서방파제 물양장 인근에 유류 6,000드럼을 저장할 수 있는 지하 급유시설 2기와 부대시설을 건설 중에 있다. 2012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이 공사가 완료되면 항만의 미관을 개선하고 편의성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해안 최대 어업 전진기지인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항에 위치한 강릉시수협은 1915년 주문진어업협동조합으로 출발한 역사와 전통의 지역 수협이다. 이곳에서는 오징어, 콩치, 문어 등의 활선어와 냉동어류를 주로 위판하는 어선어업이 활발하며, 관광객을 상대하는 수산물 유통사업 등을 발달시켜 경제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해 HACCP 인증을 받은 수산물 가공공장의 가동으로 다양한 가공 수산물을 생산, 판매하여 고객에게 신뢰를 줌으로써 조합 경영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위생적이고 초현대식의 수산물가공공장에서 생산되는 질 좋고 싱싱한 수산물은 소비자와 군장병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또한 늘어나는 관광객을 상대로 토종 수산물 매출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강릉 지역 어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수협 POINT

- 매년 10월, 지역 최대축제인 오징어 축제 개최
 - 최근 감소하는 오징어 어획량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에게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 제공
 - 청정 동해의 싱싱한 수산물 보급에 앞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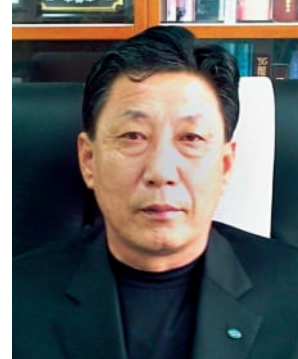
친절과 봉사로 최선을 다하는 대포수협

대포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62.10.15 대포리어촌계 설립
- 1977.12.14 대포동 법리어촌계 인가
- 1978.04.01 상호금융업무 개시
- 2001.04.17 대포수산업협동조합 설립

조합원(명)	어촌계(개)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244	3	12/12	3



조합장 | 오 광 현

역대조합장

1대	2~3대
이창남	오광현



대포항의 전경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국 최초의 전문 관광항으로 새로이 건설되는 대포항이 완공되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과 어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포수협은 1962년 대포리어촌계를 시작으로 1977년 대포법리어촌계로 승격하면서 2001년에 현재의 대포수산업협동조합으로 설립됐다. 속초를 적으로 두고 있는 대포수협은 오징어 위탁 판매를 해왔으나 최근 들어 오징어의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조합에 미치는 문제뿐 아니라 지역 어업인이 상당 수 타격을 받고 있다. 인근 오징어 건조 작업자 300여 명이 하루 6,000급(1급=20마리) 가량의 오징어를 할복한 뒤 손질하고 말려서 묶는 작업을 벌이던 오징어 공동 할복장은 벌써 수개월째 휴업 상태다. 이에 따라 대포수협은 피해가 심각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속초시에 지원 요청을 하기도 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10년간 진행해 온 대포항 개발공사가 막바지에 이른 것이 그나마 희망을 주고 있다. 공사가 완료되면 전보다 향상된 조업환경과 수산시설이 확충됨으로써

우리수협 POINT

- 대포동 - 외설악의 관문으로 동해안 최대의 사계절 관광지
- 대포항 - 전국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관광명소
- 대포항 수산물 시장 -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개장

풍요로운 바다 살기 좋은 어촌

죽왕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78.12.18 죽왕법인어촌계 설립
- 2001.01.15 죽왕수산업협동조합 설립
- 2008.01.10 연체감축 캠페인 우수조합 선정
- 2008.02.25 회원조합 결산업무 장려상 수상
- 2009.09.30 고객응대 서비스진단 우수조합 선정
- 2010.02.02 영어자금 연체감축 우수조합 선정

조합원(명)	어촌계(개)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306	5	8/12	-



조합장 | 손영문

역대조합장

1~2대	3~4대
함하민	손영문



위판 현장

수 있으며, 온가족이 함께 가지미·대구 낚시 등 재미있는 배낚시 체험을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죽왕수협은 조합원이 생산한 안전한 수산물을 좋은 품질과 좋은 가격으로 유통시킴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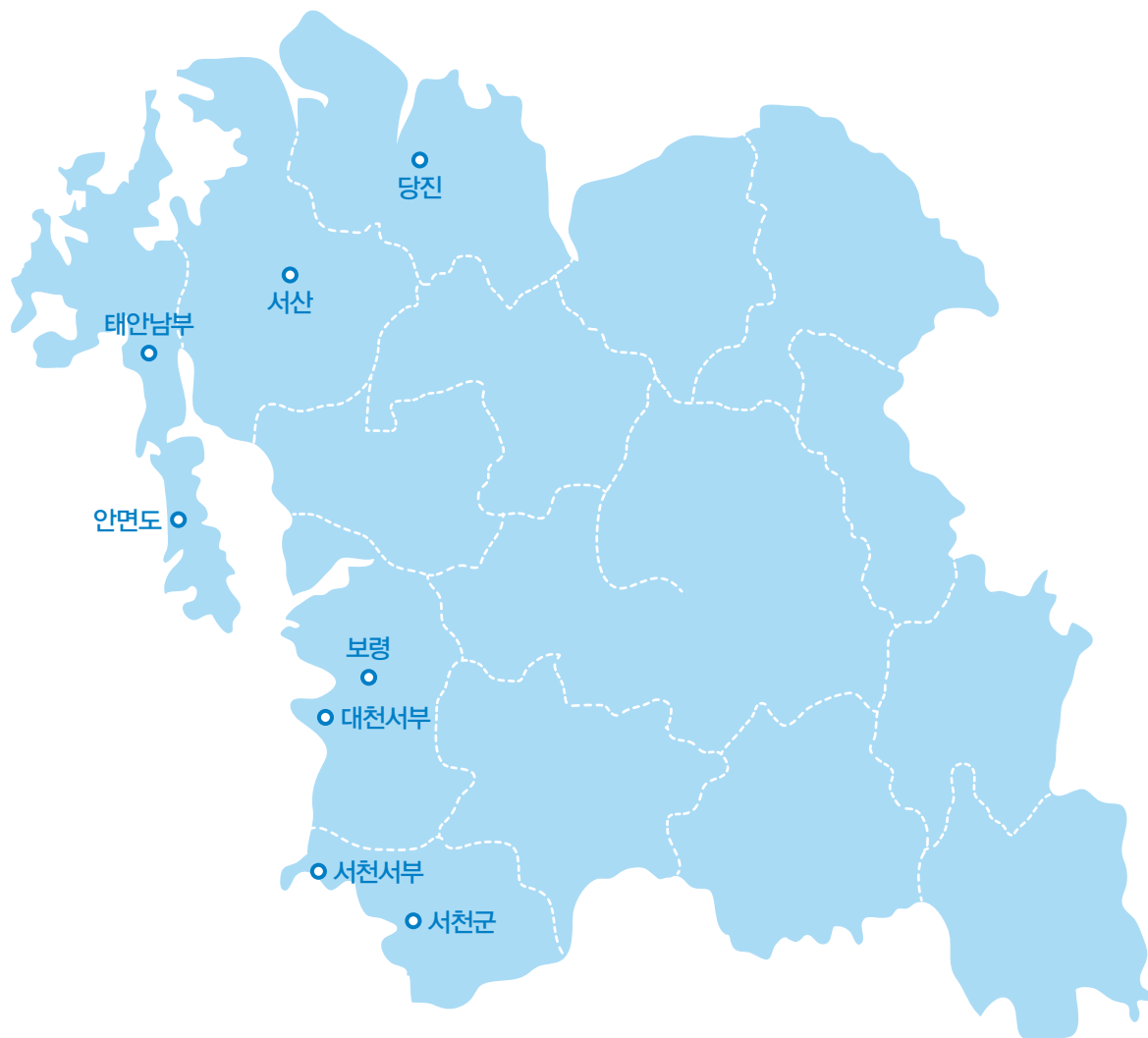
죽왕수협은 지난 2001년 100억 원의 자산규모로 전국에서 가장 작은 수협으로 출발했으나, 현재까지 계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02년 상반기 수협중앙회로부터 경영평가 1등급을 받은 뒤, 예금과 대출사업을 타지역권까지 확대하면서 내실 있는 경영기반을 다져왔다. 전직원이 일심단결하여 노력한 결과 2008년 경영실태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기관, 고객응대 서비스진단 부문에서는 우수조합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2009년에는 고객응대 서비스진단과 영어자금 연체감축으로 우수조합에 선정되기도 했다. 2012년에는 어업인들의 소득을 증대할 목적으로 지상 3층 규모의 냉동·냉장시설 설치를 추진 중에 있다. 맑고 깨끗한 바다와 산과 호수가 어우러진 청정고장 고성군 죽왕면 주위에는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와 시원한 국물맛이 일품인 재첩이 서식하고 있으며, 철새 도래지 송지호가 있어 신비함을 더해준다. 관내에 있는 항구에서는 활어회와 물회 등 항상 싱싱한 각종 해산물을 맛볼

우리수협 POINT

- 전국에서 가장 작은 규모지만 매년 흑자달성
-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냉동·냉장시설 확충 예정

회원조합 네트워크

충남지역



- 어업인 권익 보호 수협-당진수협
- 어업인의 새로운 희망 보령수협!-보령수협
- 어업인과 함께 가꾸는 청정바다 수산업의 푸른 미래 창조-서산수협
- 날마다 새롭게, 서로 하나 되게-서천군수협

- 서해안의 중심 일번지-서천서부수협
- 정성을 다하는 조합, 최선을 다하는 조합-태안남부수협
- 비상을 꿈꾸는 수산인의 날개-안면도수협
- 새롭게 도약하는 알찬 대천서부수협-대천서부수협

당진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62.04.01 당진어업협동조합 설립
- 1972.11.06 당진군어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1977.04.01 당진군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1998.02.20 당진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1998.03.14 주사무소 읍내리 269-5번지로 신축 이전

조합원(명)	어촌계(개)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2,229	8	10/42	6



조합장 | 양명길

역대조합장

1~2대	3~7대	8~11대	12~13대	14대
김연수	김동원	유재천	강복만	양명길



당진수협 어업인 한마당 체육대회

당진수협은 1962년 당진어업협동조합으로 출발한 이래 어가소득 증대와 수산업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지도사업으로 어업인 안전조업 지도교육을 비롯해 수산인의 화합을 위한 어업인 한마당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있다. 2009년부터는 어족자원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힘을 불어넣기 위한 어촌전문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어망뜨기와 황포돛단배 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옛 고기잡이 방식을 재현하고, 풍어굿제·당굿제·배치기 공연 등 전통 문화공연과 굴까기대회·띠배 띄우기 등 관광객 체험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관내 어업인에게 면세유를 공급하기 위한 구매사업과 바자락 판매량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는 판매사업, 각종 재해로부터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전 임직원의 노력과 조합원들의 협조에 힘입어 부실채권 감축과 내실경영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한 결과 조합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상호금융부문에서 18억 원의 흑자를 실현했다. 2011년에는 사업계획으로 설정한 예탁금 2,067억 원, 대출금 1,607억 원을 모두 달성하며 건실한 조합으로 거듭나고 있다.

우리수협 POINT

◎ 매해 4월, '장고항 실치 축제' 개최

→ 2011년 현재 8회를 맞이한 당진의 대표 축제, 서해의 별미 실치를 주인공으로 한 먹거리와 즐길 거리 제공

◎ 당진의 명소, 왜목마을

→ 서해안에서 바다 일출을 볼 수 있는 '해 뜨고 지는 마을'로 유명

→ 한순간 짙은 황토빛으로 바다를 가르는 물기둥을 만들면서 작고 예쁜 서정적인 느낌의 일출 감상

어업인의 새로운 희망 보령수협!

보령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62.04.01 보령어업협동조합 설립
- 1977.04.01 보령군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1986.01.01 대천시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1995.01.01 보령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조합장 | 최대윤

조합원(명)	어촌계(개)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3,840	26	11/68	10

역대조합장

1대	2대	3대	4~6대	7~10대	11대	12대	13대	14~15대	16대	17대	18~19대	20대
장세휴	이향우	강범식	박창래	전만수	최종찬	강신국	조종국	조효근	김진복	김용학	김성원	최대윤



보령수협 선어 위판장

보령수협은 1962년 수협 창립과 같이 발족하여 오늘날까지 그 역사를 함께 하고 있다. 1970년대 초반 들어 경영상태가 극히 불량한 적이 있었다. 그 당시에는 월급 대신 조합장이 사비로 마련한 쌀을 나눠줘야 할 정도로 어려움에 직면했었으나 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이후 경제사업이 활성화되어 한때 전국 조합 가운데 10위권 이내에 들었을 정도로 도약했다. 보령수협은 서해안 중심부에 위치하며 사업규모면에서 전국수협 중 중심에 해당한다. 경제사업 규모가 약 1,000억 원으로 IMF 이후 경영상태가 많이 안정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복지조합으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 보령수협은 주변해역에 어자원이 풍부하고 전국 제일의 해수육장인 대천해수육장과 접하고 있으며, 79개의 유·무인도서가 위치해 있다.

이 지역에서는 꽃게, 주꾸미, 대구, 멸치 등 다양한 어종이 생산되고 있다. 또한 2011년에는 오천항에 위판장을 신축함으로써 전국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키조개와 기타 수산물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유통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수협 POINT

◎ 보령 머드 축제

→ 서해안 최대이자 조개껍질 백사장으로 유명한 대천해수육장에서 개최

◎ 해안가별로 남당의 '대하 축제'와 무창포의 '도다리·주꾸미 축제' 등 각종 축제가 풍성

→ 사계절 관광지로 각광

어업인과 함께 가꾸는 청정바다 수산업의 푸른 미래 창조

서산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40.04.30** 서산어업조합 설립
- 1974.07.24** 상호금융업무 개시
- 1989.04.26** 서산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1994.10.11** 안흥신항 선어위판장 준공
- 2004.11.12** 제빙·냉동·냉장공장 준공

조합원(명)	어촌계(개)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5,276	47	12/89	12



조합장 | 이원재

역대조합장

1~4대	5~7대	8~9대	10~13대	14대	15~16대
이종만	변상권	심능두	진태구	김성진	이원재



서산 창리 영신제

충남 태안군(남면, 안면읍, 고남면 제외)과 서산시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서산수협은 1940년 서산어업조합으로 시작하여 20년 후인 1961년에 소원·안흥·남면 어업조합을 합병하면서 재출발했다. 1974년 상호금융 여·수신 업무를 시작했고, 1977년에는 지금의 이름으로 개칭했다. 1982년 태안지점의 영업점 신설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본점을 포함한 8개의 상호금융영업점에서 2010년 현재 예탁금 2,450억 원, 대출금 2,060억 원을 달성했다. 또한 2002년에는 관내 3개 법인어촌계 중 소원법인어촌계를 인수하여 소원지점을 설치했고 나머지 2개의 법인어촌계(안면, 남면)는 조합으로 설립됐다. 2004년에 수산물의 적정가격 유지와 양질의 수산물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제빙냉동공장을 신축하여 신속하게 얼음을 공급하고 있으며, 과잉 출

하된 수산물에 대한 자체 구매사업을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좋은 가격에 공급하고 있다. 수산물의 적정가격 형성을 위하여 1994년 신진항에 안흥위판장을 신축했고, 2009년 모항항에 위판장을 신축하여 안흥위판장과 더불어 활발한 판매사업을 전개하고 있어 앞으로도 많은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우리수협 POINT

◎ 매년 5월, '삼길포 우럭 축제' 개최

- 가족과 함께하는 행사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체험 행사 진행
- 선상낚시·좌대낚시·모터보트·추억놀이·독도사랑 태극기 만들기 체험 등
- 삼길포에서만 즐길 수 있는 갯벌·독살·방조제 생태·선상횡집 체험 등 이색 행사 눈길
- 우럭회, 우럭포 등 해산물은 물론 지역 특산물 소비와 홍보의 장으로 활용

날마다 새롭게, 서로 하나 되게

서천군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39.01.06** 장항어업조합 설립
- 1977.04.01** 장항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1993.12.27** 수산물 위판장 및 위판 사무실 신축
- 2001.09.01** 당정리주유소 신축
- 2010.05.20** 수산물 처리저장 시설 준공



조합장 | 김기웅

조합원(명)	어촌계(개)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1,198	8	10/36	6

역대조합장

1대	2대	3~7대	8~12대	13대	14대	15대
임상헌	신흥순	강봉식	최병규	신종식	신명식	김기웅



서천수협이 멸치가공 작업(바로 삶기)

서천수협은 1939년 장항어업조합으로 탄생했으며, 1977년 장항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09년에는 조합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협동조합 본연의 사업에 충실하자는 취지로 경영혁신전략인 'WITH GO 3C 180운동'을 선포했다. 이는 수협 경영혁신을 위해 내부 체질 개선 및 수익성 창출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기획된 것이었다. 이를 통해 '생각·습관의 180° 변화, 사업수익의 180% 도전, 업무개선의 180건 창의'라는 세 가지 내용을 담아 모든 임직원이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해어화(海魚花)라는 용어는 청정수역인 '서해안의 어류 가운데 꽃'이라는 뜻으로, 담백한 맛과 고품질로 유명한 서천김과 서천멸치를 지칭하는 말이다. 특히 청정바다에서 잡아 올린 서천멸치는 배에서 삶은 후 위생적인 냉·온풍 시

설에서 급속 건조시켜 살이 연하고 비린내가 나지 않으며, 고소한 맛이 일품이다. 한편 2010년에 발생한 김 황백화 현상은 지역 어업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으나 관계기관과 서천군의 협조를 얻어 원인 분석 및 복구에 최선의 지원을 다하며 명품 서천김 살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수협 POINT

- ◎ 매해 이색 수산물 축제인 '꼴깍축제' 개최
 - "꼴뚜기·갯오징어 한번 드시면 꼴깍 평생 안하십니다"라는 슬로건 도입
 - 서해안 연안에서 갯 잡아 올린 싱싱한 수산물 시식행사와 건어물 할인판매 진행
 - 각설이 공연과 각종 이벤트도 병행, 지역의 특색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

서천서부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2001.01.29 서면수산업협동조합 설립
- 2008.04.29 서천서부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2009.01.07 익산지점 개점
- 2009.08.10 홍원수산물위판장 신축(398평)



조합장 | 최 병 광

조합원(명)	어촌계(개)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807	10	10/34	4

역대조합장

1대	2~3대
김진태	최병광



마량향 풍어제

주 소득원으로 자리 잡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편 서천서부수협은 서천의 자랑인 김을 2009년 준공된 홍원수산물 위판장을 통해 보다 저렴하고 빠르게 공급함으로써 지역 어업경제 발전에 일조하고 있으며, 전국으로 맛있는 김을 쉽고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다. 향후 서천서부수협은 조합원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며 지역에 더욱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서천서부수협은 1978년 어촌계를 설립한 이래 수산인의 지위 향상 및 권익 증진, 더 나아가 환경보호, 국민건강 사수 등 윤리적 가치를 지향하는 조직으로서 서천 해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수산물을 안전하게 유통·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어업인에게만 초점을 맞춰왔던 과거 수협의 축소 지향적인 틀에서 벗어나 365일 깨끗하고 건전한 은행으로 금융업과 상호공제 업무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서천서부수협은 수산물을 집하하여 고객들에게 양질의 수산물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산물을 통한 다양한 부가가치사업과 유통판매 사업의 원활한 전개를 위한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서천은 충남의 김 생산량의 94%, 전국 생산량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서천김은 연평균 420억 원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어 겨울철 어업인의

우리수협 POINT

- 매년 1월 1일 마량리 바닷가에서 열리는 '해맞이 축제'
- 3월 '동백 주꾸미 축제', 5월 자연산 광어·도미 축제, 9월 '전어·꽃게 축제' 등 바다 관련 축제 풍성
- 춘장대해수욕장과 부사방조제 등 사계절 볼거리와 수산물 먹거리가 풍부

정성을 다하는 조합, 최선을 다하는 조합

태안남부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77.10.04 남면법인어촌계 설립
- 2002.04.09 태안남면수산업협동조합 설립
- 2004.02.25 2003년도 결산평가우수조합 표창(해양수산부장관)
- 2006.03.16 2005년도 결산평가우수조합 표창(해양수산부장관)
- 2007.12.27 충남 농어촌발전대상 지원기관부분대상 수상
- 2009.08.21 태안남부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2010.03.25 2009년도 결산평가 최우수조합 표창(농림수산식품부장관)
- 2012.01.30 2011년도 상호금융 업적평가 경영우수상 수상

조합원(명)	어촌계(개)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994	11	9/16	4



조합장 | 강학순

역대조합장

1~3대
강학순



몽산포 주꾸미 축제

여기기에 고부가가치의 소득 창출이 가능한 해삼양식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해삼 전용 인공어초를 최초로 개발, 특허권을 취득하여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대내외적인 어촌의 현실 속에서 경쟁력 있는 사업의 개발 및 활성화를 통해 어업인들의 소득증대 및 복지어촌의 기틀을 다지고 있다. 또한 지난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 당시 손해사정인 선임없이 초기 방제작업부터 피해배상 청구 및 조사, 배상금 수령 등 조합에서 모든 업무를 직접 처리하여 타 피해대책위원회보다 신속하고 높은 사정율을 보였다. 그 결과 유류오염사고 중 가장 빠른 피해배상이 진행되었던 일본 나호트카호 중유 유출사고 보다 1년 8개월이나 빠르게 피해배상 절차가 마무리되고 있다.

우리수협 POINT

- ◎ 매해 '몽산포항 주꾸미 축제' 개최
 -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고 즐기는 한마당
 - 갯벌 체험 등 다양한 행사 마련

비상을 꿈꾸는 수산인의 날개

안면도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80.12.30 안면법인어촌계 설립
- 2002.05.01 안면수산업협동조합 설립
- 2005.02.28 상호금융 업적평가 우수표창
- 2005.04.01 경영평가 우수표창
- 2005.09.14 안면도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2008.08.25 백사장지점 개설

조합원(명)	어촌계(개)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2,570	43	11/22	4



조합장 | 노용현

역대조합장

1대	2대	3대
문수일	김상욱	노용현



황도봉기 풍어제

안면도수협은 충남 서해안의 아름다운 휴양지 섬 태안군 안면도 전역을 업무 구역으로 하고 있는 지구별 조합이다. 1980년 안면법인어촌계 설립 이후 22년 만에 2002년 해양수산부로부터 안면수산업협동조합으로 인가를 받았고, 1개읍 1개면(안면읍, 고남면)에 43개 어촌계와 2,500여 명의 조합원, 33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개의 신용점포망과 2개의 위판장 그리고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안면도수협은 2004년도 경영평가 우수표창, 2006년도 결산평가 장려조합 표창, 2008년 상반기 경영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2005년도 결산에 따른 6% 출자배당금을 시작으로 2010년도 현재 6년 연속 출자배당금을 지급하는 1등급 조합으로 성장했다. 사업 부문별로는, 신용사업 상호금융에서 2004년도 상호금융 업적평가 우수표창, 2005년도 상호금융

업적평가 장려상 표창, 2006년도 상호금융경영 우수상을 수상했다. 경제사업에서는 꽃게, 대하, 민꽃게, 바지락 등의 어패류를 위탁판매하여 100억 원의 판매실적을 돌파했다. 특히 대하는 전국 최대의 집하장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 지역의 꽃게와 바지락의 우수성은 이미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예식장 운영과 더불어 인근 서산중앙병원을 비롯해 서울 21세기병원 및 인천 인하대학병원과의 자매결연을 체결해 조합원 및 그 가족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리수협 POINT

- ④ 서해안지역 의료기관들과의 협약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 '어업인을 위한다'는 수협 본연의 정신 수호
 - 인근 의료 사각지대에 대한 서비스 확대

새롭게 도약하는 알찬 대천서부수협

대천서부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2002.03.25** 신협수산업협동조합 설립
- 2002.04.01** 신협법인어촌계 해산 및 신협수산업협동조합 설립
- 2002.09.28** 고잡지소 폐쇄
- 2011.03.23** 대천서부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조합장 | 고영욱

조합원(명)	어촌계(개)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679	2	10/20	3

역대조합장

1~2대	3대
유병두	고영욱



보령시어업인 화합 한마음 체육대회

대천서부수협은 1978년 신협법인어촌계로 출범하여 2002년 법인어촌계의 해산과 동시에 신협수협으로 인가를 얻었다. 이후 대외적인 인지도 제고의 일환으로 2011년 3월 대천서부수협으로 개칭했다. 대천서부수협은 출범부터 현재까지 33년간 마른김 위판장을 계속 운영해 오고 있다. 현재 서해안 일대의 수협들은 물김 위주의 위탁판매를 하면서 마른김의 경우 정부의 비축정책 실패 등의 이유로 제값을 받지 못하여 모두 사업을 포기한 상태다. 이에 반해 대천서부수협은 현재까지 국내 유일의 마른김 위판조합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연간 30억~40억 원에 이르는 마른김 위판 사업을 하고 있다. 나아가 지속적으로 위판 규모를 늘리기 위해 자체 수매 비축사업에 더 큰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위판장내 700평 부지를 확보했고, 냉동창고 신축을 위한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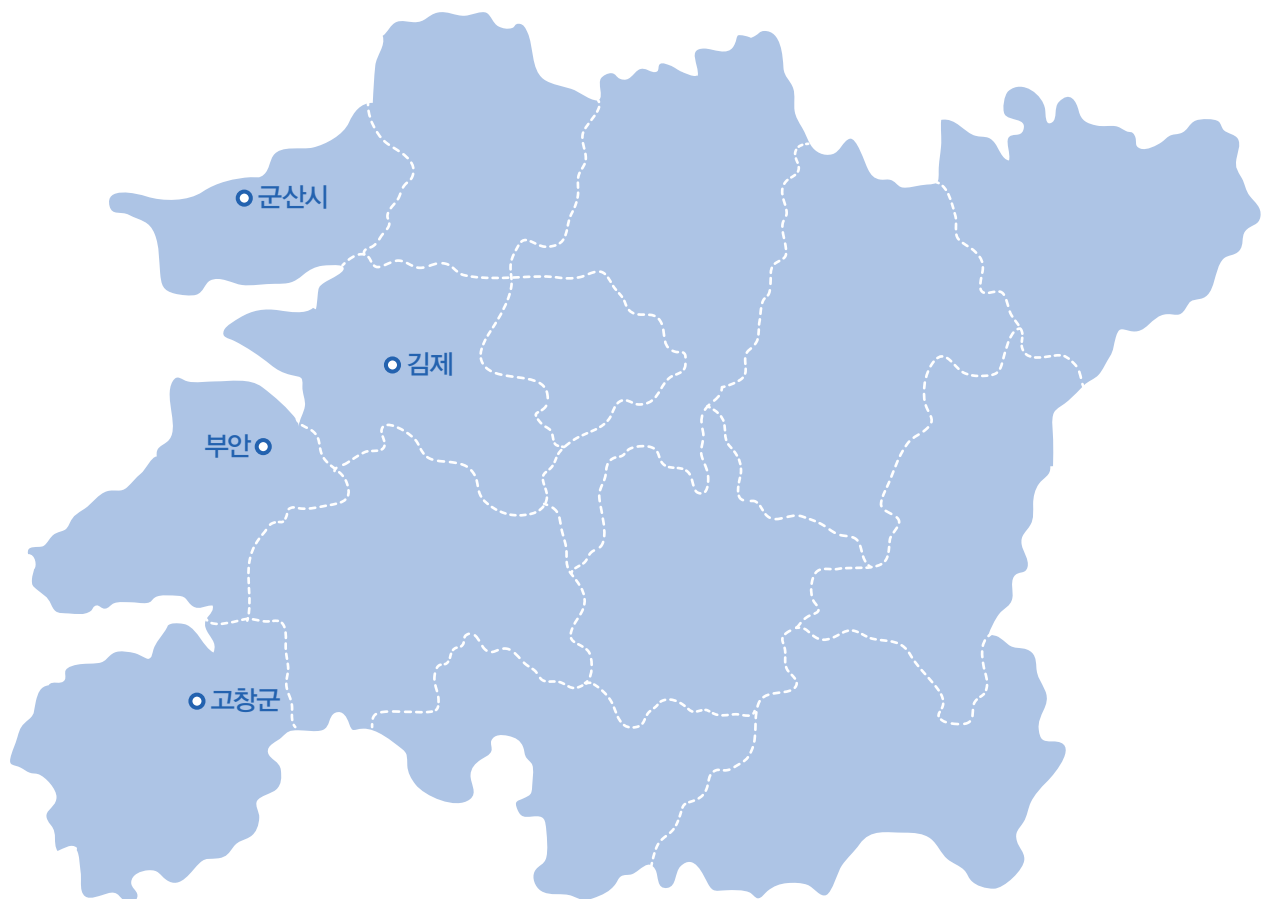
부 지원을 모색 중에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냉동 명태의 공급부족으로 수협과 직거래를 희망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러시아산 명태 수입판매에도 앞장서고 있다.

우리수협 POINT

- ◎ 친환경수산물 마른김 위탁판매 및 홍보 활동에 주력
- ◎ 마른김의 성분과 효능
 - 탄수화물, 단백질질을 비롯하여 각종 무기질 함유
 - 베타카로틴과 비타민이 풍부하여 항암효능과 항산화작용에도 탁월
 - 특히 폐에 좋은 음식으로 각광

회원조합 네트워크

전북지역



- 정도와 창조경영으로 거듭나며 어업인을 위한 조합-군산시수협
- 협동화합·조직활성화·수익창출-김제수협
- 풍요로운 바다, 살기좋은 어촌, 찾아가는 수협-부안수협
- 공정한 업무, 정직한 경영, 깨끗한 수협-고창군수협

정도와 창조경영으로 거듭나며 어업인을 위한 조합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33.05.01** 군옥어업조합 설립
- 1971.04.07** 신용업무개시
- 1977.04.01**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1983.08.27** 해망동공판장 준공
- 1998.07.06** 본청사 신축 이전
- 2009.11.24** 비응향종합위판장 개설

조합원(명)	어촌계(개)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3,524	20	13/122	18



조합장 | 최 광 돈

역대조합장

1대	2~5대	6~8대	9대	10~11대	12~15대	16대
홍정의	김병식	최지신	채을석	최지신	임성식	최광돈



고군산 군도

군산시수협은 1933년 군옥어업조합으로 출발해 1977년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본격적인 어업인의 대표기관이자 전북 수산업의 구심점으로 성장해왔다. 연안어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소비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우리 수산물 제공과 가격 안정 유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각종 국책사업으로 인한 어장축소와 수산자원의 황폐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체어장 개발 등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해삼 양식단지 등 고 부가가치 대체 육성산업을 통한 신규 소득원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서해 중부권을 아우르는 수산식품 연구·가공거점단지조성과 수산업의

핵심 거점인 군산시 수산업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산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 조성을 실시하고 있다. 제16대 최광돈 조합장 취임 이후 흑자 경영성과를 거두었으며, 수산인 안전공제 부분에서 2년 연속 전국 최고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경제사업 부문의 위판액도 2011년말 825억 원을 기록해 1,000억 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조합원 및 고객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소식지 '벵고동'을 창간하여 군산시수협의 수지실적과 사업성과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 공유 등 조합원 및 고객에게 투명한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군산시수협은 조합원과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수익의 다변화를 꾀하는 동시에 정도경영, 열린경영, 창조경영의 이념으로 화려했던 옛 명성을 찾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수협 POINT

- ◎ 2010, 2011 2년 연속 수산인안전공제 실적 전국 1위 달성
- ◎ 조합원과 함께 만드는 소식지, <벵고동> 발행(2010년 7월 창간)
 - 군산시수협 소식, 유용한 정보 교환, 여황정보 전달
 - 실생활에 보탬이 되는 소식지로, 조합원 간 소통의 매개체의 기능 수행

김제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67.02.04 김제어업조합 설립
- 1977.04.01 김제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1993.01.11 전주 영업점 개설(효자, 삼천, 태평)
- 1995.05.03 어민복지회관 준공
- 2004.07.29 어민복지회관 매각
- 2008.07.14 주사무소 이전

조합원(명)	어촌계(개)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1,426	12	10/31	4



조합장 | 이우창

역대조합장

1대	2대	3대	4~5대	6대	7대	8대	9~11대	12~15대
이상구	김재성	최남식	강종운	최남식	최병직	강세일	임재홍	이우창



김제어민복지회관 전경

김제수협은 1967년 김제어업조합으로 설립됐으며, 김제시, 전주시, 남원시, 완주군, 임실군 지역의 어업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제수협은 새만금의 중심지역으로서 새만금 지역의 바다와 육지를 연계하여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한정면허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얻고 있는 부분은 매우 고무적이다. 한정어업은 새만금간척사업으로 바다가 사라져가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소득사업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제수협은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요청해 김제 심포앞바다에 800여만 평에 달하는 한정어업을 가져 오는 데 성공했다. 또한 직접적인 소득을 얻기 위해 한정면허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좋은 성과를 얻어냈다. 한편 내부적으로는 경영정상화를 이룩하기 위해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2차례에 걸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안정된 조합 경영기반을 다지는 성과를 올렸다. 이런 노력 끝에 2010년도 회원조합 결산평가 2011년 최우수조합에 선정됐다. 앞으로도 김제수협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수산의 푸른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수협 POINT

- ④ 국내 최대 갯벌지역 심포항 일대에서 채취되는 심포생합(백합)
 - 흐려(흙모래)가 없고 맛이 탁월해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미식가들에게 인기
 - 향후 심포생합의 브랜드화를 이뤄 지역 어촌계 활성화와 어가소득 향상을 모색

풍요로운 바다, 살기좋은 어촌, 찾아가는 수협

부안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31.12. 변산어업조합 설립
- 1977.04. 부안군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1998.10. 본소 청사 준공
- 2008.01. 행안종합가공공장 - 리모델링 및 신축
- 2012.12. 인후지점(상호금융) 개점(상호점포 11개)



조합장 | 김진태

조합원(명)	어촌계(개)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5,037	19	13/124	18

역대조합장

1대	2대	3~4대	5대	6대	7대	8~11대	12~14대	15~16대
김관술	은종현	조중건	이병용	이기숙	정영수	김동술	이신호	김진태



부안수협 냉동냉장공장 전경

1931년 설립 이래 40여 년 이상을 유지해 오던 변산어업조합이 수협법 개정에 따라 부안군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한 후 지금까지 그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부안은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변산반도 국립공원을 비롯하여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깨끗한 앞바다에서 채취하는 부안김, 서해에서 갓 잡아 올린 주꾸미와 갑오징어, 전어 등 먹을거리가 풍부한 맛의 고장이다. 또한 뽕(오디)으로도 유명한데, 부안수협은 지역 특산물인 뽕잎을 이용해 간고등어 등 수산물을 가공하여 많은 사랑을 받음으로써 가공사업 흑자를 실현하고 있다. 아울러 지속적인 상호금융사업 확장을 통해 2011년 12월 말 기준 예금 4,150억 원, 대출금 3,270억 원 및 상호금융 수익 35억 원을 달성한 우수한 조합이다. 이처럼 부안수협은 지역 특산물과 수산물을 이용해

지역 발전과 어업인의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가지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고용 창출의 모범 케이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수협 POINT

- ◎ 부안수협의 뽕잎 간고등어
 - 부안의 특산물인 뽕(오디)은 성인병 예방에 탁월
 - DHA 성분이 많은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와 뽕을 결합해 뽕잎고등어 생산·판매
 - 뽕잎 간고등어는 하루 평균 4,000건의 주문 쇄도
- ◎ 전국 유일의 종합가공공장 흑자조합(BUY 전복 선정 : 전라북도 우수특산물 선정)

공정한 업무, 정직한 경영, 깨끗한 수협

고창군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23.02.08 후포에 고창연해어업조합 설립
- 1973.12.31 고창군어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1991.03.09 고창군수산업협동조합 새로 설립
- 1995.11.15 수산물 직매장 개장
- 1999.03.03 주유소 개장
- 2004.12.31 뱀장어 판매장 개장
- 2008.11.24 본점 청사 구입 이전

조합원(명)	어촌계(개)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1,829	13	11/45	5



조합장 | 배한영

역대조합장

1대	2대	3대	4~6대	7대
안준현	정성룡	이재인	김요병	배한영



고창 수산물 축제

1923년 후포에서 고창연해어업조합으로 발족한 고창수협은 1930년 고창어업조합으로 개칭, 1952년에 후포어업조합으로 분할했다가, 1968년 고창어업조합으로 다시 병합했다. 1973년 고창군어업협동조합으로 다시 개칭하고, 1981년 부안수협으로 합병했고, 1991년 수산청으로부터 분할 설립인가를 얻은 후 1991년 마침내 고창군수산업협동조합으로 탄생했으며, 이후 1994년 김 위판장 준공을 시작으로 1995년 수산물 직매장 개장, 1999년 주유소 개장을 하며 사업의 다각화를 모색했다. 또한 2000년 어업인복지회관을 개장하며 어업인에 대한 복지를 실현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협동조합의 표본을 만들었다. 이어 2004년 뱀장어 판매장을 개장하며 지역 특산물인 풍천장어를 알리는 데 더욱 박차를 가했다. 2005년 동호 활·선어 위판장과 판매장을 개장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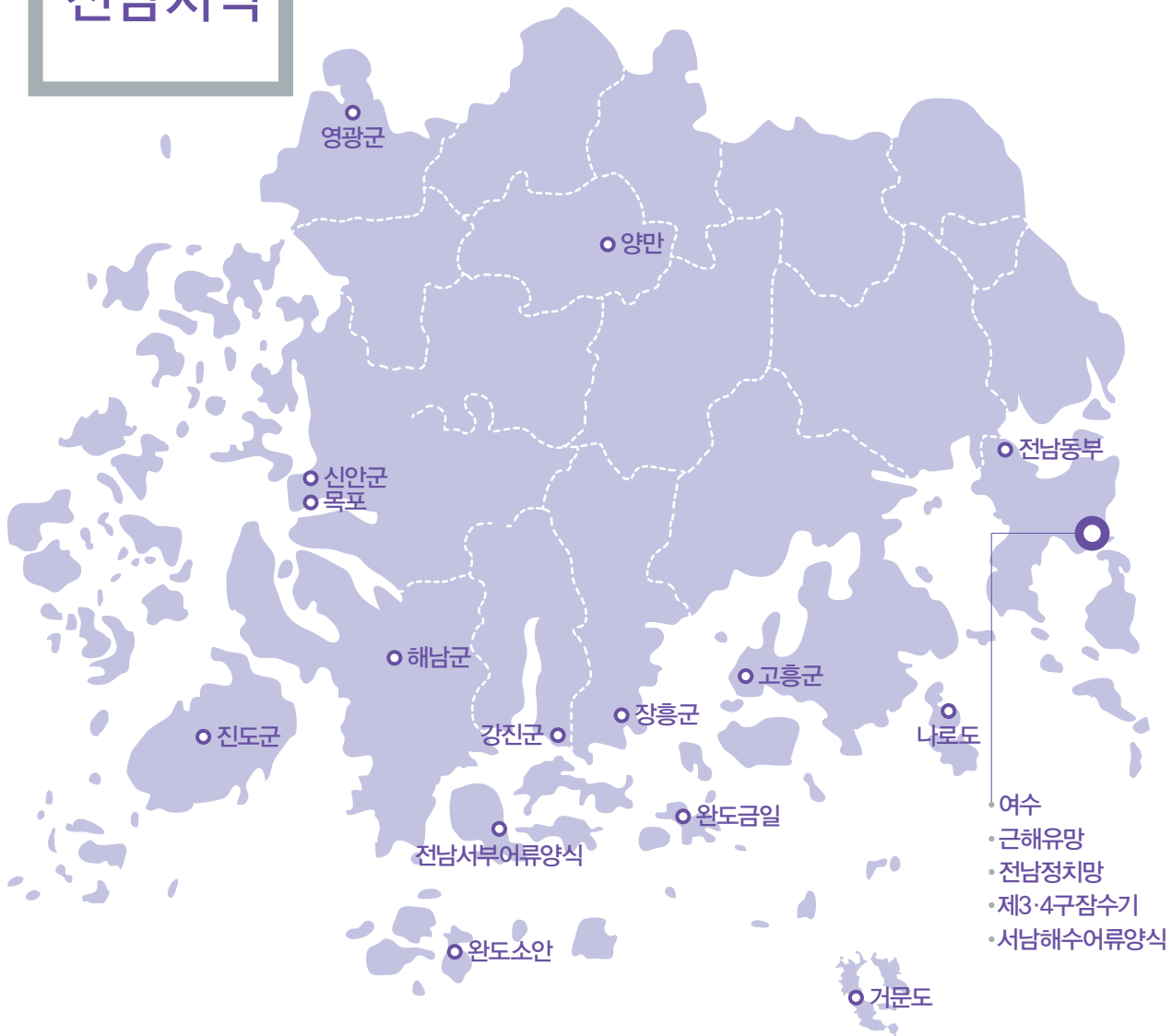
지역 어업인에게 다양한 판로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고창군수협은 1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지역의 어업인과 희로애락을 나누며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어업 관련 사업뿐 아니라 농업 및 각종 사업과 연계해 지역을 홍보하고 그 역량을 같이 키워나가는 데 힘을 보태며 수협 본연의 임무와 더불어 더 큰 범위의 지역 발전을 실천하고 있다.

우리수협 POINT

- ◎ 국내 최초 수산물 테마 축제, '고창 수산물 축제'(1996년 최초 개최)
 - '아름다운 바다, 풍요로운 갯벌'을 주제로 고창 앞바다와 갯벌을 소개
 - 풍천장어를 비롯한 지역 특산물을 함께 즐기는 소통의 장으로서 자리매김

회원조합 네트워크

전남지역



- 청정해역의 싱싱함을 그대로-강진군수협
- 공정한 업무, 정직한 경영, 깨끗한 수협-목포수협
- 청정다도해 천사의 섬 신안-신안군수협
- 새로운 10년 비전을 향한 힘찬 도약-영광군수협
- 안정적 경영기반 구축 일등조합 건설-완도금일수협
- 조합의 경영 정상화 조기 실현-완도소안수협
- 수산업의 뉴리더-진도군수협
- 땅끝애타-해남군수협
- 정직한 경영, 공정한 업무-거문도수협
- 힘찬 도약으로 가치를 창조하는 수협-고흥군수협
- 새롭게 시작하는 수산업의 전성기-나로도수협

- 미래를 향한 푸른 수협-여수수협
- 수산물의 수출입·유통의 중심, 수협-전남동부수협
- 협동운동 실천으로 수산업의 가치증대와 조합원 삶의 질 향상-장흥군수협
- 21세기 미래의 양식 민물장어-양만수협
- 참바다의 산물 생생참조가-근해유망수협
- 정치망은 신선함의 보고-전남정치망수협
- 늘 어업인과 함께 하는 마음으로-제3·4구잠수기수협
- 건전자산 증대로 경영 내실화 구현-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
- 청정해역, 맥반석 해제-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

청정해역의 싱싱함을 그대로

강진군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1922.11.11 강진군해태조합으로 설립
1944.06.01 강진군어업조합으로 개칭
1962.04.07 강진군어업협동조합으로 개칭
1974.07.19 상호금융업무 개시
1977.04.01 강진군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1992.08.17 강진읍지점 청사 준공
1994.01.28 활선어위판장 준공
1998.12.09 신전 출장소 준공 및 개장

조합원(명)	어촌계(개)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995	29	10/25	6



조합장 | 김 종 섭

역대조합장

1대	2대	3대	4~7대	8대	9~10대	11대	12대	13~14대	15대	16대
정학선	이유하	박현수	정희연	우효우	김성채	박현선	임용택	김종섭	배용배	김종섭



강진군수협 수산물 위판장

강진군수협은 일제강점기인 1922년 강진군해태조합으로 설립되어 2012년 현재 창립 90주년을 맞고 있다. 강진군수협은 다른 조합과 마찬가지로 명칭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창립 당시 조합의 명칭이 해태조합이듯 해태(김)를 취급하는 데서 조합이 설립됐다. 강진군수협이 상호금융 업무를 취급하기 시작한 1974년까지 강진만의 청정 해역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김 단일 품목 위판사업에 조합의 경영을 전부 의존하면서도 당시의 기준으로 경영상태가 전국 상위권을 달리는 조합이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김이 거의 전량 일본 수출에 의존하고 있던 실정에서 갑자기 김의 대일 수출이 막히게 되자 강진군수협은 국내 내수용 마른김 위판으로 발 빠르게 전환·정착하여 1일 3만~5만 속의 마른김을 위판해 대일수출 중단 이후에도 탄탄한 경영기반을 지켜왔다.

그러나 강진만의 취약점이 내만성 어장이라는 것인데 내만성 어장에서 생산량을 늘리고자 하는 어민들의 과욕이 단속을 피해 김 양식 시설물을 밀식하게 됐고, 1980년 초부터 김 생산이 중단되다시피 하여 10년 넘게 적자 경영을 헤어나지 못했다. 그 후 1994년에야 활선어 위판 사업으로 경제사업을 전환하여 100% 매매에 의존하던 활선어 유통을 임의상장제라는 걸림돌 속에서도 어업인들을 설득하여 활선어 위판을 정착시켰다. 현재 2개의 활선어 위판장을 운영해 활선어 위판과 면세유류 구매사업 등으로 일반사업은 흑자 경영을 유지하며 경영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수협 POINT

- ◎ 환경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때 강진만의 청정해역이 지역 이점으로 작용
- ◎ 전국 최초 정부가 '한국의 나폴리 향'으로 명명한 마량미향(마량은 강진군수협의 본소 소재지임)
- ◎ 마량미향이 관광지화되면서 강진군수협의 위판사업이 활성화되는 부가 이익 창출

공정한 업무, 정직한 경영, 깨끗한 수협

목포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37.07.02** 목포어업조합 설립
1962.04.01 목포어업협동조합 설립
1974.07.25 상호금융 · 신용업무 개시
1981.03.02 무안군 · 함평군수협 흡수합병, 목포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2010.09.15 제18대 최형식 조합장 취임



조합장 | 최형식

조합원(명)	어촌계(개)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2,715	50	13/140	17

역대조합장

1대	2대	3~4대	5대	6~8대	9대	10~13대	14대	15~17대	18대
이흥기	최안섭	정남주	신 학	박수근	장연상	박현상	정종희	김상현	최형식



목포수협의 위판장 경매

1897년 개항 이래로 개항 115주년을 맞은 목포는 부산, 원산, 인천에 이어 4번째로 개항을 한 곳이다. 특히 목포는 자주적 입장에서 개항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항이다. 목포수협은 1937년 설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74년의 역사 속에서 서남해안 어업선도 단체로서 역할을 해왔다. 목포수협은 목포시, 나주시, 무안군, 영암군, 함평군 등 2개 시 3개 군을 업무구역으로, 즉 해안선 400km의 업무구역과 50개의 어촌계로 구성되어 있다. 목포 경제는 크게 대불 경제와 선창경제로 양분되는데 선창경제는 목포수협을 통해 위판되는 수산물 유통에서 파급되는 경제효과를 말한다. 그만큼 목포수협이 목포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으며, 목포수협 위판장의 주어종인 조기와 먹갈치, 새우젓은 전국 출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목포수협

의 주도로 목포 북항 수산단지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어, 수산시설의 이전을 앞두고 있다. 이 시설은 서남해 어업 전진기지로써의 기능을 수행하며 획기적 도약의 발판이 될 전망이다.

우리수협 POINT

◎ 당일 가공한 '당일굴비' 판매

- 위판장에서 가장 선도가 좋은 참조기만을 직접 구매하여 가공
- 서해안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2~3년 이상 간수가 빠진 천일염만을 사용, 짜지 않고 담백
- 20m 높이에서 해풍으로 충분히 건조시켜 육질이 매우 단단한 것이 특징

신안군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65.02.26** 무안어업협동조합 설립
- 1972.10.17** 신안군어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1977.04.01** 신안군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1983.03.30** 북부지소 개설
- 1991.05.02** 목포지소 개설
- 1999.11.22** 북부지소 어업인복지회관 준공 및 이전
- 2001.04.18** 목포지소 송공사업소 개소
- 2010.06.01** 흑산도수산업협동조합 합병

조합원(명)	어촌계(개)	임원/직원(명)	지사사무소(개)
3,528	72	15/72	11



조합장 | 주영문

역대조합장

1~2대	3대	4대	5대	6대	7~8대	9대	10대	11~14대	15대
정해룡	장자순	김이철	양두평	고이철	최충식	양두평	이명석	오무정	주영문



신안군수협 송도위판장

신안군수협은 1965년 무안어업협동조합으로 시작하여 1977년 신안군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한 이후 서해 남부의 최대 어업 전진기지로써 그 명성을 지켜가고 있다. 2010년 결산 결과 신안군수협은 당기순이익 42억 8,000만 원을 달성하여 전국수협 중 4위, 위판실적은 943억 1,200만 원으로 전국 8위를 달성했으며, 수협중앙회의 경영실태평가에서 1등급 최우수조합으로 선정되는 등 경영여건이 크게 개선되어 복지수협의 반열에 오르는 획기적인 한해로 기록됐다. 합병 이전까지 신안군수협과 흑산도수협이 양립하면서 '신안군'이라는 지역적인 브랜드 가치를 상쇄하고 있었으나, 양 수협의 합병으로 명실상부한 신안군을 대표하는 수협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홍어, 김, 병어, 새우젓 등 수산물의 판매 및

위상이 크게 상승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1년 기준 1,036억 7,000만 원의 위판실적과 총 2,082억 1,500만 원의 사업실적을 올리고 있다. 신안군수협은 본점 포함 상호금융 영업점 4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북부지소 송도위판장, 흑산지소위판장, 목포지소 송공위판장과 각 사업소별 유류저장 탱크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 특산품으로는 한류와 난류가 일 년 내내 교차하는 청정해역 서해에서 생산되는 새우젓(전국 생산량의 70%), 흑산도 홍어, 병어, 민어, 꽃게, 돔, 서대 등 다양한 어종을 생산·위판하고 있다.

우리수협 POINT

- ◎ 청정다도해 서해안의 어업 전진기지 '천사의 섬 신안'
 - 전국적으로 유명한 흑산도 홍어, 병어, 민어 등 산해진미의 보고
- ◎ 병어 축제, 새우젓 축제 등 매월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지역 특산물 홍보에 주력

새로운 10년 비전을 향한 힘찬 도약

영광군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19.03.28 영광어업조합 설립
- 1962.04.01 영광어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1974.01.01 영광군어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1977.04.01 영광군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1977.04.13 영광군수협 서울직매장 개설
- 1999.04.02 신축 청사 준공 · 이전(본소)
- 2010.08.13 제2냉동냉장공장 준공
- 2011.08.24 제2위판장 및 수산물도소매시장 준공

조합원(명)	어촌계(개)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1,858	13	9/59	12



조합장 | 김영복

역대조합장

1~2대	3대	4대	5~6대	7대	8~9대	10~11대	12대	13대
박양식	박남중	김대선	이용수	최기준	조병남	우남기	조병남	김영복



영광군수협 법성위판장에 진열된 영광굴비

1919년 영광어업조합 설립으로부터 92년의 역사를 지닌 지역 수산업의 대표 기관으로서 어업인의 대변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영광군수협은 현재 임직원 68여 명, 조합원 1,900여 명이 한마음으로 지역 수산업 발전에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영광군수협은 대한민국 명품브랜드인 영광굴비를 직접 생산·가공·판매하여 소비자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고 있으며, 이를 통해 브랜드 가치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행복한 어촌사회를 위한 영원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영광군수협은 지역특산수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어촌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어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수협 주관으로 2년 연속 수산물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지역의 수산물 축제를 어업 인들과 지역민의 어울림 한마당의 자리로 만들어 지역사회 수산인의 위상

제고와 지역민 화합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2011년 준공된 법성포 수산물종합물류센터는 냉동냉장가공공장, 수산물 위판장, 도소매 시장 등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어업인과 상인, 소비자를 이어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수협 POINT

◎ 영상회의시스템 도입

- 전사적인 업무 현황 공유로 업무의 편의성 도모
- 주기적인 대화의 장을 통해 직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
- 개방된 직장문화를 갖지 못한 지역의 기업들에게 롤모델 제시

안정적 경영기반 구축 일등조합 건설

완도금일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1922.11.11 완도군해태어업조합 설립
1962.04.01 금일어업협동조합으로 개칭
1972.07.01 완도군어업협동조합과 합병
1977.04.01 완도군수산업협동조합 금일지소로 개칭
1990.07.16 금일수산업협동조합으로 재설립
1992.10.15 냉동냉장공장 준공
2003.06.23 신청사로 이전



조합장 | 구택중

조합원(명)	어촌계(개)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2,867	134	13/99	19

역대조합장

1~2대	3~4대	5~7대
서성현	서의배	구택중



완도금일수협 물양장

완도금일수협은 지금으로부터 90년 전 완도군해태어업조합으로 출발했다.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일원의 유인도 11개를 포함한 43개의 섬과 103km의 해안선에 걸쳐 업무구역이 형성되어 있다. 이곳은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맥반석 청정해역에서 자라나는 해조류의 천국이라 불리고 있다. 완도금일수협은 뛰어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과 상품 개발이 미흡하고 판매량 저조 등의 시장 한계성을 안고 있었다. 그리하여 새로운 브랜드 네이밍을 통해 적극적이고 과학적인 유통구조 개선을 완료해 이러한 시장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노력했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의 이미지를 극복하고 식품 생산 체제로서의 확고한 신뢰성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 결과 신선하고 깨끗하여 청정해역이라 일컫는 남해바다, 즉 완도

앞 바다의 깨끗함을 그대로 함축한 브랜드 '청정바다'를 만들어 냈다. 이러한 새 브랜드 개발에 힘입어 전 국민과 함께 상생한 지역 수산물을 공유하고 조합원들의 안정적인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인터넷 직거래 홈페이지(www.수산가공식품.kr)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도서지역의 여건상 위판장 및 가공사업 활성화로 경제사업은 성장하고 있으나 신용사업, 공제사업 등이 부진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균형과 조화 속에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공제사업과 유통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유통사업은 자회사인 금일수협수산이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면서 결실을 맺고 있어 완도금일수협은 상호금융사업에 보다 집중하며 도서지역의 저력을 보여주려 노력하고 있다.

우리수협 POINT

- ◎ '자연과 사람, 가족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표어 아래 국민의 건강을 위한 자원 개발에 주력
- ◎ 에스트로겐이 함유되어 갱년기 증상완화, 동맥경화, 고지혈증에 도움이 되는 지역 특산물 톳 판매

조합의 경영 정상화 조기 실현

완도소안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30.04.30** 소안어업조합 설립
- 1961.06.30** 노화어업조합으로 합병
- 1964.03.10** 노화어업협동조합에서 소안어업협동조합으로 분할
- 1972.07.01** 완도군어업협동조합 소안지소로 변경
- 1991.04.06** 완도군수협에서 소안수산업협동조합으로 분할
- 1995.09.27** 본점 청사 이전
- 2009.01.12** 완도군수협 산하 노화 · 청산 · 보길지소와 넓도사업소, 소안수협으로 계약 이전
- 2009.05.06** 완도소안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조합장 | 장명순

조합원(명)	어촌계(개)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2,342	61	9/38	14

역대조합장

1~2대	3~4대	5대	6대
최병일	김광선	황권칠	장명순



만나리참김 축제

완도소안수협은 1930년 소안어업조합으로 출발하여 수차례의 합병과 분할을 거듭해오다가 1990년대 들어서야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었다. 이곳은 블루벨트라 불리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역으로 주변보다 수심이 깊고 조류가 빨라 어느 지역보다도 무공해 환경을 자랑하는 해역이다. 그래서 이곳에서 생산되는 해조류와 어패류는 전국적으로도 품질이 잘 알려진 명품 수산물이다. 완도소안수협의 주요 생산품은 김, 전복, 톳, 다시마 등이며 특히 김은 전국 생산량의 23%를 담당하고 있다. '만나리 참김'으로 상표 등록된 김은 그 품질을 인정받아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과 MOU까지 체결하는 등 그 맛과 향이 탁월하기로 손꼽혀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생산량의 85%를 자랑하는 전복, 70%인 톳, 10%인 다시마

등도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의 특산물이다. 완도소안수협은 이러한 싱싱하고 우수한 해산물을 고객의 식탁에 전달하고 어가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일을 충실히 수행하며 일등 조합 경영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

우리수협 POINT

◎ 김밥외식사업 진행

- 2009년 '이천미(米)'(경기도 이천시)와 '만나리 참김'(완도소안수협)의 결합 상품화 협약 체결
- 각 지역의 특산품과 더해 새로운 명품을 창조한 좋은 본보기로 자리매김

진도군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62.04.01 진도군어업협동조합 설립
- 1972.06.16 조도어업협동조합 흡수·합병
- 1979.05.31 진도읍 남동리 신축 청사 이전(신용사업업무 개시)
- 1994.04.30 어민복지회관 신축 및 영업 개시
- 1999.05.03 본점을 진도읍 쌍정리로 이전
- 2010.09.09 서망사업소 수산물 위판장 신축

조합원(명)	어촌계(개)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3,033	48	13/54	8



조합장 | 김 상 호

역대조합장

1대	2대	3대	4~5대	6대	7대	8~13대	14~15대	16대	17대	18대
허산운	장형문	김재형	박인원	장장궁	손태화	조극현	허중무	양선희	김향동	김상호



제1회 진도 꽃게 축제

한반도의 최서남단 남도의 끝자락에 위치하여 다도해의 아름다운 절경과 전통의 문화예술을 고스란히 간직한 고장, 보배의 섬 진도에 자리 잡은 진도군수협은 1962년 진도군어업협동조합으로 설립되어 1966년 진도군 의신면 금갑리에서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로 진도어업조합사무소를 이전, 이후 1972년 조도어업협동조합을 흡수·합병함으로써 현재의 진도군수산업협동조합의 기반을 마련했다. 1983년 조도지소와 1991년 광주 대인동지소를 개소하여 상호금융업무를 개시했고 1999년 진도읍 쌍정리로 이전한 현재의 본점을 비롯하여 2개의 지점과 6개의 사업소로 경제사업을 중점으로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을 하고 있으며, 관할 어촌계는 48개, 조합원은 3,033명이다. 주요사업으로는 2011년 기준 720억 원의 위판실적과 총 1,642억 원의 사업

실적을 올렸으며 이 같은 실적을 올릴 수 있었던 데는 2011년 서망항에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수산물 위판장을 준공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보다 앞선 2010년에는 물김 위판장에 자동계량저울을 설치하여 위판입찰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또 최초 운영을 시작한 초사리 낙지 위판장의 성과 또한 사업실적 향상에 일조를 했다. 올해는 20억 원을 투자해 서망항에 냉동, 냉장, 급냉이 가능한 수산물 처리저장 시설을 완공하여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우리수협 POINT

- ◎ 물번! 꽃게반! 꽃게 축제(2010년부터 개최)
 - 총 2회에 걸쳐 약 8만 명의 관광객과 약 14억 원의 수익 달성
 - 진도 꽃게와 진도 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판매

땅끝애찬

해남군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62.04.01** 북평·송지·우수영, 어업협동조합을 합병하여 해남군어업협동조합으로 설립
- 1977.04.01** 해남군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1993.12.31** 삼산면 원진리 위판장 개설
- 2010.05.20** 경제사업부 신설
- 2011.11.29** 경기도 군포시 군포지점 개점
- 2012.01.16** 해남읍 안동리 냉동창고 준공

조합원(명)	어촌계(개)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3,097	70	14/67	10



조합장 | 김성주

역대조합장

1~3대	4~7대	8~9대	10~12대	13~14대	15대	16대
김종규, 박복만, 이춘식	홍환표	최경우	김장우	박한진	김효남	김성주



물김양식장 전경

해남군수협은 1962년 북평·송지·우수영 어업협동조합을 합병하여 해남군 어업협동조합으로 설립된 이후 지난 50년 동안 해남의 어업인들과 동고동락 하고 있다. 이후 다양한 매취사업을 펼치며 물김 위판사업을 통해 단일화된 지역의 특징을 개선하고자 꾸준히 애쓰고 있다. 그 동안 재정난에 시달리며 수협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왔지만 2011년도부터는 홀로서기에 성공하여 상호·경제사업의 동반성장을 발판으로 향후 5~6년 이내에 완전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경제사업은 물김위판이라는 단일화 사업에서 탈피하여 청정해역의 각종 수산물을 '땅끝애찬'이라는 브랜드를 통해 다양한 매취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최근 준공된 냉동창고는 대지 800평 건물 400평 총 1,200평의 규모로 지역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수

산물의 가격안정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수산물유통물류센터 건립과 해남김에 대한 해외수출을 통해 해남김 브랜드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처럼 해남군수협은 어업인을 위하여 어업환경을 개선하고 최대의 봉사로서 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수협 POINT

- ◎ 해남김, 해남 황산면에서 생산되는 햇빛 노출 친환경 지주식 김
 - 맛과 향이 뛰어나 소비자의 미각을 사로잡음
 - 대형유통업체에서 인기 품목으로 자리
- ◎ 해남김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 본격적인 해외시장 공략 중

정직한 경영, 공정한 업무

거문도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18.03.24 거문도어업조합 설립
- 1962.04.01 거문도어업협동조합 설립
- 1974.07.15 상호금융업무 개시
- 1977.05.09 거문도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1991.08.26 상호금융 온라인 업무 개시



조합장 | 김 석 환

조합원(명)	어촌계(개)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646	11	9/18	5

역대조합장

1대	2대	3~5대	6대	7대	8~9대	10~13대	14~15대	16대	17대	18대	19대
이동원	이정재	김철봉	최재열	김연평	임길동	김성택	윤덕춘	김동열	김길생	정용호	김석환



1970년대 거문도수협 전경

거문도수협은 1918년 전남 여수시 삼산면 일원을 중심으로 하는 거문도어업조합으로 출발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근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전 조합원은 물론 지역주민의 경제 이익을 담당하는 조합으로서 다도해해상 국립공원으로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의 각종 수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더불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위한 위판사업은 물론 어민의 안정을 위한 지도사업, 지역의 환거래를 소통하기 위한 금융사업을 활발하게 수행 중에 있다. 특히 정책자금 부문은 투명한 경영으로 분배 운영하여 높은 신뢰를 주고 있다. 수탁판매사업의 활성화로 어업인의 소득향상과 조합의 수지를 개선하였다. 수협의 양식어류 수매사업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와 직거래함으로써 양식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였다. 또한 거문도수협은 거문도의 특산품인 '거문도갈치'를 브랜드화하여 '제주은갈치'와 경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협인증마크와 어선이력제를 도입하여 고객에게 신뢰할 수 있는 최상품의 갈치를 제공하고 있다. '거문도갈치'는 쿠로시오 난류의 유입으로 플랑크톤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갈치의 주 먹이인 멸치가 풍부해지고 빠른 유속으로 인해 갈치의 운동량이 많아지게 되어 그 맛과 품질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거문도수협은 앞으로도 홍보 활동에 더욱 주력해 지역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는 포부를 다지고 있다.

우리수협 POINT

- ◎ 거문도·백도 '은빛바다 축제'
 - 청정해역 에메랄드 빛 바다와 흰모래 사장이 어우러진 해수욕장을 배경으로 개최
 - 특산물인 은갈치회와 자리돔물회 등 청정해역의 자연산 해산물을 저렴하게 제공
- ◎ 거문도 먼바다 갈치 낚시, 지역 특색 체험행사로 인기몰이

힘찬 도약으로 가치를 창조하는 수협

고흥군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62.04.01** 녹동·금산·풍화·해창만 어업협동조합 설립
- 1972.08.22** 고흥군어업협동조합으로 합병
- 1977.04.01** 고흥군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1981.03.05** 나로도수산업협동조합 흡수·합병
- 1991.01.30** 나로도수산업협동조합 분할
- 2005.10.13** 보성군수협 업무구역 인수 및 보성지소 개설
- 2011.11.30** 현재 3부 2실 7과 1단 1팀 1원 9개 지점 운영

조합원(명)	어촌계(개)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11,999	162	13/107	22



조합장 | 차종훈

역대조합장

1~2대	3대	4대	5대	6대	7~9대	10대	11대	12대	13대
김연섭	고정석	박양남	남기옥	김복수	정병남	장삼남	차종훈	고광남	차종훈



고흥군수협 가공물류사업단 생산 제품

한반도 남단에 위치한 고흥반도는 '지붕 없는 미술관', '우주항공의 수도'라 불린다. 전남 고흥은 동쪽엔 여자만, 서쪽엔 득량만을 거느리고 있는 고흥반도와 그 주변의 175개의 도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리적으로 삼면이 바다라는 특성과 오염원이 없는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전국에서도 청정해역으로 이름난 고장이다. 이곳에 자리한 고흥군수협은 바다 건너 소록도와 거금도가 보이는 녹동항에 본점이 위치해 있다. 고흥군수협은 1962년 녹동·금산·풍화·해창만 어업협동조합을 합병하여 고흥군어업협동조합으로 설립됐다가 1977년 고흥군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했고, 나로도수협의 흡수·합병과 재분할, 보성군수협 업무구역 인수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다. 고흥군수협은 직영 수산물 가공공장을 통해 수산물을 직접 매입·가공·판매

하고 있으며 고흥군 관내를 비롯한 보성군, 광주광역시, 경기도 등에서 9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본점 인근에 위치한 수산물 활성어유통 센터에서는 청정 연근해어장에서 갓 잡온 낙지, 문어, 돔, 농어 등 싱싱한 수산물이 유통되고 있으며 신선한 회를 저렴한 가격에 편안히 즐길 수 있도록 2층은 회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건어물유통센터에서는 무공해 어장이라 불리는 득량만, 여자만에서 생산된 김, 멸치, 문어 등 각종 건어물들이 위판되고 있다.

우리수협 POINT

- ◎ 전남 고흥군과 보성군 일원에 전국 최다인 1만 2,000여 명의 조합원을 보유
- ◎ 조합원의 복지와 소득향상을 위한 임직원의 소명의식 강화
 - 헌신봉사와 책임경영을 실천, '경영의 안정성장'

새롭게 시작하는 수산업의 전성기

나로도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23.09.03 나로도어업조합 설립
- 1962.04.01 나로도어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1967.10.31 나로도 어업 전진기지 시설 확장(위판장, 급유소, 냉동공장)
- 1991.01.30 나로도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1996.10.15 신청사 건립, 제빙 냉동공장 신축
- 2008.05.09 수산물 위판장 현대화 시설 완공

조합원(명)	어촌계(개)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1,534	20	11/15	4



조합장 | 명 상 용

역대조합장

1대	2대	3대	4대	5~6대
고영불	최성필	고임준	최판수	명상용



나로도수협 청사

‘오래된 비단이 바람에 날리듯 아름답다’고 해서 나로도(羅老島, 조선 영조시대 나라에 말을 바치던 때부터 ‘나라도’라 불렸고, 일제강점기에 지명이 한자로 바뀌면서 ‘나로도’라 불렸던 곳이다. 이 지역은 일제강점기 수탈을 이겨내고 해방 이후 일본인들의 통조림 가공 및 냉동시설을 현대화하여 1967년 어업 전진기지를 형성함으로써 남서해안 유일의 어공업 지대로서의 명성을 얻기도 했다. 전통적인 나로도 삼치잡이가 유명하여 지금도 항구 어귀에는 대나무에 낚시줄을 매어서 잡는 삼치잡이 배를 볼 수 있다. 지역의 특산물로는 삼치, 대하, 중하, 병어, 서대가 있다. 나로도수협은 1923년 설립된 나로도어업조합을 근간으로 약 90년간 지역 경제의 중심인 항구를 지키고 있다. 1960년 한해 대일수출 1억 4,000만 원(새우 10만 관, 삼치 6,000관, 병어 200상자)을 달성한 기록이 경향신문에 게재됐을 정도로 한 시절 수산업을 풍미하던 역사적인 조합이다. 나로도의 수산업은 관광산업 의존형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나로도수협은 내나로도 외나로도를 업무구역으로 하여 어업인을 위한 모든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로도수협은 국내 생산 삼치 가운데 최초로 수출되기 시작한 나로도 삼치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다.

우리수협 POINT

- 매년 10월 ‘나로도 수산물 축제’ 개최
 - 지역의 화합과 관내 청정 자연산 수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판매촉진의 장으로 활용
 - 최소 규모, 최소 인원으로 최대 종류의 사업을 수행

미래를 향한 푸른 수협

여수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24.11.29** 여수어업조합 설립
- 1968.10.25** 신용사업 개시
- 1977.04.01** 여수시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2000.02.28** 신용업무 상호금융 전환
- 2007.10.17** 제빙냉동냉장공장 준공
- 2011.06.24** 부천중동지소 개소

조합원(명)	어촌계(개)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8,843	105	11/154	15



조합장 | (직무대행) 이수한

역대조합장

1대	2대	3대	4대	5~10대	11~13대	14~15대	16~17대	18~19대	직무대행
노우실	강기우	한병희	김영수	이익근	조남선	주상용	이복한	최영향	이수한



여수 수산물종합센터 조감도 (2013년 완공 예정)

여수수협은 전남 여수시와 순천시 일부 지역 9,000여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지구별 수협이다. '활기차고 풍요로운 복지어촌 건설'을 목표로 현장 중심의 지도사업 강화와 어업인 편의 위주의 경제사업을 확대하고, 상호금융 사업의 전문성 제고와 내실 있는 조합경영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2011년 4월 지역 수산인의 오랜 숙원사업인 수산물종합센터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다. 수산물종합센터는 총사업비 290억 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비 10%)이 소요되는 대규모 역사(役事)로서 6,800평 부지에 연면적 6,479평 규모로 건립되며, 선어 및 건어위판장 외에 활어위판장과 기타 부대시설 등이 추가로 건립되어 명실상부한 수산물종합센터로서의 기능을 갖추게 됐다. 2013년 10월 준공 예정

으로 향후 2년 후에는 전체 공정이 모두 완료되어 선진화된 시설 구축을 통해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운데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수수협은 위판사업을 하는 조합 가운데 가장 많은 위판실적을 달성할 정도로 소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수산물 종합센터 건립 이후 그 위상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우리수협 POINT

- ◎ 2007년 준공된 제빙냉동냉장이 순조롭게 가동 중
- ◎ 2013년 완공 예정인 수산물종합센터
→ 위판을 주 업무로 하는 조합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전망

수산물의 수출입 · 유통의 중심, 수협!

전남동부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1997.12.24 울촌수산업협동조합 설립

2004.06.01 전남동부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광양수협 합병)



조합장 | 백인기

조합원(명)	어촌계(개)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1,939	30	12/21	3

역대조합장

1대	2~4대
김운택	백인기



광양 망덕포구

전남동부수협은 1997년 울촌수산업협동조합으로 탄생하여 2004년 광양수협을 합병함으로써 현재의 모습을 갖췄다. 광양, 울촌 전 지역에 30개 어촌계, 1,993명의 조합원들과 1개의 상호금융 점포로 이루어져 있다. 이 지역은 여수만, 여지만, 순천만, 광양만 및 섬진강을 중심으로 풍부한 어족자원이 많아 새고막, 굴, 바지락, 재첩, 전어 등이 주로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남동부수협은 광양만권 산업단지 조성으로 어장이 축소돼 어업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어업인들이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조합원들이 여러 각도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광양시 중동 길호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수산물 유통단지 조성을 국토해양부에 승인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다. 이곳에 유통시설과 위판장, 판매장을 연계해 어촌관광 명소로 만들어 어업인

들의 새로운 소득사업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도 전남동부수협은 위기에 직면한 어업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수협 POINT

① 전국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여자만의 특산물, '새고막'

→ 보통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가 제철로 맛이 최고

→ 고막은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는 8진미(珍味) 중에서도 1품으로 진상됐을 정도로 맛과 영양이 우수

→ 새고막 마니아들은 참고막보다 새고막을 최고로 여김

협동운동 실천으로 수산업의 가치증대와 조합원 삶의 질 향상

장흥군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17.11.05** 장흥군수산조합 설립
- 1977.04.01** 장흥군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1979.11.29** 여수산업무 개시
- 1991.08.20** 광주지소 개소
- 2004.06.21** 본점을 회진으로 이전



조합장 | 사 홍 만

조합원(명)	어촌계(개)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2,985	42	16/21	4

역대조합장

1대	2대	3대	4대	5대	6~9대	10대	11~12대	13~14대	15대
최금동	김정식	김은주	이덕식	송기성	이행기	김복만	김대중	김양규	사홍만



장흥군수협 위판장

1917년 장흥군수산조합으로 발족한 장흥군수협은 1977년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하여 그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전남 장흥군 일원을 업무구역으로 하며, 장흥군 회진면에 본점이 위치하고 있다. 장흥군수협은 어촌현장 생산지원 활동으로 수산자원 조성 및 어장보전 활동 강화 및 어촌개발 추진 계통조직의 육성으로 균형적인 발전에 역점을 두고 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어업인의 저축의식 고취와 어업 경영에 필요한 수산경영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상호금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의 저축 생활화 운동의 지속적인 전개 및 대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책임경영제를 도입함으로써 상호금융사업의 수익을 증대하여 건전 조합으로서 수익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무산 김'과 '장흥낙지'는 물론 청정해역에서

건져 올리는 각종 해산물이 제값에 팔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조합원들에게 더 많은 판매이익이 돌아가도록 인터넷을 통해 단골 소비처를 개척하고, 안정된 판로 확보 차원에서 대상을 모집하는 등 온갖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장흥군수협 임직원들은 이런 노력을 통해 '꿈의 수협'을 실현한다는 각오로 주말도 반납한 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우리수협 POINT

◎ 장흥에서 생산되는 '무산(無酸) 김'

- 파래 등이 섞여 때깔은 매끄럽지 않으나 자연 그대로의 신선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무공해 웰빙 김
- 보통 잡태를 없애고 때깔을 좋게 하는 첨가물(유기산)을 사용하지 않고 양식·생산하여 인체에 무해

양만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94.04.14 양만수산업협동조합 설립
- 1996.07.19 수협중앙회 회원 가입
- 1997.08.09 서울직매장 개점(폐쇄 2003.08.26)
- 1997.09.20 주사무소 이전(서울→광주)
- 1998.08.25 주사무소 이전(광주→서울)
- 1998.09.14 부산직매장 개점(폐쇄 1999.07.09)
- 1999.07.09 주사무소 이전(서울→광주)
- 2009.02.01 광주직매장 개점(폐쇄 2009.09.30)

조합원(명)	임원/직원(명)	지사사무소(개)
329	11/20	-



조합장 | 나진호

역대조합장

1대	2대	3~5대	6대	7대
김성환	박한영	김재형	김성대	나진호



민물장어 급이

양만수협은 1994년 창립 이래 은행업무를 비롯하여 국가 식량산업으로서 민물장어 생산과 유통을 통해 국민생활에 필요한 동물성 단백질을 비롯한 양질의 영양소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지구별 수협과 달리 전국에 조합원이 산재해 있으며 조합원은 현재 329명으로 비조합원의 조합 가입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자본금은 58억 400만 원이다. 2011년 제18기 결산 결과 2,204억에 이르는 사업규모와 20억 500만 원의 잉여를 실현했다.

우리수협 POINT

◎ 민물장어의 성분과 효능

- 양질의 단백질(해독작용과 세포재생력이 좋은 점액성 단백질 및 콜라겐) 함유
- 양질의 지방(고혈압, 당뇨, 간염 등 성인병에 특히 좋은 불포화지방산) 함유
- 비타민A, 비타민D, 비타민B 함유
- 남성에게는 정력 강화, 여성에게는 피부미용, 어린이·노약자·수험생에게는 보양식품으로서 탁월한 효과 발휘

참바다의 산물 生生츄조기

근해유망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64.05.22** 한국기선삼치유망어업협동조합 설립
1977.04.29 근해유망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2005.01.31 본소 사무실 이전 (여주시 여서동 215)
2005.10.11 수산물 직매장 개점 (여주시 여서동 457)



조합장 | 김이태

조합원(명)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120	10/24	4

역대조합장

1~2대	3대	4~6대	7~12대	13~14대	15대
이운식	박용수	지장호	임화석	박흥기	김이태



근해유망수협의 生生츄조기

근해유망수협은 1963년 창립총회를 거쳐 1964년 한국기선삼치유망어업협동조합으로 설립된 후 1977년 근해유망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지역 별로 여수에 본점을 삼천포와 목포에 지소를 두고 있다. 상호금융업무를 비롯하여 공제 사업, 구매사업, 조합원 지도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2005년 여주시 여서동에 수산물 직매장을 개점했다. 근해유망수협에서 직접 제작·유통하는 ‘生生츄조기’는 조합원들이 연근해에서 직접 어획한 참조기를 산지에서 바로 수매하여 만든 최상의 상품이다. 소비자들과의 직거래를 위해 조합자체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통신 판매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근해유망수협은 얼마 전까지 MOU체결 조합으로서의 불명예를 안고 있었으나 경영정상화를 위해 임직원과 조합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 2009년 MOU조합을 졸업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더불어 2010년에는 조합 경영실태평가 결과 1등급 조합으로 선정되는 명예로운 성과를 달성했다. 조합원들의 어획고 증대와 복지 향상, 그리고 새로운 수익 창출을 통해 전국 최우수조합으로 거듭 나기 위해 오늘도 근해유망수협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다.

우리수협 POINT

- ◎ 갓 잡아 올린 참조기의 신선함을 그대로, ‘生生츄조기’
 - 부패 방지를 위해 소금을 뿌린 염장굴비와 달리 맛과 영양이 풍부
 - 지역의 어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브랜드화 과정 진행
 - 지속적인 품질관리로 싱싱한 조기의 참맛을 널리 전파

전남정치망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62.08.04** 전남정치어업협동조합 설립
- 1977.04.01** 전남정치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1994.11.29** 전남정치망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2009.06.30** 수산물 처리저장 시설 준공 및 본점 청사 이전
- 2010.03.02** 수산물 특화시장으로 상호금융점포 이전



조합장 | 최길선

조합원(명)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28	9/18	3

역대조합장

1~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9대	10~12대	13~15대	16대	17대
김영수	황연천	우민홍	김영수	노채술	심금구	김선두	박상백	김성남	윤성태	최길선



정치망 조업

전남정치망수협은 1962년 정치어업협동조합으로 설립되어 1993년 여수시 교동에 상호금융점포를 개점하면서 금융업무를 시작했다. 1994년 현재의 명칭인 전남정치망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하여 조합업무를 계속해 오다가 1999년 여수시 교동에 청사를 매입하여 상호금융점포를 이전했다. 2009년에는 조합의 오랜 숙원사업인 냉동창고가 신축되면서 총무지도과가 이전하게 됐고 청사 매각과 함께 상호금융점포는 여수시 남산동 수산물 특화시장으로 이전하여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전남정치망수협의 조합원은 현재 28명으로 여수시 돌산도를 중심으로 1920년대부터 시작된 정치망어업을 경영하고 있다. 주요 포획어종인 삼치는 일본에 수출되면서 호황기를 누리기도 했으나 현재는 내수용으로 횡감이나 구이용으로 판매되고 있다. 정치망어업은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 매일 2번씩 수산물을 포획하고 있어 당일 생산된 정치망 삼치는 신선도가 좋아 지역에서도 우수한 수산물로 인정받고 있다. 냉동창고 신축 이후 조합원이 생산한 사료용 어류를 전량 매입하여 선별과정을 거쳐 수출용과 사료용 어류로 구분·판매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과거 조합원들이 생산한 수산물이 상인들의 횡포로 헐값에 판매되기도 했으나 냉동창고 신축 이후 가격이 안정되어 조합원의 소득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조합의 수익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어 협동조합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

우리수협 POINT

- ① ‘정치망’ 삼치
 - ‘정치망’이라는 브랜드는 신선함을 의미
 - 지역에서도 인정한 우수 수산물

늘 어업인과 함께 하는 마음으로

제3·4구잠수기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27.04.05** 주식회사 여수잠수기수산회사 설립
1962.04.01 제3구잠수기어업협동조합 설립
1975.10.27 상호금융업무 개시
1981.03.05 제3·4구잠수기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1997.12.20 본점 사무실 및 위판장 이전(여수시 국동 1082-7번지)



조합장 | 이원목

조합원(명)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88	9/24	3

역대조합장

1대	2대	3대	4대	5대	6~8대	9대	10대	11~12대	13~15대	16대	17~18대
김학선	정우수경	김화윤	김학선	김화윤	안문성	신인식	정해한	최관식	박인규	최승만	이원목



공판장 전경

제3·4구잠수기수협은 1927년 설립된 여수잠수기수산회사가 모태로서 1981년 제3·4구잠수기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전라남·북도, 충청남도, 경기도,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일원을 업무구역으로 하며, 전남 여수지역에 52명, 충남 보령지역에 37명, 총 89명의 조합원과 26명의 상임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남 여수에 본점과 2곳의 상호금융 영업점을 두고 있으며, 충남 보령에 지소를 두고 위판사업과 상호금융사업을 주 업무로 하는 업종별 수협이다. 먼저 위판사업은 위판사업 활성화 위해 기존 잠수기어업의 한정된 위판 외에 2004년부터 낙지 위판사업을 신규로 유치하여 최근 들어 매년 100억 이상의

낙지 위판실적으로 조합 수익 사업에 크게 일조하고 있다.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상호금융사업 역시 예탁금 600억 원과 대출금 460억 원 달성으로 금융기관으로서의 적정규모를 갖추고 대고객 서비스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처럼 제3·4구잠수기수협은 전임직원의 단합된 노력으로 조합원들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조합원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수협 POINT

① 잠수기어업

- 잠수부가 직접 바닷물에 입수하여 해저에 서식하고 있는 수산물 채취
- 개조개, 키조개, 우럭조개, 개불 등 정착성 수산 동식물을 갈퀴나 칼 등을 이용하여 포획, 채취

서남해수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95.02.17** 서남해수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 설립
- 1996.05.07**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가입
- 1998.09.25** 수산물종합판매장 준공 및 상호금융업무 개시
- 2004.11.01** 해수어류양식수협 인수, 통영지소, 한려지소 개소



조합장 | 임영운

조합원(명)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505	9/25	3

역대조합장

1대	2~5대
김태곤	임영운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 홈페이지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은 국내 양식어민의 보호와 정부의 기르는 어업 육성 정책에 맞춰 양식어업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소비자들에게 국내산 활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설립된 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이다. 1994년 창립총회를 개최한 이후 1998년 수산물종합판매장을 준공하면서 상호금융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2004년 해수어류양식수협에 대해 순조롭게 계약이전을 이루어 관할지역을 경남지역까지 확대했다. 2011년도 조합목표를 '신성장 도약의 해'로 정하고 '새로운 의식과 창조적 정신으로 한 단계 성장, 조합원의 참여 의식 고취, 수익자원 발굴로 조합 경영개선 주력, 상호금융사업 활성화 주력, 직원 복무자세 전환'이라는 다섯 가지 조합운영 목표 아래 새로운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은 미처리

결손금을 해소했고, 그 결과 정부와 체결됐던 MOU 해지와 공적자금을 상환했으며, 2010년 5%의 출자배당, 2011년 1억 원의 이용고배당과 5.5%의 출자배당을 했다. 조합과 조합원 간의 공동체 의식을 높여 조합은 조합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합원은 조합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 상생의 길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양식어업인들에게 우리의 양식산업이 IT산업처럼 각광을 받고 첨단기술산업 못지않은 고부가가치 산업이 될 것이라는 격려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우리수협 POINT

◎ 양식어업인들이 설립한 업종별 수협

- 창립 이래 기르는 어업을 기반으로 수산물 유통, 구매사업, 금융업무 등 제반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
- 지역 수산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며, 양식어업인들의 지위향상과 수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

청정해역, 맥반석 해저!

전남서부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2000.04.01 전남서부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 설립

2001.03.27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가입 승인

2008.08.01 유기질비료화 공장 준공 및 청사 이전
(완도읍 가용리 1092-4)



조합장 | 김명규

조합원(명)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204	7/7	1

역대조합장

1대	2~4대
이진영	김명규



유기질비료화 공장



농업인들의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 견학

2000년 설립된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은 완도, 해남, 진도를 중심으로 전남서부지역의 해수양식 어업인들이 모여 설립한 업종별 수협이다. 넙치(광어)와 조피볼락(우럭)을 주종으로 하는 340여 개의 양식업 경영체를 기반으로 청정해역에서 정성껏 생산한 어류를 국내에 공급함은 물론 수출까지 하고 있다. 또한 양식어업인들의 권익보호, 생산 활동 지원 및 정책지원 사업

대행, 그리고 유기질비료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유기질 비료사업은 자연재해 및 자연폐사로 버려졌던 폐사어를 유기질 비료화 공정을 거쳐 유기질비료로 재생산하여 친환경 농업에 사용한다. 이로써 양식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조합 수익에도 기여하면서 '어업인과 농업인이 함께 찾아오는 수협'으로 거듭나고 있다. 한편 '액화산소'는 물속 용존산소량을 늘리는 데 사용하는 양어장의 필수품으로 양식어업인들이 고가로 구입해 사용했었다.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은 액화산소사업을 주력사업으로 육성하여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어업인의 수익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수입활어와 양식수산물이 늘어나면서 이 지역 광어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완도산이라는 이름표를 부여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등 어업인들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우리수협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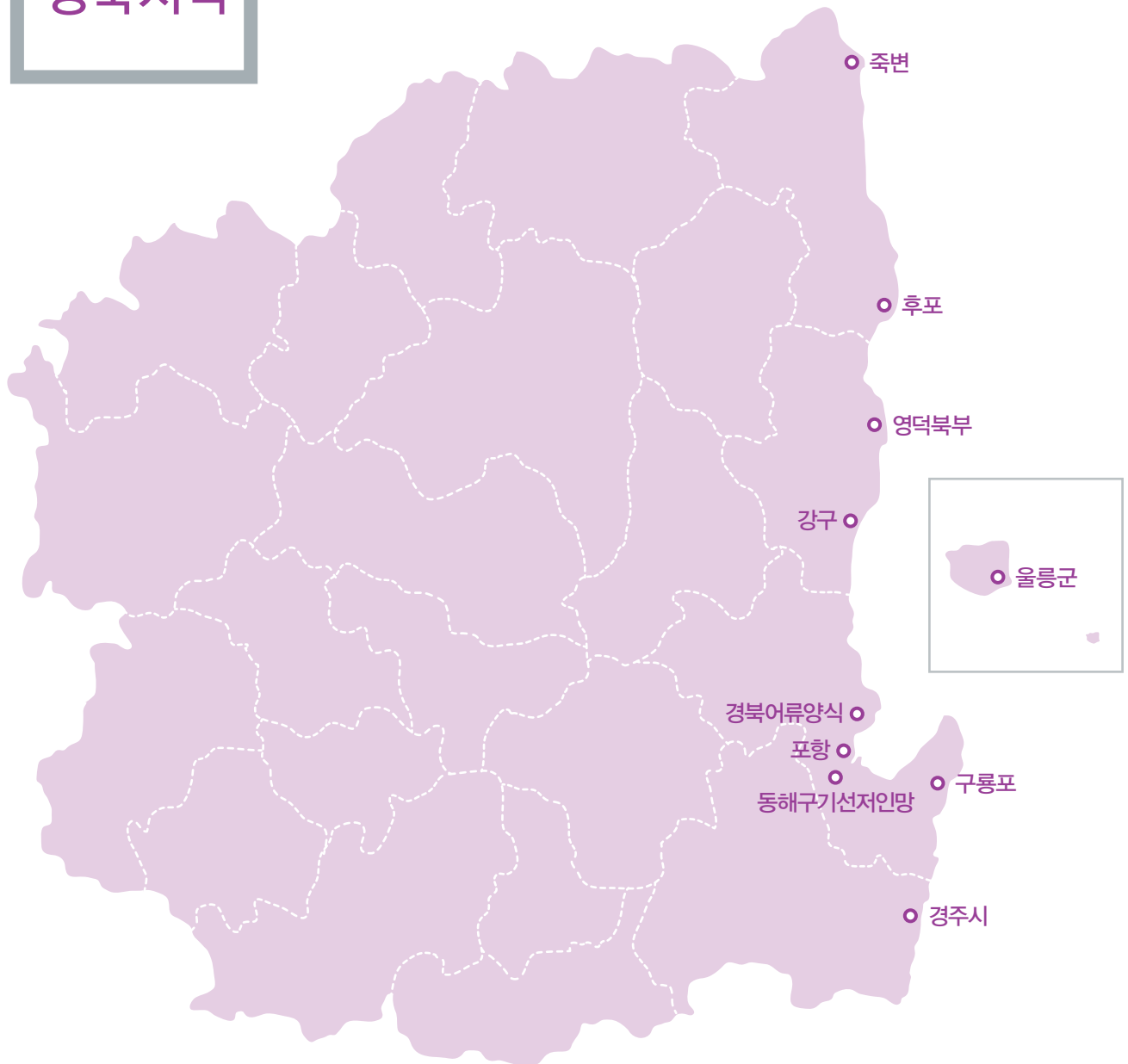
◎ 완도의 지역축제인 '장보고 축제' 행사 지원

→ 활어회 홍보 행사 등을 통해 판로 확보

→ 액화산소 공급, 양식관련 경제사업을 통해 고품질 양식어류의 생산기반 조성

회원조합 네트워크

경북지역



- 최고의 경영과 최상의 고객감동-경주시수협
- 성실과 봉사로 책임을 다하는 조합-강구수협
- 경제사업 활성화하여 제2의 도약을-구룡포수협
- '꿈'을 현실로!-울릉군수협
- 블루오션을 향한 스마트 경영-죽변수협
- 경영개혁만이 살 길이다-영덕북부수협

- 조합원과 하나되어 영일만 르네상스를-포항수협
- 자신을 낮춰 고객을 섬기고, 동료를 배려하며 솔선수범하고, 즐겁게 생활화하자-후포수협
- GOOD MONEY-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 바다목장의 바다목동-경북어류양식수협

최고의 경영과 최상의 고객감동

경주시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22.11** 감포어업조합 설립
- 1971.07** 신용업무 개시
- 1979.06** 제빙냉동시설 공장 준공
- 1995.01** 경주시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2009.12** 위판 500억 달성, 예탁금 1,000억 달성
- 2011.12** 위판 678억 달성

조합원(명)	어촌계(개)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1,038	17	11/44	7



조합장 | 하 원

역대조합장

1대	2~3대	4~6대	7~8대	9대	10대	11대	12~14대	15~16대
박만도	신귀상	임용택	조광조	김영환	김재교	박종호	임동철	하 원



감포항 전경

달 감(甘)자와 같은 모양의 포구라 하여 '감은포'라고 불리다가 오늘날에는 '감포'로 명칭이 전해지고 있는 감포항은 1920년 개항 이후 오징어, 가자미, 청어 등을 주요 어종으로 하는 동해 남부의 어업 전진기지로서 명성을 지켜오고 있다. 이곳에 위치한 경주시수협은 1922년 감포어업조합으로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약 9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2011년 기준 678억 원의 위판실적과 총 2,681억 원의 사업실적을 달성하였다. 또한 결산잉여금 20억 7,100만 원, 회원조합 경영실태평가 1등급, 순자본비율 9.51%로 매우 건실한 조합이기도 하다. 경주시를 일원으로 관할 36km를 따라 12개의 어항과 17개의 어촌계로 구성

되어 있고, 조합원은 현재 1,038명이다. 주요시설로는 위판장, 활어위판장, 제빙·냉동공장, 폐수처리시설, 수산인화관, 어선수리소 등이 있다. 이 지역의 특산품으로는 한류와 난류가 연중 교차하는 청정해역 동해에서 생산되는 참전복, 미역을 비롯하여 싱싱한 멸치로 가공한 '감포 멸치젓' 등이 유명하다.

우리수협 POINT

- ◎ 동해 일출의 명소인 감포항 방파제
→ 새벽 해맞이 코스로 유명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
- ◎ 위판장에서 경매를 통해 싱싱한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성실과 봉사로 책임을 다하는 조합

강구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62.04.01** 강구어업협동조합 설립
- 1974.07.25** 상호금융업무 개시
- 1977.04.01** 강구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1992.12.15** 안동지점 개점
- 2002.07.01** 창포지점 개점
- 2011.12.23** 하남지점 개점

조합원(명)	어촌계(개)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1,053	17	10/47	8



조합장 | 강 신 국

역대조합장

1~2대	3대	4~6대	7~8대	9대	10~12대	13~15대	16대
김용창	유문창	박수원	김용창	최상원	한형구	윤종목	강신국

조합 설립 반세기만에 전국 최우수조합으로 우뚝 선 강구수협은 2009년 경영실적 평가에서 결산 결과 이익잉여금 9억 원 이상, 운영자금 1,000억 원대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로써 수협중앙회로부터 탄탄한 경영과 내실 있는 조합으로 인정받아 전국 최고의 수협으로 선정됨과 동시에 농림수산물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을 수상했다. 강구수협에서는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장과 직원들이 일일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조합운영에 대한 건의와 개선사항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결하는 '담당부락제'를 실시하여 해당 어촌계를 정기방문하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어 조합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강구수협은 경기도 하남, 경북 안동 등에 지점을 두고 좀 더 많은 고객들과 함께 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매년 영덕대게축제를 후원하고 있으며, 강구수협의 특산물인 박달대게의 뛰어난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브랜드마크를 부착해 최상급 품질의 대게로 상품화하고 있다.



강구항 전경

우리수협 POINT

- ① 전국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가진 영덕의 대표적인 특산물 '영덕 박달대게'
 - 박달대게의 뛰어난 품질보증을 위해 브랜드마크 착용
 - '영덕대게' 2012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 최상의 품질을 갖춘 특산물 영덕 박달대게는 소비자로부터 많은 사랑받고 있음

경제사업 활성화하여 제2의 도약을

구룡포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22.11.09** 구룡포어업조합 설립
- 1970.07.21** 신용업무 개시
- 1977.04.01** 영일군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2002.07.01** 장기법인어촌계 인수로 장기지소 신설
- 2004.12.02** 구룡포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2009.12.30** 유류저장탱크 및 부속시설 준공
- 2009.12.31** 외국인선원숙소 준공
- 2010.10.25** 수산물공동작업장 준공

조합원(명)	어촌계(개)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2,356	32	12/78	11



조합장 | 연구식

역대조합장

1대	2대	3대	4대	5대	6~8대	9대	10~12대	13~16대	17~18대
강두수	문용하	강두수	이철수	최정화	양재혁	서영태	정억엽	김삼만	연구식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로는 한류와 난류가 연중 교차하는 청정해역 동해에서 생산되는 오징어, 대게, 호미꽃 돌문어, 자연산 전복, 미역, 성게알, 구룡포 과메기가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아홉 마리의 용이 승천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구룡포항은 1920년대에 개항하여 동해 남부의 최대 어업 전진기지로서의 명성을 지켜오고 있다. 이곳에 위치한 구룡포수협은 1922년 구룡포어업조합 설립을 시작으로 약 9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2010년 기준 1,150억 원의 위판 실적과 총 2,168억 원의 사업실적을 올린 순자본비율 6%대의 매우 건실한 조합으로 경영실태 평가 1등급을 획득했다. 동해안의 해안선 32km를 따라 포항시 구룡포읍, 장기면, 호미곶면 일원의 32개 어촌계를 관할하고 있으며, 조합원은 현재 2,356명으로 출자금은 70억 8,800만 원이다. 상호금융사업 점포는 경기도 광명지점을 포함 6개 지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시설로는 활어위판장을 비롯한 6개 위판장과 제빙 냉동 공장, 수산물유통판매장, 유류저장탱크 등이 있다. 이 지역의 특산품으

우리수협 POINT

- ◎ 국내 최대 규모의 호미꽃 등대
- ◎ 동해 일출 명소인 호미꽃 해맞이 광장
- ◎ 전국 생산량의 55%를 차지하는 대게를 비롯하여 오징어, 호미꽃 돌문어 등을 위판

‘꿈’을 현실로!

울릉군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14.02.24 울릉도어업조합 설립
- 1977.04.01 울릉군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1988.07.18 본점 신축 준공
- 1992.08.06 대구광역시 범어지소 설립
- 1999.05.24 도동지소 개설
- 2006.10.29 206수협호 취항

조합원(명)	어촌계(개)	임원/직원(명)	지사사무소(개)
627	11	10/49	7



조합장 | 김 성 호

역대조합장

1대	2대	3~4대	5~10대	11대	12~13대	14~16대	17~18대
배성희	정상호	배성문	최현식	정무웅	최영기	정건웅	김성호



저동항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오징어 활복장면

1914년 울릉도어업조합으로 출발해 1962년 어업조합이 해산되고 울릉도어업협동조합이 설립됐다. 이후 1977년 울릉군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되어 1992년 대구 범어지소, 1999년 도동지소를 개소하면서 외연적 확장과 더불어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증진이 이루어져 왔다. 울릉군수협은 울릉군 전지역과 대구광역시를 업무구역으로 하여 교육·공제·경제사업 이외에도 어항시설 관리, 오징어를 비롯한 수산물 판매촉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독도를 포함한 동해어장에서 생산되는 주요품목인 오징어를 생산·가공·출하하고 있다. 또한 어선어업에 필요한 유류 등의 적기 수송을 위하여 1991의 수협유조선을 취항 운영하고, 저장시설을 확충하여 안정적인 어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는 동해 수심 750m에서 끌어올린

미네랄이 풍부한 해양심층수로 어획한 오징어를 세척함으로써 제품의 품질과 우수성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울릉군수협의 본점이 있는 저동항은 동해의 어업 전진기지로 타 지역 어선의 조업 중 필요한 생필품 및 유류, 얼음 등의 공급처로서, 또 기상악화시 피난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지역은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생산되는 건오징어, 반건오징어, 호박엿, 각종 산채 등 특산품이 매우 풍부하다.

우리수협 POINT

- ① 해양심층수로 세척하고 무공해 자연 건조하는 청정 울릉도 오징어
→ 울릉도 최대 축제인 '울릉도 오징어 축제'를 매해 개최하며 적극적인 홍보와 판매 지속

블루오션을 향한 스마트 경영

죽변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23.09.10 울진어업조합 설립
- 1962.04.01 죽변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1996.12.31 제빙냉동공장 준공
- 2005.04.15 울진대게활어회유통센터 준공
- 2009.12.29 신 급유소 준공
- 2012.01.09 국가어항 이용고도화 사업 유치

조합원(명)	어촌계(개)	임원/직원(명)	지사사무소(개)
860	18	11/44	10



조합장 | 임 병 옥

역대조합장

1대	2~6대	7~8대	9~10대	11대	12~14대	15대
오응석	최해동	오흥근	이부석	김기흥	오계석	임병옥



죽변항 전경과 야경



경상북도의 제일 북쪽에 위치한 울진군 죽변항은 대나무가 많은 바닷가라 하여 죽변으로 불리었다. 동해안에서 손꼽히는 어업기지로써 울릉도와 가장 가까우며 오징어, 복어, 대게로 유명하다. 1923년 울진군어업조합 설립을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9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죽변수협은 오징어, 복어, 대게, 고등어, 꽁치, 도루묵, 가자미, 문어, 백고등 등 왕돌초 청정해역 일원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어종을 바탕으로 2010년 기준 470억 원의 위판실적을 올린 경영실태 평가 1등급의 건실한 조합이다. 울진군 북면, 죽변면, 울진읍, 근남면, 원남면을 업무구역으로 하여 18개 어촌계를 관할하며 조합원 860명, 출자금 35억 원, 상호금융 4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위판장, 제빙냉동공장, 신급유소를 갖추고 있으며 2012년 국가어항 이용고도화 사업 공모에서 최우수로 평가받아 5년간 총 3,340억 원을 유치하게 됨으로써 비약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게 됐다.

우리수협 POINT

- 울진 대게와 복어 - 죽변을 대변하는 겨울 특산물
- 대게잡이 철의 죽변항 - 어부들의 바쁜 손놀림과 대게를 맛보러 온 관광객들로 성황
- 연중 다양한 어종으로 활기를 띠는 죽변 -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는 제철 맞은 신선한 수산물이 자랑

경영개혁만이 살 길이다

영덕북부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14.02.01 축산리 일원 어업계 조직
- 1961.06.30 영해어업조합 흡수 합병
- 1975.04.15 영해지소 개소
- 1992.05.21 대구지산지소 개소
- 2005.02.18 신설 제빙냉동공장 준공
- 2011.01.01 영덕북부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조합원(명)	어촌계(개)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1,201	13	10/36	6



조합장 | 박노창

역대조합장

1대	2대	3대	4~8대	9~10대	11~13대	14대	15대	16대
김병규	정창문	김준동	임송죽	강주탁	김복이	박노창	김성용	박노창



수산종묘 방류행사

영덕북부수협은 1914년 축산리 일원 어업계로 출범하여 1962년 축산어업 협동조합으로 개칭했으며, 1992년 대구에 지산지소를 신설하면서 업무 영역을 확대했다. 2005년에는 제빙냉동공장을 신설·준공하여 어획물의 선도 유지를 위한 수산용 얼음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됐고, 2011년에는 조합 명칭을 축산수협에서 영덕북부수협으로 변경하여 이미지 쇄신을 추구하고 있다. 현재 영덕북부수협의 특산물로는 영덕대게·물가자미·오징어 등이 있으며, 특히 관할 어촌계인 경정2리(차유마을)는 영덕대게의 원조마을로서 매년 '영덕 대게 축제' 때 축제위원회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매년 4~5월에 축산항 일대에서 '영덕 물가자미 축제'를 꾸준히 개최함으로써 지역 특산품의 우수성을 알림과 동시에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활동들을 통해 어가소득 증대와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가운데 수산종묘 정책으로 지속적

인 어족보호 활동도 펼치고 있다. 이는 각지에서 이상기후와 남획 등으로 인해 사라지는 어종들을 보호하면서 체계적인 관리로 어업인들의 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함이다.

우리수협 POINT

- ◎ 전국민의 사랑을 받는 '영덕 대게 축제'
 - 오감을 만족시키는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로 풍성
 - 지역 수산물을 이용한 가장 성공적인 축제로 지역 발전과 수산물 홍보효과를 동시에 충족

조합원과 하나되어 영일만 르네상스를

포항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12.12.08** 영일어업조합 설립
- 1962.04.01** 포항어업협동조합 설립
- 1971.03.16** 신용업무 개시
- 1977.04.01** 포항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1997.12.31** 본소 대신지점으로 신축 이전
- 2010.12.17** 급유소 신축 이전
- 2011.06.27** 송도어업기반시설 준공 및 본소 이전
- 2011.12.20** 죽도어시장 위판장 준공 및 개장

조합원(명)	어촌계(개)	임원/직원(명)	지사사무소(개)
1,327	31	13/97	11



조합장 | 조 유 남

역대조합장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10~11대	12~13대	14대	15대	16~17대	18대
이종린	문영철	이종린	문영철	정술화	윤삼익	이종린	김호달	황봉택	신을경	정재홍	김승웅	정정무	김영도	조유남



포항수협 전경

‘철강산업의 메카’, ‘영일만의 기적’ 등 포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공업도시와 군사도시이다. 하지만 포항은 본래 동해안 최대 어항으로서 수산업이 중심 산업이면서 ‘동해안 최대의 어업 전진기지’이자 ‘대게 최대 생산지’이며, ‘동해안 일출의 명소’ 등의 또 다른 이름으로도 불린다. 포항수협은 동해안 절경인 7번 국도 해안선 56km를 따라 포항시 북구와 남구 일대를 업무구역으로 한다. 주요사업으로는 7개 지소와 더불어 상호금융사업, 동해안 최대상설시장인 죽도시장을 중심으로 한 판매사업, 군 장병의 건강과 사기 증진을 위한 군납사업, 이용가공업 등을 임직원과 조합원이 합심하여 추진하고 있다. 주요 특산물로는 갯 잡은 신선한 활어로 만든 별미 포항물회와 겨울철 별미인 과메기, 제사상에 빠져서는 안 되는 포항 돌문어, 영양학적으로 가장 완벽한

음식인 고래고기, 동해안 최대 생선품 대게가 있다. 주요 축제로는 어촌계별로 풍어와 사고를 예방하는 ‘풍어제’, 지역 특산물 홍보를 위한 ‘돌문어와 과메기 축제’ 등이 있으며, 전통문화 재현사업으로 화진리와 방석지역에서 열리는 앓은뱅이 줄다리기 재현이 새로운 지역축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수협 POINT

- ◎ 동해안 최고 일출 명소인 호미곶과 국내 3대 불꽃 축제인 ‘포항 불꽃 축제’
- ◎ 동해안 최대 상설시장인 죽도시장 어시장에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에 현대식 위판장을 신축 준공
 - 하루 평균 3만여 명의 관광객과 시민이 방문, 신선한 해산물과 먹거리로 오감만족
 - ‘영일만 르네상스’ 실현을 목표로 조합원과 어업인이 합심

자신을 낮춰 고객을 섬기고, 동료들 배려하며 술선수범하고, 즐겁게 생활하자

후포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62.04.01 후포어업협동조합 설립
- 1977.04.01 후포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1998.12.31 어업인복지회관 건립
- 2006.12.29 후포수산물유통센터 건립
- 2010.04.20 소형 선박 공동작업장 건립
- 2011.12.30 시동위판소 건립

조합원(명)	어촌계(개)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921	15	10/41	8



조합장 | 임추성

역대조합장

1대	2대	3대	4대	5~6대	7~8대	9대	10~12대	13~14대	15대
이용근	최태복	최복술	김정섭	박상순	김용문	김정섭	박유형	강정웅	임추성



후포수협의 울진 대게 축제

후포수협은 1962년 설립되어 현재 15개 어촌계와 921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다. 주요 수산물로 오징어, 대게, 붉은대게 등 여러 어종을 위 판하며, 매년 '울진 대게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후포항에서 동쪽으로 약 23km에 떨어진 곳에 위치한 왕돌초는 울진 후포지역 어업의 중심 지라고 할 수 있다. 넓이가 동서로 21km, 남북으로 54km에 달하는 광 활한 지역으로, 수중 경관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한류와 난류가 교차해 126종의 해양생물이 분포하는 바다 속 생태계의 보고이다. 위판고는 2006년 한 해 280억 원으로 시작하여 2011년까지 786억 원 을 기록하고 있다. 2006년부터 약 120%씩 위판고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후포수협이 채택한 슬로건, "자신을 낮춰 고객을 섬기고, 동료들 배려하며 술선수범하자"는 그동안의 성장이 모두 어업인과 지역 주민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미를 표현하며, 이를 바탕으로 조합의 발전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수협 POINT

- ◎ 매년 2월 말에서 3월 초에 개최하는 '울진 대게'와 '붉은 대게 축제'
 - 제철의 신선한 대게와 붉은대게를 즐길 수 있는 행사
 - 대게와 붉은대게의 차별화된 맛을 한 번에 느낄 수 있어 색다른 즐거움 제공

GOOD MONEY

동해구기선저인망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30.10.27** 제2구기선저인망어업수산조합 설립
- 1962.04.01** 한국제2구기선저인망어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1964.06.29** 동해구중형기선저인망어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1977.04.01** 동해구기선저인망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1985.10.12** 본점 청사 이전(포항 북구 신흥동 810-8)
- 1986.05.26** 상호금융업무 개시(본점)

조합원(명)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76	10/11	1



조합장 | 하대훈

역대조합장

1~3대	4~6대	7~9대
정헌영	김용창	하대훈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은 1930년 제2구기선저인망어업수산조합으로 설립되어 새우트롤어업협동조합과 합병, 현재의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으로 자리잡은 업종별 수협으로 동해안 중형기선저인망 39척과 중형트롤 39척의 선박, 76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은 몇 가지 난관에 봉착해 있는데, 우선 이상기후로 인해 어족자원의 감소, 둘째 소형기선저인망의 불법 조업 확산, 셋째 중국 어선들의 남획으로 인해 우리 선박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문제는 바다 속에 버려지는 어구들이다. 내구성이 높은 합성수지로 제작된 어구들은 자연분해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려 이런 폐어구들이 해저에 장벽을 만들고 어장을 오염시켜 어족자원의 감소를 부추기고 있다.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은 자연분해되는 생분해성 재질의 어구를 사용하도록 적극 장려하면서 우선적으로 버려진 폐어망의 수거 및 정화에 힘쓰으로써 우리 어선들이 만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저인망어선의 조업 장면

우리수협 POINT

- ◎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은 자체 위판장 대신 각 지구별 수협에서 위판
→ 이에 따른 위판조성금을 받는 독특한 구조로 운영

경북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2000.04.27 경북어류양식수협 설립
- 2000.05.01 조합업무 개시
- 2002.02.22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가입
- 2011.05.24 본점 사무실 이전(경주시 감포읍 → 포항시)



조합장 | 신이범

조합원(명)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87	14/4	-

역대조합장

1대	2대	3~4대	5대
오주범	석진환	김중식	신이범



축제식 양식장 전경

경북어류양식수협은 2000년 설립된 업종별 수협으로 포항시 죽도2동에 본점을 열어 업무를 시작했다. 경북관내(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에서 양식업을 영위 중인 87개 업체를 조합원으로 하여 양식업 경쟁력 강화, 신기술 개발보급 및 지원, 지역 양어민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현재 경북관내 육상양식, 축제식, 가두리식 형태의 양어형태로 넙치, 우럭, 강도다리를 생산하며, 특히 가두리식은 바다중층에서 사육할 수 있는 특허를 취득하여 전국 최고의 품질로 양식 어류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강도다리는 경상북도에서 중점적으로 사육하도록 특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경북지역행사에서 관내 양식어류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광어시식회를 비롯한 각종 홍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한동대학교와 지역영여법인과 더불어 3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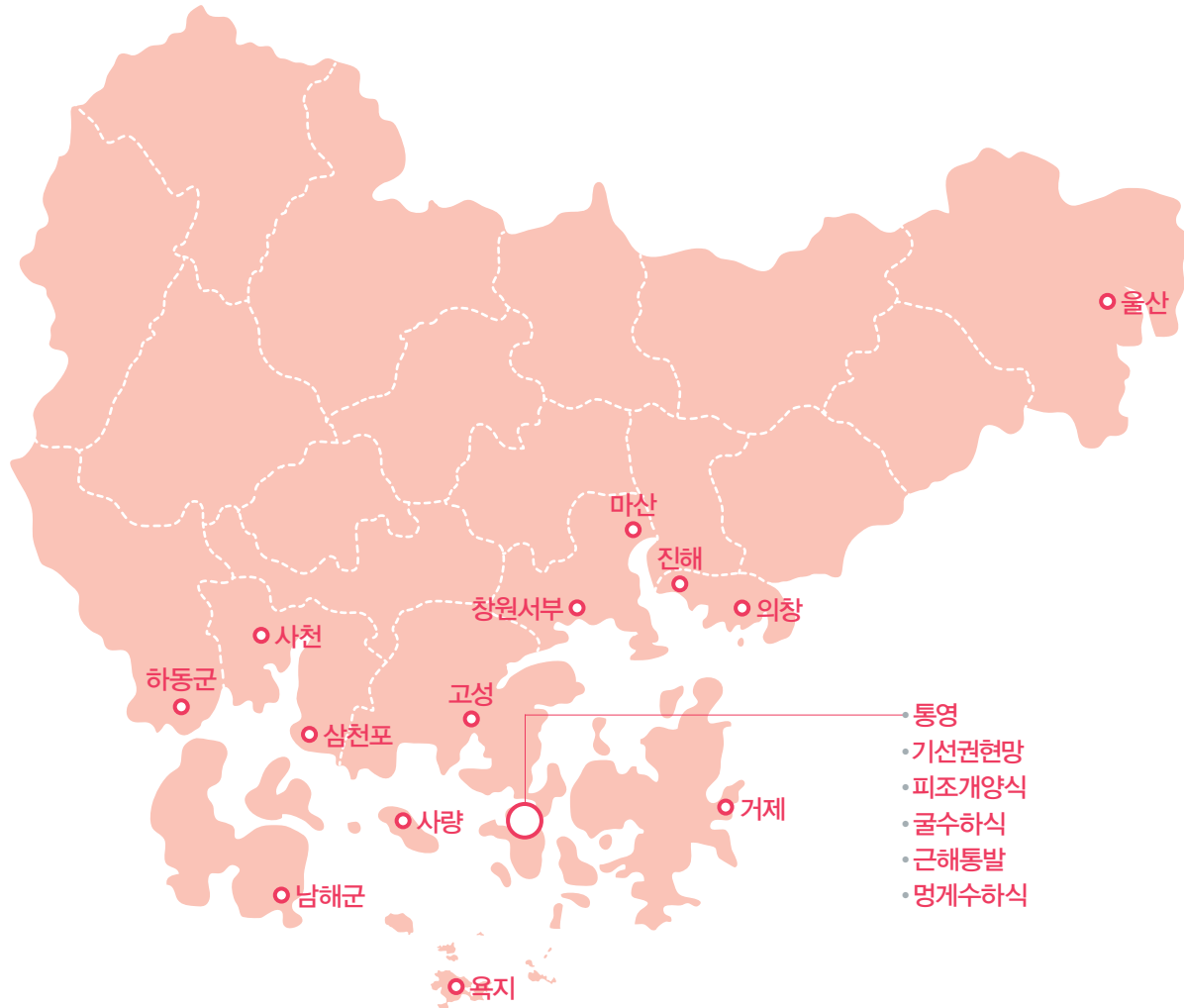
컨소시엄을 맺어 유산균을 이용한 백신개발과 유산균 첨가제를 이용한 E/P사료 공장을 신축하는 등 전국 양식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수협 POINT

- ◉ 유산균을 이용한 백신개발과 유산균 첨가제, E/P사료 생산 공장을 신축
- ◉ 신품종인 강도다리
 - 동해 앞바다에 바다목장화를 이룰 주요 어종으로 기대
 - 강도다리 양식사업을 바탕으로 해마다 줄고 있는 어획량 확대를 이룰 전망

회원조합 네트워크

경남지역



- 신뢰와 책임, 변화와 혁신 창조-거제수협
- 어업인과 함께하는-(경남)고성군수협
- 수협의 미래는 우리가 개척한다-사천수협
- 어업인의 희망과 함께하는 선진수협-마산수협
- 사천경제를 선도하는 삼천포수협-삼천포수협
- 오늘보다 나은 내일!! 수산의 푸른 미래 창조-울산수협
- 동북아 허브 신항과 함께 신뢰와 믿음으로 도약하는 수협-의창수협
- 협동운동 실천으로 수산업 가치증대-진해수협
- 더큰만족 더큰행복 함께하는 수협-통영수협

- 조합원을 외롭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복지이념 실현-하동군수협
- 푸른 희망을 가득담은-남해군수협
-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어촌-옥지수협
-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사랑수협
- 끊임없는 노력으로 협동조합의 미래창조-창원서부수협
- 고품격 멸치의 대표브랜드 '한려수어'-기선권현망수협
- 피조개 양식의 부활-피조개양식수협
- 남해안 청정해역의 싱싱함을 그대로-굴수하식수협
- 기업정신으로 공동체를 가꾼다-근해통발수협
- 바다의 꽃, 멍게-멍게수하식수협

거제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08.07.10** 거제가조어기모곽전조합 설립(수협의 효시)
- 1912.11.30** 모곽전조합 모체로 거제어업조합 설립
- 1962.04.01** 거제·관포·장승포어업협동조합 설립
- 1972.06.24** 거제군어업협동조합으로 설립(기존 조합 합병)
- 1989.04.01** 거제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조합장 | 성충구

조합원(명)	어촌계(개)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3,672	68	10/305	31

역대조합장

1~4대	5~6대	7~8대	9~10대	11~12대	13대
박명길	김한윤	박종식	정상욱	김선기	성충구



거제 수협 전경

경남 거제시 전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거제수협은 거제도의 천혜의 자연경관과 더불어 수협운동의 최초발상지로 1908년 ‘거제가조어기 모곽전조합’ 설립 이후 1989년 거제수산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기까지 104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전국 수협의 효시이자 선진조합, 복지조합, 미래가 촉망되는 조합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수협의 모태이다. 거제수협은 미국 FDA가 지정한 거제의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산물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섭취까지 전 과정에 대한 자재의 표준화를 정립하여 국민건강을 지키고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적정가격으로 좋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의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인 HACCP 인증을 받아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매년 20여억 원의 자체자금으로 어업인과 지역민을 위한 환원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상부상조와 인적결합체에 바탕을 둔 협동조합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협동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우리수협 POINT

- 수협의 모태로서 103년의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한 『수협 100년사』를 편찬 중
- 가조도에 총 67억 원을 들여 ‘수협 효시 기념공원’을 조성, 테마 관광지로 개발 예정
 - 2013년 완공 예정으로 7,716㎡ 부지에 기념탑과 역사전시실, 휴식공간, 생태공원 등을 조성
 - 수협의 역사를 알리는 의미 있는 장소로 탄생 기대

어업인과 함께하는

(경남)고성군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30.04. 삼산어업조합 설립
- 1962.04. 고성어업협동조합 설립
- 1977.04. 고성군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1994.01. 어업복지회관 개관
- 2008.08. 수산물 직매장 바다마트 개점



조합장 | 황 월 식

조합원(명)	어촌계(개)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1,907	25	10/31	18

역대조합장

1~3대	3~4대	5~9대	10대	11대	12대	13~15대
조위천	서정원	김중래	양기옥	강임순	양기옥	황월식



굴 판매 장면

고성군수협은 1930년 고성군 삼산면 일원을 관할지역으로 하여 삼산어업조합으로 설립된 후 1977년 고성군수산업협동조합으로 현재 명칭과 같이 개정됐다. 고성군수협은 각종 수산물의 위판, 면세유류 공급, 지도사업, 상호금융사업, 공제사업, 바다마트사업 등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조합의 현황은 본점과 4개의 상호금융 점포, 리스크관리실, 유통사업과, 1개의 바다마트로 구성되어 있다. 바다마트는 2008년 고성군 내에 개점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지역의 특산물로는 여름철에는 갯장어가, 겨울철에는 생굴이 유명하다. 고성군수협은 IMF 이후 위기에 빠지기도 했으나, 2001년 MOU를 체결해 인력구조조정, 임금 동결·삭감, 부실자산 처분 등 그야말로 뼈를 깎는 조합경영 혁신에 매진했다. 그 결과 2007년 MOU를 조기

졸업했고, 2008년에는 출자배당·이용고배당을 동시에 실시했다. 이렇게 되기까지 고성군수협은 투명한 경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주력했으며, 매주 월요일 업무전반 사항을 전직원이 공유해 조합업무를 속속들이 점검함으로써 부실방지에 만전을 기했다. 한편 갯장어, 굴, 멸치 등 지역 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려 수산물 소비촉진에도 나서며 지역과 조합이 협동하여 위기를 극복했다. 고성군수협은 최고가 되기보다는 어업인이 항상 믿을 수 있는 조합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우리수협 POINT

- ◎ 남해안의 청정해역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
- ◎ 매년 1월 고성군 전국 마라톤대회에 굴시식회 행사를 계속적으로 협찬
 - 굴수확시수협과 더불어 굴의 전국적인 홍보에 주력

수협의 미래는 우리가 개척한다!

사천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90.07.07 사천수산업협동조합 설립
- 1991.05.17 사천 사천지소 개소
- 1994.08.26 진주 강남지소 개소
- 1995.08.29 진주 상봉수산물백화점 및 출장소 개소
- 2003.04.28 진주 평가지소 개소, 상봉출장소 폐소
- 2011.09.19 진주 가호지소 개소

조합원(명)	어촌계(개)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675	9	42	7



조합장 | 강 규 봉

역대조합장

1~6대
강 규 봉



굴(석화) 박신

사천수협은 1990년 설립 이후 20년의 역사를 이어오며 변화무쌍한 금융환경 속에서도 단 한 번의 좌초됨 없이 '무(無)적자 신화'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남기고 있다. 자산규모 및 예탁금, 대출금이 모두 1,000억 원을 초과 달성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한편, 내실 경영에 따른 공신력 확보는 물론 '작지만 큰 조합'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수협의 미래는 우리가 개척한다!"라는 슬로건 아래 앞으로 새로운 수협의 성공 신화를 써나간다는 목표를 세우고 더욱 더 큰 미래를 향해 정진하고 있다. 사천수협의 특산물인 자연산 굴(석화)은 투석, 대나무, 소나무 등에 착화되어 생산되는 굴이다. 사천 서포굴은 24시간 바닷물에 잠겨서 성장하는 수하식 굴과 달리 간조시 햇볕을 받아 성장하므로 수하식 굴에 비해 크기가 작고 성장속도는

더디지만 영양분이 풍부하고 육질이 쫄깃하고 담백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맛을 즐기기 위해 사천을 찾고 있다. 또한 사천수협은 2010년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축면적 1,245㎡ 규모로 휴게실과 예식장, 어업기자재 판매장 등의 시설을 갖춘 어업인복지회관을 준공해 어업인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수협 POINT

① '찾아가는 위판시스템' 실시

- 굴 생산 시기(10월 말~이듬해 4월 말)에 300여 개가 넘는 작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위판 진행
- 어업인들의 편의 제공과 작업시간 증대를 목적으로 도입
-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아 제도 정착

어업인의 희망과 함께하는 선진수협

마산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1944.11.12 마산어업조합 설립
 1970.03.18 신용업무 개시
 1989.12.30 마산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1991.05.31 마산수협 공판장 개장
 1995.04.25 남성공판소 신 청사 이전
 2000.04.25 금융부 이전 개점
 2009.10.12 원전위판장 개장

조합원(명)	어촌계(개)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1,938	21	10/80	12



조합장 | 손영봉

역대조합장

1대	2대	3대	4대	5대	6~8대	9~10대	11~14대	15대	16대
배상곤	김준영	차병영	신창균	진영근	이대경	차윤기	임채열	정연철	손영봉



위판 초매식

마산수협은 1944년 옛 마산의 어촌지역인 구산면 일대의 어업인들이 중심이 되어 마산어업조합으로 출발 설립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어업인과 함께 70년의 역사를 걸어왔다. 마산지역의 사회적, 경제적인 한 축을 담당해 오면서 한때 수산물 위판실적 전국 1, 2위를 다투며 수산물 유통의 중심역할을 자처하기도 했다. 그러나 1997년 IMF라는 거센 시대적 풍랑 속에 상호금융사업의 부진과 함께 수산업 구조조정의 한파까지 맞아가며 어려운 시기를 견어온 적도 있다. 마산수협은 이에 굴하지 않고 어업인과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과감한 개혁 등을 통해 지금의 건전 경영의 활로를 마련하게 됐다. 마산수협은 2011년 원전항 수산업 기반시설을 준공하면서 지역 어업인들의 어업활동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위판하고 있는 대표 수산물은 '부자집 만며느리가 아니면 순산 후 미역국에 못 넣어 먹는다'는 말을 듣던 홍합이다. 홍합은 핵산, DHA, 타우린 등 다양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바다가 보내온 최고의 선물'이라 불린다. 특히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하고 빈혈과 노화방지에 효능이 있어 옛날 중국에서는 '동방미인'이라고 불렀다 한다. 마산수협에서 위판하는 홍합은 자동세척 장치로 1차 가공 후 소포장 판매하므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우리수협 POINT

◎ 지역주민들의 화합의 장, '마산 어시장 축제'

→ 지역 축제에 비해 부족한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최고의 축제로 재탄생 예정

사천경제를 선도하는 삼천포수협

삼천포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62.06.25 삼천포시어업협동조합 설립
- 1968.10.23 여·수산업무 취급
- 1993.12.31 조합청사 및 어민 복지회관 신축 준공
- 2004.04.21 활어회센터 개장
- 2004.10.13 냉동·냉장공장 신축

조합원(명)	어촌계(개)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1,634	23	12/103	12



조합장 | 홍석용

역대조합장

1~2대	3대	4~7대	8~9대	10대	11대	12~14대	15~17대	18~21대	22대	23~24대	25대
고인주	곽태림	천병식	이재현	김명출	최철만	김태근	최철만	이방호	박영갑	김 홍	홍석용



삼천포항 전어 축제

삼천포수협은 아름다운 풍경과 청정함을 자랑하는 한려수도 내 서부 경남의 중심 어항인 사천시 삼천포항에 위치해 있다. 주변에는 지리산, 남해금산, 와룡산이 있고 남일대, 상주, 송정해수욕장이 있으며, 남해안이 자랑하는 다도해를 즐길 수 있는 유람선 관광이 널리 알려진 곳이기도 하다. 또한, 삼천포-창선 간 섬과 섬을 잇는 3.4km의 삼천포대교가 유명하다.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자연산 활어와 건멸치, 갈치, 오징어, 도미, 키조개, 낙지, 해삼 등 다양하고 질 좋은 수산물의 집산지로서 이름을 떨치고 있다. 삼천포수협은 1926년 설립된 이래 국내 위판실적 5대 조합으로 명성을 이어왔으나 수산업의 침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때 위기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2011년 위판고 1,443억 원을 기록하며 삼천포수협 역사상 가장 많은 위판액을

달성하는 기념비를 세웠다. 특히 삼천포항이 어선감축과 연안어자원 고갈로 갈수록 수산업이 침체일로로 걷는 중에 달성한 기록이라 그 의미가 크다. 이는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직원들의 뼈를 깎는 고통분담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앞으로도 모두가 힘을 모아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수협 POINT

- ◎ 매해 가을, '삼천포 전어 축제' 후원
 - '집 나간 며느리도 냄새를 맡고 돌아온다'는 가을전어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축제
 - 풍어제와 노래자랑, 맨손전어잡기, 품바공연 등 각종 체험행사와 공연으로 알차게 진행
 - 어업인들에게는 잠깐의 휴식을, 지역주민들에게는 축제의 한마당

오늘보다 나은 내일!! 수산의 푸른 미래 창조

울산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62.04.01** 방어진어업협동조합과 장생포어업협동조합 설립
- 1972.09.21** 울주군어업협동조합으로 합병
- 1981.02.28** 울산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1990.01.18** 본점 신축 이전
- 2010.09.01** 강동위판장 준공



조합장 | 신진호

조합원(명)	어촌계(개)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3,337	33	10/135	21

역대조합장

1대	2~3대	4대	5~10대	11~12대	13대	14대
김인찬	성대식	최일수	오성웅	황윤옥	이상대	신진호



울산수협의 방어진위판장과 항구

울산수협은 1962년 창립 이래 울산 전 지역에 33개 어촌계와 3,400여 명의 조합원들, 그리고 14개의 금융점포와 3개의 위·공판사업장을 갖추고 조합원 및 고객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간절곶이 있으며,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미역, 참가자미, 대게 등의 싱싱한 수산물들이 가득하고, 도시와 자연이 풍요 속에 조화를 이루는 살기 좋은 복지 어촌을 구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울산수협은 1962년 방어진어업협동조합과 장생포어업협동조합으로 설립된 이래 1973년 신용업무를 개시했고, 이후 1972년 두 조합의 합병으로 울산시어업협동조합이 됐다가 1981년 울주군수협으로 흡수·합병 과정을 거쳐 울산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6년 방어진위판장

및 복지회관 준공, 1998년 방어진냉동공장 준공, 2010년 강동위판장을 준공하면서 상호금융뿐 아니라 일반 경제사업 분야에서도 수협의 성장을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수협 POINT

- ⊙ 과거 포경으로 유명했던 고장의 특색을 살려 고래박물관 개관
- ⊙ 향후 조성 예정인 고래어촌마을이 새로운 관광코스로 자리할 전망

동북아 허브 신항과 함께 신뢰와 믿음으로 도약하는 수협

의창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14.08.25** 웅동면어업조합 설립
- 1962.04.01** 웅동어업조합 설립
- 1980.04.01** 의창군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1991.01.01** 의창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2011.12.16** 의창수산업협동조합 울하지점 개점

조합원(명)	어촌계(개)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2,404	13	10/51	8



조합장 | 정 일 상

역대조합장

1대	2대	3대	4대	5대	6~7대	8~10대	11~12대	13~15대	16대	17~18대
전옥상	이문영	박진규	한창섭	박항규	김차규	강사석	고기용	김하용	최일근	정일상



대구·송어 맨손잡기 행사

의창수협은 1914년 웅동면어업조합이 창립하면서 어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으로 출발했고, 1962년 수협법에 따른 웅동어업조합으로 설립됐다가 수차례의 변경을 거쳐 1991년 의창수산업협동조합으로 최종 변경했다. 부산신항만이 위치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창원시, 진해구 일부 지역과 김해시 일원을 업무구역으로 하여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어업인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의창수협은 본점과 4개 지점에서 상호금융업무를 하고 있으며 3개 위판장에서 활어 및 해조류 경매를 실시하고 있다. 의창수협에서 생산되는 '가덕대구'는 전국 단위의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어 어업인 소득증대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지속적인 홍보 활동과 함께 지속적인 생산을 위한 방류사업을 실시하여 어업인의 계속적 소득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가 어항인 가덕도 천성항을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서부산권의 관광형 어항으로 개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동해어업관리단은 천성항을 거가대교와 연계해 관광성을 겸비한 명품어항으로 변화시키려 하고 있다. 그 계획에는 거가대교 길목에 자리 잡은 의창수협과 공판장을 옮겨 어항 기능을 보강하고 관광과 접목시키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수협 POINT

- ◎ 매년 1월 '가덕대구 떡국 행사' 실시
 - '가덕대구' 홍보의 일환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료 시식 행사를 실시, 소득증대에 기여

협동운동 실천으로 수산업 가치증대

진해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22.11.30 진해어업조합 설립
- 1973.01.17 진해시어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1973.06.27 상호금융업무 개시
- 1977.04.01 진해시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1995.05.17 수산물산지가공공장 준공
- 2008.12.10 수산물기반시설(본점, 위판장시설, 냉동냉장시설) 준공
- 2010.10.27 식품의약품안전청 HACCP 지정 획득
- 2010.12.13 진해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조합원(명)	어촌계(개)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1,480	14	10/103	11



조합장 | 김명식

역대조합장

1대	2대	3대	4대	5대	6~9대	10대	11~12대	13~15대	16대	17~18대	19~20대
김주봉	강영모	도정환	박만수	김부경	김병수	윤남조	장민호	이중구	김덕근	이중구	김명식



피조개 시식회 및 나눔 행사

진해수협은 50년 전인 1962년 진해어업협동조합으로 설립됐으나 그 효시는 훨씬 이전인 1922년 설립된 진해어업조합이 모체라 할 수 있다. 1977년 진해시수산업협동조합, 2010년 진해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진해수협은 1973년 상호금융업무를 개시하여 상호본점, 속천, 경화, 이동, 덕산, 중부, 창원상남지소를 개설하여 본격적으로 상호금융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수협의 근간이 되는 경제사업부문에서는 2008년 수산물위판장, 제빙 냉동·냉장시설 등을 갖춘 수산물기반시설을 준공했고, 2010년 수산물 가공시설 준공과 더불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HACCP 지정을 획득함으로써 '새로운 도전 힘찬 출발'이란 슬로건 아래 진해수협의 제2의 도약을 실천하고 있다. 1,500여 명의 조합원과 더불어 진해구(웅동 1, 2동 제외)

해안선을 끼고 14개의 어촌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각 어촌계별로 어촌계부녀회가 구성되어 '수협운동'의 확산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지난 50년간 꾸준한 재무구조 건실화를 위한 노력의 결과 책임경영체제 구축으로 전국 제일의 내실경영을 도모하여 자기자본 145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1년 결산 결과 11년 연속 흑자경영과 9년 연속 조합원 출자배당 및 이용고배당을 실시했다.

우리수협 POINT

◎ 2012년 수산물 직·판매장 시설 개장

- 수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 홍보로 수산물의 소비를 증대
- 어가소득을 높이고 각 지역의 수산 특산물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유통 시스템 구축 예정

더큰만족 더큰행복 함께하는 수협

통영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40.12.24 통영어업조합 설립
- 1991.06.24 도천동공판장 위판업무 개시
- 1995.01.01 통영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2000.04.10 상호금융업무 개시
- 2001.11.13 견유위판장 위판업무 개시
- 2004.08.09 서호동, 신정량지소를 통합하여 통영지소로 변경 이전
- 2010.12.06 죽림지소 업무 개시

조합원(명)	어촌계(개)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4,724	80	11/97	14



조합장 | 서원열

역대조합장

1대	2대	3대	4~5대	6~7대	8~11대	12~13대	14~15대	16대
이춘식	공권수	탁금수	김점두	육동천	김재옥	정재균	김수용	서원열



통영수협의 수산물 위판

통영수협은 1940년 통영어업조합으로 설립되어 1962년 통영어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됐다가 몇 번의 변경과정을 거쳐 1995년 충무시와 통영군의 행정구역 통합을 기해 오늘의 통영수산업협동조합으로 탄생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협동조합으로서 우리나라 수산업의 1번지이자 어업의 전진기지로 할 수 있는 통영에서 80개의 어촌계와 4,700여 명의 조합원, 그리고 100여 명의 임직원이 '풍요롭고 새로운 어촌, 아름답고 멋진 어촌을 만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통영수협은 4개의 상호금융점포인 본점, 통영·동호만·죽림지소를 운영하며 보다 신속하고 친절환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점위판장, 도천위판장, 견유위판장에서는 각종 선어, 활어, 굴 등 다양하고 신선한 수산물의

위판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낙도벽지 어업인에게는 유조선 및 유조차를 통한 면세유류 공급 등 어업인을 위한 환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바다의 주인인 어업인과 통영의 수산업 발전에 앞장서는 통영수협은 협동조합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진정한 조합이다.

우리수협 POINT

- ◎ 2010년 10월 '제1회 통영 수산물 대축제' 개최
 - 수산업의 1번지로서 통영과 통영의 수산물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 마련
 - 통영 수산물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는 물론 해외 홍보에도 주력

조합원을 외롭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복지이념 실현

하동군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62.04.01** 하동군어업협동조합 설립
1977.04.30 하동군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1979.12.26 본점 청사 신축
1992.10.19 어업인복지회관 및 청사 신축



조합장 | 강순석

조합원(명)	어촌계(개)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2,137	27	11/45	7

역대조합장

1대	2~4대	5~8대	9대	10~11대	12대	13~15대	16대	17대
남인우	정정식	신태정	이길호	강순석	조경래	강순석	전이연	강순석



하동군수협의 어업인 무료 한방진료

민족의 영산 지리산을 휘감고 500여 리 흘러온 섬진강이 남해바다와 만나는 노량포구에 자리 잡은 하동군수협은 그 옛날 전국 제일을 자랑 하던 하동햇김을 뒤로 하고 오늘날의 수산 현실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기르는 어업'에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해왔다. 그 결과 17ha 규모의 가두리양식장에서 연간 300억 원의 생산실적을 올려 어가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간척사업 등으로 인한 어장 축소와 각종 환경 피해에 따라 발생하는 어업인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장환경 개선과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어업피해 보상을 전담 처리하여 어업인의 권익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 지역을 대표하는 수산물인 거센 조류와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하동녹차 참송어와 전어다. 해마다 '하동 녹차참송어 축제'와 '전어 축제'를 개최하면서 지역특산물로 육성하고 있다. 한편 하동의 유명한 수산물 중 하나인

재첩이 최근 10년 사이 70% 이상 격감함에 따라 재첩을 살리기 위해 2011년 '섬진강 살리기(재첩, 물) 군민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어업인들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수협 POINT

- 매년 11월, 하동 녹차참송어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하동 녹차참송어 축제' 개최
 - 하동의 어업인처럼 노량해협의 거센 조류에서도 강인하게 자란 참송어
 - 녹차를 먹여 키운 하동 녹차참송어를 전국 최고의 명품으로 개발

푸른 희망을 가득담은

남해군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62.04.01 남해어업협동조합 설립
- 1977.05.01 남해군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1982.03.25 본소 청사 신축
- 1995.12.01 남면 법인어촌계 흡수 합병



조합장 | 박영일

조합원(명)	어촌계(개)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4,458	98	13/70	30

역대조합장

1대	2대	3~5대	6~8대	9~12대	13~14대	15대	16~17대
박진용	김묘원	김중후	김덕민	김종윤	이수삼	김동식	박영일



남해군수협의 갈치 위판

1962년 설립 이후 현재 98개 어촌계를 중심으로 4,500여 명의 조합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남해군수협은 지난 2003년 경영악화로 정부로부터 공적자금 53억 원을 지원받는 등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남해군수협의 임직원들이 조기 상환을 위해 혼신으로 노력한 결과 2010년 공적자금을 모두 정리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로써 전국 수협 상호금융점포 친절도 평가 최우수에 빛나는 서비스 정신과 경영실태평가 1등급의 우수한 지도사업의 역량을 바탕으로 21세기 신해양시대를 주도하는 위치로 도약하고 있다. 또한 남해군수협은 '2015 남해군수협 신동력비전'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임직원이 하나로 뭉쳐 경제사업과 상호금융사업, 지도사업의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앞으로 남해군수협은 그동안 준비해온 '2015 신동력비전'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여 조합원

과 고객에게 무한 봉사를 실천할 수 있는 협동조합으로 거듭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편 남해군수협은 2011년 대형선망 유치로 '흑미늘 간고등어'라는 남해특화상품을 만드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수산물 위판장을 준공하여 수산물 유통 활성화와 소비단계 축소로 신선한 수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수협 POINT

- ◎ 남해안의 베니스라 불리는 미조항에 위치
- ◎ 2015 신동력비전 달성으로 신해양시대의 초일류 수협으로 도약
 - 어업인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 수산업 경쟁력 제고 및 어가소득 증대
 - 조합원과 어촌계 분위 경영, 협동조합의 가치 실현을 경영이념으로 하여 업무에 매진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어촌

욕지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88.12.01 욕지수산업협동조합 설립
- 1989.07.15 판매과 신설
- 1989.12.07 도지회 수산자금 인수, 직접대출 취급
- 1992.03.01 어민복지회관 준공
- 2003.04.21 냉동공장 준공
- 2005.05.10 활어(양식 및 자연산) 위판업무 실시
- 2010.06. 톳비누, 톳팩 판매 개시

조합원(명)	어촌계(개)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454	18	9/17	4



조합장 | 김정연

역대조합장

1대	2~3대	4대	5대	6~7대
이병열	이병열	임명관	이병열	김정연



욕지수협 양식활어 축제

욕지에 어업조합이 설립된 정확한 때는 알 수 없으나 대략 1920년 대로 추정된다. 동항리어업조합에서 업무를 시작하여 욕지어업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해 청사를 자부부락으로 옮겨 초대 전내화 조합장이 취임했고, 일본인이 이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욕지어업조합은 당시 부산어업조합과 대등한 위판실적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했다. 중산·저인망·선망 어선 등이 줄을 지어 위판을 기다려 포구가 비좁을 정도로 그 수가 엄청났으며, 전갱이, 고등어, 갈치, 멸치, 돔, 감성돔 등 취급 어종도 다양했다. 당시 조합의 규모로는 쏟아지는 위판 물량을 감당할 수 없어 조합 청사를 현재의 위치로 옮겨 새 청사를 건립했는데, 그 규모가 어업조합으로는 전국에서 제일 큰 건물이었다. 그러나 광복 후 화재로 소실되어 정확한 자료와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광복 후 경영능력 부족으로 인해 한산면과 욕지조합이 합병됐고,

이도 얼마 지나지 않아 충무수협과 합병하게 됐다. 이로 인해 욕지 어업인들의 불편이 극에 달해, 1982년 욕지 법인어촌계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것으로도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없어 1988년 충무수산업협동조합의 분할인가와 동시에 욕지수산업협동조합이 업무를 개시하게 됐다.

우리수협 POINT

- 매년 열리는 지역 축제와 동반해 고등어 및 양식활어 축제 개최
- 욕지의 바다에서 자생하는 톳나물을 주원료로 하여 톳비누와 톳팩 생산 판매

사랑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2001.11.19 사랑수산업협동조합 설립

2009.11.19 사랑수산업협동조합 제3대 박갑철 조합장 연임

2011.05.23 사랑호 취항



조합장 | 박갑철

조합원(명)	어촌계(개)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533	14	10/36	4

역대조합장

1~3대
박갑철



사랑호 운항

사랑수협은 낙도의 작은 조합이지만 조합원의 공동이익 증진과 지역 경제의 선도적 역할에 사명을 다하고 있으며 사랑도를 찾는 이용객과 도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여객선 운송사업을 하고 있다. 사랑도를 방문하는 이들은 해마다 늘어 5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사랑수협은 그런 이들을 위해 카페리호를 운영하며 섬마을 수협이 가야할 길을 제시하고 있다. 육지와 섬을 연결하여 도서지역 주민들과 육지의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도서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소득을 육지의 주민들에게는 휴식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기에 사랑수협 임직원들은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그 어떤 조합보다도 주민들과의 친밀도가 높다고 자부하고 있다. 이밖에도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위해 마을어장을 관리함으로써 어업인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고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조합

원들이 포획할 수 없는 전복이나 소라 같은 고가의 해산물은 나잠(해녀)들을 통해 획득하여 특산물 유통 사업을 펼치는 알찬 조합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우리수협 POINT

- ◉ 도서주민들의 여객편의 도모 및 관광객 수용을 위해 여객운송사업 운영
- ◉ 멸치 등 지역특산물 유통·판매
- ◉ 매년 전통문화재현행사로 용왕대제를 개최하여 어업인들의 풍어와 안전조업을 기원

끊임없는 노력으로 협동조합의 미래창조

창원서부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79.01.01 진동법어촌계 설립
- 2002.02.14 진동수산업협동조합 설립
- 2005.04.16 광암지소 냉동·냉장 공장 준공
- 2009.03.18 고현출장소를 지점으로 개칭
- 2011.01.01 창원서부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조합원(명)	어촌계(개)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461	8	9/19	5



조합장 | 한 호 근

역대조합장

1~3대
한호근



창원서부수협의 '미더덕축제'

창원서부수협은 본래 진동수협이었으나, 통합창원시가 출범하면서 2011년 명칭을 변경했다. 창원서부수협은 작지만 알찬 조합으로 임직원이 따로 없이 모두가 현장을 직접 뛰며 조합을 꾸려가고 있다. 특히 조합장이 장화와 작업복 차림으로 생선을 만지고 있으니 누구하나 여유를 부리고 있을 처지가 못 된다. 그렇게 모두가 땀을 보태 2011년 경영실태평가에서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이어 '1등급 조합'으로 선정되는 기쁨을 누렸다. 2010년에는 조합 설립 이래 최대인 2억 5,400만 원의 흑자를 올려 조합원들에게 10.5%의 배당을 하기도 했다. 진동지역은 국내 미더덕의 약 70% 정도를 생산하지만 미더덕 생산과 유통은 조합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조합사업은 금융과 냉동창고, 활어유통이 전부다. 이처럼 사업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흑자를 내기 위해서는 조합이 술선수범해서 허리띠를

줄라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알뜰한 운영 덕분에 조합은 매년 조합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부녀회를 통한 불우이웃 돕기, 수산종묘 방류사업, 환경정화 활동 등을 펼칠 수 있다. 한편 2005년부터는 '미더덕 축제'를 주관, 조합원의 이익을 창출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수협 POINT

- ◎ 매년 4월, '미더덕 축제' 개최
 - 지역 특산물인 미더덕의 홍보와 판매를 통해 어민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에 큰 도움
 - 2011년에는 23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갈 정도로 매년 활성화

고품격 멸치의 대표브랜드 '한려수어'

기선권현망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19.08.00** 광도온망어업조합 설립
- 1947.01.00** 경남온망어업수산업조합으로 개칭
- 1962.04.01** 경남온망어업협동조합 설립
- 1963.08.01** 위판업무 개시
- 1964.07.20** 기선권현망어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1977.04.01** 기선권현망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1990.06.04** 통영시 동호만, 마산시 오동동에 청사 신축
- 2010.02.**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준공

조합원(명)	임원/직원(명)	지사사무소(개)
48	10/50	8



조합장 | 진 장 준

역대조합장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9~12대	13~14대	15대	16~17대	18대
박후식	김봉재	김우운	신용돈	진영근	천명주	김용완	반숙일	천명주	진장문	박정웅	정세현	진장춘



멸치 조업 장면

기선권현망수협은 1919년 창립 이래 기선권현망어업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유지해 왔다. 매년 국내 유통 건멸치 생산량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미국 LA를 시작으로 중국 등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 수산물을 수출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수협으로 거듭나고 있는, 튼튼한 재무구조와 경쟁력을 갖춘 조합이다. 권현망어업은 거의 멸치 단일 어종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멸치는 자원의 단기적 변동이 매우 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어획이 불안정하다. 또한 어획물이 부패하기 쉽고 주요 어획시기가 고온기라는 점 때문에 상품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이 불리한, 경영 조건이 열악한 어업이다. 뿐만 아니라 한번 조업을 나가기 위해서는 어탐선, 본선, 가공선, 운반선 등 4척 이상의 선단을 꾸려야 하기 때문에 다른 어업에 비해 출어하기가 상당히 까다

롭다. 기선권현망수협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멸치를 잡기 위해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편하게 멸치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온라인쇼핑몰도 개설해 신선하면서도 저렴한 멸치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기선권현망수협은 '2011 고객 응대 서비스진단 연간결과 및 포상계획'에서 상호금융 부문 최우수 영업점과 경상도 내 권역별 우수조합으로 선정되며 어업뿐 아니라 서비스에서도 최고로 거듭나고 있다.

우리수협 POINT

- ◎ 경남 남해안 멸치잡이 수협의 90년 역사를 담은 『기선권현망수협 90년사』 발간(2010년)
 - 조합원들의 업적과 멸치잡이의 역사를 고스란히 수록
- ◎ 『멸치잡이 수협 100년사』 출간 진행
 - 멸치잡이에 대해 총망라하여 멸치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의 조합으로 자리매김할 예정

피조개 양식의 부활

피조개양식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1985.09.13 피조개양식수산업협동조합 설립



조합장 | 강진갑

조합원(명)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484	9/42	5

역대조합장

1대	2대	3~4대	5대	6대	7~9대
강형권	임이일	김성복	조달상	정윤제	강진갑



피조개 채취 작업



피조개양식수협은 1985년 설립되어 현재 조합원 484명, 상근임직원 43명으로 본점은 마산어시장 인근에 위치해 있다. 지점은 창원 및 마산에 5개의 영업점이 상호금융 영업을 하고 있으며, 창원시 진해구, 남해군, 통영시에 지소가 있다. 피조개는 1970년도 중반부터 양식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 1986년에는 7만 5,400여톤이 생산되었고 1988년에는 수출액이 1억 5,000만 달러에 달하는, 수산물 단일 품종으로서는 최고 수출금액을 기록하는

등 수산물의 외화 획득에 큰 기여를 한 품목이다. 국내 생산량의 거의 전량(98%)이 일본으로 수출되는 효자 수산물이었지만, 생산량, 가격 등의 요인으로 국내 소비자에게는 거의 맛 볼 기회가 없던 생소한 수산물이었다. 그런 피조개를 피조개양식수협에서 직접 판매하여, 청정해역에서 생산된 피조개 가공품을 조합 홈페이지와 수협쇼핑 등의 쇼핑몰을 통해 판매해 피조개의 대중화를 추진 중이다.

우리수협 POINT

- ◎ 2009년 수협보험 연도대상에서 개인 부문과 단체(C그룹) 부문 1위 수상
 - 수협보험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 수익 성장에 기여한 조합에게 수여
 - 이 같은 성과는 조합원과 지역주민의 두터운 신뢰가 바탕이 된 것이기에 그 의미가 큼

남해안 청정해역의 싱싱함을 그대로

굴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65.03.25 석화수하식어업협동조합 설립
- 1972.07.12 굴수하식양식어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1977.04.29 굴수하식양식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1992.04.28 상호금융 여수지소 개소
- 1997.01.14 상호금융 복산지점 개점
- 2002.09.09 굴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조합원(명)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857	11/48	5



조합장 | 최 정 복

역대조합장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9~10대	11대	12~14대	15대	16대	17~19대
이재원	박달용	이규익	조원길	이한구	박영출	박종남	김동균	탁금수	이문우	옥경표	김대완	최근옥	최정복



1964년 전국의 굴 어업인들에게 최신의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굴수하식수협은 지도사업과 경제사업을 통하여 굴 어업인들의 문화적, 경제적 수준 향상과 금융서비스에 이바지함으로써 내실을 다지는 형태로 운영, 발전하고 있다. 굴수하식수협은 복지어촌의 건설과 어업인들의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사업개발 및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육성하기 위해 만별 조직육성, 재해어업인 지원, 종묘 확보, 육종 개량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어업인들의 안전조업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각종 영상매체 및 홍보물을 통한 교육활동을 통하여 어업인들의 자긍심 고취 및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활동에도 매진하고 있다. 양식지도선과 연구실 운영은 타조합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굴수하식수협만의 차별화된 모습이다. 양식지도선은 굴 생산과 채묘(採苗)지도와 더불어 청정해역을 관리하며, 연구실에서는 패독 및 수질 검사, 원산지 증명 등 굴 유통을

위한 조사와 실험을 맡고 있다. 또한, 각종 경제적인 부담과 물품 구입 시 겪게 되는 여러 불편사항, 수확물의 처리 및 보관에 있어 조합원들의 편의를 위해 연쇄점과 이용가공 시설물을 운영하고 있다. 생굴 세척용 슈터기 공급 확대를 통하여 생굴의 품질 향상과 식품안전성을 도모하고 판매 및 소비시장 확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수협 POINT

- ◎ 1996년 '제1회 청정해역 굴한마당 큰잔치'를 시작으로 2012년 '제16회 한려수도 굴축제' 개최
→ 지역축제의 메카로 자리 잡은 통영의 굴축제로 우리 굴의 싱싱함을 알리는 데 주력

기업정신으로 공동체를 가꾼다

근해통발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82.04.05 장어통발수산업협동조합 설립
- 1989.03.06 상호금융업무 개시
- 1996.09.06 근해통발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1998.06.08 청사(본점) 이전

조합원(명)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73	10/26	4



조합장 | 김용수

역대조합장

1대	2대	3대	4대	5대	6~8대	9대
최창모	이문우	서정록	이영태	박영길	서원열	김용수



장어를 끌어 올리는 모습

근해통발수협은 1982년 대한민국 수산업법지 경남 통영에서 바다장어와 꽃게를 잡는 통발어업인들이 뜻을 모아 창립한 어업인 대표조직이다. 국내 유일의 바다장어, 꽃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조합으로 바다장어와 꽃게의 전국 유통량 중 80%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특히, 최고 품질의 바다장어와 꽃게를 원료로 다양한 냉동 가공품을 개발, HACCP 인증시설을 통해 생산하며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에 앞장서고 있다. 근해통발수협은 상당수의 어업인들이 중간 상인들의 전도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개선하고자 공개경쟁 입찰제를 도입했다. 이는 어업인들의 여가를 보장하여 출어경비 부담을 상당히 덜어주고 있어 어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독점매입을 통제하여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출어경

비보다 낮은 경우 어업인들이 '위판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게 운영하고 있다. 근해통발수협은 위판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2012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위판장을 신축하고 있다. 한편 근해통발수협이 심혈을 기울이는 또 하나의 사업인 수산물 가공은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를 겨냥하고 있다.

우리수협 POINT

- 어선의 자동화 시스템 개발과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
- 새로운 바다장어, 꽃게 상품을 개발하여 일본,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동·서부지역으로 해외 마케팅 확대

바다의 꽃, 멧게

멧게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1994.06.10 멧게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 설립

1995.11.28 수협중앙회 가입

1997.09.12 본소 상호금융 개점

2007.10.25 수산물종합가공공장 준공

2011.02.14 위판사업 실시



조합장 | 정두한

조합원(명)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256	10/28	4

역대조합장

1대	2대	3~4대	5대
강동욱	최두관	김봉철	정두한



멧게 시식회

멧게수하식수협은 1994년 지역 어업인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설립됐다. 지도, 경제, 신용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조합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멧게는 통영·거제해역에서 전국 생산량의 80% 가량이 생산되는 남해안의 특산물이자 어업인들에게는 고소득 품종이기도 하다. 멧게는 오랫동안 중간 상인들을 통해 유통되면서, 어업인들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러나 멧게수하식수협이 생기면서 멧게의 가격 안정과 품질 향상을 이루고 있다. 멧게수하식수협은 알멧게를 위판하여 최근 많은 위판고를 올리고 있는데 국내를 넘어 LA와 뉴욕에 냉동멧게, 양념멧게, 멧게비빔밥용 제품 등을 9톤 가량 수출했다. 현지 시장에서도 호응이 좋아 수출물량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여 조합원들의 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멧게수하식수협은 앞으로 활멧게 위판과 함께 멧게의 폐사원인인 '물렁증' 발생 예방을 위해 수온 변화에 저항성을 가진 우량종묘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멧게가 경남의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멧게수하식수협은 지역 어업인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멧게의 상품성을 더욱 강화하고 활발한 홍보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멧게를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수협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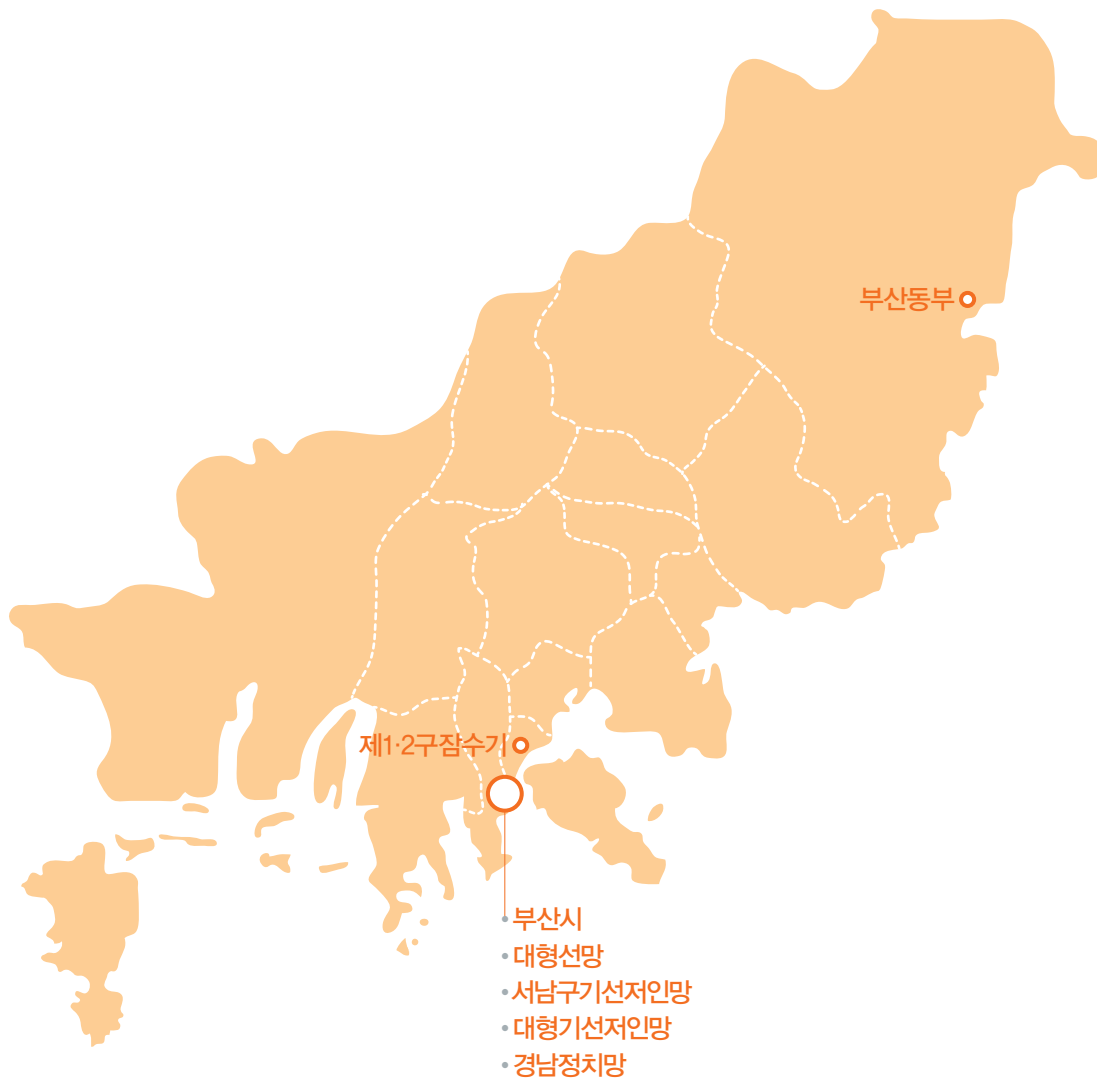
◎ 바다의 신선함을 담은 별미, 멧게

→ 미네랄이 풍부한 새로운 웰빙음식

→ 양식기술의 발달과 어민들의 노력으로 바다의 향을 고스란히 담은 청정 멧게 생산

회원조합 네트워크

부산지역



- Super Jump 2550—부산시수협
- 참여 속에 변화하는 부산동부수협—부산동부수협
- 펄떡이는 고등어처럼 힘찬 수협—대형선망수협
- 열정적, 긍정적, 혁신적으로 변화하는 수협—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 믿음과 신뢰를 걷어 올리는—경남정치망수협
- 어업인과 함께 살맛나는 복지어촌 구현—제1·2구잠수기수협
- 수산인을 위한 수산은행—대형기선저인망수협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22.11.30 부산어업조합 설립
- 1962.04.01 부산어업협동조합 설립
- 1968.10.22 신용업무 개시
- 1977.04.01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1983.08.02 공판장 신설

조합원(명)	어촌계(개)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2,789	23	13/128	18



조합장 | 이태근

역대조합장

1~3대	4~5대	6~7대	8~10대	11대	12~15대	16~17대
이영호	최만호	한규철	김홍윤	박준경	임상봉	이태근



자갈치공판장의 경매현장



다대포 어항문화 축제

부산시수협은 1922년 창립 이래 부산 전 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여 23개 어촌계와 2,700여 명의 조합원, 11개의 상호금융 영업점, 5개의 위판사업장을 지닌 명실 공히 전국 최대 규모의 조합이다. 1962년을 기해 부산어업협동조합으로서 새로 출발한 후 1968년부터 신용업무를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1977년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1983년

에는 공판장을 신설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어촌계별 주요 특산물로는 다대의 삼치, 민락의 아귀, 송정과 청사의 미역, 명지의 김 등이 있다. 부산시수협은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가진 수산업의 선두주자로서 2010년과 2011년 2년 연속 위판고 2,000억 원을 달성하는 기업을 토론했다. 또한 부산이 자랑하는 자갈치시장과 공동어시장은 부산과 경남을 넘어 전국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또한 부산시수협은 2011년 수산물 수출 1조 원을 넘기며 한국 수산물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우리수협 POINT

◎ 해마다 많은 축제가 열려 지역 특산수산물 홍보 및 판매의 장으로 적극 활용

- 정월대보름, 한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송정 정월대보름 미역 축제'
- 5월 '하단 웅어 축제'(바다에서 살다 산란기가 되면 민물로 올라오는 희귀 어종인 웅어)
- 9월 '명지 전어 축제'(집나간 며느리도 다시 돌아온다는 고소한 전어)
- 10월 '다대포 어항 문화 축제'(맛있는 방어)

참여 속에 변화하는 부산동부수협

부산동부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13.03.27 서생어업협동조합 설립
- 1972.03.30 기장·서생 어업협동조합 합병
- 1998.08.03 부산동부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2008.01.18 대변 냉동·냉장 공장 사업 개시(사업과, 유통과 이전)
- 2008.09.08 HACCP 인증업체 지정(식약청)
- 2009.06.29 대변 젓갈가공공장 준공

조합원(명)	어촌계(개)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1,717	18	9/73	12



조합장 | 박주안

역대조합장

1대	2~3대	4대	5대	6~7대	8대	9~11대	12대
이진우	최성용	김문식	노복생	김진옥	김정득	김종학	박주안



멸치털이

부산동부수협은 1913년 기장어업조합을 모태로 하여 100년이라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1,717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어민의 자조적인 대표기관으로서 영어자금 지원 및 각종 선수물 자의 구매와 공급, 어로활동 중 재난에 대비한 공제사업, 어획물 적기위판 등 어민 소득증대를 통한 복지 어촌 건설의 주역으로 어촌 현장의 최일선에서 전 임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역의 특상품은 기장미역, 기장붕장어, 기장멸치로 브랜드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7년도에 미역·다시마 특구지역으로 지정되어 매년 미역·다시마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기장미역과 다시마가 기장의 명품 수산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멸치를 젓갈로 가공·생산하여 기능성 액젓 개발 및 멸치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식약청으로부터 인정 받은 HACCP시설로 수산물 가공공장을 운영하여 학교 단체급식 및 군납사업, 홈쇼핑(반건조오징어, 명태, 대구 등)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우리수협 POINT

◎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 '기장멸치 축제'

- '통통(通通)튀는 생생멸치 정념치는 기장'을 모토로 개최
- '기장멸치'의 홍보와 소비촉진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펼떡이는 고등어처럼 힘찬 수협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28.02 경남, 전남 연해를 근거로 하는 조선청건착망 조직
- 1937.04 조선 어업령에 의한 조선청건망수산업조합 설립
- 1962.04 기선건착망어업협동조합 설립
- 1965.02 기선선망어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1977.04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1979.08 상호금융업무 개시
- 1991.10 사산지점 개점
- 1992.06 토곡지점 개점
- 1994.10 장산지점 개점
- 1996.06 개금지점 개점
- 2007.03 구남지점 개점



조합장 | 김 임 권

조합원(명)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21	9/63	6

역대조합장

1대	2대	3대	4대	5~6대	7대	8~9대	10대	11대	12대	13대	14~15대	16~17대
김자현	이학만	송규원	이평기	김용섭	이일호	최현도	이금우	김태준	최인석	천금석	조효식	김임권



대형선망어선의 고등어 조업

1928년 조직된 조선청건착망이 모태인 대형선망수협은 선박이 발달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여 오다가 지금의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 대형선망수협의 조합원들은 연근해 어업을 기본으로 하는데 본선과 주등선, 부등선, 운반선 3척으로 구성된 총 6척으로 이루어진 선단을 꾸려 조업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어획하는 어종은 고등어로 온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생선이기도 하다. 대형선망수협은 어선들이 원활한 조업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특히 유류공급 문제와 어획한 고등어의 판로 확보가 가장 주된 임무이다. 그에 따라 대형선망수협은 총길이 51.5m에 너비 13m, 선심은 5m에 달하는 680톤급 계류용 급유부선인 유류공급선 '제2선망호'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어선들이

잡아올린 고등어를 전국에 판매하며 지역의 어업인들과의 상생을 꾀하고 있다.

우리수협 POINT

- 유류공급선 '제2선망호' 운영, 조합원들의 원활한 조업활동 지원
- 대형마트를 비롯한 수산물 매장에 고등어 할인판매를 위한 물량 공급

열정적, 긍정적, 혁신적으로 변화하는 수협

서남구기선저인망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32.10. 부산제산업조합 설립
- 1962.04. 제4구기선저인망어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1963.10. 부산종합어시장 설립 출자
- 1972.07. 서해구기선저인망어업협동조합 합병
- 1983.05. 울산지점 상호금융업무 개시
- 1992.07. 여수지점 상호금융업무 개시
- 1993.02. 연제지점 상호금융업무 개시

조합원(명)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43	8/23	3



조합장 | 김석원

역대조합장

1~4대	5대	6~7대	8대	9~11대	12대	13대	14대	15~16대	17대
김정환	백만봉	정한주	오성웅	송외득	김용성	김영삼	이용진	박청	김석원



조직활성화를 위한 직원 마인드 교육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은 1932년 부산제산업조합 창립 이래로 현재 지도과, 유통사업, 리스크관리과, 공제과로 구성된 본소와 연제지점, 울산지점, 여수지점 3개의 상호금융점포로 구성되어 있다. 조합 본소에서는 지도사업과 구매사업, 정책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조합원에 대한 어업활동 지원사업, 상호금융점포에서는 수익증대와 자산의 건전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직원은 본소와 지점 총괄 24명, 임원은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역 소속 조합원들의 업무와 상호금융업무를 함께 수반하고 있다.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에서 담당하는 어업의 형태는 중형기선저인망어업으로서, 대표적인 주요어종으로는 가자미가 있다. 특히 가자미는 품질이 우수하여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상품이며, 이외에도 대구, 아귀, 눈볼대 등

다양한 어종이 생산되어 그 우수한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부산공동어시장'의 공동출자자로서 지역주민들의 식탁을 풍요롭게 함과 동시에 지역 어업인들의 어업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든든한 지원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수협 POINT

- 임직원의 마인드 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 정상 조합으로의 도약을 위해 경영개선목표 100%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
- 주요사업인 상호금융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

믿음과 신뢰를 걸어 올리는

경남정치망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41.07.05 경남정치어업수산조합 설립
- 1962.04.01 경남정치어업협동조합 설립
- 1974.04.20 삼천포출장소 개설
- 1977.04.30 경남정치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1989.02.24 경남정치망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1990.11.02 광남지점 개설
- 1992.05.26 통영지점 개설

조합원(명)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142	9/35	4



조합장 | 강인홍

역대조합장

1대	2~6대	7~8대	9대	10~13대	14~17대
이용호	제종근	김두복	배정섭	신석봉	강인홍



정치망 조업

경남정치망수협은 명품 죽방멸치를 생산하고 있는 조합으로서 조합원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수익창출을 우선으로 경제사업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남해연안의 지구별 수협 공판장의 모태가 바로 정치망어장에서 어획된 갈치, 병어, 삼치 등을 판매 하면서 생겼듯이 가장 오래되고 친환경적 업종을 가진 조합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조합원들이 생산한 어획물을 공동수집 및 판매하는 시스템을 더욱 보강해 나가고 있는데, 특히 정치망생 산 멸치를 웰빙 브랜드 식품으로 널리 알려 생산자와 소비자가 윈-윈 할 수 있는 방안과 백화점, 마트 등 대형납품처 개척을 위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함께 조합의 주 수익원인 상호 금융과 공제사업을 보다 활성화하는 데 역점을 두면서 정치망 어장을 중심으로 체험학습장과 같은 관광자원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다. 현재 142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경남정치망수협은 본소와 4개의 상호금융점포 및 1개 출장소에서 총 35명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 최대의 수산물공판장인 부산공동어시장의 5개 출자단체조합 중 한곳이기도 하다.

우리수협 POINT

- ① 기름기가 적고 비린내가 나지 않는 고급 멸치, '죽방멸치'
 - 빠른 유속을 이용 멸치들을 죽방렴 안으로 몰아넣어 비늘이나 몸체의 손상 없이 포획하는 것이 특징
 - 죽방렴 설치와 어장면허가 제한되어 있어 소량만이 생산 가능
 - 고영양 플랑크톤이 서식하는 남해안에서 자라 육질이 단단

어업인과 함께 살맛나는 복지어촌 구현

제1·2구잠수기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38.04.** 조선제2구잠수기어업수산업조합 설립
1962.04.01 제2구잠수기어업협동조합 설립
1977.04.01 제2구잠수기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1981.05.20 제1·2구잠수기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2001.11.10 부산시 중구 남포동6가 55-2번지로 본점 이전



조합장 | 김정길

조합원(명)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135	11/43	8

역대조합장

1~2대	3~5대	6대	7~9대	10~11대	12~13대	14~16대	17대
정상노	김종찬	유병문	하은택	양우암	옥청수	서수영	김정길



통영지역 수산종묘(전복) 방류사업 실시

1938년 조선 제2구잠수기어업수산업조합(초대조합장 김계조)으로 처음 신설됐던 제1·2구잠수기수협은 1962년 제2구잠수기어업협동조합으로 새로 설립됐으며, 1977년 제2구잠수기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됐다가 다시 제1·2구잠수기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업종별 수협이다. 제1·2구잠수기수협은 강원도와 경북, 경남(거제, 진해, 마산, 통영, 삼천포, 남해), 부산과 울산을 업무구역으로 133명의 조합원들의 생산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 연안어장 매립, 정부의 각종 공공사업 시행, 부산 신항만 건설로 인한 신항항계 확대 등으로 어업생산량이 현저하게 격감하고 있다. 이에 전직원이 자율적으로 어려움을 감내하며 어업인 및 조합원들을 대변할 수 있는 굳건한 조합건설에 총력 매진을 하고 있다. 특히, 2011년을

도전 13103(예탁금 1,300억 원, 대출금 1,000억 원, 판매고 300억 원) 목표 달성의 해로 정하고 발전하는 수협으로서 위상을 굳건히 다지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수협 POINT

- 국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합원의 생산 활동 지원, 잠수사 양성사업, 어로지도 등에 주력
- 부산자갈치축제, 개조개·해삼·전복종묘 방류사업, 자체자금조성과 금융지원 확대로 전문성 제고
- 소비절약으로 예산절감 노력 등 내실 있는 정도경영에 역점

수산인을 위한 수산은행

대형기선저인망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46.11.19 한국제3구북기선저인망수산업조합 설립
- 1962.04.01 원양어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1975.12.29 상호금융업무 개시
- 1977.05.13 대형기선저인망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2012.04. 본점 및 7개 지점, 2개 지소 운영 중

조합원(명)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101	12/98	9



조합장 | 조 동 길

역대조합장

1대	2대	3~4대	5~6대	7~8대	9~10대	11~14대	15~17대
김병주	김희조	김병주	송우윤	박동호	최현주	이수인	조동길



원양호 취항식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 대형트롤 이 세 가지를 주요 어업방식으로 하는 대형기선저인망수협은 1946년 한국제3구북기선저인망수산업조합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된 이래 1962년 원양어업협동조합으로 개칭한 후 주사무소를 부산으로 이전했다. 이후 제방냉동공장과 금융점포, 각 지사무소의 개·폐점을 거쳐 현재 본소, 인천지소, 마산지소, 여수출장소, 금융점포 8개점(본점 포함)의 영업사무실을 주요 근거지로 삼고 있다. 주요 어획어종으로는 오징어, 갈치, 병어, 삼치, 참조기, 눈볼대, 가자미 등으로 다양하다. 조합원 101명, 임직원 110명으로 구성된 대형기선저인망수협은 조합원의 공동 이익 증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 그리고 생산력 증진 도모와 더불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확고한 목표 아래 지도사업, 유통사업, 공제사업, 상호금융사업 등 사회·경제 전 분야에 걸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2011년 구매사업 616억 원, 판매사업 2,775억 원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상호금융사업의 예탁금과 대출금 합계 6,708억 원, 공제사업 계약고와 공제로 합계 3,998억 원의 실적을 달성하고 있다. 그 결과 1등급인 전국최우수조합으로 5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이러한 건실함을 토대로 전국 유수의 수협을 대표하는 선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수협 POINT

- ◎ 매년 3월, 농림수산식품부가 정한 '참치·삼치데이'를 한국원양산업협회와 함께 홍보
- ◎ 등푸른 생선의 대명사인 참치와 삼치
 - DHA, EPA 등 불포화지방산과 항암작용을 하는 성분인 셀레늄 등을 다량 함유
 - 영양가치가 우수할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미용식으로도 유명

회원조합 네트워크

제주도지역



- 풍요로운 바다와 살기좋은 어촌 만들기-서귀포수협
- 1등 조합, 1등 배당, 1등 복지(3·1 운동)-모슬포수협
- 어업인과 함께하는 푸른 수협-성산포수협
- 수산의 푸른 미래를 열어가는 수협-제주시수협

- NEW & ONE, JUMP to the TOP SUHYUP!-추자도수협
- 새로운 출발, 새로운 도전, 도약하는 한림수협-한림수협
- 세계를 보고 미래를 보는 수협-제주어류양식수협

풍요로운 바다와 살기좋은 어촌 만들기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25.08. 서귀포해녀조합 설립
- 1977.04.01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1993.11.02 수산물유통센터 준공
- 2009.12.16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준공
- 2011.05.26 수산물산지가공시설 HACCP 인증 획득

조합원(명)	어촌계(개)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2,055	19	11/93	10



조합장 | 최 정 호

역대조합장

1대	2대	3대	4~5대	6대	7~9대	10대	11~14대	15~17대
한군택	허 민	현윤성	조창후	김정전	권홍태	김정전	김봉훈	최정호



서귀포수협 위판장

천혜의 자연경관과 청정해역을 자랑하는 서귀포수협은 1928년 서귀포해녀 조합을 그 시발점으로 한다. 서귀포수협은 현재 19개 어촌계에서 1,500여 명의 해녀와 3,500여 명의 어선어업인들이 연근해에서 물질과 어선어업으로 채취한 각종 신선한 수산물을 소비자들 부담 없이 구입하여 식탁에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서귀포수협은 수산자원의 보고인 제주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모든 수산물을 어업인들이 손끝으로 하나하나 낚시로 낚아 올리는 연승과 채낚기 어업을 통해 바다 환경을 지키고 있으며, 최고의 신선도와 맛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역 어업인들의 어업방식은 점차 사라져 가는 옛 어업의 전통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그 가치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지역 특산물로는 옥돔, 갈치, 고등어, 소라, 오분자기 등이 있다. 서귀포수협은 '서귀포수협 사람들'이라는 브랜드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HACCP 인증)'을 바탕으로 지역 수산물의 유통을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전진기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으며, 이로써 신뢰할 수 있는 싱싱한 수산물을 공급하여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수협 POINT

- ◎ 매년 5~6월 보목항에서 '수산 일품 보목자리돔 축제' 개최
 - 천혜의 아름다운 해안변과 숲속을 배경으로 한 지역 특산 수산물인 자리돔을 주제로 개최
 - 어업인과 시민, 관광객이 함께 만들어 가는 수산물관광축제
 - 테우(전통배) 젓기 시연, 자리돔가요제, 맨손으로 자리돔 잡기 등 다채로운 한마당 잔치

1등 조합, 1등 배당, 1등 복지 (3·1 운동)

모슬포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90.08.01 모슬포수산업협동조합 설립
- 1993.05.16 주 사무실 및 위판장, 염장탱크 준공
- 1997.03.12 안덕어업인복지회관 준공
- 2010.02.05 수산물처리저장시설(염장탱크 비가림 시설) 준공
- 2010.06.20 수산물산지가공시설(HACCP) 준공



조합장 | 이재진

조합원(명)	어촌계(개)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1,729	12	11/38	5

역대조합장

1대	2대	3대	4~6대	7대
라근옥	문공학	장근호	김정전	이재진



방어 축제 방어 시식회에 모인 인파

제주도 내 지구별 수협 중 가장 늦게 출범한 모슬포수협은 우리나라 최남단 마라도 인근 청정해역이 주어장으로, 해안선 길이 31.5km의 서귀포시 대정읍과 안덕면을 업무구역으로 하고 있다. 500여 척의 어선과 1,000여 명의 해녀들이 최고급 어종인 다금바리를 비롯한 해방어, 멸치, 갈치, 자리돔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를 재료로 한 먹거리는 예로부터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 이 가운데 멸치를 주원료로 모슬포수협이 직접 가공한 멸치액젓은 영양과 순도, 빛깔이 뛰어나서 제주도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주 구매 상품이다. 방어와 자리돔은 각 생산시기별(방어 겨울철, 자리돔 여름철)로 파시를 형성하고 있는데 해마다 수많은 인파가 이 파시를 찾아 몰려들고 있다. 2011년에는 정부 차원에서 모슬포수협의 업무구역 중 하나인 안덕면 화순항 일부를 어선항으로 분구하여 개발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어업인과 지역주민들의 바람 속에 향후 모슬포수협은 제주 서남부지역 수산업의 발전을 이끌 조직으로서 위상을 떨칠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우리수협 POINT

- ◎ 예향(藝鄕)의 고장 모슬포지역은 김정희가 유배되면서 제주도 유배문학의 근간을 형성
- ◎ 제주도의 대표 해양문화 축제, '제주 바다의 맛과 멋' 최남단 방어 축제
 - 모슬포항에서 매년 개최되어 어업인은 물론 지역주민 전체가 하나 되어 진행
 -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수많은 축제 중 유일하게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는 매머드급 축제

어업인과 함께하는 푸른 수협

성산포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62.04.01 성산포어업협동조합 설립
- 1967.12.30 성산포어업전진기지 준공
- 1974.06.11 상호금융업무 개시
- 1977.04.01 성산포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1980.05.30 증자우수 대통령표창 수상
- 2000.05.25 전문경영인제도(상임이사제) 채택

조합원(명)	어촌계(개)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2,808	13	14/84	12



조합장 | 강 승 호

역대조합장

1~2대	3대	4~5대	6~9대	10~13대	14대	15대
송이호	강위규	김여석	한성담	강유삼	오복권	강승호



입어 중인 해녀들



은갈치 무료 시식회

성산포수협은 13개 어촌계와 2,800여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명승지인 성산일출봉과 우도, 섭지코지가 그림같이 펼쳐진 청정 해안을 주요한 삶의 터전으로 일구어가고 있으며 제주도 동쪽의 어업 전진기지인 성산포항을 중심으로 은갈치, 옥돔, 고등어, 전복, 소라 등을 생산하여 가공 판매

하고 있다. 특히 제주의 청정바다에서 나는 갈치는 전국 단일판매 규모로는 최고를 자랑하고 있으며 최상품의 맛과 품질로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갈치의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는 데다 그 추세에 맞물려 잡혀 올라오는 갈치 또한 상당수가 치어여서 제주갈치의 명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에 성산포수협은 조합원들과 상의하여 갈치에 한해서 휴어기를 두고 개체 수가 많은 어종을 잡는 등 자구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이마저도 실통치 않아 갈치 값은 날이 갈수록 치솟고 있다. 성산포수협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어업인들과 함께 어족보호에 힘써 국민들에게 성산포의 맛있는 수산물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수협 POINT

- 2010년 수협보험 연도대상 수상
- 2011년 상반기 공제가입 캠페인 평가에서 92개 조합 가운데 1위
- 2011년 경영실태평가에서 1등급 조합으로 선정돼 5년 연속 1등급 조합의 지위 유지

수산의 푸른 미래를 열어가는 수협

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16.05.11 구좌면어업조합 설립
- 1974.06.10 상호금융업무 개시
- 1974.06.24 종합어시장 준공
- 1977.04.01 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1998.03.09 수산물종합청사 준공 및 개장
- 2005.07.14 수산물처리저장시설 준공
- 2007.03.12 활소라 대일본 수출업무 개시

조합원(명)	어촌계(개)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5,151	33	9/83	11



조합장 | 문태연

역대조합장

1~2대	3~5대	6~7대	8~10대	11~13대	14~15대	16대	17대
고순하	고경아	김석범	고달익	홍성보	강호방	한인용	문태연



영등환경 풍어제

제주시수협은 지역 여건상 넓은 범위의 업무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조합원은 잠수조합원이 2/3이고, 어선은 소형어선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과거 제주시수협 관내 마을어장에서 생산되던 주요품목이 우뚝가사리, 천초, 소라였으나 지금은 어선에서 위판하고 있는 어류가 갈치, 고등어 등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아직도 제주시수협 마을어장에서 잠수조합원들이 생산하는 톳, 우뚝가사리, 소라 생산량 역시 연간 1,281톤 55억 9,400만 원에 이르며 생산품들은 전량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다. 톳은 상표법에 '지리적표시단체표창등록증'을 교부 받았으며, 우뚝가사리는 향토 산업(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기관과 함께 1~3차 산업으로 연계·발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1974년부터 시작된 종합어시장은 1998년 수산물종합청사

준공으로 42개의 상판시설이 된 어시장을 개장함에 따라 도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수산물 직판유통을 위하여 2010년 HACCP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을 준공하여 2011년부터 인증서를 받고 가동 중이다. 제주시수협은 신뢰받는 유통으로 서민들에게 다가가는 한편, 조합원들의 어업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 판로 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수협 POINT

- ⊙ 제주해녀들은 일제하에서도 해녀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합 활동 및 항일운동에 투신
- ⊙ 산업의 변화로 해녀 숫자가 점차 감소 추세, 보존대책 마련이 시급

NEW & ONE, JUMP to the TOP SUHYUP!

추자도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19.03.31 추자도어업조합 설립
- 1977.07.01 추자도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1978.03.30 현 청사 준공
- 1980.06.05 추자도 수산물 가공 새마을 공장 매입
- 2007.12.28 수산물 산지 가공공장 준공(HACCP)



조합장 | 이정호

조합원(명)	어촌계(개)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341	5	10/38	10

역대조합장

1대	2~3대	4~5대	6대	7대	8~10대	11대	12~13대	14~15대	16~18대	19대
김금동	박봉규	이양치	이승현	배석호	이강식	박복남	박종현	박동기	강원복	이정호



참굴비 축제

제주도와 한반도의 중간에 위치한 추자도에 1919년 추자도어업조합이 설립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93년의 역사를 지닌 추자도수협은 341 명의 조합원, 5개 어촌계, 48명의 임직원과 함께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추자도 연근해에서 잡히는 특산물인 참조기, 삼치, 방어, 멸치젓 등은 전국 각지로 판매되고 있다. 또한 안전하고 우수한 식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2010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HACCP 인증을 받음으로써 추자도 참굴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믿음과 신뢰가 커졌다. 추자도수협은 어획량이 적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어업인들이 잡아 올리는 조기의 양이 너무 많아 고민하고 있다. 얼음공급에 나섬과 동시에 참조기 보관을 위한 냉동 컨테이너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얼음을 다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2011년

하반기에 얼음 생산량을 57톤에서 87톤으로 늘렸으나 수요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참조기의 선도가 떨어져 어업인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또한 인건비가 지난해보다 20% 이상 올랐으나 인부를 구하지 못하는 등 어업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어업인들은 스스로 조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추자도수협 역시 시설 확충을 고려하고 있다.

우리수협 POINT

● 매년 8월 '추자도 참굴비 대축제'와 '풍어 기원제'

- 다양한 체험마당과 볼거리, 먹거리로 추자도를 찾는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호응
- 앞으로 더욱 알찬 진행으로 추자도를 홍보함으로써 어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새로운 출발, 새로운 도전, 도약하는 한림수협

한림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62.04.01** 한림어업협동조합 설립
- 1977.04.01** 한림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1999.07.13** 어선종합수리센터 준공
- 2001.11.30** 수산물 산지 종합처리 시설 준공
- 2009.11.30** 수산물 저장처리 시설 준공



조합장 | 김시준

조합원(명)	어촌계(개)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2,471	18	11/69	7

역대조합장

1대	3~4대	5~7대	8대	9대	10대	11~13대	14~15대	16대	17대
고종석	황관수	강철용	김영보	고석관	장서철	정승필	장서철	김창송	김시준



한림수협의 위판장

한림수협은 제주특별자치도 서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림읍과 한경면 소재지에 위치한 지구별 수협이다. 18개 어촌계를 관할하며 총 조합원은 2,500명 정도로 그 중에 약 700명의 해녀가 청정해역에서 소라, 성게, 전복, 자연산 미역, 톳 등을 수확하고 있다. 어선세력으로는 연승, 채낚기, 유자망, 저인망, 선망 등 다양한 업종의 어선이 조업하며, 위판장에는 다양한 어종의 수산물이 위판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수산물은 참조기, 은갈치, 옥돔, 고등어 등이다. 한림수협은 2010년에 위판고 1,000억 원 달성에 이어 2011년에는 1,300억 원을 달성하며 2년 연속 1,000억 돌파라는 기록을 세웠다. 특히 한림수협이 열악한 어업 기반시설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성과를 달성한 것은 위판업무 개선과 냉동

입출고업무 개선, 조기선별업무 개선 등을 통해 신속한 업무처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앞으로도 한림수협은 외래어선을 적극 유치하고 2012년 준공되는 위판장 및 산지가공시설을 적극 활용해 위판액 전국 1위를 목표로 도약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어종과 대량의 수산물 출하량을 기반으로 2010년도에는 유통과를 신설함으로써 유통사업 기능을 강화해 수산물에 대한 어가유지와 지역 특산 수산물의 명품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수협 POINT

☉ 수산물의 입찰에서부터 냉동냉장·가공·유통 처리 시설 완비

- 다양한 업종의 어업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문호 개방
- 지역주민과 조합원, 임직원의 협동과 배려로 열린 수협 이미지 창조

세계를 보고 미래를 보는 수협

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

History

- 1994.12.22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 설립
- 1995.01.01 조합업무 개시
- 1996.12.23 상호금융업무 개시
- 2006.03.22 청사 준공 및 본소 이전
- 2010.01.01 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조합원(명)	임원/직원(명)	지사무소(개)
365	13/66	2



조합장 | 김 평 전

역대조합장

1대	2~4대	5대
강천중	신태범	김평전



2010보스톤박람회 제주어류양식수협 전시관

제주어류양식수협은 제주도의 청정 해역을 거점으로 하여 양식어업인들이 설립한 업종별 수협으로 1987년 본격적인 양식어업을 시작하면서 1995년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렀다. 양식 불모지에서 이제는 세계일류의 양식 기술을 자랑하고 있으며 2005년 제주산 활넙치가 산업자원부로부터 식용활어로는 최초로 '세계일류상품'에 선정되는 영광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 경쟁력을 지닌 파워 브랜드로 인정받게 되었다. 세계자연유산인 제주바다에서 생산되는 넙치는 생산에서 유통 및 최종 소비까지 제주어류양식수협이 관리·감독하면서 출하 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양식 수산물에의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아울러 청정 제주바다에서 친환경 양식으로 생산된 제주 활넙치는 HACCP, 생산이력제를 도입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시스템으로 고품질화와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제주어류양식수협은 국내외적으로 변화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다양한 양식 어종과 고품질 양식수산물 공급으로 어업인과 수협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더 큰 만족을 줄 것이다.

우리수협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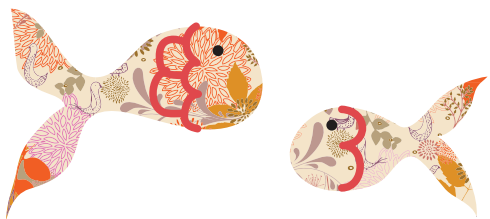
- ◎ 제주광어
 -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국가 경쟁력을 지닌 파워 브랜드로 선정
 - 2005년도 지식경제부(산업자원부)로부터 식용활어로는 최초로 '세계일류상품'에 선정
- ◎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300만 달러 수출탑' 수상

제3부 사회공헌활동

Contribution

'나누다'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 하나를 둘 이상으로 가르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나누는 것을 여러 사람과 함께 할 때 비로소 '나눔'이 된다. 수협이 나눔활동은 '일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일인을 위하여'라는 협동조합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 중 만인을 위한 일인이 되기 위해 쉬지 않고 이웃을 찾아 나눔을 펼치고 있다. 수협은 꾸준히 독거노인, 보육원, 형편이 어려운 어촌계 등을 방문하여 각종 생필품과 성금을 전달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Contrib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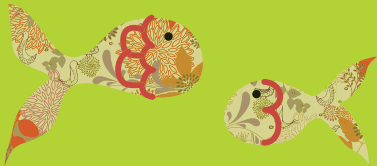
따스한 나눔을 실천하며
바다의 희망을 나누다...





사회공헌활동

바다의 풍요로움 국민의 품으로...



수협은 어떤 기관보다 협동을 실천하고 나눔이 일상화된 기관이다.

그런 수협에게 있어 사회공헌은 별도로 이행해야 하는 일이 아니다. 어업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국민들이 신선한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게 하는 것도 사회공헌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평소 진행하는 모든 일이 어업인과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수협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온 국민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며 협동과 상생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바다가 우리에게 자기가 품은 것을 내어주듯, 수협도 우리가 가진 것을 내어주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

바로 그것이 수협의 본질이며 수협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모든 기업은 그 기업만의 이미지가 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그렇다면 수협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
수협은 청정한 이미지를 지켜 나가기 위해 부패방지시책 설명회,
청렴옴부즈맨, 청렴지킴이와 함께하는 청렴간담회,
반부패청렴캠페인 등 각종 청렴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오염 없는 청정바다, 부패 없는 청정수협

» 신선한 수산물을 취급하는 곳, 그러나 그 수산물보다 더 신선한 것이 수협이다.



» 부패방지시책 설명회

모든 기업은 그 기업만의 이미지가 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그렇다면 수협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 푸른 바다, 싱싱한 수산물, 청정함 등이 수협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이다. 수협은 이런 청정한 이미지를 지켜 나가기 위해 부패방지시책 설명회, 청렴옴부즈맨, 청렴지킴이와 함께하는 청렴간담회, 반부패청렴캠페인 등 각종 청렴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청렴운동은 비리와 부패에서 벗어나 기업이

가진 본질에 충실하여, 수협을 믿고 찾아주는 고객들에게 모든 혜택이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그 어떤 사회공헌보다 중요한 일이다. 2011년도에는 반부패 청렴시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청정수협의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또한 승진 및 취임 축하 화환(난)을 판매한 수익금을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에 기부함으로써 청렴문화를 기부로 승화시키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수협은 어업인과 고객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건강하고 믿을 수 있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외친다. “청렴 START, 부패 STOP, 청렴 SUHYUP, 부패 ZERO”



» 반부패청렴캠페인



» 청렴 화환(난) 판매

작은 정성이 만드는 새로운 희망

» 우리가 전달한 연필 한 자루, 연탄 한 장이 어떤 이에게는 내일을 여는 희망이다.



» 명진보육원 방문

‘나눔다’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 하나를 둘 이상으로 가르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나눔 것을 여러 사람과 함께 할 때 비로소 ‘나눔’이 된다. 수협이 나눔활동은 ‘일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일인을 위하여’라는 협동조합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 중 만인을 위한 일인이 되기 위해 쉬지 않고 이웃을 찾아 나눔을 펼치고 있다. 수협은 꾸준히 독거노인, 보육원, 형편이 어려운 어촌계 등을 방문하여 각종 생필품과 성금을 전달하는 활동을 펼

치고 있다. 물론 그 나눔이 그들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전달한 학용품으로 꿈을 그려나갈 것이고, 우리가 전달한 연탄 한 장으로 따뜻한 아침을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그 온기가 새로운 희망을 싹 틔우고 있다. 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기업을 낳는다. 협동조합으로서 어민에 의해 설립되고



» 독거노인 방문



» 사랑의 이웃찾기

유지되는 수협은 우리 사회 여러 작은 손길들에 의해 형성된 협동조합이며, 그렇기에 어떤 기업보다 사회적으로 많은 수혜를 받아왔다. 이에 보답하고자 어려운 이들을 찾아 돕고, 일선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고에 힘을 보태며 보다 건강한 사회를 일구기 위해 노력해왔다.



» 수협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가게



» 가정위탁사업후원 결연식



» 모범 외국인선원 위문품 증정식

적십자 자선바자회를 통해 값싸고 품질 좋은 우리 수산물을 함께 나누었으며, 수협 임직원과 고객이 자발적으로 기증한 재활용물품을 '아름다운 가게'를 통해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함으로써 불우한 이웃을 돕는 윤리지향 경영 및 나눔경영 정신을 실천했다. 또 어업의 일선에서 일하는 모범적인 외국인선원들에게 위문품을 증정하고 암사재활원을 찾아 사랑海 쌀을 증정했다. 이처럼 수협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전달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

해왔다. 기약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 수협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일'을 선물하는 희망의 전도사가 되었다.

푸른 산타클로스, 그 청정한 발걸음

» 바다 내음과 함께하는 나눔의 손길



» 푸른 산타클로스 암사재활원 성금 전달식

수협은 직접 발로 뛰는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왔다. 그리고 이에 더해 봉사단을 설립하고 육성, 후원함으로써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봉사활동의 수혜를 입고 삶의 희망을 얻도록 힘쓰고 있다. 2003년 12월에는 전국 권역별로 해우리봉사단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 푸른산타봉사단 암사재활원 방문



» 푸른산타 김치 담그기 행사

도심권의 고아원, 양로원, 재활원, 독거노인 등 소외이
웃을 방문하여 후원금 전달과 봉사활동을 실시했으며,
2009년 경인지역 독거노인 및 조손(組孫) 가정을 찾아
생필품을 전달하고 집안청소 고장 기기 수리를 시작으
로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지역 불우이
웃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왔다. 그밖에 푸른수협 한마음
봉사단, 대학생 어촌봉사단을 조직하고 아름다운 가게
에 물품을 기증하는 등 수많은 활동을 통해 보다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다했다. '푸른 산타클로스' 수협이 전하는 나눔의 손길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 사랑해 대학생 어촌 봉사단



» 대학생 어촌봉사단의 봉사활동

이웃을 살리는 일, 우리의 내일을 살리는 일

» 수면을 박차고 뛰어오르는 물고기처럼, 수협이 선도하는 역동적인 세상



» 사랑海 헌혈증서 기증식

우리나라 헌혈률은 4~5% 정도로 선진국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혈액을 구하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생사의 기로에 선 사람들을 위해, 수협인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쳤다.

2003년부터 시작된 '생명나눔 사랑海 헌혈행사'에는 매년 500명 이상의 임직원들이 참여하여 혈액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사랑을 나누었다. 또한, 이렇게 모인 임직원들의 헌혈증서를 사단법인 한국백혈병 소아암협회에 지원함으로써 어린 새 생명에게 희망을 주었다. 2010년부터는 수협봉사단 활동 시 어촌지역의 불우가정 환자에게도 전달하는 등 지원의 폭을 더욱 넓혔다. 또 2005년엔 각막기증의 해를 맞아 사랑의 장기 기증운동본부와 공동으로 전국 133개 영업점에서 일반고객들을 대상으로 각막기증 캠페인을 펼쳤다.

이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소임을 다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손길을 전하게 되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곧 우리 사회를 살리는 일이다. 우리 결의 모든 사람들이 마치 수면 위로 힘껏 뛰어오르는 물고기처럼 역동적인 삶의 주인공이 될 때, 진정 우리 사회가 한걸음 더 진일보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날이 올 때까지 수협의 행보는 계속될 것이다.



» 수협과 함께하는 사랑의 각막기증 캠페인



» 사랑海 헌혈행사

바다를 지키는 수협, 우리를 지키는 수협

» 청정한 바다 지킴이 수협, 국민의 안전까지 책임진다



» 동해해양경찰서 위문방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오늘도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육지는 물론 바다에서까지 국민의 안전과 치안을 위해 힘쓰는 경찰 공무원 덕분이다. 수협은 경찰서, 해양경찰서 등을 방문하여 지금까지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우리 국민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 달라는 뜻을 전달함으로써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수협인의 뜻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 송파경찰서 위문방문

송파경찰서를 위문방문한 데 이어 해양경찰청을 위문방문 하는 등 지속적으로 다수의 관공서를 찾아 방문하고 기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러한 행보는 경찰 공무원의 노고와 어려움을 함께 나눔으로써 청정한 바다 먹거리를 지키는 것은 물론 우리의 안전까지 지키겠다는 수협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깨끗한 공직자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등공신이다. 앞으로도 수협은 더 많은 '청정한' 공직자를 찾아 위문하고 응원함으로써 보다 청정한 대한민국 사회를 건설하는 데 그 힘을 보탬 것이다.



» 해양경찰청 성금전달식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이름, 독도

» 우리의 바다, 우리가 지키고 가꿔야 할 소중한 자원의 보고



» 독도사랑기금 전달식

수협은 독도사랑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공식적인 활동을 한 것은 20년이 되어 가지만 사실 그전부터 우리의 어업인들은 독도에서 조업활동을 해왔고, 독도를 지키기 위해 애써왔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수협은 설립 당시부터 독도를 지키고 가꾸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 있다. 어업인이 있는 곳에 수협이 있고, 수협이 있는 곳에 어업인이 있기 때문이다.

수협의 독도보전 노력은 다양하게 진행된다. 먼저 일본의 독도 관련 도발이 있을 때마다 성명서를 발표하고 규탄 대회를 벌이며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독도사랑기금, 고객초청행사 등을 통해 독도보전 기금 마련과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독도를 방문해 주민들과 경비대원을 격려하는 것도 잊지 않고 있다. 이렇듯 수협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우리의 어장인 독도를 보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독도티셔츠를 입고 근무하는 수협은행



» 수협은행 VIP 고객 사은행사 독도 방문

어촌에서 피어나는 푸른 미래

» 우리의 손길이 풍요로운 어촌을 만들고, 그 어촌이 대한민국의 푸른 미래를 만든다.



» 어민사랑기금 전달식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선 한 마리를 건져 올리기 위해 오늘도 우리 어업인들은 세찬바람을 맞으며 거친 파도와 씨름하고 있다. 그것을 생각하면 생선은 단순히 생선이 아니라 어업인의 땀과 눈물인 것이다.

어촌은 푸른 바다와 맞닿아 있지만 정작 그곳은 푸르지 못하다. 그래서 수협은 오늘도 그곳을 푸르게 하기 위해 푸른 손길을 내민다. 수협의 어촌사랑은 어업인을 키우고 어촌을 가꾸는 것에서 시작된다.

어업인 자녀 장학금 지급, 여성어업인 권익신장 활동, 수산종묘 방류, 불가사리 구제작업, 기르는 어업 육성 등의 활동을 장려하여 더욱 유능한 어업인을 육성하고 더 풍요로운 어촌을 건설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어촌 홍보 활동 역시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매년 도시어린이 어촌체험 캠프와 섬마을 어린이 도시체험 행사를 진행하는 한편, 여름휴가 어촌에서 보내기 운동, 어촌사랑 글·그림 공모전을 개최하며 국민들이 어촌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처럼 수협은 어촌의 활성화와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우리 바다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하고 있다.



» 수산종묘 방류 행사



» 어촌사랑 글·그림 공모전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게 한 것도 수산업이고, 다가올 미래에 새로운 식량산업을 선도하는 것도 수산업이다. 그 중심에는 어촌과 어업인이 있다. 우리 수협은 어업인들이 푸른 미래를 꿈꿀 수 있게 지원할 것이고, 그들은 대한민국의 푸른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삼면의 바다, 넘실대는 꿈의 파도

» 무한한 자원을 품은 바다, 그 바다를 살리기 위해 모인 사람들 그 곳에서 꿈을 보다.



» 푸른바다가꾸기운동

바다는 우리에게 많은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무한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의 무관심속에 바다는 병들어가고 있다. 수협은 우리 어업인의 삶의 터전이며 국민의 식탁을 책임지는 바다의 소중함을 일깨우고자 '푸른바다 가꾸기' 운동을 펼치며 매년 '바다의 날'을 맞아 전국의 주요 항·포구에서 수협과 지역주민들은 어업질서 확립 및 어장환경 보전 어업인 실천 결의대회, 수중 정화작업, 연안어장 쓰레기 수거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클로버운동을 개최하여 국민 모두가 바다의 수요자이자 바다 오염의 공급원이며, 어업인들만의 노력으로 가꾸고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 아래 전 국민이 클로버(바다를 사랑하는 사람 : C-Lover)가 되어 바다를 가꾸고 사랑하는 데 동참하자는 범국민 바다사랑운동을 선도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바다환경 보전 활동, 수산자원 조성사업, 어업인 교육홍보 및 포상, 해양오염 및 어업피해 방지, 클로버봉사단 봉사활동 등이 있다.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는 푸른 바다를 순식간에 검은 바다로 만들었다. 바다는 죽어갔고, 어업인들은 아픈 자식 같은 바다를 보면서 발만 동동 굴러야 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수협은 긴급히 해양수산부에 피해 어업인 보호 대책을 건의했으며, 해양수산부로부터 피해 어업인에 대한 경영안정과 신속한 어업 재개를 위한 특별영여자금 지원 결정을 이끌어냈다.



»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 자원봉사자 어촌사랑 실천자 과정



» 방제작업 중인 임직원들

또한 즉시 실무팀과 현장작업반을 구성하여 사고현장에 급파해 피해 어업인들을 지원했다. 그리고 이종구 수협중앙회장과 일선 수협 조합장들은 사고 피의자인 삼성중공업 본사를 방문해 사고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와 피해 대책을 촉구했다. 수협의 이런 노력은 빠르게 전국에 알려졌고, 많은 국민들의 발걸음을 태안으로 향하게 만들었다. 수협직원들과 국민들은 바다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그 모습은 마치 한 줄기 파도와 같았다. 그 곳에서 우리는 보았다. 대한민국 어업인과 수산업의 새로운 꿈과 희망을…….



» 기름 유출 사고 지역 방제작업

신해불이(身海不二), 어업인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 수협과 함께하는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우리 수산물 사랑 운동



» 수산물 사랑 남산 걷기대회

신토불이(身土不二)라는 말과 함께 우리 농산물을 사랑 하자는 운동은 예전부터 있어왔다. 그러나 우리 수산물을 사랑하고 애용하자는 움직임은 별로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수협은 우리 농산물 못지않게 몸에 좋고 맛 좋은 우리 수산물을 홍보하는 일에 주력해왔다. 수산물 사랑 남산 걷기대회를 여는 한편, “수요일엔 수산물을 먹읍시다”라는 구호와 함께 수산물 홍보에 나선 것이다.

이러한 수협의 행보는 어민들에 의해 구성된 수산업협동조합의 본질을 구현하고 더 나아가 우리 어업인들의 더 나은 여건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사람들이 앞으로 더 많은 수산물을 찾게 될 때 어업인의 삶은 나아지고 이는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발전으로 까지 이어지게 된다. 어업인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신토 불이(身土不二)가 아닌 신해불이(身海不二)를 외치는 수협의 어업인 사랑, 수산물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 수요일엔 수산물을 먹읍시다!

웃는 어업인, 밝은 어촌, 우리 수산의 푸른 미래

» 어업인의 웃는 얼굴이 우리 수산의 푸른 미래를 만들어 가는 힘이다

우리 수산업의 미래를 가장 쉽고 빠르게 전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어업인의 표정일 것이다. 즉, 어업인의 웃음은 우리 수산업의 웃음이다. 그를 위해 수협은 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어촌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한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을 2009년 9월 26일 설립했다.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수협중앙회 청사에



» 어업인 의료지원 지정병원 협약식

사무실을 두고 출연금 17억 원으로 설립한 재단은 기부 참여문화 조성 and 자원 확충을 통한 안정적 재단 운용을 위해 다양한 기부상품을 개발·운용하며 본격적으로 전국에 있는 어업인들에게 웃음을 찾아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복지재단이 추진하는 활동 중 ‘Fresh Donation’ 운동은 평소 지인의 생일이나 승진, 결혼 등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화환이나 기념품 등을 서로 주고받는 대신 축하하는 사람이 축하받는 사람



» 어업인 리더 경영 마인드 교육

의 이름으로 복지재단에 기부하며, 축하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특별한 주고 있다. 그와 더불어 진행되는 'Together 1%'는 매월 또는 매년 정기적으로 소득 및 매출액 등의 1%를 기부하는 상품으로 어업인에게 자동이체 형식의 기부방법이다. 이처럼 복지재단은 수협 내에 새로운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고 수협과 어업인의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끈끈하게 하는 모습을 만들어 가고 있다. 재단은

충남 태안군 마금리마을회관에서 서산중앙병원 의료진과 함께 어업인 110여 명의 진료를 시작으로 어업인 의료봉사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이후 전국 7개 병원과 어업인 의료지원 지정병원 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1,000명 이상의 어업인들에게 폭넓은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어업인의 고통을 덜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처럼 복지재단은 웃는 어업인, 밝은 어촌, 우리 수산의 푸른 미래를 그려 나가기 위해 힘찬 발걸음을 바쁘게 내딛고 있다. 한편, 어촌지역 어린이에 대한 금융·경제교육 기회 제공을 통해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서벽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촌어린이 경제교실을 열어 우리 어촌의 미래를 이끌어 갈 미래의 수산인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 어촌어린이 경제교실



» 어업인 무료 진료

넓은 바다의 마음을 닦아

» 수협은 바다와 함께한 이들을 잊지 않는다



» 해녀초청행사

수협은 바다와 함께 삶을 이어온 어업인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데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어려운 작업 환경을 딛고 생업을 영위해 온 해녀들을 위로하고 해녀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2009년부터 매년 해녀초청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2010년부터 시작한 '어촌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사업을 통해 어촌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장수사진을 촬영해 드림으로써 우리 어촌을 이끌어 온 어업인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 어촌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수협의 어민사랑·국민사랑

»

지난 세월 동안 그 어떤 외압과 혹독한 환경에서도 오직 국민과 어업인만을 생각하며 달려왔다. 그렇게 50년이 흘렀고 조금씩 우리에게도 봄바람은 불어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고 넘어야 할 파도는 높다. 수협은 그 험한 파도로부터 우리 국민과 어업인을 지켜내고 가진 모든 것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



기획 05

우리 수산의 미래를 말한다

수산정책

21세기 수산정책방향 | 부경대학교(이상고 교수)

수산경영

어업경영의 미래와 도전 | 수산경제연구원(조용준 선임연구원)

수산금융

수산금융의 미래 | 수산경제연구원(이미용 책임연구원)

수산보험

안정적 어업생산의 필수 동반자 - 수산보험 | 수산경제연구원(김현용 연구실장)

수산식품산업

식품사업을 통한 수산업의 도약 | 수산경제연구원(박준모 책임연구원)

수산물 무역

제2의 수산물 수출 전성기를 기약하며 | 수산경제연구원(김우경 책임연구원)

수산물 유통소비

수산물 유통과 마케팅의 미래와 과제 | 부경대학교(장영수 교수)

어장자원

어장과 수산자원의 이용 | 국립수산물과학원(박종화 자원환경과장)

어촌환경

어촌사회 환경의 변화와 향후 정책방향 | 한국해양수산개발원(김정봉 본부장)

수협의 미래 준비

지난 50년 동안 수협은 전국 어민들과 어촌경제를 조직화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수협은 우리나라 수산업 사회에 대해 협동운동의 유효성을 실증시켰으며, 그 결과로 수산업 부문의 균형적 발달과 고도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협동조합의 역할은 우리나라 국민경제 전체 측면에서 보면 작은 규모일지 몰라도, 국민경제가 생존하고 기능하는 부문에 있어서는 국민경제 자체의 순환 논리와 세계경제질서 변화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수협의 과제는 수산의 푸른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이다. '미래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실들이 모이고 그것이 상호작용을 하고 동시에 예기치 못한 변수가 개입되면서 결국은 미래라는 커다란 물줄기를 형성해 가는 것(미국 미래학자 존 나이 스비트)'이라고 한다.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다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의 상황으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미래에는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대하는 부분도 있다고 본다. 진정 의미 있는 미래 준비를 하지 못한다면 예기치 않게 수산의 종지부를 찍을 날이 올지도 모른다. 이런 의도에서 기획된 '우리 수산의 미래를 말한다'는 대학·연구기관·수산경제연구원의 수산전문가가 참여하여 수산정책, 수산경영, 수산금융, 수산보험, 수산식품산업, 수산물 무역, 수산물 유통소비, 어장자원, 어촌환경 등 각 분야별로 분석·평가·진단하여 수산업의 미래를 전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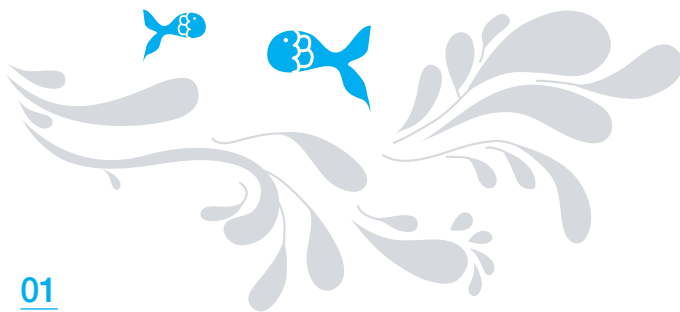
수협의 미래 준비는 어업인에게 희망을 주고 행복한 어촌을 건설하며 지속가능한 어업의 유지에 그 바탕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한 과제는 정체성의 확보와 수산의 글로벌화 및 책임 있는 인재양성이라고 본다.

수협은 명칭 그대로 수산업과 협동조합의 두 기둥으로 서있어야 한다. 수산업이란 3漁(어촌, 어민, 어업)를 바탕으로 반복적으로 연결되고 지속되는 생명산업이며, 협동조합이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열위집단이 그들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지위를 스스로 지키고 적응해 나가는 특수한 기업이자, 자신들이 힘과 정신을 모아 만들어 나가는 자족적 경제조직이다. 수협의 정체성은 수협이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수협이게 하는 것이다. 1,000년을 거쳐 낡은 널빤지들을 제거하고 새 목재를 그 자리에 바꿔 가면서 보존한 '테세우스의 배'가 '원래의 배'가 아닌 것처럼 본질에 충실한 수협이 되어야 한다. 지혜로운 어민이 풍족한 어족자원이 있는 살기 좋은 어촌에서 '어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존재하는 수협을 존경할 때 푸른 미래는 우리를 노크할 것이다.

수산정책

21세기 수산정책 방향

부경대학교 | 이상고 교수



01

우리나라 수산정책의 현실

수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남획, 과잉어업 세력 그리고 지대소멸과 같은 고질적인 병폐의 치유라는 수산정책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근대 수산정책의 역사에서 이들 고질적인 병폐를 완전히 치유한 국가는 없다. 어느 국가 할 것 없이 수산업의 고질적인 병폐, 특히 과잉어업 세력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수산업의 현실이다.

유럽연합(EU)이 1994년 이후 공동어업정책(CFP)을 통해 약 2,730억 유로를 과잉어업 세력 해소에 쏟아 부었다. 이만한 재원이면 당연히 과잉어업 세력 문제는 해소되어야 했지만 오히려 매년 3% 이상 어업세력이 증가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2011년 7월) 이를 극복하고자 CFP를 재편하면서 미래 수산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유럽연합 CFP 하에 놓인 모든 어업어종의 지속적 자원량 수준을 유지하고, 주어진 최적의 과학 정보를 통한 생태중심 어업관리를 추진하며, 수산자원의 낭비와 손실의 최소화, 남획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응책 마련, 수산보조 측면에서는 친환경 어업 및 스마트 수산에 한정하여 지원토록 하는 수산정책에 역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연근해어업 과잉어업 세력 해소를 위하여 1994년부터 2010년까지 1조 6,583억 원을 투입하여 1만 6,583척의 어선을 감척하였다. 그 결과 다소 긍정적인 산업기반 강화의 결과를 얻고 있는 있으나 수산업의 고질적인 병폐는 여전하다. 향후 남획, 과잉어업 세력 및 지대소멸 문제의 해소를 위한 사업은 확대 지속되어야 한다.

2010년 OECD 수산위원회는 향후 모든 국가들이 가장 많은 수산재정을 쏟아 부어야 할 수산정책은 바로 과잉어업 세력의 해소라고 결론지었다. OECD 수산위원회의 결론은 우리나라 수산정책이 미래에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수산정책의 실태와 변화 양상을 간략히 정리한 후 우리나라 수산업을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02 우리나라 수산정책의 변화

가. 1960~1970년대 생산 위주의 수산정책

우리나라 수산업은 지난 1960~1970년대 식량산업의 수산물 수급에 부응하기 위해 현대화된 어구 어법을 도입하여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 왔다. 즉, 해방 이후 증가하는 수산물 수요와 식량산업으로써의 사회경제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집약적 수산자원 개발이용 정책을 펼쳐왔다. 생산위주의 어업정책을 유지해 온 것이다. 이 같은 생산위주 증산정책의 결과 연근해 상업적 어업을 중심으로 어업에 대한 과잉노력의 투입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주요 수산자원의 남획과 고갈이 새로운 수산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후반에 들어 이미 주요 어업어종이 남획 현상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어업이 가져온 자원환경적 영향도 점차적으로 심각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수산자원의 개발이용과 자원환경 문제가 지속적 수산업 발전에 새로운 문제점으로 등장하였고, 효과적인 어업자원 관리 없이는 적정수준의 어획량 유지가 불가능함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수산자원의 보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어업자원 관리를 위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나. 1980년대 어업자원 관리 위주의 수산정책

1980년대는 수산업에 있어서 수산자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수산정책 변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심화되는 수산자원 남획현상에 대한 어업자원 관리의 효율성 문제가 수산정책에서 중대하게 다루어졌다.

1980년대 수산자원의 개발이용에 따른 주요 수산문제는 ① 어업자원 관리의 실패, ② 과잉어업 세력, ③ 수산보조금의 경제적 손실, ④ 수산기술의 자원환경 문제, ⑤ 수산자원의 다양한 산업적 이해관계 심화 등이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① 과학적 어업자원 관리, ② 수산문제의 자원경제적 통합접근, ③ 지자체 간 수산협력, ④ 고질적인 남획 문제 해결, 그리고 ⑤ 어업자원 관리의 예방적 접근 등과 같은 포괄적인 수산정책이 추진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에는 연근해어장이 과잉 개발되면서 어업의 생산증대 중심의 수산정책에 한계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어장개발과 증산 및 확대중심 수산정책은 결국 과잉어업 세력과 남획이라는 문제를 낳게 되었고, 남획이 지나는 왜곡적 자원환경 변화가 어체의 소형화와 단명화와 같은 생물적 왜곡현상을 가져왔다. 이같은 변화는 생산위주의 수산정책이 지니는 자원환경적 영향이 심각하게 진행됨을 보여 주었으며, 나아가 수산자원의 경제적 지대가 심각하게 소멸되는 현상을 낳았다. 이에 대응한 수산정책은 주로 어업자원 관리에 대한 최대지속적어획량(MSY) 기준점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어업구조조정을 통해 자원과 균형을 이루는 어업세력의 유지가 수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산업적 위상을 강화하는 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다. 1990년대 전반기의 지속적 수산업 발전정책

1990년대 전반기에는 자원환경 보존과 지속적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 자원환경과 조화로운 지속적 성장발전에 대한 새로운 정책변화를 야기했다. 사실 과거 수십 년 동안에도 이 같은 변화가 지속되어 수산업 발전에 불가결한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구체적인 수산정책적 이행은 1990년대에 들어와 점차 가시화되었다.

1990년대 지속적 수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수산정책의 방향은 ① 자원환경과 어업문제, ② 어류 서식지와 같은 중요한 생태계의 보호, ③ 어업과 양식업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의 최소화, ⑤ 국제적 관리규제에 대한 협력강화, ⑥ 수산물 국제교역의 자원왜곡적 비관세 장벽과 같은 수산업 문제에 두었다. 그리고 지속적 수산업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자원관리 중심의 수산정책 기본 틀을 수산자원의 합리적 개발이용과 과잉어업 세력 해소에 대한 자원환경적 어업자원 관리에 두었다. 자원환경의 변화에 따른 수산업의 구조조정과 함께 자원환경과 수산경제의 상호관계에서 수산업이 직면하는 환경적 문제가 다양하고 복잡하게 전개되어 수산정책의 새로운 요인으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라. 1990년대 후반기의 생산기반 안정화 정책

1990년대 후반기에는 국제적으로 공식 발효된 유엔해양법이 보다 강화된 어업자원 관리 규정을 담고 있어 국가의 수산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배타적경제수역(EEZ) 시대에 기반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도입하면서 국내 어업은 물론 수산자원의 무분별한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인접국인 일본과 중국 간의 어업관리 규제를 강화하였다.

이 시기에는 연근해어업의 어선감척사업이 주된 정책으로 추진되었다. 연근해어업에 이루어진 기존의 정책은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실질 어획노력량은 점차 증가하고 수산자원 감소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근해어업의 정체에 따른 상대적 대체 공급원으로 양식개발 정책이 보다 강화되었다. 양식정책의 강화는 주요 양식품종의 생산량 증가와 어류 및 기타 품종에 대한 양식 기술의 발달로 양식품종을 다양화시켰다.

양식정책은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품종에 대해서는 신규면허를 억제하는 등 나름대로 적정 생산을 위해 노력을 해왔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양식어장 개발을 계속해 왔다. 특히 계층 간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양식기술이 확립된 김이나 미역 등의 품종에 대해서는 어촌계에 계속 면허를 내주었다. 뿐만 아니라,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 사이 어류(조피볼락)양식 생산량의 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전남지역에 양식면허를 내주는 등 일관성 없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그 결과 자금압박을 견디지 못한 몇 명의 어류양식 어업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마. 2000년대 안정적 발전기반 강화정책

2000년대 수산정책은 우리나라 수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기반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이 시기에는 어업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지역 간, 업종 간 갈등이 표출되었고 어선감척에 대한 자원회복 효과와 불법 어선 정리의 어업질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자율관리어업은 시작한 지 수년이 지나면서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 보호 및 불법어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되는 등 어촌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 중요정책이 되었다.

2000년대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주요 수산정책은 ① 연근해 생산요소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다. 연근해 수산업이 당면한 문제는 불안정한 생산요소(어장, 어선, 선원)가 지니는 어업 생산성 감소였다. 연근해 어장의 자원 생산성의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었고 어선 노후화와 선원수급의 불안정이나 인력구조의 고령화로 어업 생산성 감소가 진행되었다.

② 친환경 양식정책을 보다 강화하였다. 연근해어업의 생산성 둔화가 계속되면서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역점을 둔 양식전략화가 주요 정책으로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양식정책도 전략품목 종묘생산과 신개념 양식기술 개발, 친환경 갯벌양식 육성, 참다랑어와 해삼 완전양식 기술개발, 전략 품목별 연구클러스터 구성, 전복 외해중층 가두리 사업 등이 추진되었다. 이처럼 양식업이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을 더해가면서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가중되었다.

③ 수산업, 어촌의 다면적 기능을 강화하는 수산정책이 도입되었다. 국민소득 증가와 이에 따른 관광

레저 활동이 급증함에 따라 어촌경제의 어업 외 소득원이 증가하고, 어촌지역은 고도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새로운 삶, 관광레저, 휴식공간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잘 활용해 수산자원 감소와 수입증가로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어업소득을 대체할 새로운 소득원으로서 그 가능성을 고려한 수산정책이 추진되었다.

④ 수산업의 녹색성장을 유도하는 수산정책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2000년대 녹색성장시대를 맞이하여 녹색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녹색수산업이 소개되었다. 지속적 발전을 위한 녹색성장 수산정책과 이를 위한 초기단계의 녹색성장 수산행정체계가 구축되었다.



그물을 손질하는 어업인들

03

미래 수산업을 위한 21세기 수산정책

가. 21세기 미래 지향적 수산정책론

21세기 정보산업시대를 맞이하면서 해양산업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고도로 발달된 과학기술과 정보산업에 힘입어 해양자원의 다양한 산업적 개발이용과 인류 미래산업으로서의 그 실용적 가능성 및 산업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 같은 21세기 해양산업에서 수산업이 지니는 역사성과 산업적 역량에 비추어 볼 때 향후 해양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수산업이 중추적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21세기 수산업은 인류의 미래산업인 해양산업을 선도하고 나아가 식량산업이라는 사회경제적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 자원환경과 조화로운 산업기반을 구축하고, 자원환경과 자원보존을 통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질(質) 위주의 경쟁력 있는 복합 산업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한 자원환경 속에 시장 지향적 수산자원 개발이용 및 보존관리를 원칙으로 수산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고도로 발달된 과학기술과 정보산업의 총아로 등장하는 미래의 해양산업과 더불어 수산업이 지속적이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산업구조 체계를 위한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연안자원의 다양한 산업형태의 이용개발과 함께 자원환경과 조화로운 어업생산과 관리 시스템, 유통·가공·소비에 이르는 종합적인 산업구조를 갖춘 환경 친화적 수산경제 체계를 구축하는 산업정책이 요구된다.

친환경 수산경제의 생산체계는 깨끗하고 풍요로운 바다의 자원환경 및 생태 지속적 자원체계를 바탕으로 자원환경 및 자원과 수산경제 활동의 조화를 통하여 지속성 있는 어업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청정수산물 위주의 산업적 경쟁력 강화와 자원환경이 지니는 환경적 자본 가치를 극대화하고 나아가 수산업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는 21세기 비전 있는 산업을 지향하는 것이다. 따라서 21세기 미래 수산정책은 환경 친화적 생산체계를 통하여 산업적 발전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자원환경 및 수산자원의 개발이용에 따른 사회적 후생 극대화의 달성과 동시에 미래 세대의 사회적 후생을 고려하여 어업생산과 어획물의 이용·가공·유통·소비의 경제활동 부문을 자원환경과의 일체화 또는 균형적인 경제구조가 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수산경제와 자원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적 생산을 유지하는 어업형태로서 어업생산의 경제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환경 및 생물자원의 보존과 이들을 결합한 수산물의 사회적 가치보존 및 극대화와 식품의 안전한 소비 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시스템적 경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수산자원과 자원환경을 관리·보존하여 자원공급체계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어업생산의 수익성과 경제성을 확보함으로써 어업자의 소득증대 및 어업활동 의욕을 고취하여야 한다. 또한 청정수산물의 안정된 수급을 통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식량산업으로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여야 한다.

넷째, 수산자원과 자원환경에 대한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개발이용과 효과적인 보존관리를 확신할 수 있는 어업행위 규범과 기본원칙 그리고 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고취하여야 한다.

나. 우리 수산의 미래 글로벌 수산정책

최근 국제통상구조의 급속한 세계화로 수산업에도 지구촌 경제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수산물의 생산과 소비 활동 모두가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글로벌 친화적 수산업 기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수산업의 산업 경쟁력 제고는 수산정책의 주요 과제이며, 그 역할과 기능이 재조명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 수산업은 주요 수산자원이 심각한 남획에 직면하면서 글로벌 경쟁과 예측 불가능한 시장 환경에 놓일 전망이다. 수산정책이 이 같은 위기 상황을 막지 못한다면 수산업은 자칫 도태의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 산업 안목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글로벌 수산정책과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수산업을 미래 글로벌 산업으로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은 ① 수산업의 기술혁신과 수요 지향적 가치혁신을 통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고부가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성장기반 강화 정책이다. 현재의 수산정책은 지금까지의 성장요소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감으로써 산업발전을 견인할 수 있었지만, 미래의 수산정책은 전혀 새로운 동력에 의해 창출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장위주 수산정책의 한계를 돌파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거두기 위해서는 수산정책의 방향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② 정부, 지자체 그리고 수산인의 파트너십과 네트워크를 통한 수산문제 해결이라는 거버넌스 시대정신이 녹아나는 수산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수산업에서 거버넌스(governance)는 정부의 일방적 관리규제(government)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적 관계에 입각한 수산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수산업의 거버넌스 중심정책은 수동적인 수산인을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수산인으로 전환시키고, 그들의 역량강화로 수산업 거버넌스에 참여하게 하여 능동적인 정책주체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③ 미래 수산정책은 우리 수산업을 국내는 물론 항상 글로벌 수산업과 함께하는 유인책을 가지도록 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수산업이 소비자 지향이라고 하여 국내 소비자에게만 시선을 고정시키면 발전이 정체된다. 국내 수산물 소비자들이 국경 없는 수산물 시장을 선호하게 된다면 수산업은 존립의 차원에서 글로벌 시장에 맞추어 변해야 한다.

④ 지자체가 자율성을 지니고 스스로 수산업 성장의 주체가 되는 지방화 수산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지자체가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스스로 해당수역을 관리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가 수산업 발전의 중심이 되고, 지역의 기회균등과 공간상 발전 잠재력이 증진됨으로써 어촌 정주력을 증대시키고, 궁극적으로 수산업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⑤ 미래 수산정책의 생산성은 기술생산성보다 자원생산성에서 지속적 발전요인을 찾아야 한다. 수산정책이 생산증대에 역점을 둔 기술개발에 의한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의 추구는 남획이나 과잉어업 세력과 같은 해결이 불가능한 수산문제를 가져온다. 어업자들은 생산량보다 매출액 증대로 관심을 옮기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성장과 발전요인을 확보하려 한다. 과거 성장 위주의 수산정책 발전전략이 점차 그 효력을 잃어간다는 분석이다. 성장 위주 수산정책의 한계는 외부적 환경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생적인 자원남획 문제이며, 바로 성장 위주 수산정책의 결과에 따른 자원량의 감소이다.

● 수산업에서 자원량의 감소는 산업의 성장세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자원이 지나는 자연생산성의 극대화 정책을 통한 지속적 수산업의 발전요인을 찾아야 한다.

⑥ 미래 수산정책은 재정중심 지원정책에서 시장(동기)중심 산업정책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수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비용절감이나 이윤조장과 같은 재정중심 지원정책보다 산업의 기초 자생력 내지 새로운 성장 기회요인 확보를 위한 시장(동기)중심 산업정책이 중요하다.

국내외 수산업 여건변화에 따라 생산 및 시장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어 산업 경쟁력 기반 강화를 위한 새로운 성장기회요인은 시장중심 산업정책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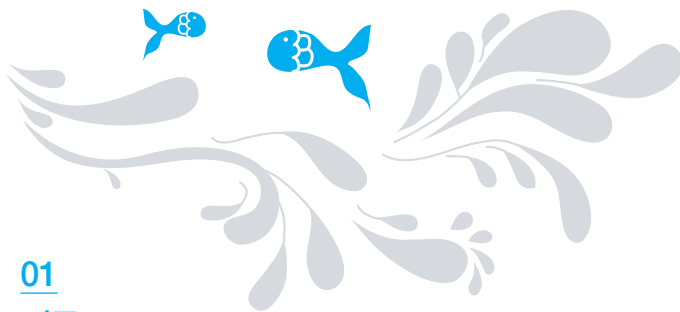


김 부류식 양식장

수산경영

어업경영의 미래와 도전

수 산 경 제 연 구 원 | 조 용 준 선임 연구원



01 서두

오늘날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에게 가장 어려운 점을 물으면 제일 먼저 답하는 말이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말로 어업활동이 어렵다는 것이고, 어업을 경영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보면 어업경영이란 용어는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함축하는 개념이 된다. 어업경영의 미래를 논하기에 앞서 어업경영의 범위 또는 정의가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어업경영이란 어업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투입되는 제반 물자, 경비, 조직 분야와 이를 통해 산출되는 수입 등 투입 대비 산출요소를 포괄하는 경영관리 분야, 그리고 어가수지, 어가소득, 어가자산 및 부채 등 어가경제 분야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그 미래를 논하고자 한다.

1970년대 이후, 경제가 급성장을 하면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1980년 101만 원에서 2010년 2,400만 원으로 약 24배의 엄청난 증가를 보여 왔다. 이에 따라 어업가구의 소득도 증가하였는데, 1980년 260만 원이었던 어가소득은 2010년 3,570만 원으로 11.7배의 상승이 있었다.

하지만 국가 경제 전체의 증가율에 비교하면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절대수치의 비교는 곤란하겠지만, 2010년 가구수인 2.7명을 기준으로 단순 비교해도 일반 국민 대비 55%에 불과한 수준이다. 최근 10년간의 소득증가율을 비교해도 1인당 국민소득은 6배 상승한 반면, 어가소득은 3.5배 증가에 머물러 2000년대에 와서도 어가소득 증가율은 낮은 수준이다. 이는 그 만큼 어업경영환경이 어렵다는 증거이고, 수산업에 신규로 진출하려는 의욕을 꺾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02

어업경영의 과거와 현재

먼저 어가경제 측면에서 어업경영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자. 농가와 비교한 어가의 소득은 10년 전인 2000년에는 1,972만 원으로 농가의 2,307만 원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농가소득 3,312만 원보다 7.8% 높은 3,570만 원을 보이고 있다. 이는 양식 수산물의 생산량이 증가되었고, 어선어업에서는 감척, 종묘방류, 연안어장 정화활동 등 자원관리 노력의 효과로 어획량은 평년 수준을 유지한 대신, 수요의 확대로 수산물 가격이 상승해 준 덕분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여전히 어가소득은 국민 전체 대비 낮은 수준이다.

어가소득이 농가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고는 하나, 어가자산과 어가부채의 세부적 내용을 살펴보면 위의 긍정적인 효과는 상쇄되고 만다. 어가의 자산은 최근 10년간 2.1배 증가한 데 비해, 부채는 6배 증가하여 자산보다 부채의 증가폭이 훨씬 커지고 있다. 반면, 농가는 동기간 2.3배의 자산 증가, 1.4배의 부채 증가를 보여 부채보다 자산의 증가가 더 크게 이루어졌다. 이로써 어가는 단순 소득수준이 아닌 실질소득 측면에서는 농가보다 뒤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보다 심각한 것은 1990~2000년 사이의 부채증가율(2.3배)보다 최근 10년(2000~2010)년 간의 부채증가율(2.6배)이 더 높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1990년 9.7%, 2000년 11.3%, 2010년 13.8%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어가의 실질적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지표인 것이다.

부채는 어업유지율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채율의 증가는 어업의 장기적 발전에 장벽이 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상대적 박탈감이다. 2000년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도시 가구의 자산 규모를 크게 증가시켰다. 이로 인해 어업인들은 자신의 자산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로 도시-어촌 간 실질적 자산 격차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업인들이 점차 사회적 약자로 전락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어업경영 측면에서 살펴보면 연근해어업의 경우, 어업에 투하되는 비용요소는 크게 출어비, 임금 및 일반관리비, 감가상각비로 구분할 수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출어비는 어업비용 중 약 4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금 및 일반관리비가 49.5%, 감가상각비가 2.8%이다. 연근해어업의 특징은 타산업과 비교해 출어비와 같은 소모성 투입재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특히 출어비 중에서 연료비의 비중은 지난 30년 평균 4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90년 드럼당 2만 5,000원이었던 면세유 가격은 2011년 18만 원으로 20년간 7.2배 상승해 출어비 요소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로 인해 최근 어업인들의 출어 포기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유류가격은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유류수요의 증가와 튀니지의 재세민혁명에서 비롯된 중동지역 정치 불안정으로 변동성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업경영수지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임금 및 일반관리비 부문도 문제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임금이 어업총비용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지난 30년 평균 35.7%이다. 이는 유류비가 어업총비용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인 20%보다도 더 높아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중요요소이다. 다행스럽게도 인건비는 지난 20년간 4.4배 정도 증가해 유류비 증가율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고, 다른 요소와 비교해도 평균수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다른 산업에서의 인건비 비중과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은 아니다. 문제는 인건비보다는 선원부족에서 오는 어업경영의 부담이다. 수산업은 EBS 다큐멘터리 ‘극한직업’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소개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3D 업종이다. 대부분의 국민들도 수산업을 3D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 결과는 어선원의 유입을 막았고, 어선원 부족은 어업경영을 압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인력수급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선원의 유입이 증가되고 있지만 수요를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2011년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추가 요구인원은 8,105명인데 비해, 도입정원은 1,750명으로 필요 인원의 20%수준에 불과했다.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제도 및 운영 측면에서도 미비한 점이 많다. 외국인 인력의 잦은 무단이탈과 언어의 장벽에서 오는 소통의 문제, 외국인에 대한 차별 등은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생산성 측면에서도 더 높은 수준의 효율성이 요구되고 있다. 양식어업에서는 종묘기술 개발, 폐사율 저하, 고효율 사료개발 등이 필요하다. 전복은 현재 폐사율이 30~40%나 되고, 양식기술이 정상 궤도에 진입한 지 오래된 넙치도 아직 20%라는 높은 수준의 폐사율을 보이고 있다. 김, 미역 등의 해조류는 국제신품종보호동맹으로 인해 종자비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굴은 환경 보호의 강화로 인해 폐각 처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조피볼락은 사료비의 비중이 60~70% 수준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연근해어업은 신규어선 건조가 저조한 가운데 노후어선의 비중이 증가되어 연료효율이 떨어지고 수리비가 증가되는 등 생산성 부문에서의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03

어업경영의 미래와 도전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수산경영은 잿빛으로 보인다. 마치 노후한 어선 한 척이 태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맞서다 곧 침몰할 것 같은 풍경이 연상되는 듯하다. 그러나 앞에서 제시한 것은 어업경영에 있어서의 어려운 현실을 증점으로 살펴 본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해결하려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험 많고 유능한 선장이 키를 잡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면 태풍 속에서도 안전하게 고향의 포구로 돌아 올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현재도 이러한 폭풍우를 헤쳐 나가기 위해 모든 수산인의 노력과 도전이 지속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노력과 도전이 쉬운 것은 아니다. 앞으로의 10년은 과거의 30년보다 오히려 더 많은 변

● 화와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수산경영은 그 기반 자체가 물고기를 잡는 것에 의지한다. 최근 급속한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우리나라 어장환경이 크게 변동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변화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또한 환경보호에 대한 규제가 높아져 수산업에도 많은 규제가 뒤따를 수 있다. 수산경영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변화의 조짐들이다. 유류 등 어업경영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요인들의 변동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러한 요인은 미래 우리 어업경영에 큰 위협으로 작용한다. 최근 수산업분야는 이러한 여러 가지 불안요소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위한 여러 기반들이 갖추어지고 있다. 이는 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수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건강·웰빙 열풍으로 수산물 소비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수요의 확대로 인해 수산물 가격은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갯벌 및 해안가를 중심으로 한 체험관광 산업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혀 가고 있어 어업에 활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어업을 둘러싼 긍정적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어가경제도 장기적으로는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식업도 꾸준히 성장해 연 3~4%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어업경영에 있어서도 지난 30년간 총비용이 6.6배 정도 상승하였는데, 어업수익 또한 6.5배 증가하여 총비용 상승만큼의 수입 증가가 있어왔다. 이러한 기회의 확대를 잘 이용하고 준비한다면 어업경영의 경쟁력은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 미래의 어업경영은 녹색경영과 효율화라는 큰 화두에 직면할 것이다. 미국의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와 피터 드러커는 21세기 주력산업으로 양식업을 지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6년을 기점으로 양식어업의 생산량이 연근해어업 생산량을 넘어섰다. 양식업은 향후에 더욱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양식업도 현재의 상태만으로는 더 큰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친환경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도 미래에는 더욱더 높아질 것이고 환경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양식업에서도 녹색경영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종묘기술에 대한 개발이 필수적이다. 육종기술 개발 및 품종개량을 통해 질병에 강하고 성장이 빠른 품종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바다의 오염을 최소화 하는 양식장 환경개선을 통해 폐사율을 저감하고 수산물의 질을 높여야 한다. 고효율 맞춤형 배합 사료의 개발 및 보급이 시급한 이유이다.

연근해어업은 생존을 위한 더욱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다. 수산자원 관리 및 육성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할 정책적 요소이다. 이를 차치하더라도 어업경영의 효율화 및 생력화를 통한 녹색어업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특히, 연근해어업은 에너지를 많이 투입하는 업종이다.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비용 절감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LED 기술의 개발 및 보급, 고효율 엔진의 도입, 과잉 마력에 대한 제한, 유류저감장치의 보급 등이 필요하다. 또한 생력화 어구 개발 및 어구개량을 통해 어구비 절감과 아울러 친환경 어업으로의 전환도 모색해야 한다.

● 노후어선에 대한 우선 감척, 무리한 조업활동의 자제, 소모비 등 간접비에 대한 절감 등도 미래의 우리 어업경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미래에는 어선원 부족으로 인한 외국인선원의 비중도 점차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선원의 관리체계도 보완·점검해야 한다. 미래를 대비해 외국인선원의

문화를 고려한 선원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어업경영 효율화 및 녹색경영이 조기에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어업경영 분야도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어업인 1인당 총산출액은 2만 5,000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일본은 7만 4,000달러 수준이며, 수산업 강국으로 불리는 노르웨이는 17만 달러, 영국은 22만 5,000달러 수준이다. 현재는 우리나라가 영국의 1/10, 일본의 1/3수준이지만, 어업경영의 효율화와 녹색경영을 통해 앞으로 10년 뒤에는 우리나라도 수산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대응책들은 현재의 수산경영환경을 고려해 봤을 때 쉽지 않은 도전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꼬여있는 실타래도 의외로 한 줄만 잘 풀면 나머지는 술술 풀릴 수 있다. 한 사례로 어업이 주력인 일본의 어떤 현에서는 소득이 도시보다 높은데, 처음에는 어렵고 힘든 산업으로 인식되어 시집오는 여자조차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주말에는 자체적으로 휴어를 하고, 조업 시간도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여가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더니 그 이후부터 도시에서 시집오는 여자들이 점차 늘어났고, 어업강도가 낮아지니 자원도 증가하는 효과를 보았다고 한다. 그리고 아이들도 많아져 활기찬 마을이 되었다. 조그만 사례에 불과하지만, 현재의 우리 어업경영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이러한 작은 대안부터 마련해 실천해 나간다면, 10년 뒤 우리의 도전은 안정적 어업경영과 풍족한 어가소득이라는 결실을 가져다 줄 것이다.



2008 어촌사랑 공모전 동상 수상작 - 동해 일출(임경필)

수산금융의 미래

수 산 경 제 연 구 원 | 이 미 용 책임 연구원



01

수산금융의 기틀 마련

수산금융은 어업, 수산 양식업, 수산물 판매업, 수산가공 제조업 등 수산업 부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거나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수산업은 어장설비 및 어구, 어선 등 기초 자산의 금전적 가치가 낮고 담보력이 약하기 때문에 일반은행에서는 수산금융 취급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정부의 출자은행 또는 정부보조에 의한 특수금융기관을 통해 수산금융을 취급하도록 입법화해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62년 1월 20일 수협법이 제정되면서 수협중심의 수산금융 지원체제가 마련되었다. 이는 그 이전까지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고리대금을 일삼고 있던 객주세력을 퇴치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02

수산금융의 사명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수산금융은 어업인들에게 어업활동에 필요한 경비, 즉 영어자금을 융통해 주는 일부부터 시작했다.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 만큼 영세했던 어업인들에게 어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경영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다.

1962년 불과 5,000만 원 규모로 출발한 연근해 영어자금 공급액은 그간 수산업의 성장과 물가상승을 거치면서 2011년 현재는 1조 6,850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예나 지금이나 수산금융 중 가장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영어자금을 비롯한 수산금융의 상당부분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조절되는 수산정책자금을 바탕으로 한다. 정책자금이란 본래 금융시장이 실패한 분야에 대해 필요한 자금을 보완해주는 것인 만큼 시중금리보다 저렴하게 융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문에 정부는 수산정책자금 취급에 따른 손실을 이차보전이나 대손보전기금을 통해 보상해 준다. 하지만 이러한 보전제도가 정책자금 취급 금융기관의 기회비용과 손실을 온전하게 보상해 주지는 못한다. 따라서 수산정책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수산업과 어업인에 대한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져야만 한다.

수협은 그간 수산금융에 대한 사명을 충실히 잘 수행해 왔다. 심지어 1981년부터 1987년 3월까지 수산자금에 대한 정부의 이차보전이 중단되었을 때에도 수협은 수산자금 융통에 따른 손실을 감수하면서 수산업과 어업인을 지원했다. 이것이 수협을 시중은행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03

수산금융의 어제와 오늘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수산금융은 어업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투자에 집중되어 왔다. 물론 수산물의 냉동 및 저장·가공을 위한 시설 건립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시설투자조차 늘어난 생산량을 보조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당시 수산금융의 주요 목표는 1차 산업으로서의 수산업을 성장시키는 것이었다.

1990년대 들어오면서 수산자원과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수산금융의 움직임은 보면, 여전히 생산성 향상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양어업경영자금이 신설되는 등 원양어선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고, 양식어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었다.

수산업과 수산금융의 패러다임이 본격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들어와서부터이다. WTO/DDA과 같은 국제 협정이 수산자원의 남획 방지, 자원회복 노력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어획량 향상을 위한 투자에 수산금융이 집중되지 않도록 제동을 걸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와 함께 오늘날 수산정책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수산업과 운명을 같이하는 수산금융은 어장환경을 관리하고 고갈된 수산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한 투자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또 다른 차원에서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수산금융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어선펀드 또는 어선리스가 그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근해 어선의 평균 선령은 24년이고, 원양어선은 선령 21년 이상 된 어선이 85.7%에 달한다. 어선의 노후화는 어선사고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낙후된 어선공간

으로 인해 어선원의 승선기피를 초래하기도 한다. 그런데 어선은 일단 특정용으로 건조가 되고 나면,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가 어렵고, 매입시점부터 감가상각이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어업인들은 어선 교체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막상 교체비용을 감당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수산 금융은 어선펀드나 어선리스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

수산금융의 용도가 다양화되는 동안 수산금융의 재원 구성에도 변화가 있었다. 초기 수산금융은 거의 대부분의 자금을 정부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수협은 그동안 '100억 원 자체자금 조성운동', '뉴스타트 180운동', '점프 2&2 운동', '중앙회출자금 자율증대운동' 등을 통해 자체자금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왔다. 덕분에 현재 수산금융의 상당부분을 수협이 책임지고 있다. 이는 수협이 협동조합으로서 제 모습과 역할을 향해 바람직한 길로 가고 있다는 신호이다.

04

수산금융의 나아갈 길

21세기 수산업은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OECD와 FAO의 전망대로라면 수산업, 특히 수산양식은 2020년까지 연 2.8%의 성장을 지속할 것이고 이는 다른 어떤 식량산업 보다도 높은 성장세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세계 식량난에서 수산업이 구원산업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게다가 오늘날 수산업은 1차 산업을 바탕으로 2차 제조업과 3차 서비스업까지 아우르는 6차 산업을 지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리 수산업이 성장잠재력이 높다고 하더라도 수산업을 영위할 어업인들이 당장의 경영어려움으로 수산업을 포기한다면 21세기 신성장 산업으로서의 수산업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되고 만다. 어업인들이 수산업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 신규 어업인들이 늘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산업에 대한 투자, 즉 수산금융의 공급 확대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수산금융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지원조건과 성격이 결정된다. 따라서 수산금융의 공급 확대는 저리의 수산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우선 오늘날과 같은 저금리 기조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비춰볼 때, 지난 2004년 이후로 3%를 유지하고 있는 영어자금의 금리인하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시중금리 11~15%대의 고금리시대에 영어자금 금리 4.5~5.0%를 적용했던 90년대 중반(1994~1998년)의 어가 감소율이 연 $\Delta 2.7\%$ 였던 데 비해 시중금리 5%대의 저금리시대에 영어자금 금리 3%를 적용하고 있는 최근(2005~2010년)의 어가 감소율이 연 $\Delta 3.8\%$ 로 나타나는 것은 순전히 우연만은 아닐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영어자금의 공급률도 확대되어야 한다. 2012년 현재 영어자금 소요액 대비 공급률은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영어자금의 공급률을 최소한 50% 이상으로 높임과 동시에 어업인의 신용 및 담보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어선 리스나 어선 펀드의 도입은 양식 투자의 확대와 더불어 우리나라 수산업의 준립을 담보하는 중요한 일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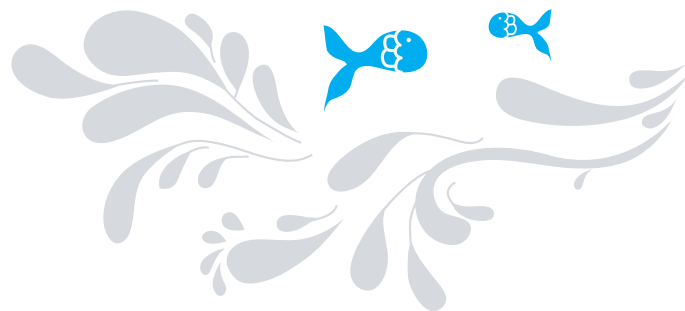
수산업에 있어 수협역의 역할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높아짐을 고려하여 수산물의 위생적인 생산 및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투자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HACCP 등 품질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수산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수산물의 수출입을 지원하는 자금도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 각국의 다양한 기호에 맞춰 수산물을 가공·포장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거나 우리나라 수산물 판매를 위한 해외 직영점 설치, 해외 어장 개발 등에 대한 투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창립50주년 기념 사진공모전 입선-격포항의 휴식(이명우)

안정적 어업생산의 필수 동반자 —수산보험

수산경제연구원 | 김현용 연구실장



01 보험의 기원

보험에 관한 세계 최초의 유사 기록은 기원전 2250년경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에서 찾을 수 있다. 법전에는 “해상무역 종사자는 사고발생 시 채무를 일부 혹은 전부를 면제 받는다”는 조항이 있다. 이 기록이 명확히 보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도 어떤 형태로든지 현재의 보험과 같이 위험을 분산시켜주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근대적인 보험은 지금부터 900여 년 전 12세기 중반 중세시대, 해양국가로서 지중해를 통해 교역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처음 생겨났다. 무역을 하는 상인들이 배의 침몰로 상품을 잃고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위험을 나눈 것이 세계 최초의 보험이다.

우리나라에 보험이 처음 들어온 것은 1897년 무렵이었다. 그해 6월에 발행된 보험증서가 확인되었는데, 최초의 보험대상은 ‘소’였다. 대조선보험회사가 함경도에서 발행한 ‘소보상보험증권’에는 소의 털 색깔, 뿔 여부 표시가 있고, 소의 크기에 따라 대우는 100냥, 중우는 70냥, 소우는 40냥의 보험금이 책정되었다. 보험료는 일괄적으로 마리당 1냥이었다.

보험은 각국의 생활여건과 시대적 환경에 따라 발전하는 것이다. 경운기가 보급되어 축력을 대신하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농촌의 소는 농경생활의 중심이었고, 가장 중요한 가축으로서 가족과 같은 존재, 재산목록 1호였다. 이의 방증이 사람 아닌 소가 우리나라 보험 1호였다는 것이다.

02

수산보험의 시작

협동조합에서는 일반 보험회사와는 달리,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보험 운영의 근거 법률 차이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협동조합으로서 조합원을 보호해야 하는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다. 즉, 수산업 자체가 '바다'라는 자연여건 속에서 활동이 이루어지고 어선의 피해가 바로 어업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수협이 운영하는 수산보험으로는 어선원과 어선의 안전을 지켜주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과 양식 어업인의 안정적 생산을 보장해 주는 양식보험이 있다. 물론 수협에서는 이 외에도 조합원과 준 조합원을 위한 여타 다양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해상보험이 세계 최초의 보험이 된 것은 그만큼 바다가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해상 무역이 발달한 시대적 환경과 연계된 것이기도 하지만, 바다라는 자연적 환경과 재해의 다발이 보험을 발전시킨 것이다. 우리 수산업이 그 위치에 있다. 바로 바다가 삶의 터전이므로 당연히 보험이 일찍부터 도입되었어야 했다.

수산보험 중 어선보험의 시작은 1937년 9월 조선어업조합중앙회가 발족되면서 조난어선에 대한 구제 사업으로 어선공제사업을 실시한 것이 효시이다. 1944년 3월 조선수산업회가 어선공제사업을 승계 하였으나 해방과 함께 사업이 중단되기도 한다. 1952년 11월에는 대한수산중앙회가 설립되면서 어선 공제사업을 재개한다. 선원 보험은 1958년 5월에 선원의 해난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하여 선원공제 사업을 실시하면서 시작된다. 수협법이 1962년 1월 20일 공포되고 4월 1일 시행되면서 수협중앙회가 어선공제와 선원공제사업을 최종 승계하였다.

이후 정부에서는 어선공제 및 선원공제를 정책보험으로 전환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2004년 1월 1일부터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을 시행하면서 선원공제의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이것은 기존 수협 사업으로서의 보험이 아니라 육상 제조업의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같이 어선 근로자의 사회보장 보험으로서 별도로 발족한 것이다. 그 동안 선원공제의 경우, 25톤 이상의 어선은 선원종합공제로서 의무가입 대상, 25톤 미만 중 5인 이상 승선어선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 대상, 5인 이하의 수협공제 임의가입 대상 등 3가지로 이원화되어 있어 운영에 애로가 있었다.

어선어업은 어선어업대로 양식어업은 양식어업대로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있다. 양식어업은 2006년을 기점으로 연근해 어선어업의 생산량을 초과했다. 2006년 연근해어업은 111만 톤을 생산하였으나, 양식어업은 126톤을 생산하여 연근해어업보다 13.6% 웃돌았다. 양식어업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양식어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양식보험의 중요성도 부각되어 보험 도입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 갔다.

양식어업은 어선어업보다 인간의 활동과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종묘기술 개발을 통한 계획생산, 생산규모 결정, 출하시기 조절 등이 가능한 어업이다. 양식어업의 생산량이 어선어업을 능가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도 여기에 있다. 인간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어느 정도 생산조절이 가능한 농사의 개념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활동으로 조절이 가능한 양식어업이지만 이런 양식어업에도 가장 무서운 것은 역시 자연재해이다.

자연재해는 어선·양식장 파괴, 어류 소실 등 다양한 형태로 피해를 입힌다. 2011년에만 해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양식시설 20동, 어패류 폐사 2,546만 마리가 발생하는 등 아직도 큰 규모의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태풍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이다. 양식장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재해는 태풍이 가장 큰 원인이다. 필리핀 근해의 열대해상에서 발생하는 태풍은 매년 평균 26개 정도가 발생하고, 이중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은 최근 100년 기준, 매년 평균 3개 정도이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태풍의 영향권에 우리나라가 위치하는 이상, 태풍은 언제까지나 따라다니는 재해일 수밖에 없다.

그 대책은 무엇인가? 그 동안은 정부의 재해복구 지원에 의존했다. 물론 지금도 많은 부분은 그대로 의지하고 있다. 정부의 재해복구 지원은 새로 갱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복구비에 불과하다. 즉, 다 큰 성어가 피해를 입어도 지원은 치어 값으로 해 준다. 그래서 어업인은 피해 본 성어 기준의 지원을 요구하였고,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복구비는 최소한의 지원에 묶였다. 늘 그 괴리 때문에 어업인은 어업인대로 적어서 불만, 정부는 정부대로 무상지원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힘들어 했다.

이러한 괴리를 메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보험이다. 이에 수협은 어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정부 지원에 힘입어 2008년 7월 전격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도입하였다. 처음에는 바다 속의 어류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보험가액 산정의 불확실성, 위험과다에 따른 보험료 과다, 거대재해에 따른 보험사업자의 위험부담 가중 등 운영에 따른 위험과 문제점이 있어 선불리 도입하지 못했다. 그러나 양식어업의 확대에 따른 보험도입의 필요성 증가, 양식어업인의 요구 등이 겹치고, 정부에서도 보험료 예산지원이 결정되면서 양식에도 과감한 보험 도입이 이루어졌다. 2001년에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보다는 늦었지만 이제 수산업에도 재해보험이 도입되었고, 그 중심에 수협이 있었다. 수협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도입하면서 안전한 양식업의 경영에 일대 전기를 마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03 수산보험의 오늘

어선의 인명사고는 매년 140~150명씩 발생하고 있다. 수협에서는 조합, 선주, 어선원 모두가 합심하여 인명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11년만 해도 144명의 아까운 생명을 잃었다. 어선원보험은 이와 같이 선원이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부상, 질병, 신체장애, 사망 등의 재해를 당했을 때 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어선보험은 어선이 해상에서 침몰, 좌초, 충돌, 화재 등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한다. 2010년도 기준 어선원보험에 가입한 선원은 총 3만 4,899명,

가업어선의 척수는 7,233척이었다. 이것은 정책보험으로 전환한 초기 연도인 2004년에 비해 가입 어선원 수는 0.02% 감소, 어선수는 163%가 증가한 것이다. 국가에서 지원한 보조액은 2010년 어선원 보험료 215억 원, 어선보험료 91억 원이다. 수협에 대한 위탁운영사업비로는 181억 원이 지원되었다. 2004년 대비 각각 228%, 344%, 246%가 증가한 수치이다.

양식재해보험의 대상품목은 2012년 현재 12개 품목이다. 2008년 넙치를 처음 도입한 후 계속 확대되었다. 양식재해보험에 보상대상이 되는 자연재해의 범위도 늘어나 2011년까지 태풍, 해일, 적조이던 보상대상이 호우, 홍수, 대설, 동해, 낙뢰 등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보험대상 품목은 2008년 7월 출범 당시 육상수조식 넙치 1개 품목에서 2010년 해상가두리 전복, 2011년 조파볼락·김·굴 등 총 5개 품목으로 확대되었고, 2012년 1월에 참돔·돌돔·감성돔·농어·쥐치·기타볼락 등 6개 품목이 도입되어 총 12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2013년 이후에는 우선적으로 멍게, 미역 등의 도입이 검토될 예정이다. 이들 품목을 모두 합할 경우 양식어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금액 기준으로 80% 이상이 될 전망이다. 양식보험에 대한 국가의 보험료 지원은 보험사업자의 운영비 100%, 순보험료 50%를 지원하고 있다. 보험가입률은 본 사업 궤도에 오른 넙치의 경우 2011년 33%이다.

04

어업인의 동반자 수산보험의 내일

모든 분야에서 보험은 이제 사회적 패러다임이 되었다. 수산보험도 예외는 아니다. 남은 것은 이제 보험 대상과 담보 위험의 확대, 가입률 증대이다. 어업인 입장에서는 생산이 자신들의 업이다. 그 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자연재해라는 걸림돌을 극복해야 한다. 안정적인 생산이 생명줄이다. 안정적 생산의 최고 중심과 정점에 수산보험이 있다. 정부의 복구비 지원은 이제 옛말이 되어 간다. 모든 품목으로의 보험확대, 모든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이것이 수산업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최대의 관건이다. 어선원보험의 경우, 5톤 이상 어선에 적용되고 있는 의무가입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3톤, 1톤 이상, 그리고 일업편주 전체 어선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어선보험은 강제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에 대한 홍보를 우선하여 어업인의 인식변화와 자발적인 가입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 그래야 어업인의 진정한 동반자로 수산보험이 함께 갈 수 있다. 양식보험도 가입대상을 현재의 12개 품목에서 향후 전 품목으로 확대하여 자연재해의 위험에서 한시름 놓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보험의 대상과 위험담보의 종류만 늘리는 데 그치면 반쪽 보험이 된다. 상품의 세련된 구성과 함께 무엇보다 가입률을 높여 많은 어업인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의 지원도 그에 걸맞게 확대해야 한다.

가두리 양식장의 경우, 아직 많이 쓰고 있는 목재형 가두리는 태풍과 같은 물리적 재해에 취약하다. 보험의 확대와 더불어 내파성 가두리로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보험도 결국은 어업

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고율이 높은 목재가두리를 사용하면 보험료 부담이 계속 되어 어업경영에 악영향을 초래한다. 믿음직한 보험에 가입해 있다 해도 안전한 내파성 자재를 사용하면 사고율 감소와 더불어 보험료 인하라는 1석 2조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 때 정부에서는 내파성 가두리로의 전환을 위한 시설지원이 필요하다. 재해감소는 정부의 보험료 지원예산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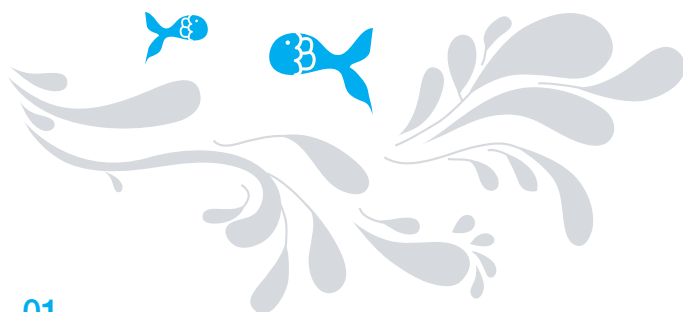
앞으로는 현재의 3종 수산보험과 같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후 보험에 그칠 것이 아니라, 노후 어업인을 위한 수산연금보험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것은 국민연금을 어업인에게 별도로 적용하는 어업인연금이다. 국민연금은 사업장에서 절반을 부담하므로 근로자는 나머지 절반만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어업인은 영세 규모에 관계없이 개별사업자의 형태라는 이유 때문에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어업인으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구별되는 어업인 연금보험을 도입하여 평생을 어업에 종사한 영세어업인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것은 어업에 종사하면서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수산물을 공급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켜준 어업인에 대한 국민의 보답이자 국가의 의무이다. 그래야 노령화로 사라져 가는 어촌을 일으킬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이 유지되도록 젊은 층을 유입하는 길이기도 하다. 국내총생산 대비 0.2%, 인구대비 0.4%도 안 되는 것이 오늘날 수산업의 현실이다. 그러나 수산업은 식량생산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목매어 살아가는 어민이 있고, 국토 파수꾼 역할, 전통문화 유지, 심미적 기능이 파생되고 있다. 그래서 수산업은 잘 안되면 내다 버려도 되는 존재가 아니다. 수산업은 국민 모두가 계속 젊어지고 가야할 생산 원천이다. 수산업을 살리는 것이 미래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고, 국가의 미래를 보장하는 대책이다. 그 기초적인 대책 중의 하나가 어업인의 안정적 생산을 뒷받침하는 영원한 필수 동반자, 수산보험이다. 수산을 뒷받침하는 보험에 수산업의 중요성과 미래도 함께 한다.



수산식품산업

식품산업을 통한 수산업의 도약

수 산 경 제 연 구 원 | 박 준 모 책임 연구원



01

우리나라 수산식품산업의 시작

식품산업이란 일반적으로 식품제조업, 식품유통업 및 외식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식품산업은 식재료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각 단계의 품질과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소비자에게 식품을 공급하고 소비자의 니즈를 생산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수산물 가공은 대부분 전통적인 방식에 의한 가내수공업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대표적인 수산물 가공품은 굴비, 건어물, 젓갈류 등으로 일부는 자가 소비되고 일부는 조정과 왕실에 진상품으로 공납되었으며, 나머지는 5일장 등의 시장을 통해 판매되었다. 이 시기의 수산물 가공은 하나의 산업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식량생산의 일환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의 근대적인 수산물 가공업의 출발은 20세기 초에 조선총독부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수산가공품의 질적 향상과 신제품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와 시험을 수행하였다. 1914년도의 수산시험 계획에 의하면 한천, 키조개, 새우, 건오징어의 시험제조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한천 시험제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경상북도 대구와 전라남도 장성에 한천제조시험소를 설치하였다. 이외에도 키조개, 오징어, 북방대합, 새우, 중국 수출용 염어 및 염건어, 대미 수출용 고등어, 명태어란 등의 제조시험을 실시하였고, 1916년부터는 염어 저장시험을 하였다.

한편 1921년 조선총독부의 수산시험장이 설치된 이후에는 선어냉장, 어류냉장 이용, 동건 명태의 개선,

정어리 처리, 어체의 부분적 가공, 가축사료를 목적으로 하는 어분제조, 정어리를 원료로 하는 통조림의 제조, 털게 통조림의 청변방지, 대구훈제품 신제품 제조 등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였다. 특히 1930년대 이후 정어리가 많이 생산되자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물자부족과 식품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정어리를 이용한 각종 식료품과 대용품 생산을 위한 연구와 시험에 열중하였다.

수산물 식품 제조업은 일제강점기 초기까지는 대부분 해조가공, 자건품, 염장품, 소건품 등 저차가공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해조가공의 대표 생산물은 마른 김이었으며, 자건품은 멸치, 염장품은 고등어, 조기, 갈치 등을 가공한 것이었고, 소건품은 조기가 대표적인 품목이었다. 1915년 수산물 가공품 생산액은 약 780만 원이었는데, 자건품이 23.2%인 181만 원, 염장품이 18.8%인 146만 원, 소건품이 15.1%인 118만 원, 해조류가 11.5%인 89만 원을 기록하였다. 민족별 생산액을 살펴보면 한국인은 소건품, 자건품, 젓갈, 해조류 가공품 등을 많이 생산하였고, 일본인은 자건품과 통조림을 많이 생산하였다.

1930년대 이후 수산물 제조업의 특징은 정어리 생산의 급증에 따른 정어리 가공업의 성장과 정어리를 원료로 하는 비식용 가공품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생산액 측면에서는 소건품, 자건품, 염장품, 해조류 가공품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소건품은 명태 소건품과 새우 소건품이 주요 품목이었으며, 자건품은 멸치 이외에 새우와 까나리, 염장품은 정어리·조기·갈치·청어·고등어, 해조류 가공품은 김 이외에 우뚝가사리와 툇 등을 원료로 이용하였다.

이 시기에도 수산물 식품 가공은 저차가공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통조림의 생산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던 시기이다. 통조림의 생산액은 1930년에 127만 원, 1935년 246만 원, 1940년 433만 원, 1942년 417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통조림 생산의 급격한 증가는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등 1930년대 이후의 전시 체제와 깊은 관계가 있다. 원료로는 고등어와 정어리가 가장 많이 이용되었다. 일제강점기 연도별로 수산물 가공품의 생산액은 1915년에 780만 원, 1920년 2,140만 원, 1925년 3,205만 원, 1930년 3,039만 원, 1935년 6,501만 원, 1940년 1억 8,176만 원, 1942년 1억 4,635만 원을 기록하는 등 27년 사이에 약 190배가량 증가하는 등 급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우리나라 수산물 가공품 성장의 중심에는 수산물 통조림이 자리 잡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수산물 통조림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1892년 전남 완도군 서사리에서 일본인 오가타 리타로(緒方利太郎)가 잠수기와 나잠을 통하여 어획한 전복을 통조림으로 제조한 것이 시초이다.

이후 1900년에는 부산 다대포에, 1901년에는 경남 거제도에 일본인에 의하여 전복통조림 공장이 설립되었다. 광복 이전의 우리나라 수산물 통조림은 대부분 전복을 이용한 극히 초보적이고 영세한 수공업 형태에 머물러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방식에 의한 기업적 통조림의 생산은 1910년에 일본인 누노타니 쿠니타로(布谷國太郎), 사토 히토시치(佐藤彦七) 등이 함경남도 신포에 세운 털게통조림 공장이 생기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동해안과 남해안 지역에 연이어 통조림 공장이 설립되었고 중일전쟁 및 태평양전쟁의 발발로 인한 군납 수요의 증가로 수산물 통조림 산업은 크게 성장하게 되었다.

02

광복 이후 국내 수산식품산업

광복 이전 통조림, 냉동, 한천 등 대규모의 수산물 가공업은 일본인이 독점하였고 그 기술도 일본인에 의하여 습득되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광복 이후 일본인이 귀국한 이후 수산물 가공업은 경영적 측면이나 기술적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국토의 분단과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수산물 가공업의 생산기반마저 상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산물 가공 부문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정부와 관계기관에서 기술연구와 보급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기술원조 및 해외 식품기업과의 교류 등을 통하여 식품가공업 분야에서 큰 발전이 이루어졌다.

1945년 광복 이후 일본인이 독점 경영하던 수산물 통조림 제조시설이 한국인의 손에 넘어왔으나, 경영법과 기술부족, 자재 수급의 어려움, 어획고의 감소, 사회적 혼란 등으로 인하여 수산물 통조림 산업은 침체되었다. 침체된 수산물 통조림이 부활하게 된 계기는 1950년에 발발한 6·25전쟁이었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 수산물 통조림의 군납이 급증하게 되었고, 휴전 이후에도 수산물 통조림의 군납은 지속되어 1958년에 정점을 찍게 된다. 1950년 약 187만 C/S¹⁾(C/S는 cartons의 약자로서 수출용 종이박스의 단위임)에 불과했던 수산물 통조림의 생산량이 1958년에는 1,856만 C/S로 증가하였다.

1950년대는 수산물 통조림의 대부분이 군납으로 소비되었는데, 1951년에는 전체 수산물 통조림 생산량의 75%가 군납으로 소비되었다. 수산물 통조림의 생산량이 가장 많았던 1958년에는 99.7%가 군용이었다. 군납이 대부분을 차지하던 수산물 통조림은 1963년 그 공급이 중단되면서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게 된다. 1970년대 후반에는 수산물 통조림의 군납이 재개되었으나, 통조림의 수요 중심이 이제 수출로 이동한 터라 군납이 수산물 통조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았다.

우리나라 수산물 통조림의 제2의 부흥기를 이끌게 된 것은 수출이었다. 1963년 군납이 중단된 이후 수산물 통조림 업체들은 수출을 통하여 활로를 모색하였는데, 주요 수출품목은 굴, 고등어, 참치, 바지락, 홍합, 콩치, 오징어 등이었다. 1970년 이전에는 콩치, 소라, 굴 등이 주요 수출품목이었으나, 그 이후에는 굴, 고등어, 참치, 홍합, 바지락 등이 수산물 통조림 수출을 이끌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 수산물 가공품은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이 시기의 수산물 가공품 생산은 여전히 전근대적인 가공방식에 의한 저차가공품 위주의 단순가공품을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이었으나 생산량은 점차 증가하였다.

1970년대 이후 국민소득의 증가, 식생활 개선, 통조림 등 고차가공품의 선호 증가, 수산물 가공품의 수출 증가 등으로 고차 수산가공품의 생산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수산물 처리 및 가공시설의 현대화, 수산물 가공기술의 발전, 수산물 가공생산 규모의 대형화, 품질의 고급화 등이 이루어지면서 1980년에는 수산물의 가공비율이 50%를 넘어서게 되었다.

03

오늘날의 수산식품산업

우리 경제에서 어느 특정 산업분야가 차지하는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산업연관표를 활용하는 것이다. 2008년 산업연관표는 우리나라의 산업을 대분류 28개, 중분류 78개, 소분류 168개, 기본부문 403개로 구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수산부문은 수산어획, 수산양식, 수산가공품 부문이며, 수산가공품은 기본부문에서 어육 및 어묵, 수산물 통조림, 수산물 냉동품, 수산물 저장품, 기타 수산물 가공품 등 5개 분야로 분류하고 있다. 수산식품산업은 이 중에서 수산가공품 부문으로 볼 수 있다.

산업부문별로 총산출액 순위를 보면, 수산가공품은 5조 6,792억 원으로 168개 산업부문 중에서 107위를 기록하였고, 수산어획 부문은 4조 6,313억 원으로 113위, 수산양식 부문이 1조 7,383억 원으로 142위를 기록하였다.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수산어획 부문이 1조 7,087억 원으로 93위, 수산가공품이 9,817억 원으로 113위, 수산양식 부문이 5,426억 원으로 135위를 차지하고 있다. 수산식품산업의 총산출과 부가가치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를 살펴보면 수산식품산업의 위치를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다. 총산출은 1970년에 경제 전체의 0.4%를 차지하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여 1980년에는 0.37%, 2000년에는 0.27%, 2008년에는 0.21%를 차지하고 있다. 부가가치 기준으로 보아도 1970년에는 경제 전체의 0.21%를 차지하였으나, 1980년에는 0.18%, 2000년에는 0.09%, 2008년에는 0.1%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가공수산물의 생산량은 181만 톤이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평균생산량은 168만 톤이다. 이중 냉동품이 전체의 67.8%인 114만 톤이며, 해조제품이 7.5%인 12만 5,504톤, 연제품이 6.0%인 10만 1,423톤, 통조림이 5.4%인 9만 1,621톤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산가공산업이 훈제, 염장, 통조림, 발효, 조미 등 고차가공보다는 단순가공인 냉동품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수산가공산업이 냉동품 중심으로 구성된 것은 원물 중심의 소비행태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이나, 수산물 가공 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이전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09년 현재 우리나라 식품제조업의 업체수는 3,916개소, 월평균 종사자수는 15만 3,429명, 출하액은 52조 8,789억 원, 부가가치액 17조 3,525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은 사업체수 806개소, 월평균 종사자수 2만 4,101명, 출하액 3조 4,816억 원, 부가가치액 1조 2,119억 원 등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전체 식품제조업 대비, 사업체수는 20.6%를 차지하고 있으나 월평균 종사자수는 15.8%, 출하액은 6.6%, 부가가치액은 7.0%를 차지하는 것에 불과하여 수산물 가공업체의 규모가 전체 식품산업 평균과 비교할 때 사업체 당 출하액과 부가가치액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수산물 가공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수산물 가공 산업의 규모화가 필요함을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식품산업 분야별 현황조사 2010'에 따르면 식품제조업체, 식품유통업체, 외식업체 등에서 주요 수산물을 구매하는 형태에 나름의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유통업은 김을 제외한 주요 수산물을 원물형태로 구입하고 있으며, 김(상온유통 97.9%)과 고등어(냉장유통 55.2%)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냉동상태로 유통되고 있다.

식품제조업에서는 고등어·조기(굴비)·명태·꽂치·갈치 등은 원물형태로, 오징어는 전처리 및 반가공 형태로 구입하고 있다. 식품제조업에서의 수산물 유통형태는 대부분의 품목이 냉장 또는 냉동 형태로 운반되고 있으나, 오징어와 고등어의 일부가 상온 상태로 유통되고 있다. 외식업의 경우에는 조기(굴비)와 김은 가공 제품으로 구입하고 있으나, 다른 품목들은 75% 이상을 원물 형태로 구입하고 있으며, 이들 수산물 대부분이 냉동상태로 유통되고 있다.

04

수산식품산업의 미래

세계 식품시장의 규모는 2004년 기준으로 약 4조 달러에 달한다. 이는 동일 시점의 세계 자동차시장 1조 6,000억 달러, IT시장 2조 8,000억 달러보다 더 큰 규모이다. 식품의 특성상 경기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고 전 세계 인구증가의 영향으로 식품시장의 규모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수산물의 소비도 단순한 식품의 소비라는 측면을 넘어서 보다 안전한 수산물 소비를 통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려는 욕구를 지니게 되었다.

200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광우병, 구제역, 조류독감과 같은 육류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를 육류에서 수산물로 대체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는 견해들이 나타나고 있다.

수산식품의 마지막 종착지는 소비자이다. 따라서 수산식품의 미래는 우수한 수산물을 소비자들의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형태와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가 결정하게 될 것이다.

과거의 식품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을 공급할 수 있으면 만족하였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소득수준이 상승하고, 식품이 단순한 먹거리가 아닌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요소로 인식되면서 식품소비도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소비자들은 더 안전하고, 저렴하고, 간편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식품의 소비를 원하고 있다.

최근 수산물 소비에서 가장 두드러진 트렌드의 변화는 소비의 고급화, 간편화 그리고 식품안전성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식품소비의 고급화란 소득 향상으로 발생하는 변화로서 동일한 식품에 대해 보다 단가가 높은 고가격 식품에 대한 선호가 증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협중앙회 바다회상 잠실점

수산물 소비에서 2000년 이후 대중어류인 고등어가 6.3%, 멸치가 2.3%, 갈치가 0.8% 증가한 데 비해, 고급어종인 다랑어와 넙치의 연평균 증가율은 22.4%와 9.4%를 기록하고 있다. 피부미용과 다이어트 그리고 몸속 노폐물의 배출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다시마와 미역의 연평균 증가율도 각각 10.8%와 47.7% 증가한 것은 이러한 수산물 소비의 고급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소비자들이 보여준 안전성 위주의 수산물 소비행태 변화는 향후 식품안전성 문제가 수산물 소비에서 가장 큰 이슈로 자리 잡을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수산식품에서 안전성의 문제는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가장 기본적인 판단기준이며,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 되었다. 또한 소비자가 수산물을 소비할 때 원물 상태로 소비하던 과거와는 달리, 가정에서 간단히 조리가 가능하도록 가공된 식품을 선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펠렛·진공팩·반가공 수산물 등과 조미김·포장 회·포장초밥과 같은 완전조리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수산물의 소비행태가 대량구매-장기소비가 아니라, 소량구매-단기소비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패턴의 변화로 인하여 수산식품도 1인분 또는 한끼 식사 분량으로 소포장된 상품들의 인기가 올라갈 것이다.

식품소비의 간편화·외부화·소량화는 국민들의 소득수준의 향상,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핵가족화 특히, 1인 가정의 증가추세와 맞물려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는 수산식품 관련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의미하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사이즈와 품목의 수산식품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향후 식품시장에서 그 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기능성 식품 시장이다. 소비자들은 식품을 섭취하는 가운데 스스로가 원하는 기능을 강화해 주거나, 약화시켜주는 식품을 소비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미 잘 알려지고 있는 다이어트 식품, 숙취해소 식품, 강장 식품 등이 대표적인 기능성 식품들이다. 이미 기억력을 증진시키거나 기억력 감퇴를 막아주는 기능성 식품, 피부노화를 방지하고 노화된 피부를 재생시켜주는 기능성 식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이러한 기능성 식품에 대한 선호는 더욱 확대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그 소비 추세에 발맞추고 새로운 수산식품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수산물이 지니고 있는 기능성 원료를 부각시키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기능성 식품의 개발에 힘써야 한다.

지금은 기능성 식품이라는 이름으로 일반 식품과 구별하여 소비하고 있지만, 미래에는 거의 대부분의 식품에 기능성 성분이 첨가되고 또 당연시 될 것이다. 기능성 성분이나 기능성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식품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여 시장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수산물 무역

제2의 수산물 수출 전성기를 기약하며

수 산 경 제 연구 원 | 김 우 경 책임 연구 원



01

수산물 무역의 흐름

우리나라 수산물 무역은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처음 수산물을 수출한 것은 1940년대였으며, 1,000만 달러 이상 본격적인 수출이 이루어진 것은 1962년부터이다. 당시 수산물 수출액은 1,200만 달러로 우리나라 총수출액인 5,500만 달러 대비 비중이 21.8%에 달해 우리나라 수출품 중 수산물 비중이 단일 품목으로는 최고로 높았다. 수산업이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이후 1980년의 수산물 수출은 8억 7,140만 달러, 1990년에는 16억 3,670만 달러, 2000년에는 15억 450만 달러, 2010년에는 17억 9,820만 달러로 증가해 왔다. 그러나 그 비중은 감소하여 최근 2011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5,565억 달러 중 수산물 수출액은 23억 달러로 국가 전체의 0.4%에 불과하다. 수산물 수출에서 지난 30년간 가장 큰 변화는 어류의 비중이 1980년의 52.8%에서 1990년과 2000년에는 각각 31.4%, 34.6%로 평균 약 20%p 정도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2010년에 와서는 전체 수산물 수출 중 어류의 비중이 44.6%로 30년 전 대비 8.2%p까지 격차가 줄어들었다. 그 이유는 과거 생산이 많이 되었던 어류가 환경오염과 남획 등으로 생산이 줄어들면서 수출비중도 감소했으나, 최근 적극적인 어류양식업의 확대로 생산이 늘면서 수출로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 주요 국가를 살펴보면 무역을 시작한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주로 일본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중국을 비롯하여 미국과 태국, 뉴질랜드 등으로 수출하

고 있다. 한 가지 특징은 2011년 일본으로의 수출비중 43.1%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중국으로의 수출이 20%로 최근 들어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2011년 일본으로 9억 9,000만 달러를 수출하여 가장 많았으며, 2위가 중국으로 4억 6,000만 달러어치를 수출하였다.

한편 수산물 수입은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1년에 12억 5,000만 달러를 수입하여 전체수입액 41억 9,000만 달러의 약 3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도 러시아, 베트남, 일본, 미국으로부터 수입이 되고 있으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절대적이다.

02

FTA와 수산물 무역

정부는 1990년대 말부터 경제성장 동력을 대외 수출확대에서 찾고자 하였다. 그 결과가 수출 확대를 위한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은 외환위기를 겪은 다음해인 2008년을 제외하고는 모든 해에 걸쳐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수산업은 FTA가 체결될수록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아지는 무역수지 역조가 더욱 확대되었다. 공산품 수출을 많이 한 만큼 우리도 수산물의 수입문을 더 크게 열어 주어야만 했던 것이다. 경제학적으로 타국가 상품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은 수출이 늘어날 것이고, 비교열위에 있는 상품은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 상식이다. 여기서 우리나라는 FTA를 추진하면서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많은 상품을 수출하였지만 비교열위에 있는 수산물은 수입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로 2001년부터는 수산물에 있어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무역수지 적자가 나타났다. 10년이 지난 2011년에는 23억 800만 달러 수출, 41억 9,200만 달러 수입으로 무려 18억 8,400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당해 연도 환율을 고려하여 원화로 환산하면 무려 2조 872억 원에 이른다. 수입개방화가 수산업에 끼친 영향이라 하겠다.

당초 우리나라에서 FTA는 1990년대 말부터 체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진전은 없었다. 그 이후 2000년대 들어와서 정부는 한·칠레(2004년) FTA 발효를 시작으로 한·싱가포르(2006년), 한·EFTA(2006년), 한·ASEAN(2007년 상품), 한·인도(2010년), 한·EU(2011년), 한·페루(2011년), 그리고 한·미(2012년 3월) FTA 발효에 이르기까지 총 8개 경제공동체와 FTA를 추진하였다.

그 외에도 협상 중이거나 준비 중인 국가들을 모두 합치면 27개 경제공동체, 80개 국가와 FTA를 추진 중이다. WTO(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153개국(2011년 3월 현재)의 절반이 넘는 국가와 FTA 체제로 교역을 하게 되었으며, 수산물의 교역비중을 보면 FTA 협상을 준비 중에 있는 국가 모두를 합칠 경우 93%에 이르러 수산물의 완전개방이 눈앞에 있다.

03

수협 수산물 무역

수협은 수산물의 판매를 확대하고 어민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수협법 제정 시부터 대외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무역을 바로 시작할 수는 없었다. 그 이유는 무역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무역거래법(현재의 대외무역법)에 따라 반드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했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역사업이 불가능했으나, 1970년 8월 10일의 제6차 수협법 개정으로 정부허가가 불필요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무역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오늘에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수협중앙회가 수산물을 수출하기 시작한 것은 1976년 4월의 갯지렁이 수출부터이다. 당시 일본에서는 낙시꾼들에게 미끼로 인기였던 갯지렁이의 수요가 많았는데, 자국생산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로부터 갯지렁이를 수입하게 되었다.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갯지렁이의 주생산지인 인천, 서산, 군산, 목포, 순천, 통영에는 무역사업소가 설치되었고, 심지어는 1977년 일본 오사카에 출장소를 설치하여 일본시장의 정보파악과 함께 수출증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수협이 무역업무를 시작한 이래로 가장 많은 수출실적을 올린 것은 1987년이다. 수출금액은 4,450만 달러였다. 갯지렁이는 831만 달러를 수출하였고, 비중은 18.7%였다. 그 외 일반품목이 3,618만 달러로 81.3%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 활선어가 2,220만 달러로 일반품목의 61.4%를 차지하였다. 당시 수협이 계통조직의 수출참여 유도과 대행업체 유치에 적극 노력하여 참여 조합과 업체수가 11개 조합, 40개 업체에 이르렀다. 그리고 수수료 인하와 수출준비자금의 적기 지원은 수산물 수출증대 및 생산 어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당시 수출 대상국가도 일본에서 유럽 등 기타 지역으로 시장이 다변화되었다.

그러나 수출할 수 있는 수산자원이 항상 풍부하지만은 않았다. 1960~1970년대 경제개발로 인한 환경 오염 물질이 바다로 흘러들어 해양오염으로 이어졌고, 수산물 생산을 위한 어획노력량이 확대되면서 수산자원의 남획으로 이어졌다. 남획은 생산의 감소를 가져왔고, 1987년을 기점으로 수협의 수산물 수출도 점차 감소하였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수협의 수출금액이 1,000만 달러 이하로 떨어졌고, 2008년에 와서는 22만 달러에 머물렀다.

수산물 수출품목은 초창기에는 원물형태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냉동가공품의 수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수산물도 이제는 브랜드 상품화시대가 되었다. 여기에 힘입어 수협도 수출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이 경제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이 수출사업이다.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을 합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467만 달러, 448만 달러, 960만 달러를 수출하였다. 1987년 이후 수출실적이 급격히 하락하였지만 최근 다시 증가한 것이다.

수출품목과 대상 국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협중앙회의 경우 2010년도에 냉동 고등어와 냉동 오징어를 각각 필리핀과 중국으로 수출하였으며, 수협 브랜드인 '바다사랑' 상품을 미국, 호주, 캐나다

등지로 수출하고 있다. 최근 수협중앙회의 수출 효자는 ‘바다愛찬’이다. 이것은 수협생산 수산물 중 선별하여 우수상품을 브랜드화하여 내놓은 수협수산물 프리미엄상품 브랜드이다. 이 상품이 최근에는 국내 백화점은 물론, 인터넷 쇼핑몰을 비롯하여 외국으로까지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회원조합의 세부 수출 품목 중 2010년도 기준으로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활넙치이다. 제주 어류양식수협과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이 그 중심에 있다. 2개 조합이 2010년 회원조합 전체 수출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 수협 수산물 수출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넙치의 수출이 많은 것은 우리나라 양식업이 2000년대 중반 비약적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이다. 2006년에는 천해양식어업 생산량이 일반해면어업 생산량을 앞질렀고, 2010년에는 천해양식어업이 135만 5,000톤, 일반해면어업이 113만 3,000톤으로 양식생산량이 20%나 많았다.

천해양식어류 중 최대 생산어종은 넙치이다. 2010년 넙치생산이 4만여 톤으로 전체 어류양식 생산량 8만 톤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넙치를 양식하면서 기술발전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고부가가치 어종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넙치의 국내가격 안정화는 물론 우수 수산물로서 해외 수출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었다. 최근에는 기능성 넙치를 생산하기에 이르렀고, 심지어는 미국으로 넙치를 살려서 보낼 수 있는 기술까지 확보하였다. 정부도 2020년 수산물 수출 100억 불 달성을 위해 선정한 10대 품목에 넙치를 포함시켰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활어 컨테이너, 무수동면 기술 확립 등 수출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04

제2의 수산물 수출 전성기를 기약하며

과거 1960~1970년대 수산업이 국가 수출산업 중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차 산업의 발달로 상대적으로 수산물의 수출 비중은 급속히 줄어들었다. 수출비중이 줄어든다고 산업의 중요성도 반감하는 것은 아니다. 수산업은 국민들에게 동물성 단백질 공급이라는 1차적인 목적 이외에도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이며,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경감시 기능과 연안수역 관리, 국토의 균형적 이용 등의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산업이다.

이러한 중요 산업은 지키고 보전해야 한다. 인건비와 면세유가 상승 등으로 어업경영여건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외개방으로 더 어려워진 수산업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수출이다. 이를 위해서는 21세기에 맞는 수출활로를 개척해야 한다. 수산업계 전체적으로는 상당한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협은 아직도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제2의 수산물의 수출 전성기를 맞이하기 위한 과제와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야 한다.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부터 국제화시켜야 한다. 해외홍보를 위해서는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이 급선무다. 현대사회에서 외국어 홈페이지 없이 수출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규 바이어를 직접 발굴하는 경우도 많다.

영문 홈페이지 구축과 함께 외국어로 구성된 전자 카탈로그 구비와 상품거래알선 사이트에 홈페이지를 등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어, 일어, 중국어로 작성된 홈페이지에 상품에 대한 전자 카탈로그를 작성하여 홍보할 경우 더 많은 전 세계 바이어들과 접촉할 수 있을 것이다.

수산물 안전성 제고를 통하여 고품질 차별화 전략을 추가해야 한다.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식품 안전성에 대한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고품질의 수산물을 공급하는 것이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최근 바다사랑 상품수출의 확대에 따라 해외에서 선호하는 수산물 품목을 개발하여 공략할 필요가 있다. 국내적으로도 바다사랑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신규 브랜드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여기서 브랜드를 개발할 때 해외수출을 고려한다면 수출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과거 수출 전성기 때 해외사무소를 개설했던 것처럼 장기적으로 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해외사무소를 개설하고 수협 수출 교두보를 확보해야 한다. 해외 현지동향과 소비추세 파악 등 정보수집 활동이 필요하며, 해외 바이어 발굴 및 시장개척을 위하여 현지거점 확보가 필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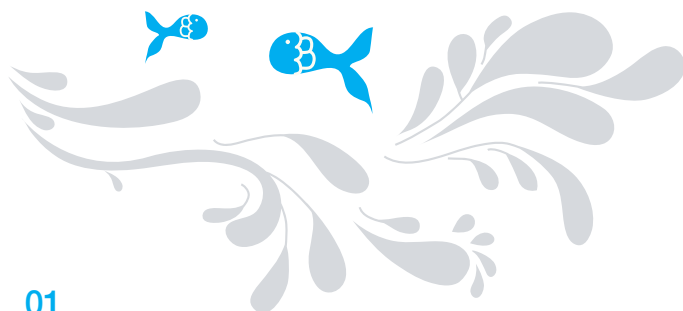
● 시스템 구축의 국제화, 전자 카탈로그 구성과 상품거래알선 사이트에 홈페이지 등록, 안전성 제고를 통한 고품질 차별화 전략, 선호 수산물에 대한 상품개발, 그리고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할 해외사무소 개설 등은 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과제들이다. 이 과제들을 차차 준비하고 보완해가면 수산물 수출을 통하여 수산업을 한층 더 활기차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화려한 수산물의 수출 전성기를 기약하며, 수출이 향후 50년 후에도 우뚝 서있을 수산업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수산물 유통소비

수산물 유통과 마케팅의 미래와 과제

부경대학교 | 장영수 교수



01

수산물 유통과 시장의 역할

수산물 유통이 도매시장이라는 형태를 가지면서 성장해온 지 벌써 100년이 훌쩍 지났다. 역사적으로 상품 유통은 우리나라 객주자본이 중심 주체로서 활약하였다. 그러나 1914년 일제 총독부령 '시장규칙'에 의해 우리나라 민족자본은 배제되고, 수산물 유통을 비롯한 청과물, 신선류의 소비지 시장 유통은 공공단체가 아니면 허가하지 않고, 시장의 설치·이전·폐지·조직·관리·감독 등에 대해 정부가 관여하게 되면서 일제 통치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후 산지 시장에서도 일제 독점자본은 전국에 약 40여 개소의 수산물 시장을 개설·운영하면서 우리나라 주요 수산물의 일본 반출과 자본을 침탈하는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적 아픔을 딛고 우리나라의 수산물 유통은 눈부신 발전을 해왔다. 소비지에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과 현대화 사업이 확대되면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연결시키는 대량유통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그리고 산지에는 전국적으로 수협이 개설·운영하는 수산물 위판장이 확대 보급되어 상업자본에 의해 지배되어온 어업생산자의 수산물 유통이 생산자 조직 중심으로 재편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특히 수협의 경제사업활동으로서 그 중심에 서게 되는 산지 위판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200여 개소가 개설·운영되고 있다. 수협의 산지 위판장은 어업생산의 기점으로 어선이 접할 수 있는 어항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어획물의 양육과 1차적인 가격형성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위판장을 통해 어업생산자는 생산한 수산물을 수협에 위탁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수협의 산지 위판장은 어획물의 상품화 과정을 전담하면서 생산자는 생산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 수산업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수협이 산지 위판장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사업은 1997년 수산물 자유판매제가 실시되면서 최대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이전의 수산업법 하위 규정인 수산자원보호령에 의거한 어획물의 양륙 제한과 어획물 판매 장소 지정에 따라 생산자는 연근해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반드시 산지 수협 위판장과 같은 양륙·판매장소를 통하여 판매하도록 하는 이른바 강제상장제가 시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제도가 폐지되고 생산자는 자유로이 자신의 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게 되면서 연근해 수산물의 산지 위판장 점유율은 자유판매제 시행 이전 산지 유통의 평균 80% 수준에서 근년에는 50%대까지로 떨어지면서 산지 위판장 중심의 수산물 유통은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수협의 산지 위판장을 중심으로 하는 수산물 유통은 이전의 단순한 위탁 상장에 의존하는 유통시스템에서 탈피하여 생산자 공동 출하 및 판매, 산지가공과 물류, 산지 브랜드화를 통한 소비자와의 직거래 사업 확대 등 새로운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산지 수협은 대형 할인점과의 직거래 구축 및 산지 가공, 지역브랜드 상품개발 등 적극적으로 수산물 유통사업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발전의 전환점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소비지 수산물 유통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이어주는 연결점으로서 소비지 도매시장이 중심적으로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소비지 도매시장은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산지 시장으로부터 수산물을 수집하는 강한 집하력, 수집된 수산물의 경매 등과 같은 공정 타당한 가격형성 기능, 도시수요자에게 유통시키는 분산 기능, 빠르고 신용력이 높은 현금에 의한 대금결제 기능을 통하여 다양 다종의 수산물을 대량으로 취급하였다.

하지만 수산물 생산의 양적 확대가 한계에 이르고 수산물 유통은 가치 중심의 소량 다빈도 유통으로 바뀌면서 도매시장은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요구받게 된다. 수탁판매의 원칙, 공개경매제, 수수료 제도 등 공정 공평한 유통을 추구하여 온 도매시장 제도는 탄력성 결여, 이중 경매에 따른 중간 마진의 증폭 등과 같은 비효율성의 상징처럼 취급되는 전환기에 서게 된다.

소매유통은 대형화와 체인화를 무기로 하는 대형 소매점이 확대되면서 이들 유통 자본의 가격경쟁력 제고 전략의 일환으로 산지 직거래 비중이 늘어나게 되었다. 대형소매점의 수산물 취급 규모는 웬만한 산지 위판장의 수산물 취급 규모와 견줄 정도로 증가하였고, 취급 어종도 다양화되면서 구매력을 앞세운 시장지배력은 수산물 유통구조 전반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게 이르게 되었다.

특히 선어를 중심으로 하는 원어 형태 유통은 가공품 유통 중심으로 시장 수요가 바뀌고, 수산물 가공, 물류와 연계하는 Value Chain System이 도입되면서 생산, 산지 가공, 물류, 판매가 하나의 가치 사슬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소매시장의 구조 변화는 지금까지 산지 위판장과 소비지 도매시장, 수산물 전문 판매점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온 수산물 유통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선 이들 대형소매점의 수산상품 기획은 종전의 바다에서 이루어지던 어업생산에 의해 규정되어온 어종, 수산상품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소비 동향을 전제한 수산상품 기획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종전의 성어기에 계절적 상품으로서의 수산상품은 점점 사라지고 연중 소비가 가능한 수산상품으로 냉동, 가공품 등의 아이템이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심지어 수입수산물이 상품구색의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는 시점까지 도래해 있다.

02

수산물 소비 패턴변화와 마케팅

우리나라 식료품 공급조건은 기술 개발·향상 및 무역 자유화 시대를 배경으로 양적 질적으로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소득 증대에 힘입어 공급의 제약이라는 과거의 수동적 입장에서 생산 및 유통 측에 선택 범위의 확대를 통해 영향력을 강화시켜가는 능동적인 입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시장 환경은 엄청난 속도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산업구조의 재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구체적으로는 도시화의 진전, 핵가족화 및 고령화, 싱글족의 확산, 서구형 주거환경의 보편화, 교육수준의 향상, 가정 내 소비주체인 주부층,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과 같은 변화가 급속히 진행 중인 것이다. 전반적인 시장 환경의 변화는 가정 내 소비 단위의 축소, 조리 환경 변화, 영양원에 대한 재평가 등을 유발하면서 식료품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도시가구를 중심으로 하는 소비자들의 소비 지출액은 소득수준 향상에 힘입어 소비지출 절대액은 증가하면서도 엔겔계수는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외식지출액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소위 말하는 식의 외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가구 형태의 다양화 및 가족 구성원의 사회참여 확대에 의해 단체 급식이나 식당 등 외부를 통해 식사를 해결하는 빈도가 잦아지고 그 외에도 가족 단위의 외식이 늘었기 때문이다.

현대 도시가구의 식료품 소비를 영양학적 측면에서 본다면 영양원의 고급화, 즉 탄수화물 섭취의 감소와 단위당 열량이 높은 단백질, 지방 섭취의 증가로 표현할 수 있다. 이는 식료 이용형태의 다양화 및 식단형태 변화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실제 품목별 소비지출 구성비상으로도 곡류, 수산물, 채소라는 전통형 식료품에 대한 비중의 감소와 대조적으로 육류 등의 기타 품목에 대한 구성비는 증가하여 전통형 식료에 대한 선호 감소와 식품 소비의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식품 소비의 변화 속에서 수산물 소비는 양적인 측면에서는 감소하고 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우선 소비자들은 이전의 단순 어종의 수산물 구매에서 여러 가지를 확인하고 생각하는 신중한 구매로 점점 바뀌고 있다.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여도가 높아지면서 수산물 마케팅에 있어 다양한 관여요인이 주목받고 있다.

소비자들의 수산물 관여 차원은 이전의 선호 및 관심뿐만 아니라 수산물에 대한 지식, 위험지각, 효익 등 다차원으로 구성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수산물의 소비상황은 건강을 중시하는 요인과 다양한 수산물 요리 동기 요인 등이 강조되고 이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하고, 안전하고도 안심할 수 있는 다양한 수산식품 정보 요인이 충족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수산물 마케팅은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신선도, 구색, 점포의 접근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점포 내 진열 및 상품의 상태를 항상 신선하고 다양하게 구비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특히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여 구매 시 나타나는 위험지각을 낮춰주는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여러 수산물 인증제도의 예를 들면 HACCP, 품질인증제,

원산지표시제, 수산물이력제도 등과 같은 것에 대해 소비자들은 선도와 같은 수산물 물리적 품질과는 별도로 이들을 상징적 품질로서 높게 인식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은 신선수산물을 구매할 때 신선도, 제철수산물 여부, 선호도, 원산지, 자연산·양식산, 유통기한, 인증마크 등의 순으로 중요 구매속성을 평가하고 있다. 추구하는 가치의 중요도는 기분 좋음, 행복감, 자기만족, 안심, 가족과의 행복, 책임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공수산물을 구매할 때 소비자들이 중요시하는 속성은 가공상태, 유통기한, 빛깔, 원산지, 냉동정도, 포장상태, 적당한 크기로 절단여부, HACCP 등 수산물 인증 마크 등 순이다. 추구하는 가치의 중요도 순위는 기분 좋음, 자기만족, 건강한 삶, 안전성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수산물 선택 요인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고 생산과 유통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03

수산물 유통과 마케팅의 미래과제

수산물 유통은 그 동안의 변화 속에서 대형 소매점의 전략적 행동에 선어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온 기존 수산물 유통구조가 어떻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점점 소량화, 포장화, 다양화, 다빈도를 추구하고 있는 최종 소비를 위해 대형소매점과 같은 소매자본은 기존의 산지 위판장, 소비자 도매시장, 중간 유통업자를 하나의 가치사슬로서 묶어가고 더욱더 까다로우면서도 다양한 요구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수산물 유통에 있어 산지 위판장과 소비자 도매시장은 이들과 어떻게 가치사슬화할 것인지, 그리고 이들 요구를 어떻게 수용해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해법을 찾아가면서 새로운 형태의 수산물 유통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소비자들은 가족건강 추구를 위해 수산물을 구매하는 집단, 자신을 위한 계절수산물이나 바닷가 지역특산물로서 독특한 식문화를 접하기 위해 수산물을 구매하는 집단, 편의성을 추구하기 위해 가공된 수산물을 구매하는 집단 등으로 세분화되어 가고 있다.

가족건강추구형 소비자는 책임감, 자기만족, 안심 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가족의 균형적인 영양소를 중요시함으로써 책임감과 자기만족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제품 선택 시 본인의 요리 가능 여부를 중요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집단은 구매 수산물에 대한 신뢰를 통해 안심을 추구하고 신선식품 구매 시 제품속성 중 원산지, 랩포장일자, 유통기한을 중요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집단은 수산물 구매 실패 또는 익숙하지 않은 수산물의 요리 실패 등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마케팅 전략은 도전정신이 약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섭취경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각종 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더욱 쉽고 간편하게 배울 수 있는 수산물 요리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가족의 균형적인 영양소 섭취를 고려한 수산물 중심의 종합영양 식단을 제공하고 홍보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자아기분추구형 소비자는 맛의 차이, 살의 부드러움, 씹는 느낌, 수산물 고유의 깊은 맛 등 미각이 주는 편익과 식욕을 돋우는 시각이 주는 편익을 중요시하고 이를 통해 기분 좋음을 추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집단 소비자는 수산물 애호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산물에 대해 풍부한 지식이 있고 자기만의 품질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다. 특히 수산물 신선식품 구매 시 제품선택 속성 중 제철 수산물 여부, 자연산·양식, 본인 혹은 가족이 좋아하는 수산물 종류인지를 중요시하고 있다.

이 집단 소비자에 대한 마케팅 전략으로서 식욕을 돋을 수 있게끔 시각적으로 자극을 줄 수 있는 조명, 진열방식 등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제철 수산물, 자연산 수산물은 찾기 쉽고 선명한 곳에 매장을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고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이러한 고객에게 오늘의 제철수산물이나 자연산 수산물에 대한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

수산물 가공식품의 경제성·안전추구형 소비자는 경제성, 안전성, 기분 좋음, 환경보호 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으로 가식 부위만 구매하거나 가격할인 가공식품 구매 등을 통해 가계지출을 줄임으로써 경제성을 추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가공식품을 장기간 보관할 수 있어 시간적, 금전적인 경제성을 추구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신선식품과 달리 가공식품인 경우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여 요리에 필요한 양을 조절하고 사용한 후 보관하는 보관편의성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또한 가공식품 구매 시 유통기한, 냉동정도를 확인함으로써 신선도가 유지되는 것을 중요시하고 포장상태를 확인하여 위생상 안심을 중요시함으로써 안전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 집단 소비자는 요리하기 편한 것을 통해 기분 좋음을 추구하기 때문에 가공식품 구매 시 적당한 크기로 가공되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특징이 있다. 이 집단 소비자에 대한 마케팅 전략으로 요리별로 더욱 세분화하여 가공제품을 개발하는 전략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진열 시 포장상태의 청결 정도와 관리상태 점검을 강화하고, 요리 사용 이외의 남은 가공식품을 보관하기 쉽게 세부 단위 포장 제품을 제공하는 전략도 중요할 것이다. 한편 가정 내 수산물 소비가 아닌 가정 외 수산물 소비는 크게 가족 외식시장과 단체급식시장으로 재편되면서 새로운 대형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단체급식시장의 성장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단체급식시장은 개별 선호도가 아닌 계획되고 식단에 의해 구성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정량화, 표준화, 정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 시장의 구매선택요인은 공급의 안정성과 함께 식품의 안정성이 대단히 중요하게 강조된다.

가까운 미래의 수산물 유통과 마케팅은 다양한 수산물 소비환경 변화 특히 소비자들의 소비지출의 변화, 기호의 변화, 추구가치의 변화, 단체시장의 형성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새로운 과제를 풀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생산자 중심의 사고에서 아주 다양한 소비자 중심의 사고로 전환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수산물 유통과 마케팅은 소비와 생산 공급의 변화를 잘 읽어 내고 예측하는 능력을 길러서 단기와 장기 구조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건전하고도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을 세분화된 표적시장에 정확하게 제공할 것인가 끊임 없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어장과 수산자원의 이용

국립수산물학원 | 박종화 자원환경과장



01 서론

우리나라 연근해는 난류와 한류가 상호작용하고 있고 해역에 따라 조류의 경제수역이 형성되기도 하며 계절에 따라 연안냉수의 발달, 수온약층의 형성 등 복잡한 해양특성을 가지고 있다. 수온이 여름철에는 26~30℃까지 상승하고, 겨울철에는 2~10℃까지 하강함으로써 연중 20℃ 이상의 수온변화가 일어나는 등 계절에 따른 변화뿐만 아니라 연도별 변동도 무척 심하다.

연근해에 분포하는 수산자원은 고등어·멸치·정어리·삼치·꽁치·조기·갈치·오징어 등 난류성 자원과 대구·도루묵·명태 등의 한류성, 문어·가자미류 등의 저서 정착성, 대게·붉은대게 등 심해성 자원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계절에 따라 각기 어장형성을 달리하고 있다.

우리 연근해에서는 이러한 해양과 자원분포 특성에 맞추어 오래 전부터 다양하게 수산자원을 이용하여 왔는데 어업기술의 발달, 해양환경의 변화, 자원량의 변화, 주변국 간의 어업질서 변화 등에 따라 자원이용 수준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2000년 이전에는 조기류·가자미·명태 등과 같은 저서자원을 너무 많이 이용하여 자원감소를 가져왔고, 2000년대에는 고등어·멸치·오징어 등 회유성 부어류 자원의 이용이 증가되었으며 자원의 적정 이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앞으로는 방어나 다랑어류와 같은 고도회유성 자원의 증가도 예상되며 자원회복과 더불어 지속적이고 경제적인 수산자원의 관리와 이용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02

과도 이용기(2000년 이전)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1960년대 초반 연간 40만 톤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어선 세력의 증가와 더불어 급속한 신장을 보여 1970년대에 들어서는 100만 톤을 넘어섰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들어 어획 증가율이 둔화되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 이후 2000년 이전까지 연간 130만~160만 톤 범위에서 정체되어 있는 실정이었다.

어업자원의 변동 상태를 나타내는 단위노력당 어획량은 1974년에 어선의 톤당 어획량이 5톤에서 1997년 약 3톤으로 감소되었고, 어선의 마력당 어획량도 1974년 2.1톤에서 1997년 0.2톤으로 각각 줄어들었다. 이처럼 단위생산성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90년대에는 인접국 어선들이 한정된 어장에서 동일자원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조업경쟁을 벌임으로써 연근해어업의 단위생산성이 더욱 급속히 저하되기에 이르렀다.

1980~1990년대 연근해 어장별 자원이용 실태를 보면 동중국해와 서해안 어장에서는 조기류·갈치·꽃게 등 저서성 자원의 분포가 많았는데, 기선저인망·안강망·유자망어업에서 주로 어획되었다. 조기는 연간 1만~4만 톤 범위, 갈치는 6만~15만 톤, 꽃게는 1만~3만 톤 수준이었다. 남해안 어장에서는 멸치, 고등어, 말쥐치, 전갱이, 갑오징어, 갯장어, 붕장어 등을 많이 이용하였는데, 대형선망·대형트롤·기선권현망어업에서 주로 어획하였다. 멸치는 연간 13만~25만 톤, 고등어는 7만~20만 톤, 전갱이 1만~4만 톤, 갯장어 2,000~9,000톤, 붕장어 1만~3만 톤 수준이었다.

특히 고등어의 경우 1996년에 연간 41만 톤이 어획됨으로써 사상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또 말쥐치는 1975~1990년까지 대형선망과 대형트롤에서 집중어획 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연간 평균 19만 톤이 어획되어 쥐치포 가공 산업이 남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성행하기도 하였다. 1986년에는 말쥐치가 연간 33만 톤까지 어획되었다. 동해안 어장에서는 명태, 오징어, 도루묵, 정어리, 대게, 가자미 등을 이용하였는데, 동해구기선저인망·오징어채낚기·통발·자망어업 등에서 주로 어획되었다.

명태는 1980년대에 연간평균 8만 톤에서 1990년대 7,000톤 수준으로 급락하였고, 오징어는 1980년대 4만 8,000톤 수준에서 1990년대 18만 톤 수준으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그 외 도루묵은 2,000~1만 톤 수준이었고, 정어리의 경우에는 연간 1만~20만 톤 범위로 어획량의 연변동이 극심하였다. 1990년대 후반 정어리 자원의 급속한 감소와 함께 어획량도 2,000톤 미만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심해자원인 대게는 1990년대 후반에 연간 500~1,100톤, 붉은대게는 2만~4만 톤 수준을 어획하였다.

국제적인 어업여건 변화도 심하였는데, UN 해양법 발효 이전인 1970년대부터 원양어업국들은 어선을 대형화하여 어획노력을 강화하고 어업생산을 확대해 왔다. 국제사회에서는 수산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과 관리 및 적정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자연자원 규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즉, 1992년 칸쿤선언에서 책임 있는 수산업 규범 채택, 1991년 북태평양 대형유자망 어업금지 결의, 편의국적선 금지 협정, 공해 어업자원 보존 관리 협정,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수산보조금 감축

강화, 200해리 경제수역선포 등을 통해서 수산자원의 지속적 생산을 위한 자원관리 조치를 강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한반도 주변해역에서도 한국과 일본, 중국이 인접수역에서 동일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첨예한 이해대립 관계가 고조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1월, 일본과 중국은 1996년 6월에 「UN해양법 협약」을 비준하였으며, 한국과 일본은 1996년에 배타적경제수역(EEZ) 관련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 중국 간에도 새로운 어업질서의 재편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03

적정 이용기(2000년대)

1999년에 한국과 일본 간에 새로운 어업협정이 체결되어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하였고, 그 일 년 후인 2000년에는 중국과도 어업협정이 발효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수산업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연근해어업 생산 측면에서도 2000년대에 들면서 어장의 축소와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어업 등의 무분별한 어획으로 연안자원 감소가 가속화됨으로써 연근해 생산량은 2000년에 119만 톤, 2002년 110만 톤, 2004년 108만 톤, 2006년 111만 톤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2008년 이후 약간 증가되는 기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국내외적인 여건 변화와 새로운 어업질서 확립에 따라 우리 어선이 이용하던 연근해 어장이 한국의 EEZ 내측 수역으로 대폭 축소되었고 이용자원도 감소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어업 구조조정을 통한 감척 사업, 자원관리 강화, 인공어초 사업, 자원회복 계획, 수산종묘 방류, 바다목장 사업, 자율관리어업 추진 등을 통하여 축소된 어장의 관리와 자원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감소된 자원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2000년부터 TAC(총허용어획량) 제도를 도입하여 직접적인 어획량 관리를 도모하였다. 2010년 현재 고등어, 전갱이, 오징어, 대게 등 11개 자원에 대하여 TAC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또 2004년 12월에는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05~2006년에 걸쳐 남해안과 서해안 연안 일대에서 성행되던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일명 고대구리) 어업을 완전히 정리하였다. 한·일, 한·중 간에 있어서는 매년 양 국가 간의 어업협상을 통하여 우리 수역에서의 자원을 보호·관리하는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우리 EEZ 어장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6년에는 감소된 연안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자원회복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과 동시에 연안 어업인을 대상으로 자율어업관리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2008년에 128만 톤, 2009년 123만 톤으로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기 시작하였으나 해양환경의 변화에 따른 회유성 자원의 어획량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남으로써 아직 전체적으로 불규칙한 변동을 보이고 있다.

2000년 이후 해역별 자원이용 실태를 보면 서해안 어장에서는 여전히 참조기, 갈치, 꽃게 등을 어획하고 있다. 참조기는 2000년대 초반 7,000~2만 톤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2008년 이후 중국어선의 조업규제 강화, 불법어업 정리, 자원관리 노력 등에 힘입어 3만~5만 톤 수준으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꽃게 역시 2000년대 초반 1만 톤 미만에서 2009년 이후 2만~3만 톤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동중국해 어장에서 어획이 많았던 갈치의 경우에는 근해어장의 축소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다.

남해안 어장에서는 고등어, 삼치, 멸치 등을 주로 어획하고 있으며, 고등어는 2000년대 초반까지 16만 톤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되어 있었으나, 2006년 이후 13만 톤 수준으로 감소되었다. 연안역의 멸치 자원은 꾸준한 자원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어획량도 20만~26만 톤 범위에서 안정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1992년 초반부터 급격히 감소된 말쥐치 자원은 2000년 이후 연간 1만 톤 미만으로 극히 낮은 수준에 있으며 최근 약간 회복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동해안 어장에서는 명태의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되어 연간 1~2톤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어장형성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난류성인 오징어는 1990년대에 비해서는 다소 줄어들었으나 연간 15만 톤 이상으로 여전히 높은 어획량을 나타내고 있다. 1990년대에 1,000톤 미만이던 대구는 2000년대 중반 6,000~7,000톤 수준까지 증가되었고, 대게는 3,000~4,000톤, 붉은대게는 2만~3만 톤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1980~1990년대에 비해 갈치·말쥐치·명태와 같이 비교적 수명이 긴 저서성 자원들은 급격히 줄어들고, 멸치·오징어·참조기와 같은 난류성 회유성 자원들은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해양온난화가 지속됨으로써 아열대성 어류의 출현빈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는데, 남해안 일대에서는 참다랑어가 대량 어획되기도 하고, 동해안에서도 다랑어·방어·자리돔 등과 같은 아열대 자원생물의 분포가 많아지고 있으며, 오징어·멸치 등 온대성 자원의 겨울철 어장범위가 북쪽으로 확대되고 있다.

04

경제적 이용기(2012년 이후)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온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영향으로 해양생태계의 변화징후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반도 주변해역은 적도 태평양상으로부터 북상하는 쿠로시오 난류의 지류인 대마난류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기후변화의 영향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해역에 비해 해양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분포하는 수산자원의 어장형성 해역뿐만 아니라 분포자원의 종류 그리고 자원의 양적·질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중·일 어업질서가 정착화 단계에 접어들게 되어 자기 나라 연안의 수산자원 관리 조치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우선 해양특성의 변화로는 전체적으로 겨울철 수온상승 속도가 더욱 빨라지게 되고, 봄과 여름철에 연안역에서 냉수대 발생, 용승류, 빈산소 등과 같은 이상해황의 발생빈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분포하는 수산자원 생물의 분포특성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겨울철에 따뜻한 남쪽해역으로 계절 회유하던 어류들의 남하시기가 늦어지게 되고, 어군의 북쪽 분포 한계도 더욱 북상될 것이므로 어장범위도 북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겨울철에는 강원도 연안에서 어장이 형성되지 않던 오징어나 멸치 어장이 강원도 연안에서도 연중 형성되고, 또 봄철부터 산란이 이루어지던 멸치의 경우 우리나라 전 연안에서 연중 산란이 이루지는 생태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동중국해나 남해안 일대에서 어장을 형성하던 참다랑어는 동해남부해역을 거쳐 울릉도와 강원도 연안까지 점차적으로 어장범위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어외의 경우에도 봄철 북상 회유시기가 빨라지고, 가을철 남하 회유 시기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고등어, 전갱이 및 일본 큐슈서쪽해역에 분포가 많은 지느러미오징어 등과 같은 온대성 자원 생물의 회유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갈치·참조기·삼치 등과 같은 온대성 어류의 어장도 점차 북쪽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가자미·넙치·볼락 등과 같은 이동성이 약한 저서성 어종의 경우에는 어장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자원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도 자원량 감소를 고려한 적정어획 노력이 강화되고 지속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분포자원의 변화에 맞추어 어업의 형태나 자원의 관리 및 관련 제도 등도 변화되어 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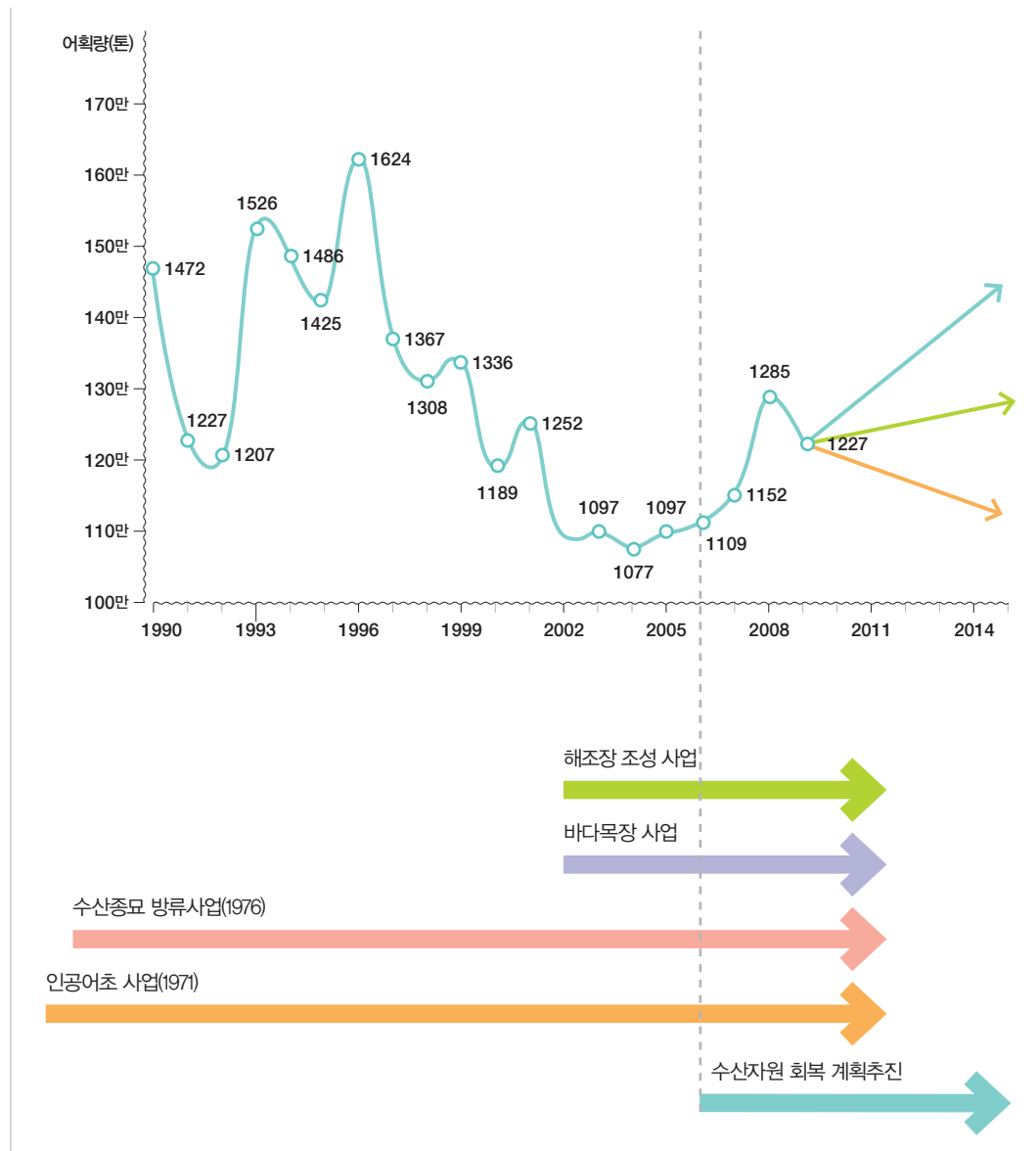
머지않아 우리나라 연근해에서도 다랑어 연승어업의 등장, 동해안까지 선망어장의 확대, 지느러미 오징어 어업의 새로운 어구개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속적인 자원 이용을 위해서는 적절한 수산자원 관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TAC 제도의 연차적 확대나 ITQ(개별어획할당)·TAE(총허용어획노력량) 제도 등의 적절한 도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꽃게·대게·붉은대게·가자미류·넙치·도루묵·대구 등과 같은 저서성 자원의 경우 과도한 어획을 자제하고 자원회복 노력을 기울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 새로운 어업의 허용, 적절한 어획노력, 불법어업의 차단,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어린고기의 어획이 많은 어업의 자제 등과 같은 실질적인 자원관리 노력과 더불어 연근해어업의 허가 및 면허제도의 보완을 통한 제도개선도 함께 이루어져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어획 활동에 있어서도 대량어획보다는 경제성을 고려한 계획적 어획과 같은 새로운 경제적 어획 관리가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생각된다.

인접국 간의 어업관계에 있어서도 자원의 이용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매년 개최되고 있는 한·일, 한·중, 중·일 간 어업협상도 그 중요성이 더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양국 간의 어업관리 및 자원보호 관리가 중요한 협상의 내용이 될 것이다. 각국 EEZ의 자원 보호·관리

는 물론이고 특히 한·일 중간수역,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자원관리 문제도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3국의 EEZ를 왕래하는 회유성 자원과 중간수역 및 잠정조치수역의 자원관리 및 자원증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동 자원관리 국제협약의 필요성도 장기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우리나라 연근해 어획량 변동과 자원관리 노력〉



어촌사회 환경의 변화와 향후 정책방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김정봉 본부장



01 서론

지난 1960년대와 1970년대 경제개발과 함께 급격한 산업화·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국내 어업 및 어촌 인구 비율이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 특히 젊고 교육받은 계층이 어촌을 떠남으로써 어촌지역에서는 인구노령화와 어업경쟁력 약화가 초래되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산업부문 간 격차는 물론 도시-어촌 간의 지역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어촌의 정주생활 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어촌 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도시화로 인한 이어(移漁) 현상은 계속되었으며, 어촌지역의 정주 환경 또한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이후 국내 수산물 시장 개방의 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어업 부문의 경쟁력 상실의 위기감과 함께 도시-어촌 간 지역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도시-어촌 간 지역 격차가 완화되지 않고 이어 현상이 지속된다면, 국토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핵심 국토자원으로서 고유문화와 환경보존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되어야 할 어촌지역이 황폐화될 우려조차 금할 수 없다.

02 어촌정책의 전개 과정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어촌정책은 독자적인 정책으로 추진되기보다는 농촌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따라서 농어촌정책의 전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어촌정책 변화의 대강을 고찰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농어촌정책은 1950년대 후반 국가 전체의 빈곤과 낙후를 탈피하기 위하여 해외원조자금을 바탕으로 지역사회개발사업(Community Development Program)의 일환인 소규모 농어촌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새마을 운동'을 중심으로 농어촌의 기초생활환경 개선에 주력하였다. 이 시기까지 농어촌개발 사업은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사업이라는 한계가 지적되기도 했지만, 생산 기반 조성과 생활환경 개선 등 농어촌의 물리적 개발사업 이상으로 주민조직과 지도자 육성이 더불어 강조되었다. 또한 강제성에 기반한 것이었다고는 해도 주민들의 참여가 활발하였다. 그러나 지역 특성이나 지역의 책임과 역량보다는 전국 일률적인 내용으로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방식이 보다 중요시 되었다.

1980년대에는 농어촌종합개발 사업, 그리고 1990년대에는 면단위 정주권개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어촌공간의 종합적 정비를 지향하는 사업이 추진되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여러 중앙정부 부처별로 어촌개발을 위한 단위사업을 대거 출범시켰는데 대체로 유사한 내용의 단위사업들의 많았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물리적 기반사업에 편향적으로 어촌정책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 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은 과거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지만 지역의 개성과 창의가 무시되는 등의 역효과도 나타났다.

2000년대에 진입해서는 어촌이 갖는 다원적 기능과 가치에 주목하여 어촌지역의 개성과 창의, 지역 주민 참여 등을 강조하는 새로운 정책 추진방식이 도입되었다. 특히 2001년부터는 기초생활권역 정책을 통해 시·군을 대상으로, 기존의 군특회계 200여 개 단위사업을 24개 사업으로 통폐합하고 포괄적인 재정지원을 하는 새로운 농어촌 정책환경이 구현되었다.

03

어촌 사회구조의 변화

어촌주민의 생활공간인 어촌은 생산 공간인 어장의 생산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적 자원의 공급 공간이며, 어촌을 구성하는 어가는 수산업의 유지와 성장에 필요한 노동력의 공급주체다. 그러나 어가의 구성원인 어촌주민의 생활공간으로서 어촌은 도시에 비하여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낮은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으로 청장년층이 어촌을 떠나면서 어촌인구가 감소함과 동시에 어촌의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어업총조사, 어가경제 및 어업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지난 30년 동안 어촌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찰하였다.

2본 장의 '어촌사회 구조의 변화'는 『어가소득 증대를 위한 어촌 유형별 전략』(최성에 등, 2009. 12,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였음



창립 50주년 기념 사진공모전 은상 수상작 - 그물작업(김해근)

가. 인력구조의 변화

첫째, 지난 30년 동안 어가수 및 어가인구는 연평균 각 2.3%, 5.0%씩 감소하여 1980년의 대비 2010년에는 각각 49.0%, 23.6%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어가수 및 어가인구의 감소는 전국적 현상으로, 특히 도시화가 진전된 수도권의 경기지역에서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강원, 전남, 경북지역 등에서 어가인구 감소 현상이 두드러졌다. 둘째, 어가의 고령화 지수는 65세 이상의 인구비중인 23.1%로 농가의 31.8%보다는 낮지만 전국 평균 11.2%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어촌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다. 지역적으로는 인천, 충남, 전남, 경남 그리고 제주지역의 고령화 정도가 전국 어가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어업활동의 주요 노동력으로서 그 역할과 역할이 어업활동의 근간이 되고 있는 어업경영주의 고령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00년 대비 2010년도의 60세 이상 어업경영주의 비율은 18.2% 상승하여 전체 어업경영주의 49.4%에 이르고 있는 반면, 50세 미만의 청장년층 어업경영주는 동기간 37.5%에서 18.7%로 감소하여 거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한편 여성 어업경영주의 비율은 2000년 18.4%에서 2010년 23.0%로 4.6% 상승하였다. 이는 어업노동력의 질적 저하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나. 취업구조의 변화

첫째, 지난 30년 동안 전체 어가수는 매년 2.3%씩 감소했다. 전업어가의 규모는 0.3%씩 감소하였다. 겸업어가의 절대어가수는 많이 감소했지만, 수산물 시장개방의 진전 및 어업비용 상승 그리고 불경

기로 인한 수산물 소비정체 등 국내외 여건 변화로 어업소득보다는 어업외소득 획득에 대한 어가의 노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 겸업어가의 비중은 향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어가의 어업 종사형태별 어가수는 1980년 양식어업이 4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비어선어업 34%, 어선어업 24%의 순이었다. 그런데 30년이 경과한 2010년의 경우 어선어업이 44.1%로 가장 많고, 비어선어업 29.3%, 양식어업이 26.4%의 순으로 바뀌었다. 양식어업 종사 어가수의 비중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해조류 양식어업에 종사하는 어가가 대폭 감소한 데 기인한다.

셋째, 최근 어업 내 비중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양식어업은 규모화가 촉진되고 있다. 1990년 이후 20년 동안 양식어가수는 연평균 3.1%씩 감소하여 1990년 대비 2010년의 비율은 38.6%로 줄어들었다. 이중 3ha 미만의 양식어가수는 1990년 4만 8,825가구에서 매년 3.6%씩 감소하여 2010년에는 1만 5,756가구로 67.7%가 감소한 반면, 양식어가의 전반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10ha 이상의 양식어가수는 1990년 1,150가구에서 2010년에는 2,201가구로 매년 2.2%씩 증가하였다.

다. 소득구조의 변화

첫째, 2008년 어가소득은 산업부문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농가소득을 능가하였지만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75% 수준에 머물러 도시-어촌 간의 큰 소득 격차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경상어가소득은 연평균 9.1%씩 증가하여 1980년 대비 2010년도에는 13.8배에 이르렀다. 이 중에서 어업소득은 연평균 7.8%씩 증가한 반면 어업외소득은 11.0%씩 증가하여 어업외소득의 증가 폭이 어업소득의 증가 폭을 상회하고 있다. 동 기간의 어가부채 역시 연평균 14.8%씩 증가하여 64.1배나 증가하였다. 이 중에서 생산성 부채가 연평균 14.5%씩 증가하여 어업소득의 증가율을 상회하였다.

다행히 5년 전과 비교하면 어가소득에서 어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47%로 4%p 높아진 반면 어업외소득은 33%로 2%p 낮아져서 어업소득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또한 2010년 어가부채는 3,564만 원으로 2005년 3,453만 원 이후 거의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어업용 부채는 동기간 4.0% 감소하여 어가의 부채상환능력이 조금이나마 개선되고 있다.

03

어촌 사회구조의 변화 방향

어업인력 및 어가인구가 적정규모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촌지역 내의 인구유지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는 어업부문의 발전전략만으로는 용이하지 않고 지역정책의 수반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한 몇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어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의 지역인구가 존재해야 하는데, 이는 어업정책만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 지역 활성화 정책을 병행해야만 달성이 가능하다. 어업인구 및 노동력은 어촌지역 거주자의 인적자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어촌지역 인구의 유지는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어업인력 확보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어업인력 확보 및 육성은 어촌지역의 활성화와 연계가 필요하고 어촌지역의 활성화가 수반되지 않는 어업인력 육성책은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는 인식의 확립이 시급하다.

둘째,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부존자원과 고용흡수 능력 및 지역경제 승수효과가 뛰어난 어촌관광관련 산업, 수산가공업, 수산물 도·소매업체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은 지역의 일반경제 및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어업부문의 몰락을 방지할 수 있는 적극적 정책수단이기도 하다. 어촌지역 비어업부문의 발전과 어업의 소득원 개발, 그리고 어촌지역 SOC 투자 등이 병행되지 않고서는 어촌지역 및 어가 인구 감소는 물론이고 지역인력 또한 감소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의 소멸을 맞을 수도 있다. 셋째, 지역 단위의 허브를 구축하여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다. 지역 간 인구이동의 요인 중의 하나가 지역 네트워크 효과이다. 경제적 유인이 우월하다고 할지라도 지역연고, 목적지의 친척 유무, 가족관계 등 경제적 변수 외의 지역 네트워크 효과가 유의적일 뿐만 아니라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지역의 중심도시(hub) 개발에 초점을 둔 지역 균형개발 전략은 어촌지역 인구 유출 억제에 효과적이다.

넷째, 장기적으로 지역 어업인력의 확충을 위한 어업진입 장벽의 완화도 필요하다.

04 맺음말

어촌지역은 고유한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환경과 조화된 생활이 가능한 국토공간자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어업의 고부가가치 실현과 어업 이외 부문의 새로운 고용 창출을 통해서 미래의 쾌적한 생활공간으로서의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뿐만 아니라 교통·통신 등의 물리적인 인프라 시설, 그리고 사회·교육·문화 등 다양한 부문에서 생활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점차 증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어촌과 어업, 어민 대책은 단순한 경제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 경제정책을 포함한 지역개발, 사회복지정책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어촌지역의 정주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이를 국토정책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개선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또한 어촌지역 개발에 대한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요구도 점차 증대하고 있으므로 정책의 추진 방식도 시급하게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